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박병기

윤혜진

김국현

정준교

황성규

박창수

김동창

이철훈

(주)지학사

머리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생각을 통해 결정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한다. 물론 가끔 별 생각 없이 행동할 때도 있지만, 그 행동이 잘못될 경우에는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행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한다.

만약 우리가 친구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어려움은 나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서로 특별한 잘못이 없는 데도 상대방의 뜻을 잘못 받아들여서 생긴 것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먼저 나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없었는지 반성하면서 불편해진 마음을 잘 다스리며 대화를 시도해 보는 노력을 하다 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윤리(倫理)'라는 말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윤리란 우선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 가는 바람직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이 윤리가 이제는 사람들 사이의 만남을 넘어서서 동물이나 자연과의 만남에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윤리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펼쳐 가는 모든 관계를 바람직하게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인 기준인 셈이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누구나 이런 윤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점에서 보면 가질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그 윤리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아예 윤리에 덜 관심을 갖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생겨난다. 그렇게 서로 충돌하는 윤리의 기준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윤리에 관심이 별로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말로 그를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은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윤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학문의 주요 관심사였다. 동양의 맹자나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늘날 윤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학문의 기반을 닦은 이래로 2000년 이상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왔다. 한편으로 그 윤리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면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학 같은 학문의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다. 윤리와 관련된 이러한 모든 관심과 논의가 체계성을 갖추게 되면서 윤리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그렇게 보면 윤리 사상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면서 지켜야 하는 공동의 규범과 그 구성원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하는 기준에 관한 학문적 논의와 역사적 검증을 거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되어 전해지고 있는 윤리 사상이 스마트 기기로 대표되는 첨단 정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

이러한 물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서양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을 함께 공부하는 일은 우선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부족한 우리에게 여유로움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나 자신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로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세계화 시대를 맞아 내가 속한 가정과 국가, 지구촌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사색의 시간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선생님의 인도를 길잡이로 삼아 진지하면서도 즐거운 여정을 함께 만들어 가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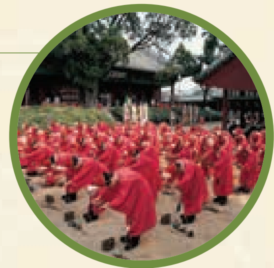
지은이 씀

차례



Ⅰ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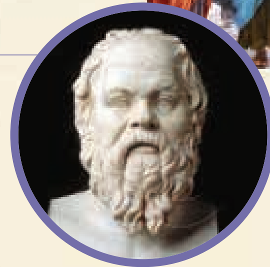
Ⅱ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III 서양 윤리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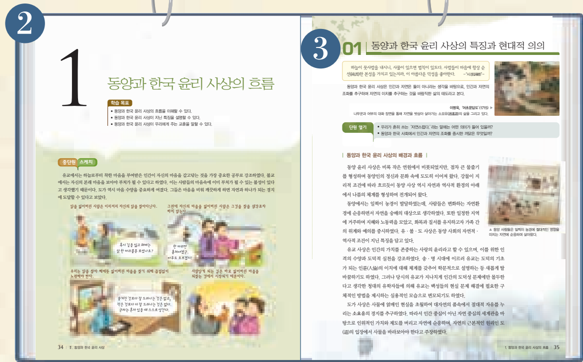
IV 사회사상

이 책의 구성과 특징



❶ 대단원 개관

대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을 포괄적으로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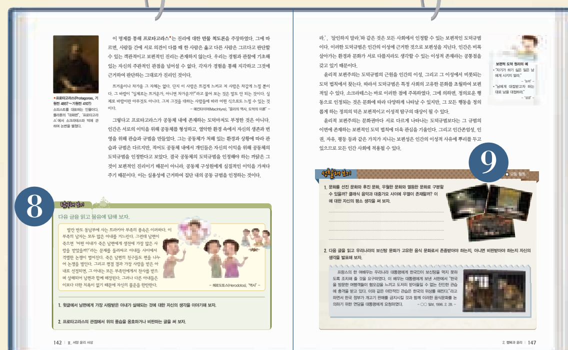


❷ 중단원 개관

학습 목표와 함께 만화, 사진, 명화 등을 적절히 제시하여 중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에 대해 미리 짐작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❸ 소단원 도입

명언, 만화, 실생활 사례, 고전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단원 열기'에는 간단한 질문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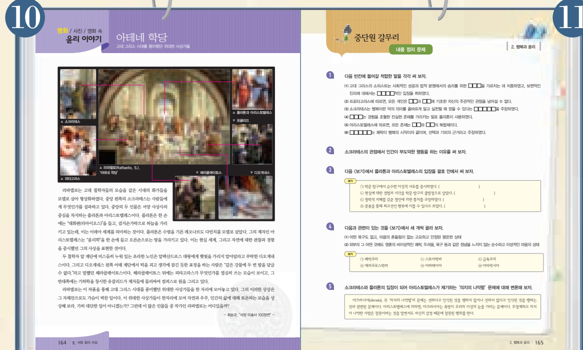


❽ 탐구해 보기

도덕적 탐구 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체화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❾ 성찰해 보기

본문과 관련된 심화 학습 자료나 논쟁적 문제를 제시하고 개별 활동이나 모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❿ 명화/사진/영화 속 윤리 이야기

중단원과 관련된 명화, 사진, 영화 등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며, 학습적인 효과가 큰 자료를 선정하여 알찬 교과서가 되도록 하였다.

⓫ 중단원 갈무리

중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단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학생들로 하여금 삶에 윤리와 사상이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서양의 윤리 및 사회사상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하여 한국 윤리와 사상의 기본 틀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둔 교과서로서, 교육 과정에 맞추어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④ 기초 개념 탐구

윤리 공부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개념 이해의 부족임을 간파하여,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개념을 상세하게 풀이하였다.

⑤ 한 토막 이야기

지루한 본문을 읽다가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곳으로서, 너무 깊이 있고 전문적인 이야기보다는 사상 또는 사상가와 관련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읽기 자료를 수록하였다.

⑥ 참고 자료

본문에서 다루는 관련 내용을 심화·보충할 수 있는 곳으로, 본문 외에 더 알아야 할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⑦ 사진/삽화/용어 설명

사진과 삽화를 적재적소에 수록하고, 어려운 용어를 자세히 풀이하여 본문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⑫ 인물과 고전을 말하다

중단원별로 관련된 사상가의 생애와 저서, 핵심 사상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앞서 학습한 본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⑬ 부록: 동서양 윤리 사상 한눈에 보기

동서양 윤리 사상가의 핵심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동안 수능이나 모의 학력 평가에서 자주 인용되었던 자료를 수록하였다.




東
部
農

I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의의

1. 인간의 삶과 윤리 및 사회사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새로운 문제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과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올바른 삶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이 우리 삶에서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고,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에 대한 탐구 방법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인간의 삶과 윤리 및 사회사상

학습 목표

-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요소 중 하나인 윤리 · 도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사회사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 다양한 이상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회사상과 이상 사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중단원 스케치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본질적 특징과 인간의 삶에 윤리 사상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고,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추구되는 이상 사회가 인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살펴보자. 나아가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이 우리 일상생활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탐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01 인간의 삶과 윤리 사상



단원 열기

-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은 참 인간답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 삶에 윤리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인간의 본질과 특성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자신이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인지, 유능한 사람인지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하며, '좀 더 인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기도 한다.

그렇다면 인간다움이란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성을 기준으로 인간다움을 평가하고자 하는데, 그 특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학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어떤 학자는 인간의 도구 사용 능력을, 어떤 학자는 인간의 언어 사용 능력을, 어떤 학자는 이성을 가진 인간의 사유(思惟) 능력을 그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인간은 도구와 언어 사용 능력, 사유 능력 등에서 동물과 구별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도 도구를 사용하고, 그 나름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능력이 실제로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즉 인간만의 본질이라고 여겨져 왔던 것이 더 이상 인간만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만이 갖고 있는 본질은 무엇일까?



▲ 도구를 이용하는 침팬지의 모습







▲ 인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인간의 의식이나 행동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그러한 삶은 우선 의식주 문제가 보장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의식주의 충족은 행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 행복한 삶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지향하는 삶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올바름과 선을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적 가치, 성스러움과 초월을 추구하는 종교적 가치 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면서 비로소 인간은 동물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도덕적 가치를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할 때 인간다움이라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은 동물이면서 동물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해석

사람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사실은 올바름과 선, 아름다움, 성스러움 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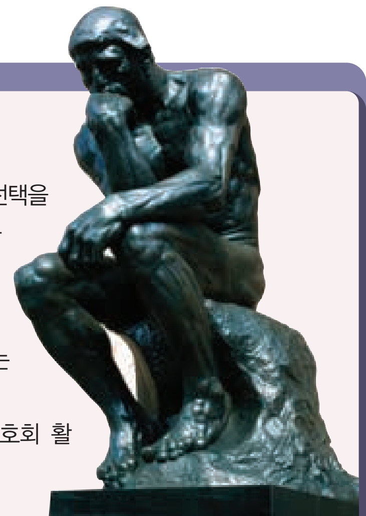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러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삶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옳음을 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옳지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아름다움이 내재

참고 자료

인간의 특성

인간은 동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성적 존재로서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판단과 선택을 하며, 스스로 가치를 추구한다. 인간은 이성의 힘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 나아간다. 다음은 이성을 가진 인간의 특성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 **도구적 존재**: 인간은 칼, 망치 등과 같은 유형의 도구에서부터 언어, 법률, 사상, 제도 등과 같은 무형의 도구를 만들어 생활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일부의 동물도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유희적 존재**: 인간은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 음악 감상 · 동호회 활동 · 연극 감상 등 생활에 활력을 주는 활동도 한다.
- **사회적 · 문화적 존재**: 인간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가며, 사회 속에서 언어 · 지식 · 기술 · 예술 등을 배워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한다.
- **윤리적 · 정신적 존재**: 인간은 정신적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삶과 행위에 대해 성찰하며, 인간다움과 의미를 추구한다. 이러한 특성은 인간을 종교적 존재로 이끄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로댕(Rodin, A., 1840~1917), '생각하는 사람'

된 일상생활을 꿈꾸면서도 실제로는 이와 거리가 먼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한편,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성스러움의 가치는 각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로 바뀌면서 쉽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삶을 구현하고자 할 때 분명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인간다움을 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 옳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인간다움을 추구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그가 한 행동의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할 수 있고, 평소에 그가 어떤 품성을 지닌 사람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할 수도 있다. 또한 평가 기준은 문화권이나 각 개인의 가정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평가 기준이 다르면 같은 행동에 대한 평가나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간학
인간의 본성에 관한 탐구를 시도하는 학문으로, 철학 분야에서 접근하는 '철학적 인간학'이 가장 잘 정립되어 있다.
최근에는 이 외에도 뇌 과학, 신경 과학 분야 등에서 인간의 고유성을 탐구하는 융합 학문적 성격의 인간학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성찰해 보기

 개별  모둠 활동

다음 글에서 고자, 맹자, 순자는 각각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고자(告子)는 "본성은 갇힌 채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른다. 사람의 본성에 선함과 선하지 않음의 구분이 없는 것은 물에 동쪽과 서쪽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였다. 맹자(孟子)는 "물이 동쪽과 서쪽의 구분이 없지만, 위와 아래의 구분도 없겠는가?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과 같다. 사람은 선하지 않음이 없고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다. 이제 물을 쳐서 튀어 오르게 하면 이마보다 높이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 물을 역류시키면 산 위로도 올라가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외부의 힘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사람도 선하지 않은 짓을 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성질은 물의 경우처럼 외부의 힘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맹자" –

(나) 굽은 나무는 반드시 댈 나무를 대고 쪄서 바로잡은 뒤에야 곧아지고, 무딘 쇠는 반드시 숫돌에 간 뒤에야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사람의 악한 본성은 반드시 스승과 법도의 가르침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다스려진다. – "순자" –

1. 위의 (가)에 등장하는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고, 각각의 관점이 인간을 파악하는 데 어떤 차이를 초래할 것인지 발표해 보자.

2. 위의 (가)에서 맹자가 제시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을 근거로 하여 (나)의 주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해 보자.

3. 최근에 자신이 직접 접해 본 소식 중 인간의 본성과 연결할 수 있는 일을 떠올리면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



인간은 다양한 경험과 성찰 과정 속에서 자신이 받아들인 윤리적 기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예컨대 같은 행동에 대해 나와 다른 윤리적 해석을 하는 친구와 대화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자신이 겪어 보지 못한 선생님의 경험에 대해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한다. 더 나아가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도덕성이 인류 공통의 내면적 특징임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처럼 **윤리**는 인간다움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문화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는 관용의 자세가 요구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모든 행동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도덕은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을 전제로 해서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은 자신의 의지로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율적인 인간이다. 다시 말해 시민의 도덕성은 한 개인의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욕구를 잘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구체화된다.

한 토막 이야기

윤리가 먼저요!

독일의 시인 · 극작가 · 연출가이기도 한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는 '서 푼짜리 오페라(Three Penny Opera)' (1928)라는 작품을 통해 이름이 알려졌다. 이 작품은 당시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를 잘 표현해 주는 대사가 '먹는 것이 먼저이고, 윤리는 나중이요!'이다. 그러나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윤리가 먼저요!'라고 새롭게 외칠 필요가 있다.

– 조한욱, "역사에 비친 우리의 초상" –



▲ '서 푼짜리 오페라'의 한 장면

우리 삶에서 윤리 사상이 필요한 이유

현대인은 윤리를 도덕성과 거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때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은 한 개인의 주관적 행동과 그 안에 포함된 의도가 보편적 도덕 법칙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윤리는 개인적 차원에서든지, 아니면 집단적 차원에서든지 간에 한 행위 주체의 실천 행동을 판단하는 원리인 셈이다. – 바디우(Badiou, A.), "윤리학" –


▲ 바람직한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윤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윤리 사상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윤리 사상은 그 자체로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추상적인 이론과 내용을 접하다 보면 그것이 도대체 실제의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윤리 사상은 윤리와 관련된 다양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체계화하여 모아 놓은 결집체라고 할 수 있다. 윤리 사상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옳은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무엇인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과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람직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와 같은 좀 더 철학적인 주제에 대한 답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윤리 사상은 본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가 축적되면서 형성되다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깊이와 차원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축의 시대***라고 불리는 기원전 5, 6세기 무렵, 동양에서는 공자와 석가모니가 출현하였고, 서양에서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문화권에서 축적해 온 전통적인 삶의 지혜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동시에 새로운 삶의 지혜를 제시하였는데, 그

***축의 시대(axial age)**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Jaspers, K.)가 제시한 문명사적 개념이다.
지구 곳곳에서 인류 문명사의 주요 사상과 여러 사상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를 가리킨다.



▲ 공자 ▲ 석가모니 ▲ 소크라테스

것은 각각 유교와 불교, 그리스 철학과 같은 형태로 정립되어 동서양 윤리 사상의 시원(始原)을 이루었다.

동서양의 윤리 사상은 올바르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일부 윤리 사상의 경우 수천 년 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윤리 사상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 없는 것처럼, 완벽한 윤리 사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윤리 사상은 그 사상이 출현하던 시기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 구조적 상황에서 형성되어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윤리 사상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특정한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윤리 사상이 지닌 보편성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사상이 형성된 시대적 배경 등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윤리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아실현과 행복을 이룰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윤리 사상을 공부하면서 올바르고 바람직한 삶의 지혜를 제대로 찾아내려면 먼저 윤리 사상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윤리 사상이 지금 나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고 내 삶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탐구해 보기

다음 글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주장을 찾아 제시한 후, 그 주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도덕적 사태들을 언급하면서 그 주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해 보자.

- 자신의 현재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성찰하는 삶은 인간만의 고유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러한 성찰의 시간과 기회를 지속적으로 빼앗아 가고 있다.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챙겨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포기하면 인간의 고유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 시대마다 그 시대에 나타난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21세기는 우울증 같은 신경증적 질환이 주요 질병으로 부각된 '신경증적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것은 지나친 긍정과 모든 것을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성과주의의 압박이 가져온 결과이다. – 한병철, "피로 사회" –



02 이상 사회의 구현과 사회사상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이상 사회의 형태에는 코케인, 아르카디아, 천년왕국, 유토피아 등이 있다.

코케인은 가장 환상적인 곳으로 꿀과 포도주의 강물이 넘쳐흐르고,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과 충족되지 않는 욕망이 없으며, 끝없는 쾌락과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아르카디아는 목가적 이상향으로 무절제한 쾌락을 추구하는 코케인과는 달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인간의 욕망이 절제되어 있는 곳이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교에서 일컫는 것으로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천 년 동안 다스릴 것이라고 믿는 이상향이며, 유토피아는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고 사회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이상 사회이다.



▲ 크라나흐(Cranach, L., 1472~1552),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

단원 열기

- 내가 생각하는 이상 사회는 어떤 것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인간이 이상 사회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회사상의 필요성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다. 물론 동물 중에서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 떼를 지어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사회생활이나 인간이 이루고 있는 다양한 사회 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것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비로소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으며, 사회를 떠난 개인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자는 야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과 같은 존재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

사상은 다양한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활동 또는 사회적 실천과 그로 말미암은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산물이다. **사회사상**이란 인간이 더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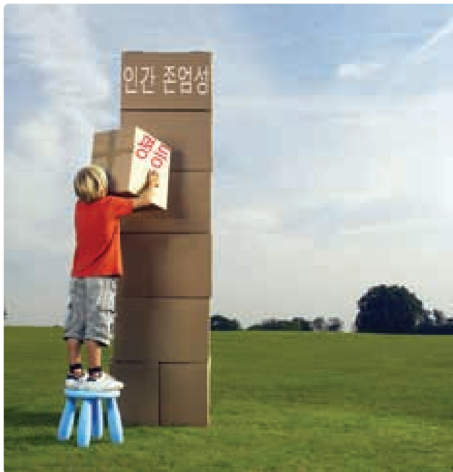
기초 개념 탐구

인간의 사회성

사회성이란 공동체에서 서로 어울려 생활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을 말한다. 이는 곧 인격, 또는 성격 분류에서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로 사회에 적응하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 대인 관계의 원만성 등을 일컫는다. 좀 더 풀어 보면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여 집단과 공공의 이익을 생각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사회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 가치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

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고자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갖게 되는 일련의 체계적인 사고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사상은 인간이 처해 있거나 관심을 가지는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인간이 사회 활동에 대해 내린 평가나 사고방식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사회사상은 그 사회의 양태, 사회 발전과 행복한 삶 등에 대한 바람직한 모습을 체계적인 생각이나 태도로 제시하여 인간의 사회적 삶에 대해 일관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인간은 누구나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가 더 바람직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바람직한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평등과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일 때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에 문제가 존재한다면 사회사상을 통해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이상 사회에 대한 생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사상과 사회 구성원의 올바른 사회 인식은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추구해 온 이상 사회는 사회사상 속에 반영되어 있다. 사회사상은 자신이 처한 입장이나 경험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관적이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또한 다양한 견해를 가진 구성원 간에 대립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나아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탐구해 보기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다음은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글이다. 인간의 사회성은 이기주의를 거부하게 한다. 도둑질이나 사기와 같은 행위가 죄악으로 간주되는 것은 당하는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간이 이기적 행위를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특성 때문일까?

- 내가 살았던 세계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절망과 죽을듯한 공포도 점차 증가되었소. 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천 년의 천 배를 더한 해가 지나갈 동안 우주의 지경(地境)을 넘어 나아간다 해도 여전히 무한한 암흑의 심연만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소. 이러한 당혹감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 현실의 물체들을 향해 손을 뻗을 때 나는 깨어났소. 이제 나는 인류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소. – 칸트, "관찰들" –
- 인간은 행동뿐만 아니라 의식까지도 사회와 다양한 연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화 과정 속에서만 진정한 자신을 실현해 나아가는 존재이다. 즉 인간은 사회 공동체가 요구하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사회적 주체이다. – 이종훈 · 한면희, "현대 사회와 윤리" –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



▲ 걸스타인(Gerstein, D., 1944~), '5번가 B'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사회를 이룩하려면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은 저마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인가를 평가하는 올바른 기준이 필요한데, 바로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윤리 사상은 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영역에서, 사회사상은 정치적 · 사회적 영역에서 인간의 가치 판단과 사회적 행동에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현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상호 의존성을 지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윤리 사상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제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사회사상은 사회 구성원에게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을 유지하고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이것에 대한 실천을 통해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또한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임을 전제로 한다. 윤리 규범이나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사상을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구성원들은 사회에 소속감을 가지게 되며, 결국 사회의 유대도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 정치적 동물이라고 보면서, 참다운 덕이나 행복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속에서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양의 유학 사상도 개인적인 수양을 통해 덕을 갖춤으로써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유학의 관점

"대학(大學)"에 나오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강조한다.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하도록 심신을 닦아 인격을 수양한 후[修身],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고[齊家], 나라를 바르게 다스린다[治國]. 자신이 닦은 덕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누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세상이 평안해진다[平天下]."

참고 자료

8조법(八條法)의 사상적 의의

고조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8조법을 만들어 엄격하게 법을 시행하였는데, 지금은 3개 조항만이 전해져 오고 있다.

-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치러야 한다.

8조법을 통해 고조선이 사람의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하고, 사유 재산을 인정하였으며, 노비가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제시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으로서의 법 정신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만 윤리 사상이 주로 자율적 원칙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비해, 사회사상은 그 이상을 실현하고자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사상에 담긴 이상 사회의 모습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이상향을 꿈꾼 것은 현실의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비록 실현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꿈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따라서 인간이 제시한 이상 사회의 모습은 비록 상상의 산물이지만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과 미래에 대한 인간의 열망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에서 내세우는 사후 세계나 여러 사상가가 이루고자 했던 세상도 결국 현실이냐 내세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보다 더 나은 세상이라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역경 속에서도 살고자 하는 야생화처럼, 인간은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이상향을 꿈꾼다.

성찰해 보기 ☐ 개별 ☑ 모둠 활동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해 보자.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를 떠나 존재할 수 없고,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개인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이 우선인지 사회가 우선인지에 대한 입장은 아주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평범하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주장은 '나'는 타인과의 관계라는 그물망 속에서 그 존재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관계를 모두 끊어 버리고 순수하게 '나'에게 속해 있는 것, 순전히 '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라. 언뜻 생각해 보면 내 주위의 많은 사물이나 사건이 순전히 '나'에 의해서 이룩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순전한 나(의 것)'는 일종의 환상임을 어렵지 않게 깨닫는다.
>
>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가 속한 국가와 문화, 정치적 영향, 경제적 측면, 시대정신 등을 벗어나서 사고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가 전혀 무의미하다는 주장과 동일하게 쓰일 수 없다.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영향과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동적 존재이지만, 사고와 판단, 행위를 통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동적 존재이기도 하다. – 고정식, "웃기는 철학" –

1.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중 어느 주장을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해 보자.

2.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각각 무엇인지 비판해 보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등장했던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사상이나 현대에 등장한 수많은 **이데올로기***도 결국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세상을 추구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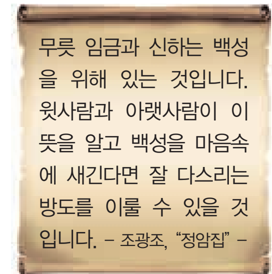
공자는 대동(大同) 사회를, 노자는 소국과민(小國寡民) 사회를 이상 사회로 추구하였다. **대동 사회**는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도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또 병들고 소외된 계층이 잘살 수 있으며, 노인과 어린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이다. **소국과민 사회**는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예(禮)와 같은 인위를 거부하고, '작은 나라와 적은 백성'을 지향하는 사회이다.


▲ 조광조(趙光祖, 1482~1519)

조선 중종 때 조광조는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백성이 수양을 통해 인륜과 의리를 구현하고, 성리학적 이념이 온 나라에 두루 미치는 도덕적 이상 사회를 실현하고자 **도학 정치***를 제시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국가의 구성원을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세 계급으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각각의 합당한 덕이 있음을

***이데올로기(Ideologie)**
넓은 의미로 볼 때 인간과 사회에 관한 인지적이고 규범적인 행동 지향적 신념 체계를 가리킨다.


무릇 임금과 신하는 백성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이 뜻을 알고 백성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잘 다스리는 방도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조광조, "정암집" –

***도학 정치(道學政治)**
유교를 정치와 교화의 근본으로 삼아 이상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를 가리킨다. 조광조는 이를 위해 왕이나 관직에 있는 자들이 몸소 도학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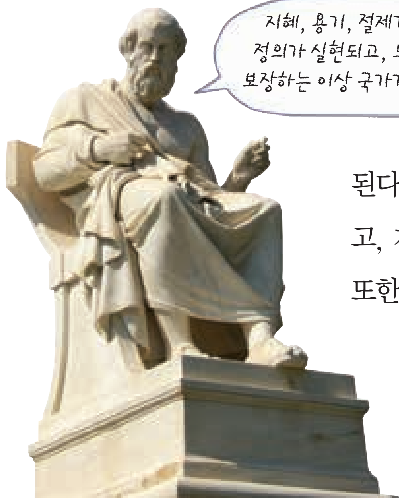
참고 자료

안평 대군이 꿈꾼 이상향, '몽유도원도'

몽유도원도는 안평 대군이 한밤중에 박팽년을 비롯한 당시의 신하들과 함께 복숭아밭에서 놀던 꿈속의 광경을 화가 안견에게 전하여 그리게 한 것이다. 꿈 이야기에는 보통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이 그림에는 사람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안견(安堅, 1418~1452)은 무릉도원을 수묵 담채로 표현하였다.

그림은 왼편 하단부의 현실 세계에서 오른편 상단부의 도원 세계로 전개된다. 구도상으로는 부분적으로 독립된 경관을 나타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룬다. 현실 세계와 달리 도원 세계는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그려냈다. 이 작품은 안견이 안평 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중국의 도연명(陶淵明, 365~427)이 쓴 "도화원기(桃花源記)"를 근거로 하여 그린 것으로, 세속을 떠난 이상향을 이야기할 때 언급된다. 이는 전란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피해 갔던 곳이지만 다시는 찾아갈 수 없는 이상향을 말한다.



▲ 플라톤(Platon, 기원전 427?~기원전 347?)

주장하였다. 그는 도덕적 선에 관한 지식을 지닌 철인(哲人)이 통치하고, 각 계급의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해당하는 덕을 잘 발휘하여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토머스 모어는 특정 계급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계급과 신분에 따른 차별이 철폐된 이상 사회로 **유토피아**(Utopia)를 제시하였다. 또한 베이컨은 과학 · 기술의 문명을 통해 이룩되는 **뉴 아틀란티스**(New Atlantis)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면서 인간의 지식과 기술, 과학 문명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였다. 19세기에 마르크스는 계급과 사유 재산이 철폐된 **공산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많은 사상가가 제시한 이상 사회의 모습은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 평등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 도덕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상 사회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늘 인간의 마음속 깊이 존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더 나은 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바람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토피아의 의미처럼 이상 사회는 현실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실현될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지만 인간은 이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다.

참고 자료

과학 기술자들이 지배하는 신비의 섬, '뉴 아틀란티스'

"뉴 아틀란티스"는 베이컨의 이상이 담긴 일종의 유토피아 소설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으로 항해하던 배가 항로를 잃고 헤매다 발견한 벤살렘 왕국은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국가이다. 또한 당시 왕국이 누리던 행복과 복지가 더 이상은 향상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타국과의 교류가 금지되었던 고립된 섬나라이다.

이곳에는 마치 왕과 같은 위세를 지닌 학술원 회원들이 연구하는 '솔로몬의 집'이라는 실용적 성격의 연구 기관이 있는데, 왕국의 학술원 회원들은 사물을 응고시키거나 냉동 보관하는 데 이용하는 곳, 즉 하부 세계라고 부르는 동굴에서 다양한 재료를 혼합해서 새로운 금속이나 물질을 만들고, 상부 세계라 부르는 높은 탑에서 별의 운행과 바람, 비, 눈 등을 관찰한다. 그 밖에도 온갖 종류의 빛과 색채를 실험하는 연구실, 향기 · 음향 · 수학 연구실, 다양한 나무와 약초의 성장에 적합한 토양을 연구하기 위한 과수원, 동물을 해부하고 실험하여 인체의 비밀을 밝혀내고자 하는 동물원도 있다.

이 책에서 베이컨은 '솔로몬의 집'의 설립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 학술원의 목적은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 "왕립 학술원의 역사" 표지화
오른쪽에 자리 잡은 베이컨은 왼손으로 다양한 실험 기구들을 가리키고 있다.

아나톨 프랑스*는 “다른 시대의 유토피아인이 없었다면 인간은 아직도 동굴 속에서 발가벗은 상태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유토피아는 모든 진보의 원리이자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시도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이상 사회에 대한 인간의 희망과 노력은 인류가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상 사회는 대부분 실망스러운 현실을 바탕으로 생겨난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지나친 부정은 이상 사회에 대한 집착과 그릇된 사회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상 사회의 실현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독선으로 흘러 독재 정치와 전체주의적 질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상 사회가 지니고 있는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아나톨 프랑스(France, A., 1844~1924)
프랑스 출신의 소설가 겸 평론가이다.

성찰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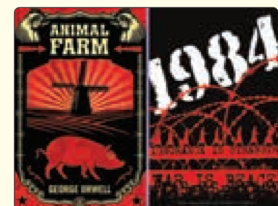
□ 개별 ☑ 모둠 활동

“디스토피아의 현실이 없었다면 유토피아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다음에 주어진 디스토피아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해 보자.

디스토피아(dystopia)는 유토피아(utopia)에 ‘나쁜, 곤란한, 통증이 있는’을 뜻하는 영어의 접두사 ‘dys’를 붙여 만든 단어이다. 이는 유토피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극단화된 암울한 미래상을 가리킨다.

디스토피아는 1868년 밀(Mill, J. S.)이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토지 정책을 비난하면서 사용한 데서 유래하였다. 유토피아와는 달리 그 구성원의 삶의 조건이 비참한 경우가 많으며, 빈곤 · 억압 · 폭력 · 오염 등의 다양한 이유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행복한 세상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유토피아인 곳이 다른 사람에게는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다.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소설과 영화가 이러한 내용을 소재로 다루어 왔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나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 “1984”와 같은 소설이나 ‘브라질’(1985), ‘데몰리션 맨’(1993), ‘가타카’(1997), ‘헝거 게임: 판엠의 불꽃’(2012) 등의 영화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 소설 “동물 농장”과 “1984” 표지



영화 ‘데몰리션 맨’의 한 장면 ▶

1. 디스토피아와 관련된 소설이나 영화를 보고, 그 속에 나타난 디스토피아적 요소를 조사하여 대안을 발표해 보자.

2. 이상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각각 찾아 발표해 보자.

03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에 대한 탐구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라는 말이 있다. 본래 기상을 관측한 자료를 통해 언급되기 시작한 말인데,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있었던 아주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불러온다는 이론이다. 예컨대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강력한 회오리바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나비 효과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디지털과 매스컴 혁명으로 정보의 흐름이 매우 빨라지면서 지구촌 한 구석의 미세한 변화가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단원 열기

- 나 자신이나 친구의 말과 행동이 일파만파로 번져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적이 있는가?
- 윤리 사상이나 사회사상이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찾아 제시해 보자.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이 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끼치는 영향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과 결단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윤리적인 입장이 반영된다. 그런데 개인의 가치관이나 입장은 대부분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상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므로, 개인의 도덕적 성숙은 공동체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결국 인간이 선택하고 행하는 다양한 행위는 그 개인이 속한 윤리 사상이나 사회사상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 다음 글은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참고 자료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 니부어(Niebuhr, R., 1892~1971)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상, 개인은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 또한 개인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사회 구조가 비도덕적이라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다. 공동선과 개인적 선이 결코 분리되어 논의되거나 배타적으로 정립될 수는 없으며, 개인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만큼 공동선과 개인적 선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니부어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도 사회 내의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 이기주의자로 변한다."라고 하면서 개인이 선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이념을 제창하였으나 오히려 절대적 빈곤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사회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사회 복지 국가라는 이념 아래 공동선과 개인적 선을 조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 박종대 · 이태하 · 김석수, "현대인의 삶과 윤리" –

한 중국인 가족이 라틴 아메리카 출신인 폰테스 씨 가족의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 어느 날 오후 중국인 가족은 떠들썩한 파티를 열었다. 많은 사람, 시끄러운 말소리, 울려 퍼지는 음악, 뱀 피리 소리……. 폰테스 씨 가족은 이 모든 소란과 소음이 성가셨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만 낮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려고 이웃집으로 갔다. 중국인 가족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그러나 중국인 가족이 할머니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고 말하자 폰테스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에게는 그 행사가 너무 무례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통 장례에 따르면, 친척이 한곳에 모여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것은 가족에게 닥칠지 모르는 액운을 멀리 쫓아버리고자 하는 의식이라고 한다.



이 사례를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장례식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는 무례하고도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중국인의 장례식에 동반되는 시끌벅적한 의식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가족의 앞날을 보호하기 위한 징표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식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배척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윤리 사상은 사회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로 다른 도덕적 가치관을 지닌 집단의 구성원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탐구해 보기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

화이트(Whyte, W. H., 1917~1999)는 "조직 인간"이라는 책에서 "조직의 요구는 강력하고 끊임없다. 조직 생활에 빠져 있을수록 조직의 요구에 저항하거나 그 요구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조직에 굴복해야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출간 5년 후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 전범 아이히만(Eichmann, K. A., 1906~1962)의 재판은 '조직 인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 잡지사의 특파원 자격으로 이 재판 과정을 취재한 한 기자는 아이히만이 유대인 학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의 타고난 악마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고력의 결여' 때문이며, 그는 평범한 가장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모범적 시민이었다고 주장하였다. – 강준만, "한국 생활 문화 사전"–


▲ 아이히만 재판 모습

1. 아이히만은 그가 속한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명령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일까?(예□, 아니요□) 그 이유를 말해 보자.

2. 만일 아이히만이 조직에 속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생각해 보자.

이처럼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개인의 판단이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나 관습, 제도, 규범 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탐구**
어떤 가설이나 신념을 입증하고자 정보 수집, 질문 제기, 자료 조사, 이론 검토 등을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이론의 획득 · 정립을 위한 지적 노력이나 그것에 수반되는 활동을 뜻한다.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에 대한 탐구 방법의 특성

모든 학문과 사상은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앎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도 어떻게 공부하고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특히 사상이나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연구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어떠한 방법으로 **탐구***해야 할까?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을 탐구하는 방법으로는 경험적 탐구와 규범적 탐구를 들 수 있다. **경험적 탐구**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나 이론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탐구 방법으로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에 비해 **규범적 탐구**란 당위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을 연구하는 실천적인 탐구 방법으로 가치의 추구나 평가, 원리 등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경험적 탐구를 통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 사상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사실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좀 더 확고한 지지를 받을 수

성찰해 보기

□ 개별 ☑ **모둠 활동**

다음은 사회사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을 나열한 것이다. 읽고 주어진 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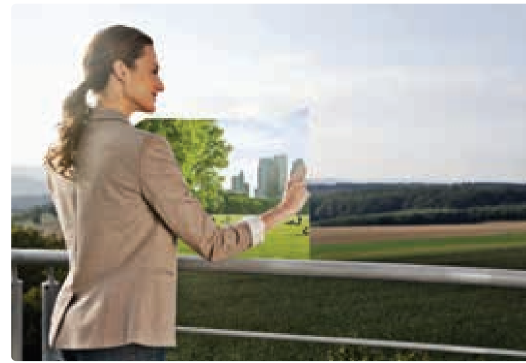
- 인간은 복잡하고 가변적이어서 언제나 연구자의 의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 인간은 자신이 연구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은 완전하지 못하다.
- 인간과 관련된 연구는 연구 대상이 도덕적 · 규범적이며, 연구를 위한 문제를 선정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 사회사상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발표해 보자.

2.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사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그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녀야 할 학문적 태도에 대해 토론해 보자.

있다. 그러나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현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삶과 이상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규범적 탐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이러한 바람직한 삶과 이상 사회에 대한 청사진은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 안에 포함된 가치를 통해 구체화된다. 가치란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나 의도로 이해될 수 있으며, '마땅히 해야 하는' 당위와 관련된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어떤 사상이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판단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바람직한 삶과 이상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현대 사회에서는 예술, 직업, 환경, 정치, 경제, 정보,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윤리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응용해서 윤리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윤리적 행위란 자신이 올바르게 생활하는 것과 함께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행복이나 불행에 공감하는 자세를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예술적 감수성이나 과학이 지닌 합리성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예술적 가치를 무시하고 창조성을 억압하거나, 과학을 근거 없이 부정하고 또 배척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윤리설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어느 한 가지만이 옳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개인의 윤리와 사상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가치와 행동만이 옳다는 독단적인 의식을 버리고,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충고를 너그럽게 수용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개선하고자 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처럼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이론적 탐구 과정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 과정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토론 과정 속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실천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르카디아(Arcadia)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오지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축복과 풍요의 이상향(理想鄕)



1편(1629~1630)



2편(1637~1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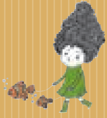
푸생(Poussin, N., 1594~1665), '아르카디아의 목자들(The Arcadian Shepherds)'

'아르카디아의 목자들'은 아르카디아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평원을 배경으로 돌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4명의 인물이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1편에서는 죽음이 어디에나 있다는 깨달음에 집중하고자 인물들을 전경의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무덤 위의 해골은 아무도 죽음을 피해 갈 수 없음을 그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2편에서는 양치기로 보이는 세 남자 중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에 새겨진 글을 해독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이 글귀를 가리키며 옆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돌아보고 있다. 여인은 맞은편의 목동과 같이 우수에 찬 표정으로 묘비를 내려다보고 있다.

묘비에는 라틴 어로 "나도 아르카디아에 살았던 적이 있다(ET IN ARCADIA EGO)."라고 씌어 있다. 이 말은 '나, 죽음은 아르카디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현실과 마찬가지로 이상향에도 죽음은 어김없이 존재한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적인 낙원 아르카디아는 밝고 충만한 삶의 에너지만으로 채워진 곳이 아니라, 현실과 마찬가지로 좌절과 상실, 사랑과 절망, 죽음 등이 함께한다.

1편에서는 목동들이 해골을 직접 목격하는 현장을 보여 주어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2편에서는 이야기의 전개를 사실적으로 보여 주지 않는 대신에 죽음의 메시지를 숨겨 같은 주제를 좀 더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아르카디아의 정적인 장면에 집중하여 전체적인 분위기 역시 평온한 세상의 서정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이상향을 향한 인간의 희망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푸생은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순간순간을 겸허하게 살라는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중단원 갈무리

내용 정리 문제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써 보자.**

(1) □의 □□라고 불리는 기원전 5, 6세기 무렵 동양에서는 공자와 석가모니가, 서양에서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였다.

(2) □□□□이란 인간이 더 나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고자 개인이 처한 사회에서 갖게 되는 일련의 체계적인 사고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3)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상호 의존적인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우선 □□□□ 삶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 □□임을 전제로 한다.

(4) 조광조는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백성이 수양을 통해 인륜과 의리를 구현하고, 도덕적 이상 사회를 구현하고자 □□ □□를 제시하였다.

(5) 현실에 대한 지나친 부정은 이상 사회에 대한 □□과 그릇된 사회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상 사회의 실현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독선과 □□□□적 질서를 초래할 수도 있다.

(6)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 탐구와 □□□ 탐구를 들 수 있다. □□□ 탐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나 이론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탐구 방법으로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에 비해 □□□ 탐구는 당위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을 연구하는 실천적인 탐구 방법으로 가치의 추구나 평가, 원리 등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 **다음은 이상 사회에 대한 설명이다. 관련 있는 사상가를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

(1) 기술과 과학 문명을 통해 이룩되는 '뉴 아틀란티스'

(2) 계급과 사유 재산이 철폐된 공산 사회

(3)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백성이 자기 수양을 통해 인륜과 의리를 구현하는 이상 사회

(4)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철인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상 국가

(5) 인위를 거부하고 인간 본연의 본성을 회복할 것을 강조한 소국과민 사회

보기

㉠ 공자 ㉡ 마르크스 ㉢ 베이컨 ㉣ 노자 ㉤ 플라톤 ㉥ 조광조 ㉦ 토머스 모어

3 **다음 내용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해 보자.**

(1)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물질적 가치, 도덕적 가치, 미적 가치, 종교적 가치 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2) 이상 사회는 실망스러운 현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 사회에 대한 인간의 희망과 노력은 언제나 좌절만을 가져다주었다.

(3)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이론적 탐구 과정뿐만 아니라 실천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토머스 모어와 "유토피아(Utopia)"



"유토피아"는 토머스 모어(1477~1535)의 정치적 공상을 담은 이야기 형식의 저서로서 라틴 어로 쓰여졌다. 본래 제목은 "사회의 가장 좋은 정치 체제에 관하여, 그리고 유토피아, 새로운 섬에 관한 즐거움 못지않게 유익한 황금의 저서"이다. 1516년에 간행되었으며, 본문은 가공의 인물 히슬로다에우스(Hythlodaeus)가 신세계에서 보고 들은 가상의 여러 나라들, 특히 유토피아에 관해서 모어와 서로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1권에서는 주로 당시의 유럽 사회를 비판하였고, 제2권에서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인 유토피아를 묘사하고 있다.

| 토머스 모어 | 강직한 공직자


▲ 토머스 모어

모어는 영국의 한 집안에서 법률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여 그리스 어와 인문학을 공부했으나 아버지의 권고로 법률을 공부하였다. 그 후 23살에 변호사, 27살에 하원 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헨리 7세가 의회에 청구한 왕녀의 결혼 비용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왕의 미움을 사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정치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던 모어는 헨리 8세가 즉위하면서 런던 부시장, 하원 의장, 대법관에 임명되는 등 영국 정치와 외교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1530년 헨리 8세는 캐서린 왕비와 이혼하고 궁녀 출신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였으나 로마 교황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고 영국 국교회를 설립하여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모어는 불복하였고, 결국 반역죄로 기소되어 런던 탑에 투옥되었다가 1535년 사형에 처해졌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아내에게 라틴 어와 음악을 가르쳤고, 딸들의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또 많은 재물을 관리하면서도 검소한 생활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기도 하였다.

| 유토피아 | '이 세상에 없는 곳' 또는 '좋은 곳'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없다.'는 의미의 그리스 어 'ou'와 '장소'를 의미하는 'topos'가 결합된 것으로,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실현 불가능한 세계이지만 결코 실현할 수 없거나 발견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1515년에 모어가 외교 사절로 파견되면서 저술한 "유토피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1권에서는 히슬로다에우스를 통해 당시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을 비판하고 사유 재산의 취득에 대한 욕심, 자본주의적 영리 활동을 비난하면서 가톨릭의 가부장적 왕정을 이상으로 삼았다. 인클로저 정책으로 농민들은 고향을 떠나 객지를 떠돌았고, 줄어든 농토는 곡물값의 폭등으로 이어졌다. 반면, 양모 산업의 번창으로 부자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 국가가 생존에 필수적인 농업을 포기하고 교역 위주의 상공업으로

돌아설 때 누가 그 과실을 책임지고 누구에게 큰 고통이 따르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제2권에서는 같은 크기에 같은 관습을 가진 54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섬 유토피아의 도시, 공무원 제도, 직업, 여행과 교역, 노예제 및 생활 풍습, 전쟁, 종교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 유토피아 지도

유토피아 사람은 사유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일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은 2년마다 교대로 농촌과 도시를 오가며 생활한다. 남녀 모두 하루 6시간만 일하고 여가 시간에는 주로 교육을 받는데, 일을 하지 않고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노동 시간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유토피아인은 공동으로 생산한 물품을 동등하게 분배하여 사용하며, 똑같이 생긴 옷을 직접 만들어 입는다.

금 · 은은 긴급 시에 용병을 고용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평상시에는 변기나 죄수를 묶어 두는 족쇄로 사용한다. 타고난 노예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쟁을 싫어하지만 방어를 위해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고, 전쟁 시에는 용병을 고용한다. 또한 유토피아인 대다수는 실체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 있는 힘으로서 우주에 편재해 있는 어떤 유일한 존재를 믿고 있다. 히슬로다에우스는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보다 더 행복한 사회는 없으며, 유토피아인보다 더 훌륭한 민족은 없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모어 선생, 사유 재산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되는 곳에서는 정의와 번영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가장 나쁜 시민들이 가장 좋은 것을 갖는 곳에 정의가 있다거나, 극소수가 모든 것을 나누어 갖는 곳에 번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가 모두 고르게 유복하지 않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대다수가 비교할 수 없이 비참하게 사는 곳에서 어찌 정의와 번영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 이상 사회 | 그가 꿈꾸었던 진정한 유토피아

모어는 유토피아야말로 가장 훌륭한 복지 국가라고 말한다. 유토피아에서는 금전 사용 폐지와 동시에 금전에 대한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수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었다. 모어는 히슬로다에우스가 말한 모든 것에 동의할 수는 없으나, 그가 "유토피아"에서 소개한 사회 제도 중 많은 부분이 유럽 국가에서 채택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모어의 유토피아는 정의와 평등, 이성과 합리적인 제도로써 이 세상에 이상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인문주의자들의 열망이 낳은 최초의 결실이었다.

* **인클로저(enclosure) 운동**: 미개간지 · 공유지 등 공동 이용이 가능한 토지에 담이나 울타리 등의 경계선을 쳐서 남의 이용을 막고 사유지로 삼는 일을 가리킨다.

Q 유토피아는 사회주의의 원형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유토피아의 어떤 점이 사회주의와 유사한지 근거를 찾아보자.



Ⅱ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1.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흐름
2. 유교 윤리 사상
3. 불교 윤리 사상
4. 도가 · 도교 윤리 사상
5. 한국의 고유 윤리 사상

윤리 사상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역사의 산물이자 현대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지혜의 보고'이다. 특히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모여 있는 사상이다.

이 단원에서는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속에 녹아 있는 삶의 지혜를 그 흐름과 특징, 현대적 의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이 현재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고, 한국인으로서 주체적인 윤리적 사유의 틀을 형성해 나아가도록 한다.



1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흐름

학습 목표

-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이 지닌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할 수 있다.

중단원 스케치

유교에서는 하늘로부터 착한 마음을 부여받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갈고닦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공부로 강조하였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본래 마음을 보아야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도가 역시 마음 수양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은 마음을 비워 깨끗하게 하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01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

하늘이 뭇사람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도다. 사람들이 마음에 항상 순선(純善)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이 아름다운 덕성을 좋아한다. −"시경(詩經)"−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은 인간과 자연은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며 자연의 이치를 추구하는 것을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고 본다.



이명욱, '어초문답도'(1715) ▶
나무꾼과 어부의 대화 장면을 통해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소요유(逍遙遊)의 삶을 그리고 있다.

단원 열기

- 우리가 흔히 쓰는 '자연스럽다.' 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을까?
- 동양과 한국 사회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한 까닭은 무엇일까?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배경과 흐름

동양 윤리 사상은 작은 연원에서 시작되어 큰 물줄기를 형성하며 흐르는 강물처럼 주로 중국과 인도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양 여러 나라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이어져 왔다. 강물이 지리적 조건에 따라 흐르듯이 동양 사상 역시 자연과 역사적 환경의 아래에서 나름의 체계를 형성하며 전개되어 왔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농경이 발달하였는데, 사람들은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며 지혜와 노동력을 모았고, 화목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가족 간의 위계와 예의를 중시하였다. 유 · 불 · 도 사상은 동양 사회의 자연적 · 역사적 조건이 지닌 특징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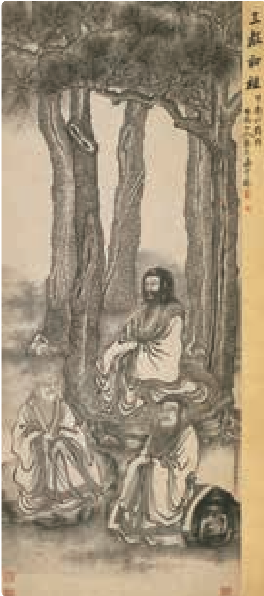
유교 사상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의 윤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인격의 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송 · 명 시대에 이르러 유교는 도덕의 기초가 되는 인륜(人倫)의 이치에 대해 체계를 갖추어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등 새롭게 탈바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유교가 지나치게 인간의 도덕성 문제에만 몰두한다고 생각한 청대의 유학자들에 의해 유교는 백성들의 현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모습으로 변모되기도 하였다.

도가 사상은 사물에 얽매인 현실을 초월하여 대자연의 품속에서 절대적 자유를 누리는 **소요유(逍遙遊)**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인간 중심이 아닌 자연 중심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위적인 가치와 제도를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의 근본적인 원리인 도(道)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도의 전통 사상
불교는 윤회설과 업설(業說), 해탈을 목표로 하는 인생관 등 인도의 전통 사상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성립된 불교는 **인도의 전통 사상***을 토대로 인간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안과 희망이 되었고 선행을 실천하게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동양 윤리 사상의 원류가 되는 유 · 불 · 도 사상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전파됨으로써 오늘날까지 동양인의 의식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역시 고유 사상의 기반 위에서 유 · 불 · 도 사상을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형성하였다.


▲ 삼교초조(三敎初祖)
노자(왼쪽), 석가(가운데), 공자(오른쪽)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유교 사상은 일찍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정치 철학, 윤리 체계, 생활 규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고려 말에 수용된 성리학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한국 유학의 독창성을 정립하였다.

한국 불교는 중국에서 유래한 여러 불교 종파를 융합하여 정제된 이론 체계를 수립하였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불교에 의지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호국 불교로 정착하였다. 그리고 이 땅에 부처와 보살이 머물며 중생을 구제하고 있다고 믿는 불국토(佛國土) 사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도가 · 도교에서 제시한 무위자연과 신선 사상, 불로장생설 등은 무병과 장수를 바라는 한국인의 관심을 끌었으며,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고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이루기 위한 심리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자연의 이치를 존중한 도가 · 도교의 사상은 자연을 살아 있는 생명체로 생각하는 **풍수지리 사상***의 발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풍수지리(風水地理) 사상
자연환경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연관지어 설명하는 사상이다.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은 우리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 온 원동력이자, 미래를 전망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지혜의 보고'로,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정립할 수 있게 해 주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기초 개념 탐구

유가, 유학, 유교는 어떻게 다를까?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특징

동양 윤리 사상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은 유기체적 세계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기체적 세계관**이란,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을 말한다.

유교나 도가 · 도교의 세계관은 인간과 하늘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유교에서 '하늘'은 단순히 자연의 이치에 따라 운행되는 하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만물을 낳고 인간사에 관여하는 인격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하늘을 우주 만물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도덕규범의 원천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도가 · 도교에서 말하는 하늘은 유교의 하늘과 달리 인간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하지만 그 역시 인간과 하늘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불교의 유기체적 세계관은 **연기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불교에서는 우주 만물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 어떤 존재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보았다. 모든 생명체는 주위의 다른 사물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 불교에서는 "갈대 다발이 서로 의지하고 있을 때는 서 있지만, 어느 한 다발을 떼어 내면 다른 하나도 넘어지게 된다."는 갈대의 비유를 통해 연기설을 설명하였다.

인간과 자연의 화해와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의 세계관은 인간과 자연을 나누어 자연을 인간이 정복하거나 이용할 대상으로 보는 서구의 인간 중심적 자연관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동양 윤리 사상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바람직한 인간이 되려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동시에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학파마다 다양한 주장을 펼쳤다.

유교에서 볼 때 인간은 하늘의 기품과 땅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부여받은 **중간적 존재**이다. 중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현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수양에 힘써야 하는데, 하늘과 땅으로부터 부여받은 덕성을 갈고 닦음으로써 만물의 화육(化育)을 돕고 인간의 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유교에서는 이러한 이상적 인간상을 **군자(君子)**, **성인(聖人)**, **대인(大人)** 등으로 불렀다.

도가 · 도교에서 바라본 인간은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위적 ·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여 자연에 순응할 때 비로소 바람직한 존재가 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자신의 아집에서 비롯되는 분별과 대립, 편견을 잊고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 자연

유 · 불 · 도의 이상적 인간관
- 유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성을 실천해야 하는 인간
- 불교: 깨달음을 추구하며, 중생을 제도하는 인간
- 도가: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인간

과 하나가 되어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삶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정신적 자유는 삶과 죽음마저도 초탈(超脫)할 때 가능한 것이며, 이를 실현한 사람을 도가에서는 **지인(至人)**, **진인(眞人)**, **신인(神人)**, **천인(天人)** 등으로 불렀다.

＊무명(無明)
불교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세속의 무지한 견해를 뜻한다. 무명은 삼독(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함께 인간이 지닌 근본 번뇌 중 하나이며 윤회의 원인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무명**＊의 그늘에 가리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탓에 잘못을 저지르며 고통 속에서 사는 존재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올바른 수행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아야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대승 불교에서는 이처럼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며,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상적 인간상을 **보살(菩薩)**이라고 불렀다.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베푸는 존재이다.

동양 윤리 사상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상은 한편으로는 각 사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각 사상이 파악하고 있는 현실 사회의 문제점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유교에서는 대동(大同)을 성인이 실현한 최고의 이상향으로 추구하였다. 대동이란 사람이 천지 만물과 서로 융합하여 한 덩어리가 된다는 뜻으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사회이다. 도가는 전쟁이 사라지고 백성의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소국과민(小國寡民) 사회를 추구하였다. 이 사회에서는 인위적인 제도와 정책이 행해지지 않아서 굳이 다스리지 않아도 다스림이 이루어진다. 또한 백성들은 문명에서 벗어나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평화로운 생활을 한다. 불교에서는 사람들의 현실 구원에 대한 열망이 담긴 이상 사회를 제시하였는데,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자비심을 발휘하여 옷과 음식을 남에게 베풀고 다투는 사람을 화해시켜 주는 등 공덕을 쌓으면, **윤회**＊에서 벗어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질병이 없으며,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윤회(輪廻)
불교에서는 중생이 죽은 뒤 그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고 본다.

한토막이야기



전통 가옥에 담긴 동양 윤리 사상

유교 사상의 깊은 영향을 받았던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가옥의 구조에서도 인간이 중간적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가옥의 지붕은 둥근 하늘[天]의 모양을, 아래쪽 기단은 네모난 땅[地]의 형상을 묘사하고, 그 사이에 위치한 기둥은 인간[人]을 상징한다. 이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위치한 인간은 하늘과 땅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면서 우주의 운행을 주도하고 만물과의 조화와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동양 윤리 사상의 특징은 고스란히 한국 윤리 사상에 녹아 있다. 한국 윤리 사상은 우리 고유 사상을 토대로 외래 사상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독특한 사상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우선, 풍수지리 사상이나 무속 신앙 등을 통해 볼 때 고대로부터 한국인들은 자연 만물을 살아 있는 생명체로 여기고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하늘은 인간사에 깊이 관여하며 길흉화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하늘에 대한 숭배를 중시하는 동시에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였는데, **경천애인***은 바로 이러한 한국인의 윤리관을 잘 표현하는 말이다. 이처럼 한국 윤리 사상에는 인간을 존중하면서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정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 **경천애인(敬天愛人)**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한국인들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유 · 불 · 도 사상이 전래된 이후 한국 사상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더욱 발전해 왔다. 특히 유교는 정치 제도와 윤리 측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불교와 도교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에 위로와 안식을 제공하면서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화를 입는다는 의식을 길러 주었다. 이러한 유 · 불 · 도 사상은 끊임없이 상호 교섭하며 창조적으로 발전하였는데, 이처럼 서로 성격이 다른 사상들이 상호 충돌 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정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화 정신**은 서양 문물이 전래된 이후에도 잘 나타났다. 한국인은 서양 사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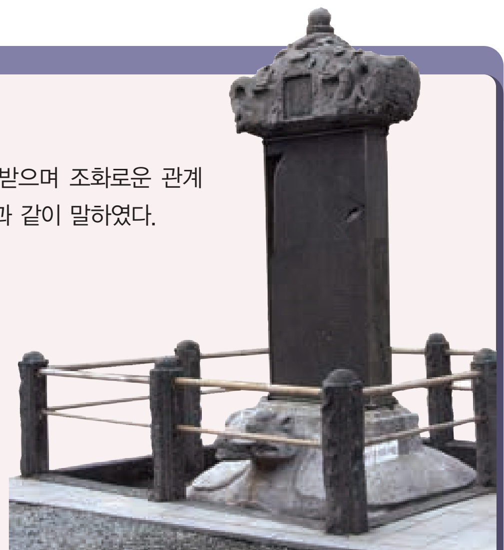
외래 사상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한국의 유 · 불 · 도 사상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상호 교섭의 관계에 대해서 신라 시대 최치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받드는 것은 도(道, 진리)이다. 사람이 진리를 넓히는 것이고, 진리는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다. 무릇 진리는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으며, 나라의 다름이 있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도 할 수 있고 유교도 할 수 있다.

진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중국인, 인도인, 신라인이 각 나라의 다름 때문에 진리와 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각 사상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서로 근원에서 만난다고 한다.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유 · 불 · 도 사상은 상호 교섭의 관계를 이루며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우게 되었다.

– 황광욱, "한 권으로 읽는 한국 철학" –



▲ **진감선사 비문**
이 비문에서 최치원은 유 · 불 · 도의 가르침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도(道)에서는 하나로 통하므로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상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히 수용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부분은 개선하면서 우리의 정신적 · 문화적 역량을 확충해 왔다.

현대 사회와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우리가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을 재조명하고 그 의의를 규명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소중한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우리 전통 사상을 무조건 옹호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이 독특한 체계를 형성하며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시대와 환경에 적응하며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 아무리 훌륭했던 사상이라도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전통의 본질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은 오래되어 낡은 원리나 원칙에 불과하다는 편견을 버리고, 그것이 지닌 장점을 인정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근대 이후 동양과 한

성찰해 보기 ☑ 개별 □ 모둠 활동

다음 글을 읽고 아래 물음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우리는 한국 사상을 문제 삼기 전에 이미 한국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한국 사상도 생겨났으며, 또 문제 삼게 된 것이다. 외국 사람은 한국 사상을 연구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몸소 한국 사상을 낳을 수는 없다. 외국 사람이 그대로 곧 한국 사람은 아니요, 우리 대신 한국 사람의 삶까지 살아 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국제적 ·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처하여 한국 사상을 운운함이 마치 보수적이고 고루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이것은 국제적 · 세계적이라는 것의 진의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소치인 줄 안다. 각국의 특징을 말살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이 국제화는 아니다. 서로의 장점을 살려 이해가 깊어질 때 비로소 정신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각자의 특색을 의미 있게 관철함으로써만 그 특색을 초월한 깊은 면에 있어서의 일치와 융합도 가능한 것이다.

– 박종홍, "한국 사상사" –



1. 어떤 외국인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라고 물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지 말해 보자.

2.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국 윤리 사상은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전통 사상에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는 고귀한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자연과의 조화 정신은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이 지닌 탁월한 정신적 가치이며, 우리가 자부심으로 삼을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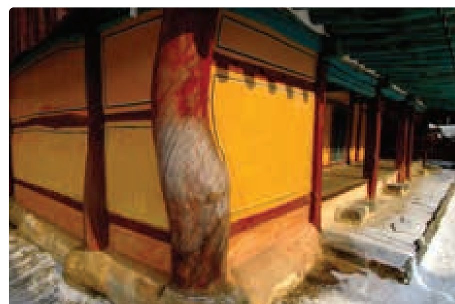
▲ **현대화된 온돌방**
오늘날에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사람들이 축적한 삶과 문화 속에서 싹을 틔워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우리 것, 특히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특징과 의의를 인식하고 이를 올바르게 밝히는 일이다. 그렇다면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이 지닌 의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인격 수양을 중시하는 정신을 들 수 있다. 남을 탓하기 앞서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나아가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신은, 물질문명으로 소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소중한 도덕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을 공부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 사회적으로도 **공동선**에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이타적인 삶을 중시하는 정신과 태도를 들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전대미문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도덕성은 오히려 점점 약화되고 있는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신에게만 유리한 도덕 원리를 내세우며 판단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자세를 뛰어넘어, 남에게 이로움을 주어야 한다는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적극적인 정신을 되살린다면 우리가 바람직한 윤리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우주 만물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신을 들 수 있다. 동양 전통 사상에서는 자연을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 생명체로 인식하였으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자연을 두려워하고 신성시하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의 전통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이러한 정신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 관계'**로 인식시켜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을 불러온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대해 반성하게 하고 자연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양할 수 있게 한다.



▲ **개심사(충남 서산)의 기둥**
우리 조상들은 나무의 굽은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여 건축물을 지었다.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은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와 정신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명화 / **사진** / 영화 속
윤리 이야기

태극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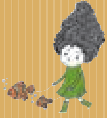
우주와 더불어 길이길이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표상



태극기의 가운데 있는 것은 태극 문양이다. 태극의 반은 음(陰), 반은 양(陽)으로 되어 있으며, 붉은색은 양, 푸른색은 음을 뜻한다. 음과 양은 정확하게 반반씩 곡선으로 나누어져 있다. 직선으로 구분하는 것이 쉬울 텐데 왜 곡선으로 구분했을까? 그 까닭은 음과 양은 서로가 서로에게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음과 양이 섞여야 생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곡선을 잘 보면 음은 양의 가운데에, 양은 음의 가운데에서 시작된다. 서로가 서로의 뿌리가 되는 셈이다. 음과 양의 구분이 직선으로 되어 있다면 음양은 결합이 아니라 나누어져 있을 뿐이다. 서로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음양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다. 음양이 결합하듯 남녀가 결합하면 창조가 생긴다. 태극은 곧 천지 창조를 간단하면서도 심오하게 그려 놓은 것이다. 태극의 곡선은 맞잡은 두 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두 손을 엇갈리게 잡은 다음 정면에서 그 선을 따라 그려 보자.

– 황광욱, "동양 철학 콘서트" –



중단원 갈무리

내용 정리 문제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써 보자.**

(1) 유교에서 볼 때 인간이란 하늘의 기품과 땅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부여받은 □□□ □□이다.

(2) 도가에서 바라본 인간은 □□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였다.

(3) 불교에서는 인간을 □□의 그늘에 가리어 고통 속에서 사는 존재로 파악하였다.

(4) 우리나라에 전래된 유 · 불 · 도 사상이 서로 성격이 다름에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균형과 □□를 중시하는 정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5) 고대 한국인들은 하늘에 대한 숭배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이라고 한다.

2 **다음 진술을 검토하고, 틀린 부분은 바르게 고쳐 보자.**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바로잡음
(1) 동양 사상은 유기체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 / ×	
(2) 유교는 인위적인 제도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평화롭게 사는 것을 이상으로 추구한다.	○ / ×	
(3) 불교에서는 사람이 죄업을 짓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다고 본다.	○ / ×	
(4) 한국 사상이란 외래 사상이 전래되기 이전의 순수한 우리나라 사상만을 가리킨다.	○ / ×	
(5) 한국 윤리 사상은 편협한 경쟁보다는 조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 / ×	

3 **다음 유교 · 불교 · 도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그 설명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

(1) 군자, 성인, 대인 •

(2) 지인, 진인, 신인, 천인 •

(3) 보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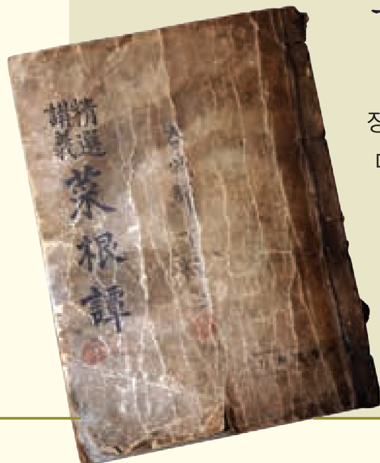
• ㉠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된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삶을 추구하는 인간

• ㉡ 하늘과 땅으로부터 부여받은 덕성을 바탕으로 만물의 화육을 돕고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는 인간

• ㉢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며,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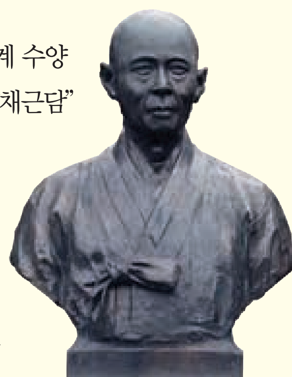
인물과 고전을 말하다

동양의 지혜, “채근담(菜根談)”



“채근담”은 중국의 명(明)나라 때 홍응명(洪應明)이 인생에서 체험한 온갖 시련과 역경 등을 짧은 문장 형식으로 엮어 놓은 어록집이다. 책 제목에서 ‘채근’은 나물 뿌리라는 말로 맛이 쓴 음식을 말하는데, 비록 사람이 ‘풀뿌리와 나무껍질[草根木皮]’로 연명한다 해도 매사에 청렴하고 성실하며 땀을 흘리면서 만족할 줄 안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채근담”에서 볼 수 있는 주된 사상은 유교이지만, 도가와 불교의 사상도 녹아 있어 유 · 불 · 도 삼교가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동양의 고전으로서 많은 사람이 “채근담”을 읽어 온 것은 자신을 수양하고 성품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도리와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시인이자 승려,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은 “채근담”을 “조선 정신계 수양의 거울이다.”라고 칭송하며 이를 강의한 해설서를 펴냈다. 한용운의 해설을 읽으며 “채근담”의 매력을 느껴 보자.



▲ 한용운(韓龍雲, 1879～1944)

덕(德)은 사업의 기초이니 기초가 굳지 아니하고 용마루와 처마가 견고한 집이 없으며, 마음은 행실을 닦는 뿌리니 뿌리가 깊지 못하고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는 없다.

만해 해설

덕과 사업을 비교해 보면, 덕은 기초와 같고 사업은 집과 같은 것이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서 집이 견고하게 오래갈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도덕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 이룩한 사업은 견실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업을 성취하려면 먼저 덕을 세워야 한다.

마음과 행실을 비교해 보면, 마음은 뿌리와 같고 행실은 가지와 같은 것이다.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고서는 가지가 무성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수양하지 못한 사람의 행실은 원만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행실을 옳게 하려면 먼저 마음을 닦아야 한다.

뜻대로 되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며, 마음대로 됨을 기뻐하지 말라. 오랫동안 편안함을 믿지 말며, 처음의 곤란을 꺼리지 말라.

만해 해설

자기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의지와 품행을 단련하는 도가니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미련하고 둔한 결점을 없애고 정명한 지혜와 밝은 덕행을 이루면, 뒤에 가서 마음이 유쾌한 때가 있을 것이니, 뜻에 어긋나는 일을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즐겁게 해 주는 일은 의지와 기개를 누그러뜨려 게으름에 빠지게 해서 마침내 마음을 상하는 슬픔이 생기기 쉬우니, 마음을 즐겁게 해 주는 일을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

변하지 않고 오래가리라 편안히 믿고서 위험에 대한 대비를 잊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일이 생기면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기 쉬우니, 오래 편안함을 믿지 말아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약간의 곤란을 겪은 뒤에 공업(功業)을 이루는 것이다. 불굴의 의지로 곤란을 참아 견디고, 활달한 걸음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면 최고의 성공을 얻을 것이니, 처음의 곤란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글자가 있는 책은 읽을 줄 알되 글자가 없는 책은 읽을 줄 모르며, 현(絃)이 있는 거문고는 탈 줄 알되 현이 없는 거문고는 탈 줄 모르니, 자취로써는 쓰되 정신으로써는 쓰지 못하니, 어찌 거문고와 책의 아름다운 뜻을 터득하리오.





▲ 사마천(司馬遷, 기원전 145?~ 기원전 85?)과 "사기"

만해 해설

글자는 사물의 상태와 인류의 사상을 나타내는 부호이고, 책은 부호를 그린 그림이다. 그 부호와 그림의 원본이 되는 우주 모든 사물의 형상과 허다한 인사(人事)야말로 실로 이리저리 얼기설기 엉클어져서, 웅장한 품격과 미묘한 형체를 다한 '글자 없는 책'이다. 다만 그 부호인 글자만 주무르고 그 정신의 참된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은 이른바 '기계적 학문'이요, '생물의 자전(字典)'이다.

글자 없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알아보는 눈으로 정신의 참된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나라의 사마천이 스무 살 때 강회(江淮) 지방을 유람하였는데, 산천 경치의 정신을 생생하게 잡아서 자기의 문장을 수련했다가 뒤에 "사기"를 저술할 때, 지난날에 잡았던 정신을 문장에 붙여서 세상에 다시없는 훌륭한 글을 지어 "사기의 일부가 명산대천에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겨 놓았다. 즉 사마천의 대문장은 산천 경치의 글자 없는 책을 읽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상 사람은 다만 글자 있는 책만 읽고 글자 없는 책은 읽지 못하며, 줄 있는 거문고만 타고 줄 없는 거문고는 탈 줄 모른다. 거문고의 줄은 다른 물건이 닿는 힘에 의해 소리의 물결을 일으키는 피동적 타성(惰性)의 힘이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줄로 소리를 내면 범부(凡夫)의 귀를 즐겁게 해 주는 것뿐이고, 그 미묘한 음조를 다한 소리 없는 가락은 실상 줄을 떠난 묵은 오동나무 판에 있는 것이다.

진나라의 도연명이 줄 없는 거문고를 어루만지며 시를 지어 "다만 거문고 속 취미만 얻으면 그만이거니, 줄 위의 소리를 수고롭게 해 무엇 하리?"라고 하였는데, 이는 줄 없는 거문고를 안 것이다. 다시 한걸음 나아가 말하면, 산은 스스로 높아 험하고, 물은 스스로 넓어 끝이 없고, 대자연의 미묘한 곡조는 줄과 묵은 오동나무를 떠난 산수(山水) 사이에 있다. 그러므로 다만 글자 있는 책만 읽고 줄 있는 거문고만 타는 사람은 형상으로만 쓰고 정신으로는 쓰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책이나 거문고의 미묘하고 멋있는 취미를 얻을 수 있으랴.



도연명(陶淵明, 365～427) ▶

1. 자신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생각을 지녀야 하는지 써 보자.

2. "채근담"이 말하는 '글자 없는 책'이란 어떤 의미인지 자신이 생각하는 사례를 제시해 보자.

2 유교 윤리 사상

학습 목표

- 유교 사상의 연원과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중심 사상을 설명할 수 있다.
- 유교 사상이 지닌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 한국 유교 사상가들의 주요 사상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

중단원 스케치

공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에 노예처럼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은 사람대접은커녕 가축보다도 못한 천대를 받았다. 그러나 공자는 신분을 초월하여 인간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공자를 인류의 스승으로 여기며 그를 성인으로 받드는 것은 이러한 인간 존중 사상이 동양 사상의 전통으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옛날에는 말[馬]이 노예보다 더 귀중하게 대접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자의 집 마구간에 불이 났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공자



그런데 공자는 말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말을 관리하는 노예를 염려하였다.



01 유교 사상의 연원과 전개

부(富)와 귀(貴)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빈(貧)과 천(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 군자가 인(仁)을 버리고서 어찌 명예를 이룰 수 있겠는가?

– 공자, "논어" –



단원 열기

- 위의 밑줄 친 '정당한 방법'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 윗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유교 사상의 연원

유교는 동양 사상의 근본으로서 동양의 도덕 · 교육 ·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풍부한 지혜와 가치를 제공해 왔다. 유교 사상은 중국 춘추 시대에 등장하였는데, 이 시기는 기존의 사회 제도와 질서가 붕괴됨에 따라 패권을 잡기 위한 제후국들의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혼란기였다.

이러한 혼돈을 치유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자 인의(仁義)의 기치를 높이 든 사람들이 바로 유가였다. 하 · 은 · 주 시대의 문화를 집대성하여 유교를 정립한 **공자***는 기존의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유교의 체계를 세움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기강을 바로잡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공자 사상의 핵심은 **인(仁)**이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함[仁者愛人]'과 '사람다움[仁者人也]', 즉 타인을 사랑하는 정신이자 사회적으로 완성된 인격체의 사람다움을 의미한다.



***공자(孔子, 기원전 551～기원전 479)**

그는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신념으로 요 · 순 시대 이래 중국 고대의 전통 정신을 집대성하였다.

기초 개념 탐구

人 + 二 ▼ 仁

'인'이란 무엇인가?

유교는 공자와 그 계승자들의 가르침인 경전(經典), 그리고 그 경전에 근거한 후세 학자들의 체계적인 학문적 성과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유교 최고의 가르침은 인이다. 인이 도덕 수양의 최고 덕목이 된 것은 공자에 의해서이다. 공자의 언행이 수록된 "논어"에는 약 58개의 단락이 인과 관련하여 기술되어 있다. 인이라는 글자는 '인(人)'과 '이(二)'가 결합된 것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나 덕목이 필요한데, 효 · 제 · 충 · 신(孝悌忠信)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덕목으로서 효 · 제 · 충 · 신(孝悌忠信)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효와 제를 인을 실천하는 시작으로 보고 매우 중시하였다. 그것은 가정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어른을 공경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타인에 대한 사랑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때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다. 공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러한 마음을 **서***라고 하였는데, 서는 '자신을 미루어 상대를 고려함[推己及人]'으로써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己所不欲 勿施於人].'는 정신을 담고 있다.

*** 서(恕)**
"내 마음[心]과 같이[如]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내면적으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조절하여 외면적인 사회 규범인 **예(禮)**에 부합해야 한다. 이처럼 자신의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을 공자는 **극기복례(克己復禮)**라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로소 인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자는 당시 백성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며 고통을 받는 현실에 대해 매우 염려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통치자는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충실하게 수양한 뒤에 백성을 위한 다스림을 행함[修己安人]'으로써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아울러 위로는 통치자에게서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정명***이라고 한다.

*** 정명(正名)**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위해 공자가 제기한 사상으로,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子]."고 강조하였다.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유교를 더욱 체계화하였다. 그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인간이란 선천적으로 순선한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즉 인간은 누구나 '차


*** 맹자(孟子, 기원전 372~기원전 289)**
전국 시대 추나라에서 태어났고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였다. 성선설, 왕도 정치, 역성혁명론 등을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맹자의 역성혁명(易姓革命)

맹자는 도덕의 근원인 하늘이 많은 덕(德)을 지닌 사람에게 군주의 지위를 내린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하늘의 뜻을 실현하고자 도덕에 바탕을 둔 왕도(王道)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왕도 정치는 통치자가 도덕을 바탕으로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는[與民同樂] 덕치이다. 이처럼 맹자는 통치자들을 향해 민본과 위민을 역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이 백성이고 그다음이 국가이며 가장 가벼운 것이 임금이라고까지 하였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 것이라고 하였고, 군주가 덕이 없어 군주답지 못한 군주는 내쫓고 새로운 군주로 바꾸어야 한다는 '역성혁명'을 주장하였다.



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지니고 태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선한 근거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를 지닌 것처럼 인간은 측은지심 · 수오지심 · 사양지심 · 시비지심의 네 가지 마음, 즉 **사단***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였다. 맹자는 만약 이것이 없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것을 잘 함양하고 확충해 나간다면 사람은 누구나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四德)을 완성하여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맹자는 무력으로써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는 패도(覇道)를 반대하였다. 패도는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며, 공자가 강조한 덕치(德治)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맹자에 의하면, 통치자는 오직 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王道) 정치의 실현을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 왕도는 백성들과 소통하며 기쁨을 함께하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을 실천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국 시대 말, **순자***는 인간이란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추구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성악설**을 주장하면서,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을 비판하였다. 순자에 의하면, 맹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 지닌 것[性]과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지니게 되는 것[僞]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즉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라, 타고난 악한 본성을 옛 성현의 가르침이나 예법(禮法)으로 교화하여 바로잡음으로써 선한 존재가 된다[化性起僞]는 것이다.

***사단(四端)**
- 측은지심(惻隱之心):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 수오지심(羞惡之心): 옳지 못한 일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 사양지심(辭讓之心):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
- 시비지심(是非之心):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순자(荀子, 기원전 298~기원전 238)**
순자는 전국 시대 말에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제자백가 대부분의 사상을 섭렵할 수 있었으며, 다른 사상가의 사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탐구해 보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왕께서 이곳에서 음악을 연주한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왕의 종소리 · 북소리 · 피리 소리를 듣고 모두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면서 서로 돌아보며 말합니다. "우리 왕께서 다행히 아무 병도 없으셨구나. 어쩌면 저렇게도 음악 연주를 잘하실까?"



왕께서 이곳에서 사냥을 한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왕의 수레와 말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아름답고도 호화로운 깃발을 보면서 저마다 싱글벙글 얼굴에 기쁜 빛을 띠고는 서로 돌아보며 말합니다. "우리 왕께서 다행히 아무 병도 없으셨구나. 어쩌면 저렇게 사냥을 잘하실까?" 이와 같이 되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기[與民同樂] 때문입니다. 이제 왕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신다면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맹자", '양혜왕 편' –

1. 맹자가 주장한 '여민동락'이 이루어지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여민동락'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발표해 보자.

성찰해 보기

□ 개별 ☑ 모둠 활동

다음은 춘추 전국 시대 천하의 혼란을 종식시키고자 했던 제자백가의 주요 사상을 바탕으로 구성된 가상 시나리오이다. 모둠별로 견해를 정리해 보자.

사회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고 자: 나는 본래 인간이 지닌 성품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오직 식욕과 성욕만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봅니다. 이는 마치 물이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르는 이치와 같습니다. 따라서 태어난 이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 자: 아닙니다. 물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태생적으로 선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성품을 교육을 통해 잘 키워 나간다면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묵 자: 나는 인간의 본성보다는 백성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수고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혼란에 빠져 있다는 현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은 나와 남을 구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이로움을 나눈다면 서로 다투고 침략하는 혼란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맹 자: 내 아버지와 남의 아버지를 구별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씀입니까?

묵 자: 그렇습니다.

맹 자: 아무리 남의 아버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버지만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아버지를 먼저 사랑한 다음, 그래도 힘이 남는다면 그때 비로소 남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묵 자: 그렇게 남의 것과 나의 것을 차별하는 것 때문에 결국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사랑하듯 남의 나라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맹 자: 당신의 생각은 자신의 아버지를 부정하고 자신의 나라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 군주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군주는 새로운 군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예악(禮樂) 문화를 숭상해야 하며, 특히 삼년상의 상례는 전통으로서 부모에 대한 효(孝)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묵 자: 당신들 유가는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생산은 도외시하고 낭비와 사치만 일삼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통치자들이 백성을 진정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맹 자: 공자에게서 시작된 덕치(德治), 그리고 제가 늘 주장해 온 왕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한비자: 모두 수주대토(守株待兎)와 같은 말씀만 하시는군요. 당신들의 생각은 마치 나무 그루터기에 우연히 부딪쳐 죽은 토끼를 보고 다시 토끼가 와서 부딪칠 것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습니다. 덕치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오로지 상과 벌로써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철저하게 형법에 의지해서 통치해야 합니다.

사회자: 그렇게 한다면 천하의 혼란이 끝날 수 있습니까?

한비자: 그렇습니다. 국가의 통치를 법(法)과 술(術)에 의지한다면 천하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

1. 모둠별로 위 사상가들의 사상적 특징을 각각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

2. 오늘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위의 사상가 중 어느 사상가의 주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둠별로 토의한 후 발표해 보자.

또한 순자는 **예***를 중시하였다. 예는 국가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덕목이므로, 예에 의해 국가가 통치되어야 한다[禮治]고 강조하였다.

사람에게 예가 없다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도모하는 일에 예가 없다면 성취시킬 수 없으며, 나라에 예가 없다면 편안하지 못하다. – "순자", '권학 편' –

나아가 그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학문을 쌓고 바른 행실을 하는 등 예를 실천한다면 비록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등용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높은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신분이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순자가 강조한 예는 인간의 행위를 외적으로 규제하는 윤리적 측면을 넘어서 사회적 재화나 권력 등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사회적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순자의 예(禮)
"예는 귀천의 등급을 매겨 주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에 차등이 있게 하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대우를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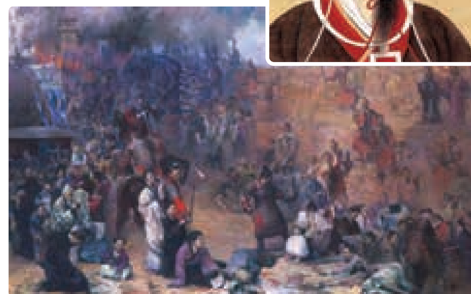
禮

맹자와 순자는 공자의 정신을 계승하여 유교 사상을 더욱 다채롭고 풍부하게 이론화하여 유교가 동양 사상의 굳건한 기둥으로 자리매김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두 사상가 모두 교육이나 교화 등의 수양을 통해 도덕적 인간과 도덕 사회를 지향하였으며, 개인이나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유교 사상의 전개

춘추 전국 시대, 시황제에 의해 천하가 통일되면서 전쟁은 끝났지만, **분서갱유***와 같은 혹독한 사상적 통제와 부국강병책으로 말미암아 유학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후 한나라의 무제(武帝)에 의해 유학이 국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유학이 부흥하는 계기를 맞았다. 이 시기에는 분서갱유로 사라졌던 경전이 복원되면서 유교의 경전에 있는 자구(字句)의 의미와 해석을 위주로 하는 경학(經學)과 훈고학(訓詁學)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한나라 말부터 도교와 불교가 세력을 얻으면서 유교 사상은 상대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분서갱유(焚書坑儒)
시황제는 유교 경전들을 불태우고 살아 있는 유생들을 생매장하였다.

송대에 이르러서는 유학자들이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유가 경전을 다시 정리하고, 불교와 도가의 사상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유교를 철학적으로 체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치를 연구하여 학문의 중심 개념을 '성(性)'과 '이(理)'로 삼았는데, 이를 **성리학**이라고 한다.

성리학은 **주희***에 의해 집대성되었다. 그는 이 세상은 '이(理)'와 '기(氣)'로 구성되어 존재하며, 이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이치이고, 기는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나 도구로 보았다. 또한 맹자의 성선설에 입각하여 "인간의 성은 곧 이[性卽理]이며, 인의예지의 사덕(四德)"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의 도덕성을 존재론적으로



＊주희(朱熹, 1130~1200)
성리학은 주희에 의해 집대성되었기 때문에 '주자학'이라고도 한다.

증명하려는 시도가 주희를 비롯한 송대 유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들에 의해 세워진 유학의 형이상학적 체계는 전통 유학과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신유학'이라고도 한다.

또한 주희는 이기론의 바탕 위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중심으로 인성론을 체계화하였다. 그런데 인간의 성품 속 기질지성은 인욕에 의해 악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存天理去人慾] 수양을 강조하였다. 즉 양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할 것[存養省察]과 마음을 항상 경건하게 하여 사물 속에 존재하는 이치를 궁구할 것[居敬窮理],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양 공부를 할 때 **경***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주희는 이러한 도덕적 수양을 통해 이르게 되는 성인(聖人)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수양에서 터득한 지식을 현실 속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며 **'지행병진(知行竝進)'**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앎과 실천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선진(先秦) 유학의 목적과 방법을 다시 체계화하고, 자아 성찰과 인격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던 송대의 전통은 명나라 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왕수인***은 성인의 학문을 '심학(心學)'이라고 규정하고 유교 경전은 마음의 본체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학문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왕수인에 의해 더욱 심화된 심학을 **양명학(陽明學)**이라고도 한다. 그는 '마음이 곧 이치[心卽理]'이므로 마음 밖에는 어떠한 사물이나 이치도 없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주희가 해석한 **격물***에 대해 마음과 이치를 둘로 나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왕수인(王守仁, 1472~1529)**
"산중의 적은 잡기 쉬우나 마음의 적은 물리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본연지성(本然之性)**
인간 마음속에 본래 있는 이(理)로서, 도덕적 본성이다.

***기질지성(氣質之性)**
사람의 서로 다른 기질에 따라 나타나는 성품으로, 사람의 타고난 기질 상태에 따라 선하게 될 수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다.

***경(敬)**
마음을 하나로 모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주일무적(主一無適)], 몸가짐과 태도는 단정하고 엄숙하게 하며[정제엄숙(整齊嚴肅)], 항상 깨어 있어 정신을 뚜렷이 한다[상성성(常惺惺)]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격물(格物)**
"대학"에 나오는 말이며, 사물의 이치를 깊이 파고들어 따진다는 의미이다.
주희는 격물의 '격(格)'을 '이르다[至].'는 의미로 보아 "사물에 나아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다."라고 해석한 데 비해, 왕수인은 '격'을 '바로잡다[正].'는 뜻으로 해석하여 마음의 이치를 자각하여 사물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보았다.

기초 개념 탐구

이(理)와 기(氣)

성리학에서는 이와 기라는 두 개념으로 천지 만물을 설명한다. 이가 원리 · 도리 · 형이상을 의미한다면, 기는 현실 세계의 물질적 재료 · 도구 · 형이하를 의미한다. 이 세상에 이 없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없고, 마찬가지로 기 없이 존재하는 것도 없다. 인간도 천지 만물에 속하기 때문에 이와 기로써 설명하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그것을 성(性)과 정(情)으로 대비시킨다. 이는 본성이고, 기는 육체와 감각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감응(感應)에 해당된다. 주희가 밝혔듯이 본연지성(本然之性)은 순선한 이이고, 기질지성(氣質之性)은 기이며 선악을 모두 갖고 있다. 그래서 이는 인간 본성의 순선한 내용을 설명하는 사단이 되고, 기는 칠정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와 기의 관계로 세계를 설명하는 것을 '이기론'이라고 하고,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 분야를 '심성론'이라고 한다.

또한 왕수인은 이론적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무엇이 선(善)인지 아는 **양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양지를 현실에 그대로 드러내는 치양지(致良知)를 통해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참된 앎은 이미 그 속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앎은 곧 실천의 시작이고, 실천을 통해 앎이 완성된다."라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성리학과 양명학은 모두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토대로 인욕을 제거하는 수양에 온 힘을 쏟았으며, 성인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또한 성리학에서 '지식의 확충과 이것에 대한 실천을 함께할 것[知行竝進]'을 강조한 점과 양명학에서 '앎과 실천은 본래 하나[知行合一]'라고 주장한 것은 그 의미와 주안점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실천을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양지(良知)**
"맹자"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에 태생적으로 부여받은 '참된 앎'을 말한다.

청대 학풍과 유교의 전파

청대(淸代)에 들어서면서 당시 유학자들은 송・명(宋明) 시대의 철학이 지나치게 인간의 도덕성 문제에만 치우쳐서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점을 반성하게 되었다. 그들은 고전과 역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토대로 공리공론을 떠나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고증학(考證學)에 몰두하였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용의 뼈'로만 알려져 왔던 갑골이 중국 상고 시대의 유물임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고전서***를 비롯한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고 그들의 실생활을 보장하고자 **경세치용***의 사상을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이

***사고전서(四庫全書)**
궁중 및 민간에 소장된 서적을 모아 네 부문으로 편찬하였으며, 여러 서고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경세치용(經世致用)**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탐구해 보기

다음 주장을 살펴보고 아래 질문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

1. 위의 두 주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써 보자.
2. 위의 두 사람이 격물치지를 중시했던 까닭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실사구시(實事求是)
청대 고증학에서 내세운 학문 방법론으로, '실질적인 일에 나아가 옳음을 구한다.'는 뜻이다.

처럼 사실에 바탕을 두고 진리를 추구한 실증적 학풍을 가리켜 **실학**이라고 한다. 실학이라는 말은 어떤 학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문이 지닌 허위성 혹은 공허성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학문 체계의 진실성이나 현실성을 가리키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학풍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 실학사상의 형성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17세기에 이르러 유교의 경전들이 서양에서 번역 · 출간되기 시작하는 등 유교 사상이 서구 사회에 전파되어 영향을 미쳤다. 가령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과거제는 서양의 인재 선발 방식을 혁신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교의 전파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의 선교사들이다. 그들은 동양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유교 문화에 대해 조예가 깊었다. 이들은 주로 중국에서 활약하며 유교 사상을 소개하는 서신을 자신들의 고국으로 보냈는데, 서신 중 일부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그 나머지도 사상가들의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유교 문화가 서양에 전파되는 데 이바지하였다.

참고 자료

동아시아 경제의 기적, '아시아적 가치'

30여 년 전 미국의 한 언론인은 "태평양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 진술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 아시아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개발국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아시아 국가들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수인 투웨이밍(杜維明)은 "역사적으로 유교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은 서양의 산업화, 경제 발전과는 다른 양상을 띱니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책 "문명의 대화"에서 그가 지적한 내용은 바로 유교 문화와 서양의 자본주의가 결합하여 형성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즉 유교 자본주의이다. 그는 효율과 이익을 추구하여 경제 발전을 이룬 서양의 산업과는 달리 혈연 · 학연 · 지연을 중시하는 가족주의, 가부장적 권위, 높은 교육열,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공동체 의식,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는 사회의식, 유교 문화의 동질감 등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동아시아가 성공적인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하였다.



▲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 한국 방송, "유교 아시아의 힘" –

02 유교 사상의 특징

유교에서는 "사람은 배워야만 바람직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교육'이라는 용어도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던 맹자에게서 비롯되었다. 유교에서 교육이란 마치 잡석이 섞인 광물을 잘 정제하여 숨어 있는 보석을 찾아내는 것과 같이, 선천적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다듬고 키워서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으로 길러 내는 과정이었다.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서당도' ▶

단원 열기

-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교육은 무엇일까?
- 전통 사회에서의 교육과 오늘날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인본주의 추구

중국 고대에는 영혼 불멸 사상에 기초하여 **순장 제도***가 있었으며,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이러한 악습이 잔존하고 있었다. 공자는 이러한 풍속을 비판하였으며, 이를 흉내 내는 것마저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사상가들은 순장 제도와 같은 악습을 단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모든 인간은 하늘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존엄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교가 동양 사회와 문화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인간의 가치를 우선시함으로써 인본주의 관점을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유교 사상에 의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이미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성품으로써 그 이치를 밝혀내고, 동시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하늘의 의지와 자신을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이와 같이 유교 사상은 인간이 지닌 이러한 특성을 강조하며 "인간은 하늘과 하나[天人合一]"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교에서는 인간이란 만물 가운데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천도를 내면화하여 만물의 화육을 도와야 비로소 바람직한 인간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는 근대 서양에서 나타난 자연관, 즉 자연을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인간은 자연의 비밀을 밝혀냄으로써 자연을 남획하고 지배하려는 인간 중심적 시각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순장 제도**
현세에서 누리던 권세를 이어가고자 살아 있는 사람들을 시신과 함께 매장한 고대의 장례 풍속이다. 공자는 이러한 잔인한 악습을 없애고자, 사람 대신 나무인형을 순장하는 사람일지라도 천벌을 받아 후손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상장례(喪葬禮)
전통 사회에서 중시한 '관 · 혼 · 상 · 제'의 하나로, 사람이 죽은 때로부터 장사를 지내고 상복을 입은 채 일정 기간 근신할 때까지 행해진다.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치르는 의례이다.

한편, 유교는 **상장례**✱를 중시하고 돌아가신 조상도 마치 살아 계신 것처럼 제례를 지내 섬김으로써 내세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은 후손으로서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고 생전에 다하지 못한 효도를 실천하며, 가족 간의 화합과 자신의 수양 의지를 다지기 위한 현세 지향적 의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유교 사상은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중시하는 **현세 중심적 사상**이다. 이러한 유교의 인본주의적 특징은 백성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는 민본주의 정치사상으로 정착되었다.

| 도덕 지향 |

유교 사상은 인본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현실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사랑[仁]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격을 완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또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성인으로 대우하며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도덕적 인간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도덕성을 함양하고 확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양(修養)**과 **수신(修身)**을 중시하였다. 수양과 수신은 위로는 왕에게서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예외를 두지 않고 강조되었다.

유교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 즉 자신에 대한 수양을 시작으로 하여 가정과 사회로 나아가는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맹자"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求放心]을 중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기초 개념 탐구

효(孝)

>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윗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기 싫어하면서 난동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지껏 없었다.
> – "논어", '학이편' –

유교가 중심이 되었던 전통 사회에서는 '효'를 부모와 자녀 관계의 가족 윤리로만 한정하지 않았다. 효는 참된 인간을 실현하는 근본으로 심화되기도 하고 정치와 교화의 근원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군주제의 전통 사회에서는 군주와 신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윤리도 부자 관계의 윤리가 확대되어 적용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효는 인간의 개인적 · 사회적인 모든 행위의 근원적인 원리요, 전통적 윤리 체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 민화 '효'

따라서 효를 실천할 때는 그 정신으로서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 강조되고, 그 형식으로서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자리를 살피고 문안 인사를 하는 예절이나 상례와 제사에서 예절에 맞도록 행동하는 절차가 요구되었다. 효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웃과 사회의 칭송을 받았지만, 효행을 저버리면 이웃의 지탄과 국가의 형벌까지도 받았다.

따라서 유교에서 강조한 수양과 수신이란 남에게 보여 주고 인정받기 위한 위인지학(爲人之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릇된 욕구와 유혹을 물리치고 바람직한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한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양 과정을 통해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반성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며, 나아가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사회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간으로 완성된다고 보았다.



▲ **정선,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
정선이 이황의 서당을 중심으로 주변 모습을 담은 산수화이다.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뒤로 산이 둘러싸인 풍경으로 그 안에 작은 암자가 위치하고 있다. 그 속에서 이황이 조용히 글공부를 하고 있다.

유교의 이상은 천하의 모든 인간이 도덕성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고자 유교는 백성들의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맹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백성들이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사회의 지도층에 속하는 선비는 일반 백성과는 달리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항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를 강조한 것이며, 나아가 국가 통치에 있어서도 통치자의 높은 도덕성과 덕을 바탕으로 하는 통치, 즉 인정(仁政)을 가장 이상적인 정치로 여겼음을 보여 준다.

***항산(恒産)과 항심(恒心)**
항산이란 일정한 생업을 뜻하며, 생활을 위해 벌이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항심은 떳떳한 마음, 즉 도덕적 마음을 말한다. 맹자는 "일정한 생업이 없음에도 착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오직 선비라야 가능하고, 백성은 생업이 없으면 착한 마음도 없어진다. 착한 마음이 없어지면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공동체 중시

도덕적 실천에 기초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강조한 유교의 경향을 볼 때 유교 사상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강한 사회성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간이 영위하는 공동체는 크게 가정과 국가로 나눌 수 있다. 가정은 개개인이 생활하고 보호받는 기본 공동체인 동시에, 한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최소 단위의 도덕 공동체이다. 유교에서 말하는 국가는 이러한 가정이 확대되고, 또 여러 가

▼ **유교 문화의 꽃 '석전대제(釋奠大祭)'**
서울 성균관 대성전에서 열린 '석전대제'에서 창작무를 선보이고 있다. 석전은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성인과 선현들의 학덕을 기리는 제례 의식이다.



족이 결합된 공동체이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도덕적 실천이 무엇보다 강조되었으며, 가정에서의 도덕성이 확대될 때 비로소 공동체의 도덕성이 완성된다고 보았다. 가령 효를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러한 윤리를 실천할 때 사회적으로도 충과 같은 덕목이 실행되어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였다.

나아가 유교는 강한 사회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도덕을 확립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대동 사회를 이상 사회로 추구하였다. 대동 사회는 공자 이래 유교가 지향한 이상향이었으며,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염원했던 유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유교의 이상은 바람직한 공동체의 구현에 있었으며, 이를 실현하는 것을 지식인의 사명으로 삼았다. 따라서 유교 사상은 단순한 이론이나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를 염두에 두고 그것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사상임을 알 수 있다.

탐구해 보기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는 천하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하여 관직을 부여하고, 서로 간의 신뢰와 친목을 두텁게 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각자의 부모만을 부모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으며, 노인에게는 그 삶을 편안하게 마치게 해 주고, 젊은이들에게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며, 어린아이에게는 마음껏 성장할 수 있게 해 주고, 과부와 고아, 불구자 등에게는 고생 없는 생활을 하게 해 주고, 성년 남자에게는 적당한 직분을 주며, 여자에게는 합당한 남편이 있도록 해 준다. 재화라는 것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사사로이 자기만 독점하지 않으며, 힘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노력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모두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서로 간의 모략이 있을 수 없으며, 절도나 폭력이 없어 아무도 문을 잠그는 일이 없다.



–"예기", '예운 편' –

1. 윗글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사회가 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 사회와 대동 사회는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지 발표해 보자.

03 한국 유교 사상의 특징과 의의

도(道)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유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 그래서 자사(子思)는 "도(道)란 잠시도 내 몸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따라서 군자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삼가 조심하며,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이황, "성학십도" –

단원 열기

- 위에서 말하는 '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바람직한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

한국 유교

한국 유교는 삼국 시대와 고려 시대를 거치면서 통치의 원리와 사회생활의 규범으로 작용하며 우리 역사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고려 말에 수용된 성리학은 조선 시대에 이르러 유교 사상을 더욱 이론적으로 심화하고 체계화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사회 기반과 사람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았다.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의 중심 과제는 **심성론(心性論)** 문제였다. 이들이 심성론 문제에 주목했던 까닭은 바람직한 인간과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특히 인간의 그릇된 욕망을 잘 살펴서 도(道)에 부합되려면 인간 내면의 구조와 본질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황과 이이는 중국의 성리학에서도 다루지 못한 심성론에 관해 세밀하게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한국 유교 사상을 중국과 차별되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이황* 은 우주의 존재 문제에 대해 '이(理)'는 '기(氣)'의 주재자로서 기를 부릴 뿐 기에 구속되지 않아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것은 이를 우위로 생각하여 이와 기는 결코 대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그는 이와 기가 모두 발동한다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다.



*이황(李滉, 1501～1570)
이황이 살았던 시대는 사화(士禍)가 거듭되어 윤리적 · 정치적 타락이 극심하였다. 그는 이러한 정치 현실을 떠나 학문을 닦음으로써 후세에 도를 전해 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 도산 서원(경북 안동)
이황의 학덕을 추모하고자 그의 문인과 유림이 세웠다.

이가 발동하면 기가 이를 따르며, 기가 발동하면 이가 기를 탄다.

이러한 주장은 전쟁터에서 졸병[氣]이 항상 장수[理]의 통제와 명령을 받아야 하듯이, 이를 중심으로 당시 사회의 전도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인간의 본래성을 회복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이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황은 인간의 마음은 이와 기를 함께 지니고 있지만 마음의 작용은 이가 발동하여 생기는 사단과 기가 발동하여 생기는 **칠정***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즉 사단(四端)과 칠정이 '가리키는 바'를 통해 볼 때, 사단은 순선하므로 이에 비유되고, 칠정은 선과 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기에 비유된다는 것이다. 또 "사단은 이가 발동하여 기가 이를 따른 것이고[理發而氣隨之], 칠정은 기가 발동하여 이가 기를 탄 것이다[氣發而理乘之]."라고 주장하였다.

***칠정(七情)**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쁨[喜]·성냄[怒]·슬픔[哀]·두려움[懼]·좋아함[愛]·미워함[惡]·욕구[欲]의 일곱 가지 감정을 말한다.

인간 마음의 본체와 그 작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했던 이황은 사단이라는 도덕적 원리가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칠정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도덕적 원리의 절대성을 확보하고 주체적 인간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이***는 이황과는 달리 사단과 칠정은 두 방향으로 갈라져 나아간 대립적 감정이 아니며, 칠정 가운데서 선한 감정만을 표출시킨 것이 사단이라고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이이의 사단과 칠정의 관



***이이(李珥, 1536~1584)**
23세의 이이가 이황을 만났을 때, 이황은 58세로 당대에 가장 명망 높은 석학이었다. 이황은 이이의 해박한 학식과 탁월한 문장력에 감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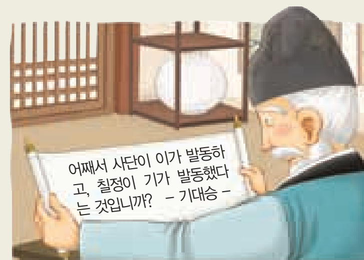


▲ **자운 서원(경기도 파주)**
이이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한 토막 이야기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 · 칠정 논쟁

막 관직에 들어선 젊은 학자 기대승은 당시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던 노학자 이황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이황이 주장한 '사단은 이의 발동이요, 칠정은 기의 발동'이라는 말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사단이란 칠정에 포함되는 정(情)이므로 사단과 칠정을 대비하여 논의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이(理)와 기(氣)는 개념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으나 현실 속 구체적인 마음의 작용에서는 구분할 수 없는 관계임에도 이와 기를 따로 떼어 각기 사단·칠정에 분속하여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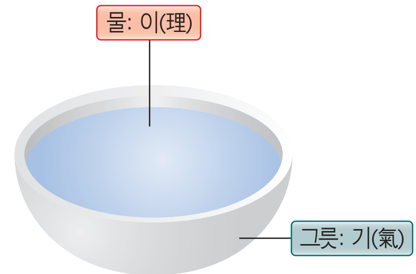


이황은 기대승의 이의 제기에 대해 자상하게 자신의 반론을 담아 답장하였는데, 이는 당시 학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 두 사람의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 내용은 이후 유학자들의 주요 토론 주제가 되었다. 한국 성리학은 두 사람의 논쟁에 힘입어 자유로운 논변을 꽃피우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계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 지닌 감정들이 하나의 근원에서 발생되어 나온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단과 칠정의 감정을 이기론을 바탕으로 해명할 때도 이황은 사단을 이의 발동에 의해, 칠정을 기의 발동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의 발동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가 기의 발동만을 인정한 것은 이는 절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원리이므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이는 심성론에 적용되는 우주론적 존재 형식인 이와 기의 성격을 규정하였는데, "발동하는 것은 기요, 발동하게 하는 것은 이이다."라고 하였다. 발동하는 작용을 하는 기와 그 원리로서의 이는 서로 개념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일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기를 물과 그릇에 비유하면, 그릇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는 것은 기가 발동할 때 이가 기에 타는 것과 같고, 그릇과 물이 함께 움직여 그릇의 움직임과 물의 움직임이 다르지 않은 것은 이가 발동하는 것과 기가 발동하는 것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 이와 기의 비유

또한 그는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理通氣局]."라고 주장하며 이와 기는 묘합(妙合)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형체가 없어 모든 것의 성(性)이 되는데, 이러한 측면을 가리켜 **'이통(理通)'**

탐구해 보기

갑, 을은 조선 시대 사상가이다. 다음 대화를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 보자.

갑: 사단과 칠정은 사람이 말을 타고 출입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을 언급하지 않고, '사람이 간다.' 고만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 '말이 간다.' 고만 말할 수도 있다. '사람이 간다.' 고만 말해도 말의 움직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말이 간다.' 고만 하여도 사람의 움직임이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을: 사람이 말을 타는 데 비유하면 사람은 성(性)이고 말은 기질이니 말의 성질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또한 문을 나설 때 말이 사람의 의사를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 사람이 말의 발굽만 맹목적으로 믿고 나오는 수가 있으니 말이 사람의 의사를 따르는 것은 사람이 주(主)가 되니 **도심(道心)*** 과 같고, 사람이 말만 따라가는 것은 말이 주가 되니 **인심(人心)*** 과 같다.



***도심과 인심**: 도심은 순수하고 도덕적인 마음이며, 인심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욕으로 말미암아 부도덕한 마음으로 흐를 수 있는 위태로운 마음을 의미한다. 성리학에서는 인욕을 없애고 인심이 항상 도심을 따르는 수양 공부를 강조하였다.

1. 갑과 을에 해당하는 한국 사상가는 각각 누구인지 써 보자.

2. 갑, 을 두 진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설명해 보자.

이라고 하였으며, 구체적 형체를 갖추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기는 그 형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측면을 가리켜 '**기국(氣局)**'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률과 제도의 폐단이 생기면 이를 새롭게 개혁하는 '경장(更張)'의 단계를 맞게 된다고 전제하면서, 당시 사회는 경장이 요청되는 위기 상황이므로 사회 모순과 폐단을 극복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세론***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선의 성리학은 추상적인 논의에만 안주하고 예법의 형식과 절차에만 집착했던 것이 아니라, 성리학적 가치 질서에 근거하여 사회적 이상을 추구하고자 구체적 현실을 철저히 통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세론(經世論)**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린다는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비롯된 말이다.

실학사상의 전개

임진왜란 이후 계속된 전쟁으로 민생이 깊은 도탄에 빠지자 백성을 구제하고 사회의 안정된 질서를 회복하고자 실학사상이 등장하였다. 한국의 실학사상은 조선 사회의 정통 이념으로 계승되어 온 성리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한국의 실학사상이 성리학과 다른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성리학이 유교적 도덕 수양을 통한 완성된 인간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였다면, 실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중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국 실학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 주는 학자가 **정약용***이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수령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백성이 수령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민·민본 사상을 발전시켰다.

정약용은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에 활동하면서 한국의 실학사상을 집대성하였다. 그는 성리학이 민생은 도외시한 채 이기론(理氣論)의 관념적 논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비판하였다. 그는 인간에게 도덕성이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다는 성리학의 입장은 옳지 못하며, 선을 행한 다음에 덕이 형성되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이란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명칭은 일을 행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한 뒤에 그것을 인(仁)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는 인이라는 명칭은 성립하지 않는다. – 정약용, "여유당전서" –

또한 그는 욕망을 인간이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보면서 욕망의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동시에 마음속에서 도의(道義)에 따르려는 마음과 사사로운 욕심에 따르는 마음이 서로 갈등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그는 삶에서 주체적 결단과 행동이 요구되는 인간 존재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다산 초당(전남 강진)
다산 초당은 정약용이 강진으로 귀양을 와 유배 생활을 하였던 곳이다. 그는 10여 년 간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저작을 남겼고, 실학을 집대성함으로써 이곳은 실학사상의 산실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정약용은 하늘이 인간에게 영명한 마음을 부여하였는데, 그 마

음이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미워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부끄러워하는 성질을 성(性)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그는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을 즐거워하고 미워하는 등의 **기호***로 파악하는 **'성기호설(性嗜好說)'**을 자신의 독자적인 성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하늘이 인간의 마음에 선을 하고자 하면 선을 하고, 악을 하고자 하면 악을 하게 하는 권능[自主之權]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실천한 착한 행위는 자신의 공(功)이 되지만 나쁜 행위는 자신의 죄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약용의 실학사상은 사회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인식과 개혁 · 개방책을 제시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경학***을 통해 실학의 철학적 기반을 새로운 지평에서 열었고, 우리의 역사 · 지리 · 교육 · 풍속 · 의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를 새롭게 조명하여 한국 사상사의 흐름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 기호(嗜好)**
'무엇을 즐기고 좋아하는 일'을 의미한다.

*** 경학(經學)**
유교의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약용은 '4서 6경'에 대한 해석서를 편찬하였다.

근대의 한국 유교 사상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윤리 의식은 더욱 희박해지고 사회는 더욱 혼미한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현실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국 유교 사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먼저, 당시 이단으로 배척되던 양명학이 **강화 학파**를 중심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강화 학파는 강화 지역에서 양명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을 수용함으로써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된 자아를 각성하고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을 펴 나갔다. 학파의 구성원 대부분은 현실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로서, 허위와 가식으로 얼룩진 현실 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양명학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들은 신분제의 철폐를 주장하는 등 근대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며 구한말을 거쳐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그 맥을 이어 갔다.

19세기 중엽 이후 한국은 외세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누적되어 온 사회적 모순으로 사회적 갈등과 개인의 윤리 의식이 큰 문제가 되었다. 당시 유학자들은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민족의 생존과 주체성의 위기로 인식하였다. 이즈음 정통 성리학의 입장에서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려는 **위정척사* 사상**이 나타났다. 이들은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 우리의 생존과 주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교적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 정책이 노골화되자 척양(斥洋) · 척왜(斥倭)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의병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반외세 민족주의 정신을 고양해 나갔다.

한편, 당시 세계정세에 대한 지식이 확산되면서 문호 개방과 개화를 거스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개화사상**이 등장하였다. 개화사상가들은 개화를 시대적 운명으로 인

*** 위정척사(衛正斥邪)**
'바른 것은 지키고 거짓된 것은 물리친다.'는 뜻이다. 바른 것이란 공자와 맹자에서 비롯되어 주자로 이어져 온 유교 사상을 의미하며, 거짓된 것이란 서학과 서양 문물을 말한다.



▲ 척화비(斥和碑)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으면 곧 화의하자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라고 새겨져 있다.



▲ **문명적 진군(대한민보 수록 삽화, 1909)**
물리적 힘(군사력)보다는 붓으로 상징되는 이성의 힘(문명)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식하고 서양의 우수한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근대화를 이룸으로써 민족의 생존과 주체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개화사상은 기존의 유교적 정신과 질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발달된 군사 · 과학 기술과 같은 문물만을 수용하자는 **동도서기(東道西器)**에 중점을 두는 입장과, 정치와 사회 개혁을 더욱 중요시하여 왕권을 제한하고 혁명 정부를 구성하여 기존 질서를 쇄신하자는 급진적 개화사상의 입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화사상이 추구한 목표는 경제적 부강과 자주독립 국가의 건설이었다.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본이 식민 정책을 본격화하자,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애국 계몽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의병 활동과 같이 때와 힘을 살피지 않고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만 없애는 무장 투쟁보다는 근대화된 학교 설립과 신문 · 잡지의 발간, 산업 진흥 등을 통해 경제적 · 문화적 실력을 양성하는 것만이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볼 때 유교 사상은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정립하고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 지향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정척사 사상과 개화사상, 애국 계몽 운동은 서양 세력의 도전을 계기로 조성된 위기를 극복하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고자 한 유학자들의 노력과 실천을 잘 보여 준다.

한 토막 이야기

같은 듯 다른 최익현과 유길준의 나라 사랑



▲ **최익현(崔益鉉)**

조선의 마지막 선비로 일컬어지는 최익현(1833～1906)은 위정척사 사상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1905년 일제가 우리나라와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우리의 국권을 강탈하자 70세가 넘은 늙은 몸을 이끌고 전라북도 태인에서 항일 의병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의 의병 활동을 진압하러 온 군대는 일본군이 아니라 대한 제국의 정부군이었다. 차마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일은 못하겠다고 생각한 그는 자진하여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였다.

일본군에 의해 쓰시마 섬으로 끌려간 그는 원수의 땅을 밟지 않겠다는 의미로 고국에서 가져간 흙을 신발에 깔고 다녔고, 일본인들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며 세수를 할 때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최익현의 모습은 면면히 이어 온 우리의 선비 정신을 잘 보여 준다.



▲ **유길준(兪吉濬)과 "서유견문"**

유길준(1856～1914)은 젊은 시절부터 서양의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접함으로써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의 흐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서양의 여러 나라를 직접 체험한 그는 개혁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정치 전면에서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쳤다. 특히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단발령을 공포하고, 황태자의 머리를 손수 자르기도 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최익현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서양의 정치와 사회 실상을 정리하여 "서유견문"을 펴냈으며, 계몽 운동에 주력하여 국민 경제회, 호남 철도 회사 등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위기에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의 역량을 키워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지켜내고자 했던 우국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유교 사상의 의의

한국 유교 사상은 삼국 시대와 고려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를 통치하는 원리와 윤리적 가치 기준으로서 한국인의 의식과 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첫째, 한국 유교 사상은 인간 존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국 유교 사상의 바탕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긍정과 인간을 위한 의식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사후 세계에 대한 기대보다 현실 세계에서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우리 전통 사회 속의 유교는 인간을 세계와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조화를 이룬 존재로 인식하였다. **훈민정음***의 제자(製字) 원리에 담긴 천 · 지 · 인(天地人)의 결합 구조는 이를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훈민정음(訓民正音)**
ㆍ는 둥근 하늘[天]을 본뜬 것이고, ㅡ는 평평한 땅[地]을 본뜬 것이며, ㅣ는 직립한 사람[人]을 본뜬 것으로 이 세 가지는 모음 형성의 기본자가 된다.

둘째, 한국 유교 사상은 한국인의 윤리 의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교적 윤리 의식은 우리의 윤리 전통에 가장 확고한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유교 윤리의 영향 속에 형성된 가족적 인간관계의 도덕규범은 사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바람직한 사회상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조선 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강조된 인격적 내면성에 대한 확신과 인간 중심의 규범 질서는 가치 전도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정신적 · 도덕적 자산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셋째, 한국 유교 사상은 학문을 통해 내면의 덕을 축적하여 이를 백성을 위해 발휘하는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 점은 조선 시대 선비들을 통해 잘 드러난다. 선비들은 배우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학문을 본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포부를 펴서 백성이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며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 의식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정책이 유교 정신에 어긋났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상소나 간언을 하였고,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한 권력을 향해 도의를 부르짖기도 하였다. 또한 외적의 침입에 대항하여 의병 활동을 하고 저항 운동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고자 하였으며, 일제의 국권 침탈에 저항하며 순절(殉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시대와 사회가 지닌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실천적인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선비 정신은 오늘날까지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한국 유교 사상은 우리 지형에 순응하며 흘러온 강물처럼 한국의 정서와 풍토에 스며들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이제 한국 유교가 강조한 인간 존엄성, 도덕의식,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식인의 역할과 책임 등을 현대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 **명륜당(明倫堂, 서울 종로구 소재)**
'윤리를 밝히는 집'을 의미한다.

명화 / 사진 / 영화 속
윤리 이야기

서양 공무원 선발 제도의 배경

서양 사회에 영향을 끼친 중국 문화





▲ 중국의 과거제 모습

중국이 종이와 화약 제조국으로서 문명의 발달에 공헌했다는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의 유교 사상이 17~18세기에 걸쳐 서양의 평등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대개 미국의 공무원 선발 제도가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채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영국에서 공무원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열렬히 토의되던 당시, 많은 사람이 중국의 역사 깊은 공무원 선발 제도(과거제)에 관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얼마나 될까? 영국에서 제안된 안(案)과 중국의 오랜 제도가 의심의 여지없이 서로 닮았음을 알고는 영국 의회 내의 반대자들은 그 안을 '중국식'이라고 해서 반대한 반면, 찬성자들은 같은 이유로 옹호하였다. 1875년까지지도 영국의 한 주간지에는 자신들의 공무원 선발 제도를 '차용된 중국 문화'라고 해서 공격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

– 크릴(Creel, H. G.), "중국 사상의 이해" –



중단원 갈무리

내용 정리 문제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써 보자.

(1) 공자 사상의 핵심은 □이다.

(2) 공자가 강조한 것으로, 각자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이라고 한다.

(3) 인륜이 구현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유교의 이상 사회를 □□이라고 한다.

(4)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이라고 한다.

(5) 맹자는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패도 정치를 반대하고 덕으로써 다스리는 □□ □□를 주장하였다.

(6) 순자의 □□□□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을 옛 성현의 가르침에 따라 바로잡아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 다음 진술을 검토하고, 틀린 부분은 바르게 고쳐 보자.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바로잡음
(1) 성리학은 공자와 맹자의 관점을 배척하였다.	○ / ×	
(2) 성리학의 이는 만물의 근원적 원리이며, 기는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이다.	○ / ×	
(3) 이황은 사단과 칠정이 동일한 연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 / ×	
(4) 이이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동한 것이며, 이는 기가 발동하게 하는 근거라고 보았다.	○ / ×	
(5) 정약용은 인간에게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가 있다고 보았다.	○ / ×	

3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자.

(1) 이황의 이기호발설 •

(2) 주희의 성리학 •

(3) 이이의 이통기국론 •

(4) 왕수인의 양명학 •

• ㉠ 인간의 본성이 곧 이치이다.

• ㉡ 마음 밖에는 어떤 사물도 이치도 없다.

• ㉢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 ㉣ 이와 기는 모두 발동한다.

인물과 고전을 말하다

서양인들이 본 공자와 "논어"



공자는 개인의 도덕성 회복과 함께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을 찾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그는 위정자들과 제자들을 일깨워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논어"이다. 이 책은 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들이 서로의 기록을 모아 논찬(論纂)하였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것이다.

공자의 사상이 담긴 "논어"가 처음 서양에 알려진 것은 16세기 말 스페인 사람인 멘도사의 "중국 대제국사"에 부분적으로 번역되면서부터이며, 17세기 말에는 프랑스 어로 완역되었다. 영어로 된 "논어"는 1861년 영국인 선교사 제임스 레게에 의해서 처음으로 출간되었으며, 이후 여러 사람에 의해 잇달아 영어 "논어"가 간행되었다.

◀ 공자(孔子)



▲ 마르코 폴로(Marco Polo, 1254~1324)와 "동방견문록"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이래 중국은 서양인들의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이후에 동방 여행기를 써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유럽인도 있었으나 여행기 대부분은 황당한 허구였고, 중국의 문화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한 것은 거의 없었다.

16세기 말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도착하여 지식인이나 왕실과 친교를 맺으면서 서양인에 의한 중국의 정신적 문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예수회 본부에 보낸 그들의 서신을 통해 유럽은 처음으로 중국 문화와 사상의 진면목을 접하게 되었다.

선교사들이 주로 활동하던 당시 중국의 통치 이념은 성리학이나 양명학이었다. 이 들 학문은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자연스럽게 "논어"를 접하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논어"에 담긴 사상이 당시 서양의 여러 사회적인 병폐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상이라고 생각하였고, "논어"는 적극적으로 서양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논어"를 비롯한 유가의 경전에 대한 마테오 리치의 다음 견해는 동양 사상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

이 책들을 모두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성의 빛과 상반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과 조화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이 책들은 우리의 어떤 철학자의 저술에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당시 유럽은 문예 부흥기의 지적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문예 부흥과 지리적인 발견, 항해술의 발달 등으로 사회적 변동과 혼란을 치유하기 위한 사상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때 공자가 제시한 관료주의 통치 철학, 그리고 공동체적 사회관은 세습적 귀족 제도의 폐단을 혐오하고 평등에 입각한 새로운 세계관을 갈구하던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특히 볼테르는 도덕 문제에 있어서 유럽인들은 중국인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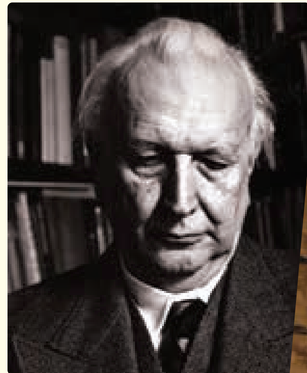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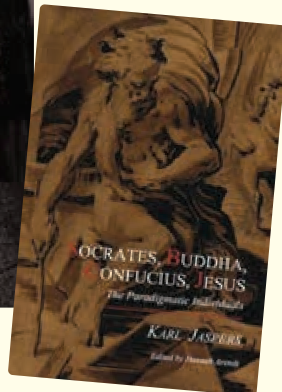
나는 공자의 책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발췌하였는데, 모두가 가장 순수한 것뿐이었으며, 엉터리 같은 것은 조금도 없었다. ……지구 상 가장 행복한 시기, 따라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시대는 공자가 제시한 법을 따른 시대였다.


▲ 볼테르(Voltaire, 1694~1778)

물론 이러한 견해는 정치인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지만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정치의 목표가 국민의 복지이어야 한다는 공자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 동양학 강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으로 꼽히고 있는 크릴(Creel, H. G.)의 "공자와 중국의 길(Confucius and the Chinese Way)"은 공자라는 인물과 중국에서 공자 사상의 수용, 채택, 변천 과정, 그리고 공자 사상이 유럽과 현대 중국에 끼친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설득력 있게 해설하고 있다. 그는 공자가 일반적으로 매우 완고한 보수주의자로 인식되어 왔으나, 사실은 위대한 혁명가 중의 한 사람이고, 공자 사후 몇 세기 안에 중국에서 세습적 귀족이 사라진 것이 공자의 영향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공자는 마음속으로는 세습 군주제를 폐지하고 싶어 했지만 당시의 사회 상황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자는 군주를 그대로 두고 덕과 가능성이 있는 신하가 실권을 갖고 통치하는 관료 중심제를 만들어 백성을 위한 정치를 수립하고자 하는 '무혈 혁명'을 강조했다고 설명하였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야스퍼스는 1957년에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예수(Socrates, Buddha, Confucius, Jesus)"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이 책을 통해 야스퍼스는 공자의 인품과 사상에 대해 깊은 공감을 갖고, 공자의 핵심적인 면모를 아주 쉽게 해설해 놓았다. 그는 공자의 인간관과 도덕, 그리고 정의가 모두 같은 뿌리를 갖고 있음을 전제한 뒤, 국가 공동체는 그 구성원 모두의 정신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 인간은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성숙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공자의 사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공자 사상의 합리적 · 실용적인 면모와 함께 그의 인생에 대한 경건한 태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름다움과 질서, 진실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공자의 열망을 지적하였으며, '공자 삶의 원동력은 권력욕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라고 설명하였다.

▲ 야스퍼스(Jaspers, K., 1883~1969)와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예수"

– 서지문, '서양학자들이 본 공자와 논어' –

1. 서양인들은 공자와 "논어"의 어떤 점에 흥미를 느꼈을지 생각해 보자.

2. "논어"를 읽고 자신이 감명을 받은 구절을 소개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보자.

3 불교 윤리 사상

학습 목표

- 불교 사상의 연원과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상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불교 윤리 사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 한국 불교 사상의 특징과 교훈을 설명할 수 있다.

중단원 스케치

석가모니는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서 지배 계급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신분제가 지배하던 당시의 사회 속에서도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오히려 부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출생 신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생각하는 마음, 큰 자비의 마음, 지혜로움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다.



*우파리: 부처가 가르친 열 명의 뛰어난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계율을 가장 잘 지켜 '계율제일'이라고도 불렸다. 그는 출가 전 왕궁에서 왕자의 머리를 깎던 낮은 신분의 이발사 출신이었다.

01 불교 사상의 연원과 전개

인드라망(Indra's net)은 세상을 바라보는 불교의 관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인드라망의 그물은 끝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이음새마다 보석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구슬이 자리 잡고 있다. 그물로 연결된 구슬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 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나의 구슬이 움직이면 모든 구슬이 움직이며 영향을 주고받는 인과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緣起)'라고 한다.



단원 열기

- 나의 생각이나 행동 중 다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 불교에서 인과적 관계를 중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불교의 성립과 근본 교리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석가모니는 '석가족(釋迦族)의 성자(聖子)',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깨달은 사람을 산스크리트 어로는 '붓다'라고 칭한다. 불교는 특정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를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그러한 까닭으로 '깨달음의 종교'라고도 일컬어진다.

석가모니, 즉 부처의 깨달음은 당시 인도의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인도에서는 강력한 신흥 왕국의 출현과 도시의 형성 등으로 급격한 정치적 ·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이 시기에는 강한 계급적 성격을 지닌 전통 사상인 **브라만교***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우주관과 인생관을 제시하는 새롭고 자유로운 사상가들이 출현하였다. 이들을 일컬어 '사문(沙門)'이라고 하는데, 부처 역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부처는 **육사외도***로 대표되는 당시 유행하던 사상가들이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편견에 빠져 있다는 점을 자각하였다. 그리하여 우주의 본질과 현실 두 측면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것을 강조하며, 있음[有]과 없음[無], 쾌락[樂]과 고통[苦], 생(生)과 멸(滅)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실천적 수행을 강조하는 **중도(中道) 사상**을 내세우며 자신의 깨달음을 설파하였다.

다음 그림은 왕자 시절의 싯다르타가 카필라 성의 동서남북 4문 밖에서 인생의 네 가지 괴로움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四門出遊]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 석가모니(釋迦牟尼, 기원전 563?~기원전 483?)

***브라만교(Brahmanism)**
브라만 계급을 중심으로 "베다"를 근본 경전으로 하여 발달한 종교로서 계급 제도인 카스트제의 근거가 된다.

***육사외도(六師外道)**
브라만교에 맞서 우주론과 인생론을 제시하였던 6명의 사상가로, 유물론 · 회의론 · 숙명론 · 도덕 부정론 등의 주장을 펼쳤다.



출가한 고타마 싯다르타는 인생의 생로병사(生老病死) 과정과 그에 따르는 고통, 번뇌의 원인과 그 본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 앉아 명상을 하던 싯다르타는 진리를 깨달아 석가모니 부처가 되었다.

부처가 깨달은 내용은 크게 오온(五蘊), 연기(緣起),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 윤회(輪廻)와 **업(業)***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업(Karma)**
전생에서 지은 소행 때문에 현세에서 받는 응보, 또는 몸과 입, 마음으로 짓는 선악의 소행을 가리킨다.

오온은 좁은 의미로는 인간 존재, 넓은 의미로는 우주 만물 일체를 가리킨다. 인간과 우주 만물은 물질적 요소인 색(色, 육체)과 정신적 요소인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이라는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다섯 가지 구성 요소는 마치 거품 또는 신기루와 같은 비실체적인 것으로, 이 세상 만물에는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초 개념 탐구

오온(五蘊)

불교에서는 살아 있는 모든 것은 크게 육체와 정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육체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색(色)이라고 부른다. 정신은 감수 작용[受], 상상 작용[想], 의식 작용[行], 분별 작용[識]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수 작용으로서 수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깨닫고 아는 것을 말하며, 상상 작용으로서 상은 감수 작용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개념화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감각 작용으로서 붉은 꽃을 보았다면, '붉음', '꽃'을 별개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이때 '붉음', '꽃'이 상이 된다. 의식 작용으로서 행은 상으로부터 비롯되는 기억, 상상, 추리,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분별 작용으로서 식은 옳고 그름을 인식하는 분별의 정신 작용을 말한다. 즉 우리는 색, 수, 상, 행, 식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를 '오온' 또는 '오음(五陰)'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온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만나는 인연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된다.





는 주장이다. 이러한 실체 혹은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온의 사고는 '내 것'이라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준다는 깨달음을 담고 있다.

연기는 인연생기(因緣生起)의 줄인 말로, '인연(因緣)'이라고도 한다. 연기란 우주 만물은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상의적 ·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부처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처는 연기를 인생과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법으로 생각하였다.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라는 의미이며,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열반(涅槃)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인과(因果)의 깨달음을 담고 있다. 부처는 사성제를 통해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에 대한 결과와 원인을 밝히고, 이상 세계인 열반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하고 있다.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가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설법한 가르침이 되었을 만큼 사성제는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이다.

윤회는 한 존재가 죽으면 다음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곳에서 살다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서 끊임없이 삶과 죽음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연기적 인과론에 근거하는 **업**은 몸과 입, 마음으로 짓는 선악의 일체 행위이다. 따라서 선한 업의 원인은 선한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 내며, 악한 업은 악한 미래의 결과를 만들게 된다[善因善果 惡因惡果]. 이러한 윤회와 업 사상은 불교의 인과적 세계관과 윤리적 성격을 잘 보여 준다.

이처럼 부처가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직접 가르치고, 그 제자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그 깨달음을 또다시 전한 시기의 불교를 **원시 불교***라고 한다. 특히 부처는 **삼학***을 통한 지속적인 수행을 강조하였다.

*** 원시 불교**
원시 불교라는 명칭은 근대의 인도 학자들이 붙인 말로, 일반적으로 초기의 인도 불교를 의미하는데, '근본 불교', '초기 불교', '고대 불교'라고도 한다.

*** 삼학(三學)**
삼학이란 몸과 입, 뜻으로 하는 나쁜 행동을 삼가도록 하는 계(戒), 어지럽게 흩어진 마음을 한곳으로 고요하게 머물게 하는 정(定), 진리를 깨닫는 지혜인 혜(慧)를 가리킨다.

불교 사상의 전개: 인도의 불교

부처가 열반에 든 이후 불교는 인도의 각 지역과 스리랑카 및 미얀마 등 국외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불교의 급속한 팽창은 교단 자체의 질서 파괴와 교파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특히 부처 입멸 후 100년경 교단 내에서는 깨달음의 방법에 대해 출가수행을 강조하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과, 중생과 부처가 동일하다고 보는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입장이 크게 갈등하였고, 이로부터 여러 갈래의 부파(部派)가 나타났다. 이 시기의 불교를 **부파 불교**라고 한다.

부파 불교는 그 당시 부처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각자 경, 율, 논의 **삼장***을 체계화하였으며, 불교의 교의(敎義)를 학문적으로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불

*** 삼장(三藏)**
- 경장(經藏): 석가모니가 한 설법의 모음
- 율장(律藏): 교단이 지켜야 할 계율의 모음
- 논장(論藏): 교리에 관해 뒤에 제자들이 연구한 주석 논문의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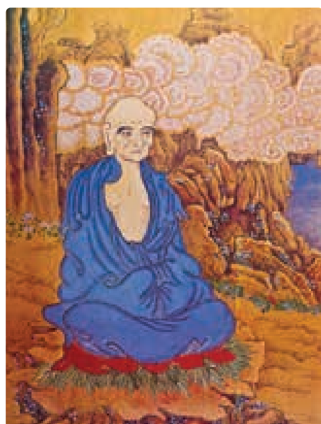
교의 학문적 체계화 및 외적 확대는 부처의 깨달음이 지닌 순수성과 종교로서의 생명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특히 부파 불교의 일부 부파는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과 자기 해탈을 주장하여 현학적이고 개인적인 모습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를 **소승*** **불교**라고 한다.

이러한 소승 불교에 반발하여 개혁 성향을 지닌 새로운 불교로서 **대승*** **불교**가 나타났다. 소승 불교에서는 아라한(阿羅漢)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여긴 데 비해, 대승 불교에서는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노력하는[上求菩提 下化衆生] **보살(菩薩)**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삼았다. 특히 보살이 되기 위한 수행 방법으로 육바라밀(六波羅蜜)의 실천과 함께 지혜와 자비의 완성을 강조하였다.

***소승(小乘)과 대승(大乘)**
소승은 산스크리트 어로 '작은 수레', 대승은 많은 사람을 태우는 '큰 수레'라는 뜻이다. '소승'이라는 명칭은 고대 인도의 대승 불교의 전통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소승 불교를 비판하면서 붙인 이름이다.

2, 3세기경 대승 불교는 **용수(龍樹)**에 의해서 사상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용수는 그의 저서인 "중론(中論)"을 통해서 대승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로서 **공(空) 사상**을 확립하였다.

공이라는 용어는 "반야경(般若經)"을 비롯한 대승 불교의 경전에서 강조되고 있다. 공이란 어원적으로는 '부풀어 오른 모양으로 속이 비어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불변하고 고정적인 실체(實體) 혹은 자아(自我)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대승 불교의 공 사상은 허무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아집과 인식의 오류로부터 벗어나서 나와 너를 하나로 여기는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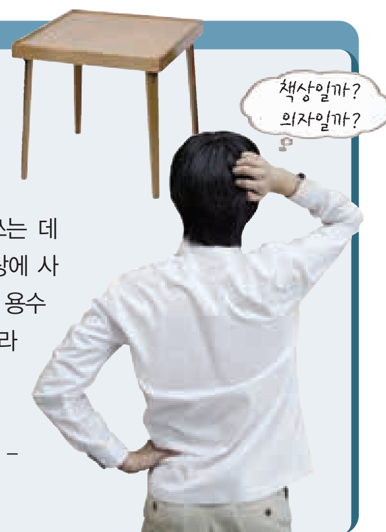


▲ 용수(龍樹, 150?~250?)

인도에서 대승 불교는 7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불교 내부에

기초 개념 탐구

공 사상



'공'이라는 용어는 불교 사상의 근본적인 개념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우리가 책상이라는 사물을 생각하면, 그 책상에 본질적으로 책상의 자성(自性)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공이라는 말로 나타내는 것이다. 책상이란 나무와 못 등으로 만들어져 사람이 그곳에서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데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실제 책상은 나무와 못 등이 서로 결합되어 만들어졌을 뿐이므로 그 책상에 사람이 앉으면 그때는 의자로서 사용되는 것이지 책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용수를 비롯한 대승 불교의 사상가들은 '책상의 자성'이라는 영원한 성격에 집착하는 것은 책상이라는 말에 사로잡혀 함부로 가치 판단을 하는 인간의 본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집착을 일으키는 원인인 잘못된 분별을 없앨 것을 설파하였다.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편찬위원회, "불교 사상의 이해" –

서 상호 간에 활발한 논쟁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힌두교 등 다른 종교와도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대승 불교는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경향으로 흐르면서 대중과 멀어지게 되었다. 또한 7세기 중엽 이후 불교는 당시 인도에서 유행하던 정신적이고 신비로운 신을 의인화한 주술적 성격을 가진 문학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불교 역시 주술적이고 신비로운 불교의 형태인 밀교(密敎)로 빠르게 변화되었다. 10세기 말부터는 다른 종교를 믿는 외세의 침략으로 불교와 힌두교의 성지가 파괴되고 승려들이 학살되면서 인도의 불교는 크게 위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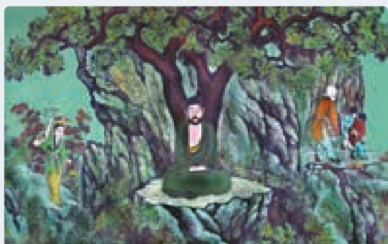
기초 개념 탐구

육바라밀(六婆羅蜜)

'바라밀'은 산스크리트 어인 파라미타(Pāramitā)를 음에 따라 번역한 것으로, 한역하면 도피안(到彼岸)을 의미한다. 도피안은 '저 언덕[彼岸]으로 건너간다[到].'는 뜻으로, 피안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 피안은 차안(此岸)과 대비를 이룬다. 피안은 진리를 깨닫고 도달할 수 있는 열반의 경지를 말하며, 차안은 삶과 죽음이 있는 현실 세계를 말한다. 즉 바라밀은 깨닫지 못한 중생의 삶을 깨달은 부처의 삶으로 완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정형을 이루는데, 이를 '육바라밀'이라고 한다.

차안(현실, 고통, 욕망) —바라밀→ 피안(이상, 해탈, 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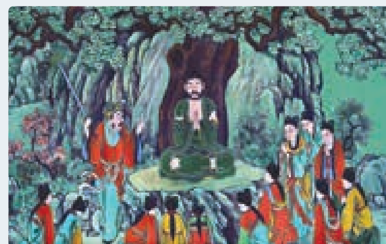
▼ **보시(布施)**: 자기 소유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참된 베풂은 베풀어 주고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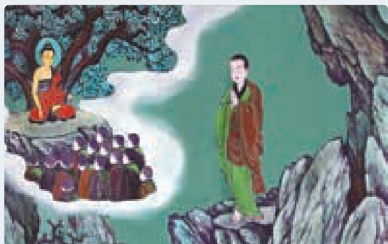


▼ **지계(持戒)**: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기본적인 다섯 가지 계율[五戒]로는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偸盜), 불사음(不邪淫), 불망언(不妄言), 불음주(不飮酒)가 있다.



▼ **인욕(忍辱)**: 욕된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으로, 괴로움을 받아들여 참는 것을 의미한다.





▲ **정진(精進)**: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깨달음을 익히는 태도를 가리킨다.



▲ **선정(禪定)**: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사색하는 것을 뜻한다.



▲ **반야(般若)**: 반야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의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 진리를 인식하는 깨달음의 지혜[般若]를 얻는 것이다.

대승 불교의 전개: 중국, 한국, 일본의 불교

인도에서 성립된 불교는 남쪽으로 스리랑카를 거쳐 동남아시아로 전개되었는데 이를 '남방 불교'라고 하며, 북쪽으로 중국 · 한국 · 일본 등지로 전파된 불교를 '북방 불교'라고 한다. 특히 북방 불교에서는 스스로를 대승 불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남북조 시대(420~589)에 이르러서 체계적이고 깊은 이해가 가능하였다. 남북조 시대는 노장사상의 전성기로, 당시 학자들은 불교와 도교가 둘이 아니라고 여겼다. 이들은 불교 사상의 공(空)과 노장사상의 무(無)를 서로 견주어 설명하고 해석하였는데, 이를 **격의 불교(格義佛教)**라고 한다. 격의 불교는 불교가 중국에 정착되는 방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식인층이 불교에 접근하는 길을 터 주었다. 여기에 불교의 윤회 사상이 수용되면서 전생, 현생, 내세에 대한 인과응보 개념이 중국인의 생활에 뿌리내렸다.

중국 불교는 불교 경전이 대대적으로 한역(漢譯)되면서 격의 불교의 형태에서 벗어나 불교 그 자체로서 새롭게 연구되기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천태종***, **화엄종***, **정토종***, **선종*** 등 여러 종파가 형성되었으며, 중국의 사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천태종은 현실의 온갖 사물이 참다운 존재임을 주장하였고, 화엄종은 영원불멸의 부처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으로서 깨달음[覺]과 보살의 원행(願行)을 제시하여 수 · 당 불교의 사상적 토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은

***천태종(天台宗)**
중국 수나라의 천태 대사 지의가 "법화경"을 근본 교의로 하여 세운 종파이다.

***화엄종(華嚴宗)**
"화엄경"을 주된 경전으로 삼으며, 그 원조를 인도의 용수(龍樹)까지 확장한다.

***정토종(淨土宗)**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주된 경전으로 삼으며,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해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타력적 신앙이다. 정토(淨土)는 부처의 극락세계를 뜻한다.

***선종(禪宗)**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教外別傳), 직지인심(直旨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을 내세우는 종파로서 직관적 종교 체험인 '선(禪)'을 그 중심으로 삼는다.

참고 자료

소승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불교는 연기설을 바탕으로 자비를 베풀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이다. 연기설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무수한 인연에 의해서 생성하고 소멸된다는 진리이고, 자비란 생멸의 과정에서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불교적 사랑이다. 따라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개인의 해탈만을 강조하는 불교의 모습은 진정한 불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대승 불교는 깨달음과 중생의 구제를 중시하는 반면, 소승 불교는 개인의 해탈만을 강조하고 사회적인 면을 도외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소승 불교'라는 이름은 부파 불교 당시 일부의 부파가 자신들만의 부파가 최상이라고 여기고 사원에서 교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어, 대승 불교에 의해 폄하된 불교의 일부 부파의 모습이자 명칭일 뿐이다. 흔히 소승 불교 국가라고 불리는 스리랑카 · 태국 · 미얀마의 승려들은 과거의 부당한 외세 침략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고아원과 노인 복지 시설 등을 사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승 불교 국가의 불교문화를 전적으로 사회와 고립된 개인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불교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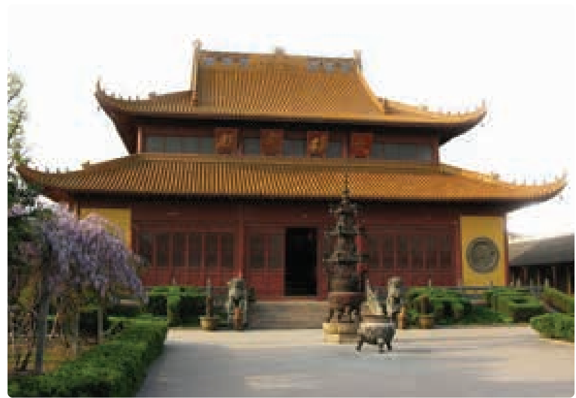
▲ 스리랑카의 각 지역마다 조직되어 있는 'YMBA'는 여행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지역 계몽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소승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정교하지만 난해한 사상적 논리와 추상적이고 방대한 사상 체계로 말미암아 폭넓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비해 '아미타불에 귀의한다.'는 의미로서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을 염불하기만 하면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정토종과 **불립문자***를 표방하며 경전보다는 각자의 불성(佛性)을 한순간에 깨닫는 돈오(頓悟)를 중시한 선종은 중국인의 마음속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 **국청사(國淸寺, 중국 저장 성 소재)**
중국 천태종의 발생지로, 지의에 의해 건립되었다. 11세기 고려의 승려인 의천은 국청사에서 법을 구하고 귀국하여 천태종을 전래하였다.

삼국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던 우리나라는 불교를 주체적이며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시켜 왔다. 한국 불교는 인도나 중국 불교를 단순히 연장하거나 변질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에 맞게 독특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인과적 교리로서의 불교', '구복(求福)으로서의 불교', '선행수복(善行受福)으로서의 불교' 형태를 띠었는데, 이는 전통적 토속 신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가 국가적으로 수용되면서 찬란한 불교문화가 형성되었고, 민족 종교로 정착되어 이어졌다. 특히 불교는 국가의 위기 때마다 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의 조판, 의병 활동, 독립운동 등과 같은 호국 불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국 불교는 오랜 기간 동안 지배층과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불립문자(不立文字)**
'문자로는 세울 수 없다.'는 뜻으로, 참된 진리는 말이나 글을 써서 전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

한토막 이야기

선종의 '염화미소(拈華微笑)'

중국 송(宋)나라의 도언(道彦)이 쓴 "전등록(傳燈錄)"은 석가모니 이후 선종의 기원과 깨달음의 맥을 잇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중에는 선종의 초조(初祖)라고 일컬어지는 마하가섭(摩訶迦葉)의 이야기도 전해진다.

어느 날, 부처가 영취산에 앉아 설법을 하는데, 갑자기 허공에서 꽃 비가 내렸다. 허공에서 흩어져 내린 연꽃을 지켜보던 부처는 설법 도중에 갑자기 말을 끊고 한 송이 꽃을 집어 들고[拈花] 대중들에게 그 꽃을 보여 주었다[示衆].

갑작스러운 부처의 행동에 수많은 대중은 부처의 뜻을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때, 제자인 마하가섭이 미소(微笑)를 지었다. 이에 부처는 수많은 말과 글로써 전해지지 않는 참다운 부처의 깨달음이 마하가섭에게 전해졌음을 알고, 바른 진리의 가르침, 번뇌와 미혹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지혜를 마하가섭에게 전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깨달음이란 말과 글, 문자로써 전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문자에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不立文字], 오로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진다[以心傳心]는 선종의 종지(宗旨)를 담고 있다.





▲ **사천왕사(四天王寺)**
백제인에 의해 건립된 일본 최초의 사찰이다.

일본의 불교는 6세기경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전래되었다. 특히 초기 일본 불교는 백제와의 교류를 통해 체계화되었다. 이후 정토종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13세기경 정토종을 자기만족과 도피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묘법연화경"을 믿고 의지하면 물질적 · 정신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니치렌종[日蓮宗]이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선종은 일본의 중요한 불교 종파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 불교는 일본의 전통적 신도(神道)와 함께 절충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주요한 종교로 자리 잡고 있다.

동아시아 불교가 사회에 끼친 영향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동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불교는 지리적으로 구분된 동아시아를 문화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질적인 중국과 인도 문명의 융합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중국으로 전파된 불교는 그 경전이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다양하면서도 공통된 문화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불교는 한국, 중국 등의 인쇄술, 조각, 회화, 건축 등 지적 · 학문적 · 예술적 문화가 크게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참고 자료

불교의 전파



중국에서 비롯된 한자와 중국에 전해진 불교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동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되면서 '동아시아'라는 사회, '동아시아'라는 문화, '동아시아'라는 사상이 형성되고, 점차 하나로 묶여지기 시작하였다. 불교가 전해지면서 불교에 의해 동아시아라는 문화적 연결망이 형성된 것이다. 한자와 유교 등의 공통 요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다름 아닌 불교의 전파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방으로 전파된 대승 불교가 비단길을 거쳐 중국에 이르렀을 무렵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 문화적 개념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시기였다. 중국의 통일 왕조를 거치면서 왕조의 수도인 낙양(洛陽)과 장안(長安)을 기점으로 불교는 각지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불교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문화적 종합체로서의 성격을 지닌 종교였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 지역은 불교를 수용하면서 왕성한 생명력으로 변화를 거듭했으며, 그 변화는 다시 불교의 변형을 촉진하였다. 기원 전후에 시작하여 11세기 무렵이 되어서야 일단 마무리되는 불교의 전파는 동아시아를 전반적으로 변모시켰고, 그 결과 동아시아 불교문화가 탄생하였다.

– 석길암, "불교, 동아시아를 만나다" –

불교의 윤회와 업, 인과응보의 생사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켰다. 불교의 생사관은 윤회와 인과응보의 개념을 지나친 현세 중심의 사고로 자칫 도덕적 타락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특히 신분제 사회에서 천대받던 백성들에게 내세에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삶의 희망을 갖게 해 주었다.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直旨)"**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승려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을 뽑아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처와 같은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로 보고, 상호 관계를 연기적 관계로 이해하는 불교적 세계관은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서로 의지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해 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끊임없는 자기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어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보는 불교의 수행론은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행복의 기준으로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수행의 주체로서 신뢰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삶의 주체로서 긍정하며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수행의 완성은 자기 자신의 행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구제하는 것이라는 불교의 교의(敎義)는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불교 최초의 경전 "숫타니파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숫타니파타"는 수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이루어진 경전으로, 석가모니와 초기 불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불교 경전은 본래 문자로 쓰여지지 않았으며, 부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그 내용을 암송해 오다가 문자로 기록한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불교 경전은 소리를 내어 외우기 편하도록 운문(시) 형식으로 전해졌고, 후렴처럼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다음은 "숫타니파타"의 일부이다.

만남이 깊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서 고통이 따르는 법. 사랑으로부터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친구를 좋아한 나머지 마음이 거기 얽매이면 본래의 뜻을 잃는다. 가까이 사귀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방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남을 해치려 하지 말고, 무엇이든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온갖 고난을 두려움 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02 불교 사상의 특징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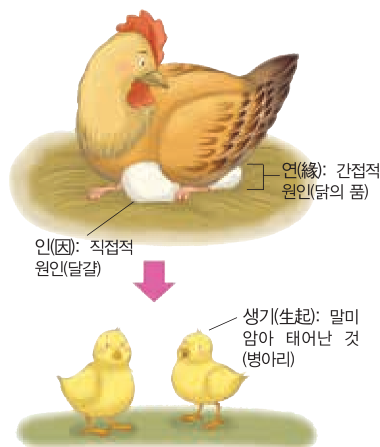
– 장석주, '대추 한 알' –



단원 열기

- 대추 한 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
-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의 특징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불교는 석가모니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는 종교이자 사상이다. 이 깨달음의 요체는 연기(緣起)이다. 부처는 그 중요성을 "너희가 만약 연기를 보면 법을 보는 것이고, 바르게 법을 보면 나(부처)를 보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불교에서 연기는 법이고, 부처이며, 깨달음 그 자체인 것이다.



연기적 세계관

불교의 핵심 교리인 연기 사상은 '인연 사상'이라고도 하며, 생성과 소멸의 근본 원리이다. 인연(因緣)이란 직접적 원인인 조건[因]과 간접적 원인[緣]의 결합이며, 생기(生起)란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또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토막이야기

불성(佛性)은 어디에 있는가?

중생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차원에는 사람, 동물, 식물의 구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성품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생명 하나뿐입니다.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사람이나 동물만을 중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부처님의 근본 도리에서 볼 때는 유정무정(有情無情), 즉 식(識)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또는 모양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有像無像]이나 모두 다 중생입니다. 따라서 일체중생(一切衆生) 개유불성(皆有佛性), 즉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는 말은 어떠한 것이나 사바세계의 두두물물(頭頭物物) 천지만유(天地萬有)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불성은 어디에 있는가? 가슴에 있는가, 머리에 있는가? 불성은 우리 머리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슴이나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 불성의 화신(化身)입니다.

– 청화 스님, "가장 행복한 공부" –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此有故彼有],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此起故彼起].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此無故彼無],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此滅故彼滅].

–"잡아함경" –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현상의 유무(有無)와 생멸(生滅)은 그 나름의 원인과 조건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연기 법칙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와 현상은 없으며, 독립된 존재와 현상도 없다.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은 존재와 현상의 인과성 · 관계성 · 상의성을 강조하는 보편적인 법칙이자 이법(理法)인 것이다.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은 석가모니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성제(四聖諦)**이다. 사성제란 고통의 현실 세계와 해탈의 이상 세계 모습을 인과적으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로써 설명한 부처의 깨달음이다.

고성제(苦聖諦)는 인생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다. 불교의 모든 깨달음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해탈하는 것이라고 할 때, 고통스러운 현실의 자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괴로움의 구체적인 모습에는 생로병사의 사고(四苦)와 **팔고***가 있다.

집성제(集聖諦)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명(無明), 무지(無知), 애욕(愛慾), 집착이라는 것이다. 즉 인간은 세상 모든 것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고, 소유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는 욕망과 집착에 빠지게 된다.

멸성제(滅聖諦)는 현실 세계의 고통이 소멸된 상태, 즉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열반(涅槃)의 경지를 가리킨다. 열반은 불교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궁극적인 경지이다.

도성제(道聖諦)는 멸성제에 이르는 수행 방법을 말한다. 열반에 이르려면 무명에서 벗어나야 하고,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거나 극단적인 고행에 집착하는 삶에서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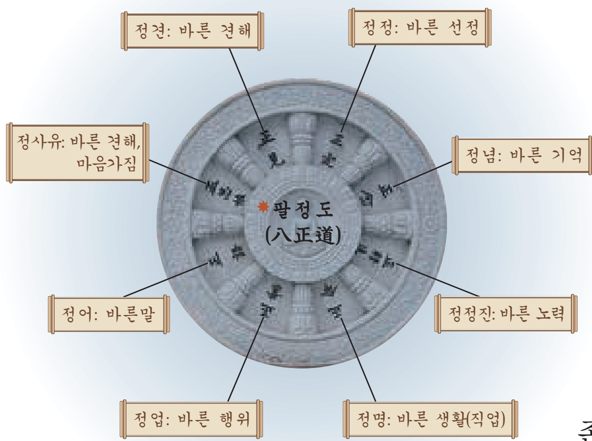
***팔고(八苦)**
사고(四苦)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愛別離苦],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怨憎會苦],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求不得苦], 오온의 집착에서 생기는 고통[五取蘊苦]을 말한다.

한 토막 이야기

환자를 고치는 '의사 부처'



▲ 고성제: 환자의 상태 진단 ▲ 집성제: 아픔의 원인 규명 ▲ 멸성제: 원래의 건강 상태 회복 ▲ 도성제: 고통의 원인 제거



유로워야 한다. 이를 '중도(中道)'라고 하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방법이 **팔정도***이다.

또한 연기적 세계관은 우주 만물과 그 움직임의 참모습에 대한 깨달음인 **삼법인***으로 드러난다. 삼법인은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으로 나타나며, 이 세 가지는 분리할 수 없는 연결된 하나의 체계로 볼 수 있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은 제행(諸行), 즉 '일체의 생성된 것', '모든 존재'는 항상 있는 것이 없으며 고정불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의 참모습은 끊임없이 생성 · 소멸하는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

제법무아(諸法無我)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諸法]에 실체적인 자아가 없다는 것이다. 아(我)는 끊임없는 변화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나 본체를 말하는데, 이러한 실체는 연기적 질서 속에서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무아'라고 한다.

열반적정(涅槃寂靜)은 제행무상과 제법무아한 세상의 참모습을 바르게 알게 되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이 사라질 때의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서 열반이란 '불타고 있는 것과 같은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이며, 적정은 '고요하고 괴로움이 없이 편안한 것'이다. 따라서 열반적정은 모든 고통이 사라진 불교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삼법인(三法印)**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를 삼법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일체개고(一切皆苦)는 사람들 대부분이 내[自我]가 실재하는 현실 세계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착각하여 이에 집착하기 때문에 모든 고뇌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삼독(三毒)**
탐 · 진 · 치(貪瞋癡), 즉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말한다. 연기법을 모를 때 나타나며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번뇌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불교에서는 연기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본다. 그리고 세상에 아주 작은 사건이나 현상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으로 전 우주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우리가 밥 한 끼를 먹는다고 했을 때, 밥을 지으려면 쌀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붓고 적절한 온도로 가열해야 한다. 좀 더 그 인연을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그 쌀은 비옥한 농토에서 농부가 볍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해야 얻을 수 있다. 알맞은 햇빛과 바람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농사를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결국 우리의 한 끼 식사는 전 우주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깨달음의 식사, '발우공양(鉢盂供養)'

발우공양은 사찰에서 스님들이 하는 식사법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스님의 밥 먹는 그릇을 '발우'라고 하고, 밥 먹는 것을 '공양'이라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한 과정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한다고 해서 '대중공양', 밥을 먹는 것도 수련이자 수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 공양'이라고도 한다.

주체적 · 이타적 인간관

불교에서는 끊임없는 인연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독립된 고정불변의 실체나 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자칫 불교의 가르침을 과거의 사건이나 행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운명론이나 현실에 대한 허무주의로 오해할 수 있다.

부처는 브라만교가 주장하는 업에 의한 계급 결정론과 운명론을 거부하였다. 부처는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살아 있는 생명에게 채찍질하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살생하지 않는 사람이 **바라문***이다."라고 하였고, 현재의 수행과 도덕적인 행위로써 자신의 계급과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불교는 삶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주체적 인간의 특징으로 도덕성을 핵심에 두고 있다. 또한 부처는 "구하는 바가 있어 **범행***을 행하는 것은 바라문이 아니다.", "집착하는 것이 없고, 사랑하는 것이 없으며, 구하는 바가 없이 청정행을 하는 것이 궁극적 진리이다."라고 하여 **무주상보시***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무주상보시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는 중도와 공 사상이다. 중도란 연기의 인과성을 깨달아 나와 너, 유와 무, 좋음과 싫음 등과 같은 상대적인 극단의 세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대립되는 모든 것 속에서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이를 역동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공이다.

***바라문(婆羅門)**
인도 특유의 신분제인 카스트의 네 가지 신분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의 승려 계급이다. 산스크리트 어로는 브라만(brahman)이라고 한다.

***범행(梵行: 淸淨行)**
불도의 수행 중 중도(中道)의 입장에서 맑고 깨끗한 자비심으로 중생을 이끄는 일을 가리킨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보시란 남에게 내 것을 준다는 뜻이다.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생각조차도 버리는 것을 말한다. 내가 착한 일을 행하였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에 나에게 자만심과 자긍심이 생겨나서 진정한 선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찰해 보기

☑ 개별 □ 모둠 활동

다음 글을 읽고 아래 물음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답해 보자.



▲ 영화 '할(喝)'의 한 장면

선불교에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임제할 덕산방(臨濟喝 德山棒)'이라는 말이 있다. '할'은 고함이고, '방'은 몽둥이이다. **임제***는 제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깨달음을 얻게 하였고, **덕산***은 몽둥이, 즉 매로써 제자를 깨달음으로 인도하였다.

"임제어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바른 견해를 얻고 싶거든 타인에게서 미혹받지 말라.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것은 모조리 없애라. <u>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없애고, 조사(祖師)를 만나면 조사를 없애며, 아라한(성인)을 만나면 아라한을 없애라.</u> 그래야 해탈하여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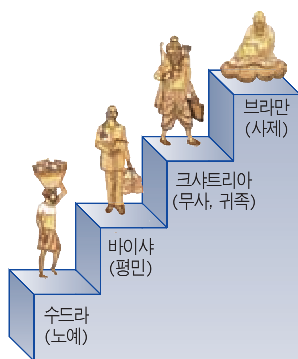
***임제, 덕산**: 중국 당나라의 승려들이다.

1. 불교에서 강조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임제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진정으로 깨닫게 하려고 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부다가야(Buddha Gaya)의 대탑과 보리수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보리(菩提), 즉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보리수를 신성시한다.

공은 불교 사상의 근본적인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로, "반야경"에서 강조하고 있다. 공은 무아(無我)를 철저히 인식하여 이기심을 버리고 중생과 함께할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대승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보살은 중생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곧 자신이 깨달음을 얻는 길이다. 따라서 보살의 목표는 중생을 구제하고, 자신의 번뇌도 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자비행을 실현하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上求菩提 下化衆生] 보살행을 실천하는 인간은, 현상 세계의 집착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구속,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주체적 · 이타적인 인간의 표상인 것이다.



*사성(四姓)
카스트제의 네 계급을 말한다.

평등적 세계관

고대 인도의 브라만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 계급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카스트제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불평등한 차별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발생한 종교가 불교이다. 부처의 언행을 기록한 경전인 "아함경(阿含經)"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 많은 강들이 바다에 흘러들어 가면 단지 바다라는 하나의 이름을 얻듯이, **사성***도 여래의 법과 율에 따라 출가하면 똑같이 부처가 된다.

한토막 이야기

불교와 "서유기(西遊記)"



삼장 법사는 왜 삼장 법사일까? 삼장(三藏)은 경(經), 율(律), 논(論) 세 분야의 불서(佛書)를 가리킨다. 그래서 삼장은 불법 전체를 상징하며 보통 삼장 법사는 불교에 통달한 승려를 말한다. "서유기"에서 삼장 법사가 세 제자와 함께 불법을 구하러 가는 긴 여정은 그 자체가 일종의 구법(求法)이라고 할 수 있다.

손오공이 무찌르는 요괴는 불교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늘 맞닥뜨리는 번뇌이다. 그들을 가로막은 화염산은 아마도 하늘까지 치솟은 번뇌의 불길이다. 왜 오공(悟空)인가? 오공은 '공을 깨닫다.'는 말로, 대승 불교에서는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공하다고 표현하고, 이를 깨닫는 것이 참다운 지혜, 곧 반야(般若)이다.

삼장 법사의 나머지 두 제자인 저팔계와 사오정도 불교 교리에 근거해서 작명된 것이다. 팔계(八戒)는 불살생(不殺生) 등 불교인이 삼가야 할 여덟 가지 덕목을 가리킨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실현해야 할 계율이다. 오정(悟淨)은 청정한 본디 마음의 깨달음이며, 이것은 의식의 평정을 가리킨다. 일렁이는 물결이 잠잠해져 뿌연 흙탕물은 이제 청정하다. 이렇게 보면 삼장 법사의 세 제자는 깨달음의 세 가지 지침인 삼학, 즉 지계[戒], 선정[定], 지혜[慧]에 해당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 배움이라는 뜻에서 '삼학'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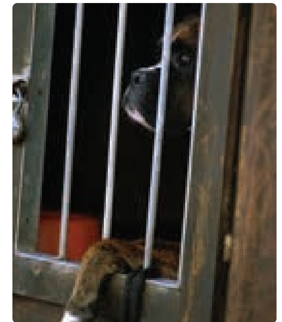
– 김영진, "공이란 무엇인가" –

불교에서 부처가 되는 것은 신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행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 이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진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평등적 세계관은 모든 중생이 완성된 부처라는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가리킨다. 따라서 인간과 다른 생명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고, 생명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평등적 세계관은 고립적이고 수평적 개체로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자각을 심어 준다. 더 나아가 나 자신이 소중하듯이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는 자비를 일으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자비로써 화해 ·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갈 것을 가르쳐 준다.

지금까지 불교 사상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인 연기적 세계관, 주체적 · 이타적 인간관, 평등적 세계관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불교적 관점은 현대 사회의 인간 중심적 · 자기중심적인 문제와 사회적 차별 문제를 극복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기적 세계관은 '나'와 '너'의 관계를 이기적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공생 관계로 보고 서로 화해 · 협력하며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주체적 · 이타적 인간관은 물질주의적 탐욕의 억압 아래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 공생 관계를 추구하는 도덕적 · 주체적 인간 본연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평등적 세계관은 다양한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과 자연의 다양한 구성체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더라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내재적 가치가 있음을 일깨워 준다.



▲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사람들에게 그 까닭을 물으면 "동물은 우리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한다.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고 물으면 "동물은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대답한다.

기초 개념 탐구





자비(慈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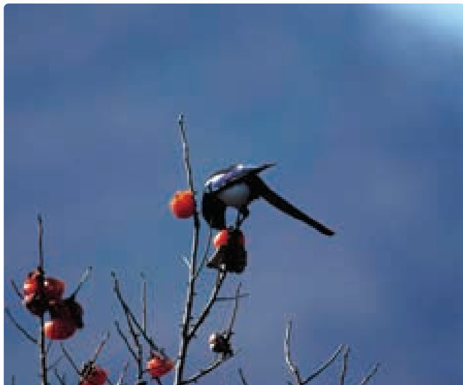
본래 자비는 '자(慈)'와 '비(悲)'라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것이다. 자(慈)는 팔리 어로는 멧타(mettā), 산스크리트 어로는 마이트리(maitrī)이고, 비(悲)는 산스크리트 어와 팔리 어에서 똑같이 카루나(karuṇā)이다.

멧타, 마이트리는 '우정', '친함'을 의미하는 미트라(mitra)에서 나온 파생어인데, 진실한 우정, 순수한 친애의 감정을 의미한다. 카루나는 '동정'이나 '연민'을 의미한다. 남방 불교에서는 자(慈)는 친구에게 이익과 안락을 가져다주려는 마음이며, 비(悲)는 친구에게 불이익과 괴로움을 없애 주려는 마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북방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비를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준다[離苦得樂].'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인도의 용수(龍樹)는 그의 한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대자(大慈)는 모든 생명체에게 즐거움을 주고, 대비(大悲)는 모든 생명체를 위해 괴로움을 없애 준다. 대자는 기쁨과 즐거움의 인연을 모든 생명체에게 주고, 대비는 괴로움을 떠나는 인연을 모든 생명체에게 준다."

– 나카무라 하지메, "붓다, 그 삶과 사상" –

03 한국 불교 사상의 특징과 의의



음란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고, 살생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으며, 도둑질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새가 그릇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거짓말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똥으로 향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이러한 무리는 비록 많은 지혜가 있더라도 모두 마귀일 뿐이다. – 휴정, "선가귀감(禪家龜鑑)" –

◀ 우리 조상들은 감을 수확할 때, 다 따지 않고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까치밥을 남겨 두었다. 까치밥은 우리 조상들의 연기적 세계관과 자비행의 삶을 잘 보여 준다.

단원 열기
- 윗글에서 참선하는 사람과 마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 윗글에 나타난 한국 불교 사상이 강조하는 참다운 수행 방법은 무엇일까?

불교의 전래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시대였다.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 한반도에는 **샤머니즘***적인 성격이 강한 부족 국가가 있었다. 이 당시 왕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한 상징적인 존재였다.

샤먼과 부족장 중심의 부족 국가에서 왕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새롭게 국가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종교와 통치 이념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불교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고구려는 삼국 중 가장 먼저 불교를 수용하였다. 소수림왕 때 전진(前秦)의 왕은 순도(順道)를 보내 불상과 불경을 고구려에 전하였다. 가장 먼저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의 틀을 마련한 고구려의 불교는, 재래의 토속 신앙과 일맥상통하는 '인과적 교리로서의 불교', '현세 구복(現世求福)적 불교'의 모습을 띠었다.

백제는 침류왕 때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후 성왕(526) 때 인도에서 귀국한 겸익(謙益)에 의해 율종(律宗)이 크게 발전하여 백제 불교는 계율주의적 경향을 띠었다. 또한 백제 불교는 불상, 토목, 회화 등의 예술 방면에 탁월하였으며,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여 일본 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샤머니즘(shamanism)**
원시 종교의 한 형태로, 주술을 행하는 샤먼(주술사)을 중심으로 한 종교 현상을 가리킨다.

삼국의 불교 수용
-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 백제: 침류왕 1년(384)
- 신라: 법흥왕 15년(528)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고구려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특히 왕실의 노력에도 씨족 중심의 귀족들이 반대하면서 번번이 국가적 수용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크게 번성하였다. 이후 진흥왕은 신선도(神仙道)의 기반 위에서 불교와 유교를 결합하였다. 이는 화랑도의 세속 오계에 잘 나타나 있으며, 신라 불교의 호국 불교적 특징을 잘 보여 준다.



▲ **관음상(일본 호류 사)**
불교 예술의 극치를 보여 주며, 백제의 불교와 미술이 일본에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교종의 특징과 해탈

통일 신라 이후 대승 불교의 한 종파인 교종(敎宗)이 번성하였다. 교종은 부처의 가르침을 교리화한 경전을 연구하고, 불교의 여러 이론을 정립하며, 백성을 포교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대표하는 승려는 원측, 의상, 원효 등이다. **원측(圓測, 613~696)**은 신라의 왕족 출신으로 중국에서 유학하며 **유식 사상***을 공부하여 신라, 중국, 티베트 등지에서 명성을 얻었다.

***유식 사상(唯識思想)**
마음[心] 외에는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으며,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겨난다는 사상으로, 마음을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자세하게 취급하여 불교 심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토막 이야기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 벽안(碧眼)의 스님 현각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폴입니다."
"그건 당신 몸의 이름이고, 부모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진짜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올해 몇 살이지요?"
"26살입니다."
"그것 역시 당신 몸의 나이입니다." 큰스님은 나의 무릎을 탁탁 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진짜 나이를 알고 싶어요."
나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누구도,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어떤 교수님도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나는 큰스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다. – 현각,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

어린 시절 천주교 집안에서 성장한 폴 뮌젠(Paul Muenzen)은 진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다닌 교회와 학교는 그에게 또 다른 의문과 회의를 안겨 주었을 뿐, 진리에 관한 그의 끝없는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하버드 대학 신학 대학원에 다니던 폴은 숭산 스님의 강연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가 품었던 의문들의 해답이 숭산 스님의 어눌한 영어 강연 속에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미국과 독일의 유명 대학에서도 찾지 못했던 진리가 바로 선(禪) 안에 있었던 것이다. 키르케고르와 쇼펜하우어를 통해 신과 종교에 대해 고민하던 청년 폴은 이 인연으로 한국에서 출가하였고 현각 스님이 되었다.

……현각 스님은 가정, 종교, 명문 대학 등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 땅에 찾아와 수행을 해 오다가, 이제는 숭산 스님과 사제의 인연을 다하게 되었다. 현각 스님은 숭산 스승의 입적 소식을 전하며 "너희들 조심해라. 몸도 믿을 수 없고, 마음도 믿을 수 없다. '오직 모를 뿐(only don't know)'이라는 **화두***를 챙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하였다. – 현대 불교, 2004. 12. 2. –

***화두(話頭)**: 선불교에서 부처와 스님의 말이나 행동, 문답으로 이루어진다. 수행 과정에서 본질에 대한 의구심을 이끌어 내고자 던지는 질문이다.

의상(義湘, 625~702)은 당나라에서 화엄 불교를 공부한 후 귀국하여 태백산에 부석사를 창건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교화하는 데 힘썼다. 특히 의상이 펼친 화엄 사상은 중국의 화엄 사상에 비해 이론보다는 실천 수행을 강조하는 중도를 강조하였다.

원효(元曉, 617~686)는 우리나라의 불교를 가장 독창적으로 발전시켰으며, 당시 귀족 종교였던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원효의 사상은 화쟁과 일심, 무애행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화쟁(和諍)이란 '말다툼, 즉 논쟁[諍]을 조화[和]시킨다.'는 의미인데, 원효는 이를 통하여 각 종파의 다른 이론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반된 주장과 아집으로 분열된 불교의 갈등을 더 높은 깨달음의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화쟁을 가능하게 한 바탕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의 **일심이문***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일심이문(一心二門)

일심(一心)	진여문(眞如門)	변하지 않는 본래적 특징
	생멸문(生滅門)	연기에 의해서 변화하는 특징

일심(一心)의 입장에서 보면, 참다운 모습[眞如]이나 생성과 소멸[生滅]의 모습은 모두 같으면서 다른 것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음이 곧 부처로서 변화하지 않는 진여(眞如)의 특징을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연기에 의해 끊임없이 창조 · 파괴되는 생멸의 특징을 보인다. 결국 모든 종파의 주장은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므로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처의 깨달음을 실천하

참고 자료

같으면서도 다른 길을 걸었던 원효와 의상

원효와 의상은 **도반***이면서 통일 신라 불교의 전성기를 이끈 대표적인 승려들이다. 그러나 이 두 승려는 상반되는 삶으로 불교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귀족 불교가 팽배하던 당시, 원효는 사회적 약자인 백성들을 위하여 무애(無碍)의 파계(破戒)를 행하는 자유분방함으로 불교를 대중화하였다. 일연의 "원효전기"에 의하면, "서라벌의 백성들은 뽕 따는 늙은이에서 어린아이, 심지어 길거리의 불량배에 이르기까지 '나무아미타불'의 석가모니의 고마움을 알았는데, 이것은 오로지 원효의 공로이다."라고 전해진다.


▲ 원효

한편, 귀족 출신인 의상은 사찰에서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보내며, 청정하고 고결한 삶으로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면서 원효와 함께 불교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문무왕이 전쟁이 끝난 직후, 백성들에게 반란군을 막기 위한 성을 쌓으라는 명령을 내리자, 부석사에 있던 의상은 왕을 직접 만나 "왕이 덕이 높으면 그 누구도 넘지 않을 것이며, 왕에게 덕이 없으면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하룻저녁에 무너지는 법입니다."라고 직언하여 성 쌓는 일을 중지시켰다. 의상은 이와 같이 세속의 일에도 정의를 지킬 줄 아는 인물이었으며, 그의 생애를 관통하는 것은 역시 보살의 기개였다.

*도반(道伴): 함께 도를 닦거나 수행하는 동료를 가리킨다.


◀ 의상

는 것이다. 원효는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비를 실천하는 **무애행(無碍行)**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였다. 원효는 중생을 계도하고 구제하는 외형적인 모습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내적으로는 자비의 실천에 어긋나지 않는 무애행을 통하여 참다운 불교를 대중화하고 보편화하였다.

선종의 특징과 해탈

선종은 통일 신라 말 당시 당나라에서 유학하던 도의 선사(道義禪師) 의해 전래되었다. 왕실과 귀족 중심의 교종과 달리, 선종은 지방 호족을 중심으로 부흥하였고 전국적으로 **구산선문***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선종이 전래되고 나서 한국 불교에서는 교종과 선종 간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불교적 · 국가적 목표가 되었다.

교종과 선종의 화해를 위해 노력한 대표적 승려는 고려 전기의 의천과 후기의 지눌이다. **의천**은 교종의 입장에서 경전 공부와 참선을 함께 수행하는 **교관겸수(敎觀兼修)**를 통해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 의천(義天, 1055~1101)

이에 비해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당시 지눌은 선종과 교종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돈오점수(頓悟漸修)**와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수행 방법을 제시하였다. 돈오점수의 돈오는 모든 범부(凡夫)가 곧 부처임을 단번에 깨닫는 것이다. 이는 깨달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선종의 인간관을 잘 드러낸다. 점수는 비록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았더라도 오랫동안 몸에 밴 잘못된 습관을 없애지 않으면 범부와 다를 바 없으므로 잘못된 습관을 제거하여 부처가 되기

***구산선문(九山禪門)**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형성된 선종의 아홉 갈래 파(派)를 가리킨다.


▲ 지눌(知訥, 1158~1200)

기초 개념 탐구

선(禪)

'선'이라는 말은 고대 인도의 사유 명상법인 요가(yoga)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부처의 깊은 사유와 올바른 깨달음을 통하여 불교의 실천 수행인 선정으로 체계화되었다. 요가란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통일하는 수행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요가의 수행법은 인도의 모든 종교나 철학의 모체가 된 수행법이다. 불교의 선정도 부처가 처음 요가의 수행법을 받아들이고 이를 한층 더 발전시킨 불교의 기본 수행 방법이다. 특히 선불교에서는 선의 실천과 수행을 불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얼어붙은 연못이 순전히 물임을 알지만 햇볕을 받아야 녹고, 범부가 곧 부처임을 깨달았지만 법의 힘을 빌려 익히고 닦아야 한다."

– 지눌, "수심결(修心訣)" –

위한 지속적인 수행을 뜻한다. 지눌은 이러한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삼학(三學)에 근거한 정혜쌍수를 제시하였는데, **정(定)**은 선정(禪定)으로서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혼란된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며, **혜(慧)**는 지혜(知慧)로서 사물의 참모습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눌은 수행의 계율을 지키면서 선종의 깨달음과 교종의 지혜를 조화 · 일치시키고자 하였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으로 불교의 여러 종파가 정리되고 통합 · 축소되었다. 이러한 불교의 억압 정책 속에서 휴정과 유정은 임진왜란 당시 전투에 적극 참여하여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특히 휴정(休靜, 1520 ~ 1604)은 선 사상을 중심으로 경전과 염불을 외우는 등의 수행을 인정하였으며, 유교와 불교, 나아가 도교와의 일치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국 불교 사상의 특징과 현대 사회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전래된 불교를 심화하며 주체적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이론에 치우치거나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주장을 조화시키면서 불교의 **동체대비*** 정신을 실천하는 대승적 형태로 계승 ·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우리의 불교 사상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지혜를 제공해 준다.

먼저, 원효의 일심(一心)에 기초한 화쟁 사상과 고려 시대 교종과 선종을 조화시키고자 했던 노력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대승적 차원에서 화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소통의 지혜를 제공해 준다. 예컨대 남북 분단으로 나

***동체대비(同體大悲)**
연기에 의한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을 깨닫고, 중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눔을 말한다.

탐구해 보기

다음 두 **게송***은 선종을 대표하는 두 승려의 입장을 담고 있다.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몸은 본래 깨달음의 나무이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수시로 부지런히 닦아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신수(神秀) –

(나) 깨달음은 본래 나무도 없고
밝은 거울 역시 실체가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낄 수 있겠는가?
– 혜능(慧能) –

***게송(偈頌)**: 불교적 교리를 담은 한시(漢詩)의 한 형태를 가리킨다.

1. (가), (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가), (나) 중 지눌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게송은 어느 것이며, 그 이유를 발표해 보자.

타난 이데올로기적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역할 갈등, 종교 간의 갈등 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이는 인류가 오랜 역사 속에서 지향해 온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조화시키며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라의 원효, 고려의 지눌, 조선의 휴정 등을 통해 볼 때 한국 불교 사상은 모두 불교에 대한 맹목적인 **교조주의***적 입장이나 집착에서 벗어나 백성을 위하여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자비를 위한 무애의 정신으로, 자신이 가진 것만을 고집하지 않는 나눔의 정신과 무소유 정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특히 **무소유 정신**은 물질 만능주의의 탐욕과 고통스러운 현실, 자칫 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개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 구성원 간의 지나친 경쟁이나 극단적 소유욕은 도덕적 가치나 살아 있는 생명을 도구화하는 가치 전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불교의 무소유 정신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 생명의 가치와 본질적 삶에 대해 성찰해 보게 한다.

***교조주의(敎條主義)**
원리나 원칙에만 얽매여 융통성이 없는 태도 혹은 사고방식을 말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가지려면 필요함 없이 그것을 가져야 한다. 버렸더라도 버렸다는 관념에서조차 벗어나라.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에 묶여 있지 말라.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라.

– 법정, "일기일회(一期一會)" –

성찰해 보기

☑ 개별 ☐ 모둠 활동

다음은 현대 우리나라 **선지식***의 가르침을 짧게 요약한 글이다. 이중 자신이 생각하는 불교의 가르침과 가까운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발표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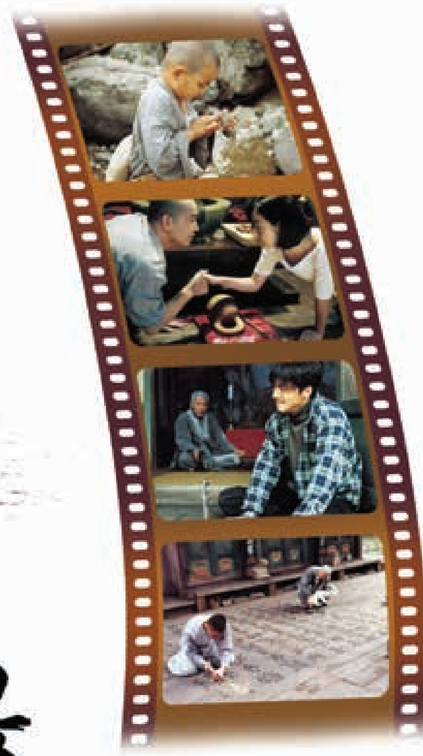


***선지식(善知識)**: 불교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불도(佛道)에 들어가도록 바르게 이끄는 사람을 가리킨다.
***자성(自性)**: 모든 법(法)이 갖추고 있는 변하지 않는 본성을 의미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사계절에 담긴 인생의 사계(四季), 윤회 사상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은 사계절의 변화와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통하여 불교의 깨달음 과정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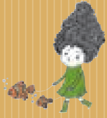
만물이 생성하는 봄은 주인공의 유년 시절이다. 어린아이는 뱀, 개구리, 물고기 등을 괴롭히며 즐거움에 빠진다. 노승은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잘못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평생의 업(業)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름은 소년기로서 사랑에 빠지는 시기이다. 아이가 17세 소년이 되었을 때, 소년은 산사에 요양하러 온 동갑내기 소녀와 사랑에 빠진다. 소녀가 떠난 후 사랑의 집착을 떨치지 못한 소년은 산사를 떠난다.

가을은 분노의 시기로서 소년은 청년이 되었다. 10년 만에 산사를 찾아온 남자는 자신을 배신한 아내를 죽인 살인범 신분이다. 남자가 분노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자 노승은 남자를 매질한다. 남자는 노승이 바닥에 써 준 "반야심경"을 마음에 새기며 산사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남자가 떠난 뒤 노승은 스스로 다비식을 준비하며 이승과 이별을 한다.

겨울은 모든 것을 비워 내는 공(空)의 시기이다. 중년이 되어 산사로 돌아온 남자는 가을에 노승이 준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나무에 새기듯이, 자신의 심신을 수행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낸다.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온다.

이 영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업, 집착, 분노, 비움[空]으로 서로 대비시켜 불교의 지혜를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사계절에 비유되는 우리 삶을 사찰에 사는 스님과 주변의 자연을 통해 조화롭게 그려 내고 있다.



중단원 갈무리

내용 정리 문제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써 보자.

(1) 불교는 유와 무, 쾌락과 고통, 생과 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실천적 수행을 강조하는 □□를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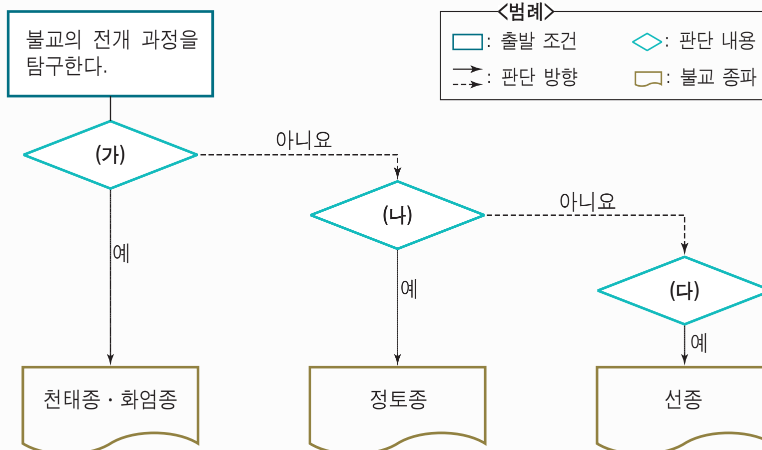
(2) □□은 '무아론(無我論)'이라고도 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인간 존재, 넓은 의미로는 우주 만물의 일체를 가리킨다.

(3) 연기(緣起)란 우주 만물은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적 · □□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4) □□□은 '저 언덕(彼岸)으로 건너간다.'는 뜻으로 피안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

(5) □이라는 용어는 '부풀어 오른 모양으로 속이 비어 있음'을 나타내며, 불교 사상의 근본적인 개념으로 이 세상 만물의 실체가 되는 자성(自性)이 없다는 것이다.

2 다음 순서도 (가), (나), (다)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서로 연결해 보자.



(가) •　　　　• ㉠ 염불을 통해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보는가?

(나) •　　　　• ㉡ 정교한 사상적 논리와 추상적이고 방대한 사상 체계를 이루었는가?

(다) •　　　　• ㉢ 불성을 한순간에 깨닫는 돈오(頓悟)와 이심전심(以心傳心)을 강조하는가?

3 다음 진술을 검토하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자.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바로잡음
(1) 원효의 일심이문 사상은 변하지 않는 본래적 특징인 생멸문과 연기에 의해서 변화하는 특징인 진여문으로 나눌 수 있다.	○ / ×	
(2) 의천은 선종의 입장에서 경전 공부와 참선을 함께 하는 교관겸수를 통해 교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 / ×	
(3) 지눌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돈오점수와 정혜쌍수이다.	○ / ×	

인물과 고전을 말하다

"반야심경(般若心經)"



반야심경의 정식 명칭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이며, 줄여서 '심경(心經)'이라고도 일컫는다. 반야심경은 불교 경전 중의 경전으로 손꼽히며, 한국의 사찰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고 있다. 반야심경의 제목을 풀이하면, 마하(摩訶)는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반야(般若)는 '지혜', 바라밀(波羅蜜)은 이 세계(현실 세계)에서 저 세계(열반 세계)에 다다르는 실천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심경(心經)은 마음이 아닌 '핵심 경전'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결국 반야심경은 부처의 깨달음을 담고 있는 가장 크고 핵심적인 경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반야심경"은 대승 불교에서 공(空) 사상을 강조하는 불교 종파의 하나인 반야부(般若部)의 600여 권의 경전을 한자 270여 자로 그 핵심을 뽑아 엮은 책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五蘊)이 공(空)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색(色)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 (중략) …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롭고 밝은 주문이며
위[上]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심경의 주문을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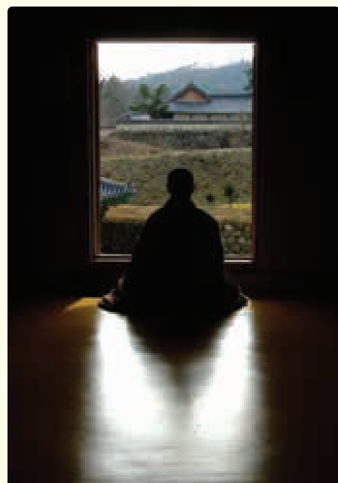


***수상행식(受想行識)**: 감정, 지각, 의지, 의식의 마음 형태를 가리킨다.
***사리자**: 부처의 제자이다.

반야심경은 반야(般若), 즉 지혜의 참된 뜻을 핵심적으로 밝히고 있다. 중생의 고통을 자유자재로 구원해 주는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의 깨달음은 오온(五蘊)이 모두 공(空)하며, 공한 것이 또한 색(色)이고, 색이 곧 공이기에 일체의 모든 대립과 구분, 고정적인 실체는 있을 수 없다는 대승불교의 공 사상을 잘 드러낸다. 결국 반야바라밀의 핵심인 공의 이치를 바로 알 때 비로소 대중은 온갖 고통의 세계를 건너갈 수 있는 것이다.


▲ 관자재보살

이러한 최상의 진리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의 주문(呪文)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는 '가신 분이여 가신 분이여 완전히 가신 분이여, 깨달음이 완전히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가자, 가자, 저 언덕[彼岸]으로 가자, 우리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행복이 영원하여라.'라는 뜻으로, 깨달음의 세계로 넘어간 부처에게 깨달음을 완전히 이루게 해 달라고 바라는 동시에 스스로 깨달음을 얻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주문은 생사의 괴로움이 없는 피안의 저 언덕으로 가는 길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반야심경"의 핵심은 일체의 모든 현상이란 지혜의 눈으로 보면 공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참모습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누구나 마음에 아무 걸림이 없는 불교적 자유의 경지, 즉 그 어떤 곳에서도 열반에 다다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또한 그러한 마음은 고집멸도(苦集滅道), 생사의 모든 것이 공임을 자각하기 때문에 삶과 죽음, 현실과 이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일체의 모든 중생과 생명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한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바람과 다짐으로서의 주문이 곧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인 것이다.

Q 1. "반야심경"에 나타난 공의 의미는 무엇인지 써 보자.

Q 2. "반야심경"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주문의 참된 의미를 서술해 보자.

4 도가 · 도교 윤리 사상

학습 목표

- 도가 · 도교 윤리 사상의 성립과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상을 설명할 수 있다.
- 도가 · 도교 윤리 사상이 제시한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 도가 · 도교 윤리 사상이 한국의 전통 사상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중단원 스케치

노자는 재화나 재물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수단에 불과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추종하는 인간의 그릇된 가치관에서 사회 혼란이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는"얻기 힘든 재물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도둑이 없어지고, 욕망을 일으킬 만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의 생각이 교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하였다.









01 도가 · 도교 사상의 연원과 전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나무꾼을 만났다. 그런데 나무꾼은 나그네 옆에 있는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는 베지 않았다. 나그네가 그 까닭을 묻자 나무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이라네."라고 말하였다. 나그네는 산에서 내려와 옛 벗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 벗은 반가워하며 잘 우는 거위는 살려 주고 울지 못하는 쓸모없는 거위를 잡아 요리해 주었다. 나그네는 혼자 중얼거렸다. "어제 산속의 나무는 쓸모없어서 오래 살 수 있었고, 지금 이 주인집의 거위는 쓸모없어서 죽게 되는구나!" – "장자", '소요유 편' –



단원 열기

- 쓸모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 우리가 말하는 '쓸모 있음'이 언제나 '쓸모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 도(道)

유교와 마찬가지로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태동한 도가 사상은 **도(道)**를 중심으로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노자와 장자에 의해 확립되었기 때문에 도가 사상을 '노장 사상(老莊思想)'이라고도 한다.

노자(老子, 기원전 579?~기원전 499?)의 사상이 담긴 **"도덕경"***에서는 도를 "천지의 시초[天地之始]"이며, "만물의 어머니[萬物之母]"라고 하였다. 도는 천지 만물



*** "도덕경(道德經)"**
도가와 도교 사상의 근간이 되는 저술로서 "노자"라고도 한다. "도덕경"은 200자 원고지 25매 정도의 짧은 분량이며, 저자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자가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초 개념 탐구

같은 글자, 다른 의미의 '도'

유교에서 말하는 도는 도덕적인 면을 위주로 말하는 것이고, 불교의 도는 깨달음이나 수행 방법 등을 말한다. 도가에서 말하는 도는 우주 만물의 근원을 의미한다.




▲ 장자(莊子, 기원전 365?~기원전 270?)

을 창조 · 운행하고 발전시키는 실체이자 원리인 것이다. 그런데 노자는 이 도를 "도라는 말로 표현하면 그 도는 이미 항구불변의 도가 아니다[道可道 非常道]."라고 하였다. 이 말 속에는 우주의 궁극적 근원이 되는 도는 너무 현묘(玄妙)하고 포괄적이어서 과학 법칙이나 공식처럼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럼에도 노자가 우주의 궁극적인 근원을 도라고 말한 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장자는 자신이 처한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서 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도는 실상도 있고 증표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힘을 들여서 함이 없고 나타남이 없다. 따라서 전할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없고, 얻을 수는 있지만 보여질 수는 없다. 스스로를 근본으로 삼고, 스스로를 뿌리로 한다. 그것은 천지가 있기 이전부터 본래 있었다. 귀신과 상제를 신령스럽게 하며 하늘을 만들고 땅을 내었다.
> – "장자", '대종사 편' –

*돌피
볏과의 한해살이풀이다.



장자 역시 도는 모든 존재의 근원적 실체이지만, 문자나 말로써 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도는 "땅강아지나 개미같은 것에도 있고, **돌피***에도 있고, 기와에도 있으며, 똥과 오줌에도 있다."라고 함으로써 "도는 없는 곳이 없다[無所不在]."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도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을 떠난 것이 아닌 실재하는 실체임을 지적한 것이다.

장자가 말한 도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노자의 도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사상가의 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가 사상이 성립되었으며, 이는 이후 도교 사상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한토막 이야기

'도가'라는 명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노자의 사상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처세를 강조하였다면, 장자의 사상은 오히려 세속적인 삶을 초월하여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노자는 노자대로, 장자는 장자대로 각기 나름의 입장을 전개했던 것이다. 선진(先秦) 시대에는 이들을 묶어서 부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나라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자와 장자를 '도가'나 '노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노자와 장자의 학문이 서로 고유의 특색을 지니고 있지만, 두 사상가 모두 인위적인 사상이나 제도에 반대하였으며, 도를 우주 만물 생성의 근본 원리로 생각하는 관점을 토대로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 노장사상은 도를 우주 만물 생성의 근본 원리로 보았다.

무위자연과 물아일체

노자와 장자는 우주 만물의 근원적 원리나 절대적 실체를 도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로 보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험적 지식이나 사유, 제도와 문화 등은 오히려 참된 삶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욱 혼탁하게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사람의 힘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곧 **무위자연***의 세계를 지향하며 절대적 실체인 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였다.

노자가 볼 때 인간은 태생적으로 순박하고 순수한 자연의 덕을 가지고 있으나, 사물의 겉모습이나 형식에 이끌려서 사물의 본질이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였다. 따라서 인간이 지어낸 지식이나 사유, 제도와 문화 등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참된 삶을 방해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것을 없애야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무위자연(無爲自然)**
'무위'란 함이 없다는 뜻이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인위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무위자연'이란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순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찰해 보기

☑ 개별 □ 모둠 활동

다음 두 글을 읽고 아래 물음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가) 얼마 전 대학에 강의를 갔다가 놀란 적이 있다. 여학생 대다수가 성형을 하고 모두 비슷한 눈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형을 한 학생은 예뻐져야만 하는 강박감이 자신을 옥죄었다고 하였다. 또한 수두룩한 얼짱 · 몸짱들과 경쟁 사회에서 평범한 외모를 갖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특히 직업을 '쟁취'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든다고까지 하였다.



(나) 사람들은 소, 양, 개, 돼지를 잡아먹고, 고라니와 사슴은 부드러운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을 먹고, 솔개와 까마귀는 쥐를 좋아한다. 이들 중에서 어느 동물의 입맛이 올바른 것인가? 원숭이는 편저[狚]의 암컷이 되고, 고라니는 사슴과 교미를 하며,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어울려 논다. 모장(毛嬙)과 여희(麗姬)는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하지만 물고기는 그들을 보면 물속 깊이 들어가고, 새는 그들을 보면 높이 날아가고, 고라니와 사슴은 그들을 보면 뛰어 달아난다. 이들 중 누가 천하의 올바른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가? 내가 보건대 세상 사람들이 인의(仁義)와 시비(是非)를 어지럽게 주장하지만 어찌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 "장자", '제물론 편' –



1. (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해 (나)를 주장한 사상가가 해 줄 수 있는 조언을 써 보자.

2. (나)를 주장한 사상가가 생각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세상, 즉 도가 실현된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대도(大道)가 폐하면 인(仁)이니 의(義)니 하는 것이 강조되고, 지략이니 지모니 하는 것이 설치면 엄청난 위선이 만연하게 된다. 가족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효(孝)니 자(慈)니 하는 것이 나서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충신이 생겨난다.
> – "도덕경", 제18장 –

위에서 언급된 인, 의, 효, 자 등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다. 노자는 이러한 덕목이 더 이상 거론되거나 요구되지 않고, 윤리적 제약이나 규범에 머물러 있는 단계를 넘어서 모든 것이 도에 돌아가서 그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경지를 지향하였다.

나아가 장자는 노자의 무위자연에 대한 관점을 토대로 더욱 발전된 사상을 전개하였다. 그는 인간이 감각 기관을 통해 얻는 지식은 참된 앎이 아니라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관계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인간은 '나'에 집착하기 때문에 판단이 주관적이고 불확실하므로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장자의 관점은 **제물(齊物)**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제물이란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어느 한쪽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같은 사물일지라도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기도 하고 동시에 작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자는 시비(是非)와 대립을 초월한 세계에서 사물을 관조할 때 비로소 사물의 참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장자가 말한 **물아일체***의 사상이며,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큰 지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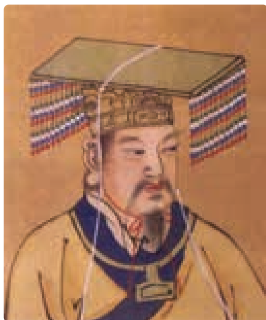
도가 사상은 황로 학파나 태평도, 오두미교와 청담 사상 등이 형성되는 데 바탕이 되었으며, 오랫동안 중국은 물론 주변 여러 나라의 사상과 문화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 물아일체(物我一體)**
사물과 '나'는 구별 없이 하나라는 말로, 우리의 상식과 이분법적 관점에서 보면 사물과 나는 구별되지만, 도의 견지에서 보면 모든 사물은 나와 다를 바 없이 하나가 된다.

도교 사상의 전개

한(漢)나라가 통일되자 사람들은 강성했던 진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하였다. 이들은 진나라의 억압적인 통치 방법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찾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청정 무위를 내세운 **황로학(黃老學)**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황로란 **황제***와 노자의 머리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으로, 황제는 법칙의 발견자이자 법률의 제정자이며, 노자는 도가의 시조로서 무위(無爲)의 삶을 강조한 인물이다. 또한 황로학은 유가, 법가, 묵가 등의 학파가 지닌 일부 관점을 수용하여 노자의 무위 사상을 개조하고 보충함으로써 모든 백성이 질서와 안녕을 누리며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사회를 염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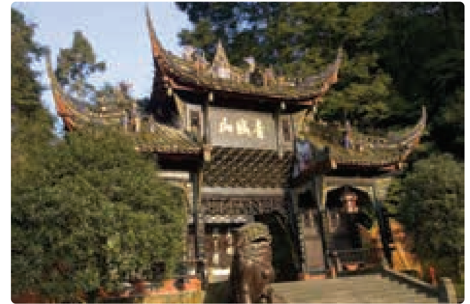
한나라 말에 이르러 세상이 다시 혼란에 빠지자 백성들 사이에서 도가 사상을 근간으로 삼는 태평도와 오두미교가 성행하였다. **태평도(太平道)**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



*** 황제(黃帝)**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국인은 '염황의 자손'이라고 한다. 여기서 '염'은 전설에 나오는 중국 고대의 제왕(帝王)인 염제를, '황'은 황제를 지칭한다. 황로 사상은 중국인들이 자신의 시조라고 생각하는 황제와 노자의 사상을 근간으로 학설을 체계화하였다.

는 기도를 통해서 복을 추구하며, 부적과 맑은 물로써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급속히 퍼져 나갔다. 이들은 막강해진 교세를 등에 업고 이상 사회를 만들고자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태평도의 교세는 꺾이지 않았고 백성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전파되었다.

오두미교(五斗米敎)는 '천사도(天師道)'라고도 불렸는데, 교단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섯 말의 쌀을 바치게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들은 신자에게 노자의 "도덕경"을 학습시키고 그릇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공동체를 위해 일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행을 권장하며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질병이 낫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강조하면서 교단을 갖춘 종교로 발전하였다. 태평도와 오두미교는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탐관오리의 학정이 극으로 치닫는 혼탁한 사회 속에서 핍박을 받고 억울함에 빠진 백성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다.



▲ **청성산(靑城山)**
중국 도교의 발원지 중 한 곳으로, 오두미교를 창시한 장릉(張陵)이 이곳에서 포교를 시작하였다.

황로학이 지배 계층을 위한 사상이었고 태평도와 오두미교가 주로 궁핍한 백성들

탐구해 보기

다음 두 글의 입장을 바탕으로 아래에 제시된 주제에 대해 토론해 보자.

- "세상에 금하고 가리는 것이 많을수록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날카로운 무기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혼미해지고, 사람 사이에 잔꾀가 많을수록 괴상한 물건이 더욱 많아지고, 법이나 명령이 요란할수록 도둑이 더욱 많아진다." 따라서 성인은 말한다. "내가 억지로 일을 하지 않으므로 백성이 저절로 교화되고, 내가 고요히 있는 것을 좋아하므로 백성이 저절로 바르게 되고, 내가 일을 꾸미지 않으므로 백성이 저절로 풍족하게 되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므로 백성이 저절로 순박해진다."

  –"도덕경", 제57장 –

- 인간은 자연의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불필요한 윤리 규정을 만들어 스스로를 속박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든다는 구실로 무기를 개발하여 전쟁을 벌인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오히려 인간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나날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온갖 법령이 제정되고 처벌도 강화되었지만, 오히려 강력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의 지도자부터 무위(無爲)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움의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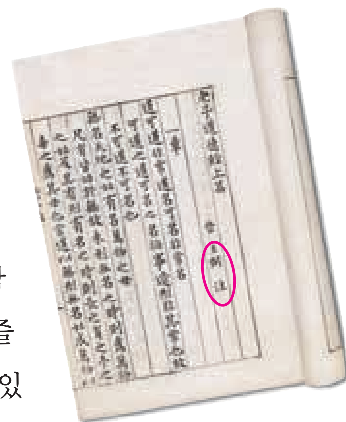
토론 주제
- 스마트폰의 편리함이 우리에게 주는 그늘
- 갈등과 다툼이 없는 우리 반 만들기

＊현학자(玄學者)
위 · 진 시대의 현학자들은 노자와 장자를 숭상하고 예법에 구속받지 않았다. 그들은 노장사상을 토대로 유가의 경서를 해석하고 청담을 즐겼다.

＊왕필(王弼, 226～249)
위나라의 사상가로서, 그가 남긴 "도덕경"에 대한 주석은 오늘날에도 도가 사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꼽히고 있다.

＊정시지음(正始之音)
정시란 위나라 왕인 조방(曹芳)의 시호이다. '정시 연간(240～249)에 나눈 소리'라는 뜻으로, 왕필이 하안(何晏, 193～249)과 주고받은 청담을 가리킨다.

의 고단한 삶을 달래 주었던 종교였다면, **청담(淸談)**은 위 · 진 시대의 **현학자***들에 의해 노장사상을 더욱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청담이란 현학자들이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우주 만물의 본질과 현상, 그리고 이들 양자의 관계와 같은 우주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 견해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청담을 즐겨 논했던 대표적 인물로는 **죽림칠현(竹林七賢)**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위 · 진 교체기의 불안한 현실에 휩싸이지 않고자 은둔 생활을 즐겼다. 또한 현학자들 중 **왕필***이 다른 학자와 주고받은 청담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정시지음***이라고도 칭송되었다. 왕필에 따르면, 도는 모든 현상의 기초가 되고 이를 통합시키는 하나의 궁극적인 원칙이며, 도의 다른 명칭은 '무(無)'라고 하였다. 그는 "무를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하여 무를 '유(有)'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존재의 최종점이자 본체라고 생각하였다.


▲ 왕필이 주석을 단 "도덕경"

도교는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근간으로 시대의 요청에 맞게 변화하거나 다른 학파의 사상과 결합하기도 하면서 민중에게 큰 영향을 주는 종교로 자리 잡았다. 도교의 몇몇 종파에서 보이는 장생불사(長生不死)의 신선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비주의는 도가 사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도를 근본 개념으로 삼아 인위적인 관념이나 제도의 고착화를 비판하면서 무위자연의 경지를 추구한 점은 도가와 도교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죽림칠현

위 · 진(魏晉) 시대 부패한 정치권력과 세속으로부터 탈피하여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추구한 일곱 현학자를 일컬어 '죽림칠현'이라고 한다. 이들은 예교(禮敎), 관직 등의 현실적 속박에서 벗어나 청담(淸談) 혹은 현언(玄言)이라고 하는 우주론적 최고 원리의 경지를 토론하는 논변을 즐겼으며,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사유와 가치를 중시하였다.


▲ '대나무 숲의 일곱 현학자', 죽림칠현(탁본)

02 도가 · 도교 사상의 특징과 한국 전통 사상과의 융합



세상에 물보다 더 부드럽고 여린 것은 없다. 물은 모든 생명을 기르고 모든 사악한 것을 씻어내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 바위와 같은 큰 장애물을 만나도 물은 그와 다투지 않고 조용히 옆으로 비켜 흐른다. 그러나 단단하고 힘센 것을 물리치는 데 물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기는 것, 바위를 뚫는 것도 끊임없이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 아니던가!

단원 열기

- 물이 지닌 특성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
- 물은 도가가 제시한 도와 어떤 점이 닮았을까?

이상적인 삶

고대 중국에는 많은 학파가 있었지만 도가 · 도교처럼 오랫동안 철학과 종교 등의 여러 측면에서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친 학파는 드물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까닭은 도가 · 도교가 지니고 있는 사상적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자는 도를 본받아 따르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도를 실현하려면 인간이 만든 규범적 가치를 버리고 자연의 소박함을 드러내며, 이와 동시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사로움과 욕심을 없애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기초 개념 탐구

성인(聖人)

유교 · 불교 · 도가는 공통으로 '성인'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삼아 이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수양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성인은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교에서는 사리에 밝고 덕과 지혜를 지닌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성인으로 지칭하며, 불교에서는 세속의 모든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가리킨다. 도가에서는 세속적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 대자연과 하나가 된 사람을 일컫는다. 이처럼 유 · 불 · 도가 말하는 성인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성인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와 방법을 일깨우고자 한 측면에서는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상선약수(上善若水)
"으뜸이 되는 선(善)은 물과 같다."라는 의미로, 노자는 물이 갖추고 있는 덕은 무위자연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노자는 자연의 사물 중에서 도가 지닌 속성을 가장 닮은 것이 '물[水]'이라고 하였다. 만약 인간이 물의 속성에 따라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는 곧 도를 체득하고 실현하기 위한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장 이상적인 무위자연의 삶의 모습을 **상선약수**＊라고 한다.

노자는 특히 통치자가 인위적인 제도와 법령을 만들고 부국강병을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일삼는 것은 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통치자는 백성을 통치할 때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에 최대한 관여해서는 안 되며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자는 자신의 아집에서 비롯되는 분별과 대립, 편견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아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보았다. 한마디로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된 정신적 자유를 추구한 것이다. 정신적 자유란 삶과 죽음마저도 초탈할 때 가능한 것이며, 이를 실현한 사람을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성인 등으로 불렀다.

> 지인(至人)은 물아의 구별이 없고, 신인(神人)은 공을 의식하지 않으며, 성인(聖人)은 명예를 무시한다.
> – "장자", '소요유 편' –

장자가 강조하는 이상적인 삶은 모자란다고 억지를 부리지 않고, 공을 세워도 우쭐거리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꾀하지 않고, 일이 잘되어도 자만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할 때 비로소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이며, 이러한 장자의 생각은 노자가 제시한 "성인은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장자는 욕심, 분별심, 이분법적 사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재**＊를 제시하였다.

＊심재(心齋)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참고 자료

소국과민

나라는 작고 백성의 수는 적어야 한다. 온갖 도구가 있지만 쓰지 않게 하며 백성들이 생명을 중시하도록 하면, 살던 곳을 버리고 멀리 이사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비록 배나 수레가 있더라도 탈 일이 없고, 비록 갑옷과 무기가 있더라도 펼쳐 놓을 일이 없다.

백성들로 하여금 노끈을 묶어서 글자 대신 쓰던 고대의 소박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며, 음식을 맛있게 먹고, 옷을 아름답게 여기며, 사는 그곳을 편안하게 여기고, 그 풍속을 즐겨야 한다. 이웃 나라를 서로 바라볼 수가 있어서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 "도덕경", 제80장 –



▲ 정선, '동리채국도(東籬採菊圖)'

먼저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 귀로 소리를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다음에는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로 들어라. 귀는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대상을 인지할 뿐이지만 기는 텅 비어 모든 것을 수용하니, 이렇게 텅 빈 기로써 사물을 대하면 그 빈 곳에 도가 들어온다. 이렇게 도가 들어오도록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것이 '심재'라는 것이다.

– "장자", '인간세 편' –

마음을 모으고 귀가 아닌 기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모든 것을 버리거나 잊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장자는 **좌망***을 통해 이 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좌망은 우선 자신의 몸과 팔다리와 같은 외형적인 것을 잊어버리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모든 지혜도 버려야 비로소 도와 하나가 되는 참된 삶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

고대 중국 사회에서는 하늘에 의해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하늘은 지고무상(至高無上)한 존재로서 인간의 운명에 관여한다고 생각하였다. 노자는 이러한 전통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도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생성 원리로 보았다. 노자가 볼 때 도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설령 천지가 사라지더라도 없어질 위태로움이 없다. 도가 만물을 생성한 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며, 만물을 주재하기 위함이 아니다. 또한 주관적 의지나 욕망도 없는 것이다. 하늘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주관적 의지와 욕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모든 것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 "도덕경", 제5장 –

***기(氣)**
장자가 언급한 '기'는 도교 사상은 물론이고 훗날 성리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좌망(坐忘)**
좌망은 '앉아서 잊는다.'는 뜻이다.

*** '짚으로 만든 개'**
고대 중국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된 것으로, 제사가 끝나면 쓸모가 없어 버려졌다.

탐구해 보기

다음 이야기에 담긴 의의를 생각하며 아래 질문에 답해 보자.

남쪽 바다의 임금을 숙(儵), 북쪽 바다의 임금을 홀(忽), 그 중앙의 임금을 혼돈(混沌)이라고 하였다. 숙과 홀은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은 그때마다 두 임금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어느 날, 숙과 홀은 혼돈의 은덕을 갚는 것에 대해 의논하였다. "사람에게는 모두 일곱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데, 오직 혼돈에게만 이런 구멍이 없으니 구멍을 뚫어 줍시다." 숙과 홀은 혼돈을 위하여 하루에 한 구멍씩 뚫어 주었는데, 이레가 되자 혼돈은 죽고 말았다.

– "장자", '응제왕 편' –

1. 남에게 잘해 주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2. 위 이야기에 등장하는 숙과 홀을 인간으로, 혼돈을 자연으로 설정한다면,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자.



'짚으로 만든 개'라는 말 속에는 '개의치 않다.',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늘은 만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거나 편애하지 않고 우주 전체의 조화로운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움직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장자 역시 이러한 자연의 이치나 순리는 그 누구도 어길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기면 괴로움과 고통이 따른다고 주장하였다.

도교에서 강조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

황로학파는 자연계와 인류 사회는 하늘과 땅, 여름과 겨울, 낮과 밤,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아들이 음양으로 양분되어 상호 모순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은 상호 의존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황로학파의 사상은 한나라 초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태평도와 오두미교는 착취와 억압의 현실적 고통에서 벗어나 신선이 되어 '영원히 사는 것[長生不死]'을 이상으로 삼은 도교의 대표적인 종파이다. **태평도는 "태평경"*** 에서 "억만금의 재산을 축적하고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없

***태평경(太平經)**
태평도는 이 책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며, "태평청령서(太平淸領書)"라고도 한다. 오두미교 역시 이 책을 신봉하는 한 일파이다.

성찰해 보기

☑ 개별 □ 모둠 활동

다음은 좌망을 소재로 엮은 가상 대화이다.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 보자.



– "장자", '대종사 편' –

1. 위 대화에서 눈으로 보는 감각 작용이나 무엇을 판단하는 지각 작용이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
2. 친구와 참된 우정을 쌓고자 할 때 위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써 보자.

앨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탈을 일삼는 권력층을 비난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오두미교**는 의사(義舍)를 지어 그곳에 쌀과 고기를 둔 다음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기도 하였으며, 범죄에 대해서도 세 차례 용서를 한 다음 그래도 고쳐지지 않을 때에는 처벌하였다. 태평도와 오두미교가 지향한 권선징악의 관념은 민간 신앙으로서 백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태평도와 오두미교는 신선이 되기 위한 수련 방법을 제시하면서 백성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수련 방법에는 외단법(外丹法)과 내단법(內丹法)이 있다. 외단법이란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어 이를 복용함으로써 신선이 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약의 개발은 고대 의학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내단법은 주로 호흡을 가다듬는 방법으로, 들숨과 날숨을 최대한 천천히 하여 몸에서 흐르는 기를 자신의 의도대로 흐르게 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병도 낫게 하는 것이다.

청담 사상은 도가 사상을 형이상학적으로 더욱 발전시켰으며, 특히 왕필 이후 "도덕경"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현학자들이 세속적인 기득권을 버리고 고상한 가치를 추구한 삶의 모습은 신선에 비견되기도 하였다.



▲ 태극권이나 기공법도 도교의 수련 방법에서 발전한 것이다.

한국의 도가 · 도교 사상

도가 · 도교 사상은 일반적으로 삼국 시대에 전래되어 유교, 불교와 함께 삼교 병립 분위기가 형성되고, 고려 시대에 이르러 삼교가 상호 교섭하였다고 본다.

고구려의 경우 영류왕 때 노자의 "도덕경"이 강론되었다는 기록이 전해 오지만, 이보다 앞서 도가 · 도교 사상이 고구려의 사회적 지배 계층은 물론 민간에까지 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백제에는 도가 · 도교 사상이 언제 전래되었는지 알기는 어렵다. "삼국사기"에 근구수왕이 태자 시절 고구려의 군대를 격퇴하고 이를 쫓으려 하자 백제의 한 장수가 "족함을 알면 치욕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는 "도덕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추격을 거두게 하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 도가 · 도교 사상은 그 이전에 이미 전래되어 당시 백제의 전통 윤리에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산수무늬 벽돌(백제)**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전개된 산수무늬의 특징과 함께 산수화의 초기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하단에는 수면을, 중간의 넓은 부분에는 선산(仙山)으로 추정되는 산악을, 상단에는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을 표현하고 있다.

신라에서는 "도덕경" 등 도가의 경전을 전수받아 노장사상을 익혀 나아갔다. 특히 당나라에 유학한 학생들에 의해 신선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도교가 전래되어 유행하였다. 신라의 도가 · 도교의 모습은 **최치원의 풍류도**

에 대한 언급에서 볼 수 있다. 최치원은 “풍류도가 유교와 불교는 물론 노자의 사상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미루어 볼 때 도가 · 도교 사상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삼국 시대의 도가 · 도교 사상은 불교와 유교 같은 다른 사상과 특별히 충돌하지 않았고, 서로 다른 종교일지라도 배척하지 않고 다른 여러 사상을 조화롭게 수렴하는 전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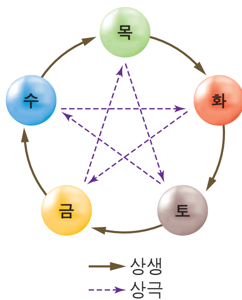
고려 시대에는 도교 의식인 **재초***가 자주 거행되었다. 재초의 형식은 중국의 도교 의례를 따랐고, 재앙을 물리치고 국가의 태평과 민생 안정의 기원을 목적으로 하였다. 재초는 이외에도 하늘로부터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는 목적도 있었다. 또한 인간 세상의 길흉화복은 하늘[天]이나 신(神)의 뜻에 달려 있다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 주었다.

고려 시대의 도가 · 도교 사상은 전쟁과 질병, 재난 등의 극복을 기원하는 국가적인 도교 행사를 통해 크게 융성하였으며, 도교의 음양, **오행***, 의술, 점성, 수경신(守庚申) 등은 도가 · 도교 사상이 민간에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풍수지리 사상**을 수용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신앙적 측면을 보이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도가 사상을 유학의 전통에 어긋나는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배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소수의 학자들은 도가 · 도교 사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포용적 자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이이(李珥)는 유교든 도가든 성현의 궁극적 가르침은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으며, 유교적 관점에서 “도덕경”을 새롭게 해석하여 “순언(醇言)”을 집필하였다. 이처럼 조선 시대에는 표면적으로는 도가 · 도교 사상을 권장하지 않았지만, 이이와 같은 지식인들이 이를 꾸준하게 연구해 왔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재초(齋醮)**
재(齋)는 심신을 청정히 하는 것, 초(醮)는 단(壇)을 만들어 술과 음식을 바쳐서 신에게 제사 올리는 것을 말한다. 신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도사(道士)가 의식을 주관한다.

***오행(五行)**
동양에서는 우주 만물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로 여기고, 이들이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도교의 풍습, 수경신(守庚申)



우리나라의 전통 신 중 하나인 수경신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해로운 일을 하는 해충을 제거하거나 또는 약화한다. 이는 해충을 제거함으로써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도교의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도교에서는 사람의 몸 안에 세 마리의 벌레[삼시충(三尸蟲)]가 있는데, 이 벌레들은 60일마다 돌아오는 경신일 밤에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가 그동안 사람이 저지른 죄를 상제에게 보고하여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여겼다.

이러한 도교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경신일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움으로써 벌레들이 상제에게 죄를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풍습이 생겨났다. 고려 원종 때에 이르러 이 풍습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널리 퍼지게 되었고, 조선 시대에는 더욱 성행하였다. 특히 왕이 직접 참여하는 궁중 행사로까지 발전하자, 유학자들이 이를 비판하는 간쟁(諫諍)을 올리기도 하였으나 이 풍습을 막지는 못하였다. 궁중에서 이 행사가 폐지된 것은 조선 영조 때였으나, 민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조선 시대의 도가 · 도교 사상은 민간 신앙이나 의학, 민간 풍습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북극성을 추종하며 형성된 성수 신앙(星宿信仰)은 우리나라 특유의 신앙으로 형성 · 발전하였으며, 민간에서 가신(家神)의 하나로 숭배되는 **칠성신***은 바로 도교적 성수 신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례이다. 또한 수련적 도교는 본래 예방 의학적인 양생법으로 조선 시대의 성리학자들도 큰 관심을 기울였고 "의방유취(醫方類聚)", "동의보감(東醫寶鑑)"과 같은 의학 서적에도 도교적 요소가 수록되는 등 도교 사상의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다.



***칠성신(七星神)**
북두칠성을 숭배하여 인격화한 신으로, 인간의 수명과 재물을 관장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다.

한편, 유교 · 불교 · 도교 삼교를 묘합하여 선행을 권장하는 선서(善書)가 조선 초부터 대한 제국 때까지 널리 보급되었다. 그중 선행[功]과 악행[過]을 각각 점수로 매기는 '공과격(功過格)'이 널리 유포되어 권선징악의 생활 윤리를 실천하는 데 일조하였다.

도가 · 도교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도가 · 도교 사상은 한국의 전통 사상에 깊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윤리와 사상으로서 시사점을 준다.

첫째,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도가는 제도와 문명 등의 인위적 가치를 부정하고, 외형에 이끌려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한토막 이야기

유물 속에 깃든 도가 · 도교 사상

1993년 12월 12일, 부여에서 발굴된 백제 금동 대향로는 백제는 물론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알려져 있다. 발굴 당시 이 향로는 워낙 탁월한 예술성과 완벽한 조형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그 이름을 짓기도 까다로웠다. 수많은 논의와 고심 끝에 '금동 용봉 봉래산 향로'라는 이름이 처음 지어졌다. 봉래산(蓬萊山)은 사마천의 "사기(史記)" 등의 기록에 영주산(瀛洲山), 방장산(方丈山)과 더불어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소개되어 있으며, 중국 한대(漢代)에 유행하던 도교 사상을 상징한다. 백제 금동 대향로의 뚜껑은 도교의 이상향인 삼신산을 표현한 것인데, 중국 한나라에서는 '박산로(博山爐)'라고 하여 이와 같은 형태의 향로가 널리 유행된 바 있다. 그래서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백제인의 작품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된 것이라는 추정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 백제 금동 대향로

그렇지만 백제 금동 대향로는 중국 향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조형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데, 그 이유는 바로 향로의 몸체를 이루는 연꽃 때문이다. 연꽃은 다름 아닌 불교의 상징으로 '극락세계에서 연꽃이 만물을 탄생시킨다[蓮花化生].'는 불교적 생성관을 보여 준다. 즉 연화화생의 기운으로 향로 뚜껑에 솟아 있는 74개의 산봉우리가 불꽃처럼 일어난다는 실로 놀라운 상상력을 보여 주고 있는데, 도교와 불교가 서로 융합되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바로 백제의 문화적 토양에서만 가능한 발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 ○○ 일보, 윤용희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사 –


▲ 도가 · 도교 사상을 비롯한 동양 사상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한다.

현상을 지적하였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보다 자연적이고 정신적인 가치가 더욱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둘째, 인간은 자연적 존재로서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노자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하고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장자는 물론 이후의 도교 사상에서도 공통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오늘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 자체를 망각하고, 인간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추구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도가 · 도교의 사상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상적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셋째, 착한 일을 권장하고 나쁜 일은 응징하는 권선징악의 정신을 심어 주었다. 장자는 아집에서 비롯되는 분별과 대립,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고 돕는 이타적인 정신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도가 · 도교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권선징악의 정신은 불안정한 사회 질서 속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 문화와 풍습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참고 자료

노자와 을지문덕

도가 사상이 일찍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유행하였다는 점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있다. 다음 (가)는 "도덕경"의 일부 내용이고, (나)는 수(隋)나라의 우중문(于仲文)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그에게 보낸 시이다.

(가) • 도(道)로써 군주를 보좌하는 사람은 무력을 써서 세상에 군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무력을 쓰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기 마련이어서 군사가 주둔하는 곳에는 가시엉퀴가 자라나고, 큰 전쟁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온다.
• 만족할 줄 알면[知足] 수치를 겪지 않으며, 그칠 줄 알면 위태로움이 없어 오래갈 수 있다.
• 세상에 물보다 더 약한 것은 없으나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 이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神策究天文],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妙算窮地理].
전쟁에 이겨서 공(功) 이미 높으니[戰勝功旣高],
만족함을 알고[知足] 그만두기를 바라노라[知足願云止].


을지문덕 동상 ▶

위의 두 글을 통해 을지문덕 장군이 도가 사상에 깊은 조예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을지문덕 장군은 인위적인 행위인 전쟁을 하지 않고 적을 물리치고자 "도덕경"에서 볼 수 있는 '만족을 앎[知足]'을 인용하여 적장 우중문을 회유하였다. 그러나 우중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물이 지닌 위력을 활용하여 수나라의 야욕을 꺾었다.

넷째, 자연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노자는 하늘이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사를 주재한다는 전통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하늘은 자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우주 만물은 도에 의해 생성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나아가 장자는 우리가 지닌 선입견과 고정 관념에서 벗어날 때 사물의 참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도가 사상은 이후 자연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아울러 도교는 질병을 치유하고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되기 위한 많은 수련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인간의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유지하는 방책이 되었고, 의학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끝으로, 도가 · 도교 사상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예술 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 노자가 강조한 자연의 소박함이나 장자가 추구한 자유로운 정신적 경지는 위 · 진 시대 이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에 깊은 자극과 영감을 주었다. 동양화에서는 형형색색의 화려함이 거의 없는 담백한 채색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창작의 대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로 묘사하였다. 이는 질박함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고자 했던 도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 남송 시대 마원, '산경춘행도(山徑春行圖)'

성찰해 보기

☑ 개별 □ 모둠 활동

(가)의 입장을 바탕으로, (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야기해 보자.

(가) 천하에 도가 있으면 준마도 농사를 짓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군마가 성 밖의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고, 얻으려고만 하는 욕심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를 만족할 줄 알면 언제나 부족함이란 없다.

– "도덕경", 제46장 –

(나) 바흠의 발걸음이 차츰 무거워졌다. 몸은 땀투성이가 되었고 구두를 벗은 발은 찢기어 걷기조차 힘들었다. 좀 쉬고 싶었지만 늦게 들어가면 한 뼘의 땅도 차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앉아서 쉬지도 못했다. "큰일이야, 실패할지도 모르겠어! 만약 늦으면 어떡하지?" 바흠은 입이 바싹 마르고 두 다리는 천근만근이나 되는 듯이 무거웠다. "그래,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그래도 바흠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 바흠은 쓰러지면서도 돈이 든 모자를 움켜쥐었다. "허어, 장한 일이오! 땅을 완전히 잡으셨소!" 촌장이 소리쳤다. "주인님!" 하인이 쓰러진 바흠을 부축하였다. 그렇지만 바흠의 입에서는 피가 쏟아져 나왔다. 바흠은 그렇게 죽어 갔다. "쯧쯧, 이렇게 죽다니." 사람들이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하인이 괭이를 가지고 바흠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가 묻힐 만큼의 땅을 파기 시작하였다. 그의 키만큼의 땅이 그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의 전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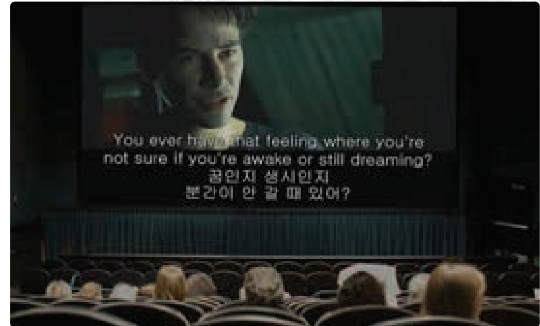


– 톨스토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

‘매트릭스(The Matrix)’에 담긴 도가 · 도교 사상

> **사이퍼:** 난 이 고기 요리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내가 이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면 매트릭스가 내 뇌에 이 고기는 맛있고 촉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인 줄 알고 있단 말이야.

기계가 통제하는 세상이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진짜 같다. 허름한 옷에 묽은 죽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현실 생활보다 허상이지만 기억력이 삭제되고 모든 생활이 통제되는 매트릭스의 그럴듯한 세상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눈앞에 펼쳐진 사물은 허상일지언정 시각적 화려함이 즐거움을 더해 주고 미각적 달콤함이 현실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사이퍼는 이성보다 감성에 무게를 두고 매트릭스가 이 세상보다 더 진짜 같다고 하는 것이다. 영화 1편에서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

> **모피어스:** 자네는 꿈의 세계와 실제 세계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현실 같은 꿈을 꾸어 본 적이 있나? 네오?

이 대사는 장자에 나오는 꿈과 현실에 대한 호접몽(胡蝶夢)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만물은 다를 바 없이 하나와 같음을 역설하는 제물(齊物)에서 물화(物化), 즉 실재하는 것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모든 사물은 변화하며 영원한 것은 도(道)일 뿐이니, 현실과 초현실은 하나의 연장선 위에 존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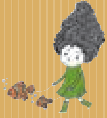

▲ **호접몽(胡蝶夢)**
호접몽은 꿈속에서 장자가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다가 깬 후 자기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나비가 꿈에서 장자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한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이다. 일반적으로 현실과 꿈의 구별이 안 되거나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할 때 사용한다.

> **네오:** 이건 현실이 아닌가요?
> **모피어스:** 현실이 뭐지? 현실을 어떻게 정의 내리나? 만일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보는 것을 현실이라고 한다면 현실은 그저 뇌에서 해석해 받아들인 전자 신호에 불과해.

현실과 비현실에 관한 영화 속 두 인물의 대화는 분별과 대립을 초월한 자유로운 정신적 경지를 추구한 “장자”의 다음 구절을 연상시킨다.

사물은 모두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자기를 상대방이 보면 ‘저것’이 되는 줄 모르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것만 알 뿐이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저것’ 때문에 생긴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것’과 ‘저것’이 서로 생겨나게 한다는 방생설(方生說)이다.

– 정선경, “태평광기 선계와 매트릭스 가상 현실의 공간 이동에 주목하여” –



중단원 갈무리

내용 정리 문제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써 보자.

(1) 도가 사상은 □를 사상의 근본 개념으로 삼고 있다.

(2) □□□□이란 인위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 장자가 주장한 □□이란 '조용히 앉아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를 잊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4) □□이란 위 · 진 시대 현학자들이 행한 논변을 말한다.

(5) 위 · 진 시대 부패한 정치권력과 세속으로부터 탈피하여 안심입명을 추구한 일곱 현학자를 □□□□이라고 한다.

(6) 선행을 권장하기 위해 선행과 악행을 점수로 매기는 도교의 서책을 □□□이라고 한다.

2 다음 진술을 검토하고, 틀린 부분은 바르게 고쳐 보자.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바로잡음
(1) 도가와 도교는 그 근원이 서로 다른 학파이다.	○ / ×	
(2) 소국과민이란 노자가 주장하는 이상 사회의 모습이다.	○ / ×	
(3) 심재란 '마음을 깨끗이 비운다.'는 의미의 도가 수양 방법이다.	○ / ×	
(4) 황로학파는 황제와 노자의 사상만을 계승하였다.	○ / ×	
(5) 청담 사상에 따르면, 모든 현상의 기초가 되면서 만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궁극적인 원리는 도이다.	○ / ×	

3 관련 있는 것끼리 서로 연결해 보자.

(1) 오두미교 •

(2) 물아일체 •

(3) 재초 •

(4) 상선약수 •

• ㉠ 사물과 나는 구별 없이 하나이다.

• ㉡ 국가의 태평성대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거행된 고려 시대의 제사 의식이다.

• ㉢ 착한 일을 하면 질병이 낫고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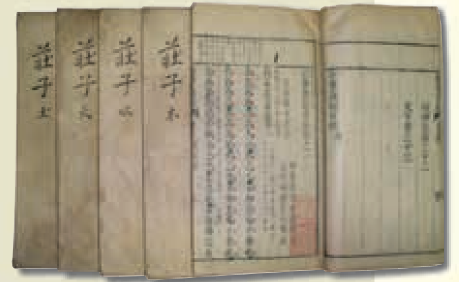
• ㉣ 으뜸이 되는 선(善)은 물과 같다.

인물과 고전을 말하다

장자와 "장자(莊子)"



장자는 노자와 함께 도가를 대표하는 사상가이다. 장자의 사상이 담겨 있는 "장자"는 동양 고전의 백미로서 사상사뿐만 아니라 문학사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후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노자의 "도덕경"이 간략한 어록이나 시(詩), 산문 형식인 반면, "장자"는 주로 풍자나 해학과 같은 우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에게 외물(外物)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일러 주고 있다. 우리는 "장자"를 통해 그동안 맹목적으로 추종해 온 고정 관념, 차별과 분별 의식 등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으며, 도가에서 추구했던 절대 자유의 경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장자는 "우주 만물은 한 필의 말과 같다."라고 하였다. 사물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과 말은 분명 서로 다른 별개의 실체이지만 도(道)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물의 한쪽만 보는 대립적 사고나 고정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에서 사물의 참모습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직관과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장자"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장자가 혜자와 함께 한 호수의 다리 위를 거닐며 대화를 나누었다.
장자: 물고기들이 한가롭게 놀고 있으니, 이것이 물고기들의 즐거움이겠지?
혜자: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가?
장자: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혜자: 나는 자네가 아니니까 물론 자네를 모르지. 그렇다면 자네도 물고기가 아니니까 자네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하네.
장자: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 자네는 내게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냐'고 물었지. 이 말은 자네가 이미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다는 것을 알고 물은 것이네. 나는 지금 이 호수의 다리 위에서 물고기와 일체가 되어 그 즐거움을 알고 있는 것이라네.

– '추수(秋水) 편' –

장자의 논지를 살펴보면, 혜자는 장자가 아니면서 장자가 안다는 것을 알았던 셈이니, 장자 역시 물고기가 아니지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혜자가 장자와 물고기 둘 사이는 소통할 수 없는 별개의 사물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데 반해, 장자는 이런 고정 관념을 넘어선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장자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다고 한 것은 그것이 논리나 인식론의 문제가 아니라 직관적 체험을 통해 나와 만물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형식적인 논리에 얽매여서는 만물과 내가 하나라는 참된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다음 이야기도 인간의 선입견과 편견을 재치 있게 풍자하고 있다.

옛날에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그 먹이로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원숭이들은 모두 화를 냈다. "그러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 명분이나 실제 내용은 달리진 것이 없는데도 원숭이들은 모두 화를 내다가 기뻐하였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옳고 그름의 양극을 조화시킨다.

– '제물(齊物) 편' –



도토리는 아침에 세 개를 받든, 네 개를 받든 총 일곱 개라는 양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자신이 받을 혜택 전체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한 원숭이의 감정에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인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감정이 만들어 낸 모든 대립 개념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자연의 흐름 전체를 놓고 보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인간은 작위(作爲)와 분별을 통해 얻은 지혜[小知]를 참된 것으로 알고 언제나 자신이 옳고 현명하다는 아집(我執)에 사로잡혀 있다. 다음 이야기는 인간의 자기 중심적 사고와 편견이 자연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다.

옛날 바닷새가 노나라 도성 밖에 날아와 앉았다. 왕이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음악을 연주해 주며, 소와 돼지, 양을 잡아 극진히 대접하였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할 뿐, 고기 한 점 먹지를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

– '지락(至樂) 편' –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왕이 바닷새를 극진히 대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바닷새는 바닷새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 만약 바닷새를 인간의 인식 세계로 끌고 와 인간의 가치 기준에 맞게 변형한다면 바닷새가 지닌 본연의 가치는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가치가 상실되는 정도가 아니라 새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다.

"장자"에서는 일관되게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간은 이분법적 사고나 고정 관념을 쉽게 버리기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 한곳에 갇혀 살기 때문이다. 여름 벌레에게 얼음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 한철에 매여 살기 때문이다. 마음이 굽은 선비에게 도(道)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 한 가지 가르침에 얽매여 살기 때문이다.

– '추수(秋水) 편' –

그러므로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 때 대립적인 사고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너와 나를 따져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삶과 죽음에 선을 긋지 않으며, 시작과 끝에 연연하지 않게 되며, 주관에서 벗어나 만물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 오강남, "장자" –

Q **윗글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써 보자.**

5 한국의 고유 윤리 사상

학습 목표

- 한국의 고유 사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할 수 있다.
- 한국 고유 사상의 핵심적인 정신과 윤리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한국 고유 사상이 지니고 있는 현대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중단원 스케치

한국의 고유 사상은 무속(巫俗) 신앙, 다양한 건국 신화, 조선 후기의 동학 등 신흥 종교의 모습으로 전통적인 명맥을 유지하면서 우리 민족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왔다. 특히 하늘과 땅, 사람의 조화를 추구하는 한국 고유 사상의 기본 정신은, 서양 사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준다.

아래 사진은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소망과 마을의 안녕, 풍요를 기원하고자 마을 어귀에 세운 솟대이다. 솟대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지만, 2004년 세계 박물관 협회는 한글, 한복, 김치 등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이를 선정하였다. 솟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새의 모습으로 주로 오리와 기러기, 까치, 까마귀 등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는 천 · 지 · 인(天地人)의 조화를 중시했던 한국의 고유 사상을 잘 드러내는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다.



01 한국 고유 윤리 사상의 특징과 의의

이른 새벽 우물에서 떠온 샘물을 '정화수'라고 한다.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은 이 정화수를 새벽마다 장독대나 신령이 깃든 당산나무에 올려놓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가족의 건강과 안녕, 나라의 안위를 천지신명(天地神明)과 신령에게 빌었다. 이러한 소박한 종교 의식은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무속적 특성을 잘 드러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단원 열기

- 한국의 고유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오늘날에도 계승해야 할 한국 고유 사상의 윤리적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 신화에 나타난 고유 사상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은 많은 부분이 유교 · 불교 · 도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수용된 이들 사상은 단순히 중국과 인도의 외래 사상이 지리적으로 확장된 형태에 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독자적인 고유성을 띠며 발전하였다. 이러한 고유성의 바탕에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담겨 있는데, 이는 우리 고유 신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신화는 대체로 명료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검증할 수 있는 사실적인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화 인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허구라고 여기기 쉬운 신화를 통해 그 이야기를 만들어 낸 사람들의 생활 양식, 감정과 의지, 사상적 바탕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단군 신화, 주몽과 박혁거세의 신화 등은 우리의 고유한 사상의 뿌리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신화를 살펴보자.

옛날에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弘益人間]. 이에 천부인(天符印) 3개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太伯山) 꼭대기 신단수(神壇樹) 아래 내려와 여기를 '신시(神市)'라고 하였다. 환웅은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穀), 명(命), 병(病), 형(刑), 선(善), 악(惡)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고 인간 세상에 살며 다스리고 교화하였다[在世理化].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동굴에서 살면서 환웅에게 빌기를, "원컨대 변화하여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환웅이 신령스러운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르기를, "너희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가 이것을 받아서 먹고 동굴 안에서 근신하였는데, 삼칠일(21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이를 지키지 않아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웅녀(熊女)는 자신과 혼인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항상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 갖기를 빌었다. 이에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고 하였다. – 일연, “삼국유사” –



▲ 단군왕검(檀君王儉) 영정
• 단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 왕검: 사람들을 다스리는 정치적 지배자

우리의 건국 신화와 설화에는 사상적으로 인본주의, 자주적 · 주체적 의식, 현세 중심적인 윤리 규범적 가치 의식, 천인합일과 조화의 정신 등이 담겨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고유 신화 및 설화 속에는 **인본주의(人本主義)**가 잘 드러나 있다. 서양의 신화는 주로 수많은 신들의 사랑과 갈등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해, 우리의 고유 신화는 신이 아닌 인간 세계에 집중하고 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신인 환인은 아들인 환웅이 인간 세계로 내려가 다스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貪求人世]을 허락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날 뿐, 그 외의 설화 속에서는 신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 즉 땅 위의 맹수들 역시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願化爲人]는 내용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관심이 신의 세계가 아닌 인간 세계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신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 · 주체적 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서는 하느님의 아들[天子]인 환웅을 건국의 뿌리로 삼고 있는데, 그 시기가 중국의 요(堯) 임금 때와 비슷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이

한 토막 이야기

박혁거세 신화



▲ 박혁거세와 그의 무덤으로 전해지는 오릉(五陵, 경북 경주)



임자년(기원전 69년) 3월에 **육부***의 조부들이 각기 자제(子弟)를 데리고 알천 가(家)의 언덕 위에 모여 의논하였다. “우리 위로 만민을 직접 다스릴 군주가 없어 백성이 모두 제멋대로 욕심만 부리니, 덕망 있는 사람을 구하여 군주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합시다.” 이에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았더니, 양산 아래 나정 주변에 번갯불 같은 이상한 기색이 땅으로 드리워 있고 흰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이 보였다. 찾아가 보니 하나의 자색 알[紫卵]이 있었다. 말은 사람을 보고서는 소리 내어 길게 울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알을 쪼갰더니 남자아이가 나왔는데, 모양과 행동이 단아하고 아름다웠다. 놀랍고 이상히 여기면서 동천(東泉)에서 목욕시키고 나니, 몸에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모두 춤을 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청명하였다. 이에 ‘혁거세왕(赫居世王)’이라고 이름 하였다. 위호는 ‘거슬한(居瑟邯)’이라고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다투어 경하하며,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 내려오셨다.”라고 말하였다.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자료와 해설, 한국의 철학 사상” –

***육부(六部)**: 신라 시대, 씨족을 중심으로 나눈 경주의 여섯 행정 구역을 가리킨다.

천자의 후손이라는 언급은 주몽 신화와 박혁거세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모두 우리 민족이 스스로를 중국 주변 제후국의 신민(臣民)이 아닌 존귀한 천손(天孫)으로 인식하고, 자주적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셋째, 우리의 건국 신화는 태초, 전생, 내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극히 **현세 중심적인 윤리 규범적 가치 의식**을 보이고 있다. 우리 고유의 신화는 모두 인간과 자연 세계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나라의 시조가 곰과 같은 친근한 매개물을 통해 인간으로 나타나 현세적 고난을 극복한다는 점은 신과 인간의 간격이 없음을 의미한다. 즉 왕이 신격화된 국조(國祖)가 아닌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국 이념은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잘 이해하며, 그들을 빠짐없이 이롭게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단군 신화의 홍익인간의 이념은 우리 민족이 현세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윤리 규범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넷째, 우리 고유의 건국 신화에는 **천인합일(天人合一)**과 **조화 정신**이 잘 담겨 있다. 자연을 상징하는 하늘(환웅)과 땅(곰, 호랑이)의 결합과 조화는 인간(단군)을 존재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천인합일과 조화 정신은 서로 다른 것을 융화 · 묘합(妙合)하여 더욱 새롭고 나은 것을 창출해 내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적 성향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정신은 신라 화랑의 풍류도, 유교 · 불교 · 도교 삼교의 조화, 원효의 화쟁 사상 등으로 이어졌다.

무속 신앙과 화랑도

무속(巫俗) 신앙은 제사를 담당하는 무당(巫堂, shaman)의 점술이나 굿을 통하여 사람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점치고, 초월적 신과 인간, 산 자와 죽은 자를 연결시켜 주며 얽힌 한을 풀어 주는 원시적 종교를 말한다. 이러한 무속의 전통은 단군 신화, 부여의 영고와 고구려의 동맹 등의 제천 행사, 고려 시대의 무당을 동원한 수많은 기우제 등을 통해서 폭넓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속 신앙은 우리 민족의 일상적인 삶 속에 깊이 녹아들어 오늘날까지 마을 굿 등을 통해 그 맥을 이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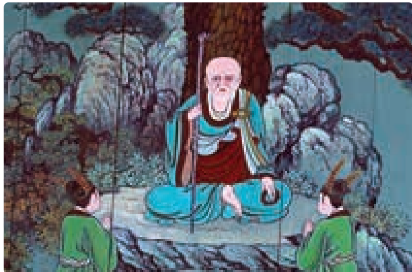

▲ 신윤복, '무녀신무'

무속은 자연과 인간을 포용하고, 마을과 마을을 융화시키며, 인간의 삶과 우주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유교 · 불교 · 도교를 우리 민족에게 적합한 형태로 큰 갈등 없이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 화랑정신은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다.

특히 풍류도, 풍월도, 국선도, 원화도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화랑도(花郞道)는 우리 고유의 무속과 유 · 불 · 도 삼교의 사상이 현묘(玄妙)하게 조화된 대표적인 사상이다. 무속적 요소가 담겨 있는 단군 신화의 홍익인간 이념과 유교의 충효 정신, 불교의 자비 정신, 도교의 자연을 따르는 정신을 조화시킨 화랑도는 신라의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재 교육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화랑들은 곳곳의 명산대천(名山大川)을 순례하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수양하며, 지형에 대한 정보를 익히는 수련을 통하여 삼국 통일을 이루는 주축이 되었다. 또한 원광 법사가 화랑에게 일러 주었던 세속 오계는 유교와 불교에 기초한 국가 질서와 윤리 규범을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 온 무속을 단순한 미신으로 낙인찍어 탄압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근대화의 걸림돌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 화랑에게 세속 오계를 가르치는 원광(圓光) 법사

근대의 신흥 종교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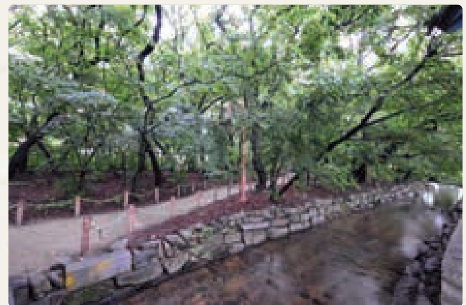
19세기 후반 조선 사회에서는 국가 이념이었던 유교를 기초로 한 민본(民本)과 위민(爲民) 정신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으로 자주성이 크게 위협받았다. 그 결과 지배 세력과 외세에 의한

성찰해 보기 ☑ 개별 ☐ 모둠 활동

최치원이 상림(上林)을 조성함으로써 성과를 거둔 홍수 예방책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경상남도 함양에 위치한 상림 공원은 신라 진성 여왕 재위(887~897) 때 함양의 태수로 부임한 최치원이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숲으로, 당시 함양의 홍수 피해를 막고자 조성되었다고 전해진다. 최치원은 홍수 피해를 막고자 인공 구조물을 쌓는 대신 물길을 트고 숲을 조성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또한 물길을 시내 외곽으로 돌리고 그 자리에 둑을 쌓았으며, 둑 안쪽을 따라 나무를 심어 '대관림(大館林)'이라고 이름 짓고 숲을 가꾸었다. 최치원은 단지 물을 막기 위한 둑이 아닌 나무와 물의 자연적 조화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홍수를 막아 낸 것이다.

세월이 지나 숲 가운데가 훼손되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상림과 하림으로 나뉘었는데, 현재 하림은 거의 없어지고 상림만 남아 있다. 상림에는 최치원의 애민(愛民) 사상과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 우리 고유 사상이 담겨 있다.


▲ 함양 상림(천연기념물 제154호)

억압과 착취는 백성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다. 이에 민족과 백성을 대표하는 새로운 종교에 대한 열망이 나타났는데, 신흥 종교인 동학, 증산교, 원불교, 대종교 등이 대표적인 소산이다.



▲최제우(崔濟愚, 1824~1864)



*보국안민(輔國安民)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편하게 함을 가리킨다.

근대의 신흥 종교를 대표하는 **동학(東學)**은 1860년 최제우가 창시하였으며, 당시 '서학(西學)'으로 불리던 천주교의 침투에 대항하였다. 동학은 민족 종교 운동의 시초로서 **보국안민***, **포덕천하***의 기치 아래 반외세 · 반봉건적 이념을 강조하였다. 특히 조선의 남녀노소, 신분에 의한 차별 제도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의 존엄한 평등을 내세웠다. 이는 "사람이 곧 한울(하늘)이다."라는 가르침인 인내천(人乃天) 사상에서 비롯되며,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吾心卽汝心].", "하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다[天心卽人心].", "모든 사람이 자기 안의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侍天主]."라는 종교적 지침으로 이어졌다. 특히 동학

*포덕천하(布德天下)
'한울님의 덕을 세상에 편다.'는 뜻으로, 동학의 포교 정신을 가리킨다.

참고 자료

동학의 여섯 가지 교리, '내수도문(內修道文)'

동학의 '인내천' 사상은 손병희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나, 제2대 교주인 최시형의 '인시천(人是天)', 교주 최제우의 '시천주(侍天主)' 사상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시천주', '인시천', '인내천'은 모두 평등주의적 윤리 사상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동학의 정신은 최시형이 배포한 '내수도문'의 6개 조항에도 잘 나타나 있다. 내수도문은 여성 신도의 생활 규범을 기도문 형식으로 적은 글이다.

첫째, 집안의 모든 사람을 한울님같이 공경하라. 며느리를 사랑하라. 노예를 자식같이 사랑하라. 소와 말, 가축을 학대하지 마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한울님이 노하실 것이다.

둘째, 하루 세 끼의 식사 때 한울님께 알려라. 청결한 물을 길어 음식을 청결하게 하라.

셋째, 묵은 밥을 새 밥에 섞지 마라. 흐린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마라. 가래침이나 콧물을 아무 데나 토하지 마라.

넷째, 모든 사람을 한울님으로 인정하라. 손님이 오거든 한울님이 오셨다 하라. 어린이를 때리지 마라. 이는 한울님을 치는 것이다.

다섯째, 잉태하면 몸을 더욱 조심하고, 아무것이나 함부로 먹지 마라. 뱃속에 든 아이를 위하여 모든 일에 조심하라.

여섯째,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시비하지 마라. 이는 한울님을 시비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탐내지 마라. 다만 근면해야 할 것이다.


▲ 박중빈(朴重彬, 1891~1943)


▲ 강일순(姜一淳, 1871~1909)

은 일제의 극심한 탄압에도 제3대 교주 손병희에 의해 천도교로 개명하고 3 · 1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교육 운동, 언론 · 출판 운동, 어린이 운동, 청년 운동, 여성 운동, 노동 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민족 · 민중 운동을 전개하였다.

박중빈이 창시한 **원불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활화 · 대중화하지 못한 당시 불교를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원불교에서는 우주의 근본 원리인 일원상(一圓相)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았고, 신앙의 대상을 석가모니 불상이 아닌 궁극적 진리와 그 진리가 구현된 우주 만물이라고 보았다. 특히 천지, 부모, 동포에 대한 은혜를 부처를 섬기듯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일순이 창시한 **증산교**는 집권층의 실정과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위기에 빠진 세상을 구하고 상생(相生)의 시대를 열어 가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극(相剋)의 원한과 원망을 풀어 주는 해원(解冤), 하늘과 땅의 운행 질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천지공사(天地公事)를 강조하였다.

나철(羅喆)은 단군의 맥을 잇는 **대종교**를 만들어 민족혼을 불어넣고 홍익인간의 이념에 따라 화해의 정신을 세계 속에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 고유 사상의 현대적 의의

무속 신앙으로부터 비롯되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우리 고유 사상은 동서양의 사상과 조화롭게 융합되어 독창적인 모습으로 거듭나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고유 사상이 지니고 있는 현대적 의의는 무엇일까?

첫째, 자연과 생명의 가치가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하늘과 땅, 인간의 조화로운 삶은 인간과 자연을 이분화하고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을 도구화하며 물질 만능

참고 자료

시대의 막힌 맥을 풀어 주는 굿, 살풀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해의 나쁜 기운을 풀고자 굿판을 벌였는데, 그곳에서 무당이 즉흥적으로 나쁜 기운을 푸는 춤을 가리켜 '살풀이춤'이라고 하며, 1990년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 제97호로 지정되어 그 맥을 이어 오고 있다. 그러나 굿과 살풀이는 단지 문화재로만 계승되어 온 것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가 우리의 무속인과 굿을 미신이라고 규정하고 억압하기도 하였지만, 무속과 굿은 우리의 고유 신앙으로서 우리 민족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또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참혹한 고문과 죽음을 당한 민주화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 주는 진혼의 역할을 하며 시대의 막힌 한(恨)과 고통을 풀어 주기도 하였다.


▲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시대의 막힌 맥을 풀어 주고 한을 달래 주던 '진혼굿'

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세계화 시대의 다양한 신념과 가치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세계와 소통하게 하며 새로운 우리 문화를 창조해 가는 데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지속적으로 동양의 유교 · 불교 · 도교 사상과 서양의 그리스도교 사상까지 받아들이며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우리 고유 사상의 지향점은 오늘날 더욱더 가속화되는 세계화 · 정보화 속에서 다른 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다.

셋째, 분단으로 이질화된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이 서로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는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고유 신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은 갈등보다는 평화와 상생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남북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갈등은 우리 고유 사상의 지향점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고유 사상은 남북한이 함께 평화와 상생을 모색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성찰해 보기

 개별  모둠 활동

동학의 인간 평등사상에서 비롯된 '어린이날'



▲ 최시형(催時亨, 1827~1898)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고자 1922년에 제정한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어디에서 유래하였을까? 도종환 시인은 우리나라의 어린이 사상을 동학의 인간 평등사상에서 찾았다. 그는 "어린이라는 말은 방정환이 만든 말이지만, 어린이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1922년 5월 1일 천도교 소년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였다."며 "어린이 운동의 사상적 배경에는 천도교의 어린이 존중 사상과 조직적인 행사 추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였다. 또 "아동 문학가 윤석중은 '우리나라 소년 운동의 발자취'에서 동학의 제2대 교주인 최시형이 말한 '어린이를 때리지 마라. 이는 한울님을 치는 것이다.'라는 뜻을 이어받기 위한 것이 어린이 운동의 시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면서 "최시형의 외손자인 동요 작곡가 정순철은 색동회 활동으로 어린이 정신을 실천한 인물이다."라고 덧붙였다.

– ○○ 타임스, 2011. 5. 4. –

1. 어린이날에 담겨 있는 동학 정신에 대해서 말해 보자.

2. 오늘날 우리 삶에 동학 정신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생각해 보자.

동학, 수운 최제우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한 동학사상의 생성 과정





'동학, 수운 최제우'는 철저한 고증을 통해 만든 영화로서, 적은 자본과 제한된 제작 환경으로도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영화는 최제우가 하옥되는 시점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가 동학을 창시한 뒤 관군에 붙들리기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보여 준다. 아내를 첫 제자로 삼고, 아들에게 천도를 가르치며, 제자와 함께 전국을 유랑하며 도(道)를 설파하는 장면과 노비 문서를 태우는 장면, 그리고 최시형을 후계자로 지목하는 장면 등이 이어지면서, 선하고 올곧은 선비가 반역자로 몰려 희생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최제우의 반외세적 · 반봉건적 평등사상인 동학이 양반들에게 어떻게 곡해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더불어 아내에게 먼저 절하고, 노비들을 자식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최제우의 삶을 통해 인내천(人乃天), 시천주(侍天主),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 등 동학의 주요 사상을 접해 볼 수 있다.



중단원 갈무리

내용 정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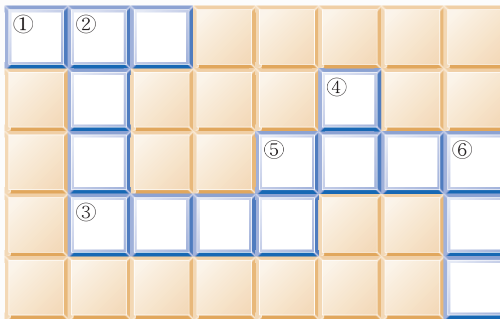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써 보자.

(1)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와 설화에는 사상적으로 □□□□, 자주적 주체 의식, □□ 중심의 규범적 가치 의식, 천인합일과 □□의 정신 등이 담겨 있다.

(2) 풍류도, 풍월도 등으로 불리는 □□□는 무속과 유 · 불 · 도 삼교의 사상이 오묘하게 조화된 대표적인 사상이다.

(3) 동학은 서학으로 불리던 천주교의 침투에 대항하였으며, 민족 종교의 효시로서 □□□ · □□□적 이념을 강조하였다.

2 다음 가로, 세로 낱말 퍼즐을 맞추어 보자.



[가로 열쇠]
① '모든 사람이 자기 안의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동학의 지침
③ 세속 오계 중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규범
⑤ 단군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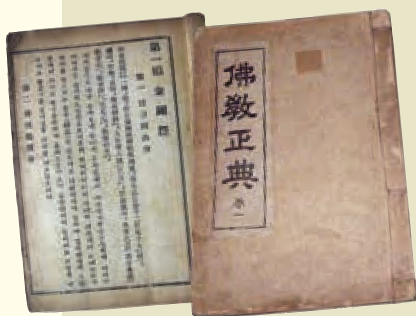
[세로 열쇠]
② 증산교에서 하늘과 땅의 운행 질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④ 사람들의 생활 양식, 감정과 의지, 사상적 바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성한 이야기 ㉔ 단군, 주몽, 박혁거세
⑤ 화쟁과 일심 사상을 주장했던 신라의 승려
⑥ "사람이 곧 한울이다."라는 동학의 가르침

3 한국 근대의 신흥 종교 사상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

(1) 최제우의 동학 •	• ㉠ 모든 사람이 자기 안의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종교적 지침으로 당시 서학의 침투에 대응하였다.
(2) 박중빈의 원불교 •	•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활화 · 대중화하지 못한 당시 불교를 비판하였다.
(3) 강일순의 증산교 •	• ㉢ 단군의 맥을 잇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민족혼을 불어넣고 홍익인간의 이념에 따라 화해의 정신을 내세웠다.
(4) 나철의 대종교 •	• ㉣ 하늘과 땅의 운행 질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바로잡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인물과 고전을 말하다

박중빈과 "불교정전(佛敎正典)"


▲ 원불교의 경전, "불교정전"

"불교정전(佛敎正典)"은 원불교(圓佛敎)의 창시자 박중빈(朴重彬, 1891～1943)이 손수 정리한 경전이다. 이는 박중빈의 언행을 제자들이 정리한 "대종경(大宗經)"과 함께 "원불교교전(圓佛敎敎典)"으로 발행되어 원불교의 기본 경전이 되고 있다.

박중빈은 26세 되던 해(1916) 유교, 불교, 도교, 동학, 그리스도교의 경전을 두루 읽고 자신의 사상 체계를 정립하였다. 그 결실이 집약된 것이 바로 "불교정전"이다. 원불교라는 교명(敎名)은 박중빈이 죽은 후 1948년에 선포된 것으로, 원불교의 개교 이념은 "물질이 개벽 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말로 요약된다. 즉 과학 기술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중대한 전환기로 파악하고, 이 전환기에 대응하고자 인류의 정신적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정신적 혁명을 불법(佛法)의 연원으로 삼아 새로운 종교 운동을 전개해 나아갔다.


▲ 원불교의 상징, 일원상(一圓相)

박중빈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생활화 ·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던 당시 불교에 대한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신앙의 대상으로 '일원상(一圓相)'을 내세운다. 일원은 '우주 만유의 근본 자리이며, 제불조사(諸佛祖師)의 본성 자리이며, 범부 중생의 불성 자리'이다. 우주 만물의 궁극적 진리가 일원상이라는 상징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대상은 석가모니의 불상이 아니라 일원으로 상징되는 궁극적 진리이며, 그 진리가 구현된 우주 만물이다.

한편, 일원상은 모든 중생의 본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원상에 대한 숭배는 세속과 떨어져 조용히 도를 닦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박중빈은 사람의 정신이 과학 문명의 발전을 주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물질문명에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을 '노예적'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새로운 종교 운동을 펼치는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불교정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하(現下) 과학 문명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사람이 사용하는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사람의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생활해 가는 것이 무지한 노복(奴僕)에게 치산(治産)의 권리를 상실한 주인같이 되었으니, 어찌 생활해 가는 데 파란고해(波瀾苦海)가 없으리요. 이 파란고해에서 벗어나서 광대무량한 낙원의 생활을 해 나가려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의 세력을 확창(擴暢)하여 날로 융성하는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해에 노예 생활하는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동기로 삼아야 한다.

박중빈에게 종교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은 통일된 것으로, 그는 사회적 실천을 교리 속에 포함하고 있다.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평등한 권리를 갖자는 '자력양성(自力養成)', 계급 · 나이 · 남녀 · 민족 · 학력 등에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은 누구나 스승으로 섬기고 배우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지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자는 '지자본위(智者本位)', 자타

(自他)의 국한에서 벗어나 문명의 혜택을 골고루 입을 수 있는 교육 평등 세상을 건설하자는 '타자녀 교육(他子女敎育)', 공익심과 자선심을 발휘하고 이를 실현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잘사는 생활 평등 세계를 건설하자는 '공도자 숭배(公道者崇拜)' 등의 사요(四要)가 바로 그것이다.

박중빈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양반과 상민, 적자와 서자,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각자의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공익을 실현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 모두가 교육받아 균등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 **일원상을 소재로 그린 원불교 관련 그림**
"괴로움을 흐뭇하게 바라보라. 손님을 따사롭게 맞이하면 큰 행복을 선물하리라."

부모로서 자녀에게 재산을 분급해 줄 때에는 장자(長子)나 차자(次子)나 여자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재산을 받아 유지하지 못할 자 외에는 다 같이 분급하여 줄 것이요, …… 기타 모든 일을 경우와 국법(國法)에 따라 처리하되, 과거와 같이 여자라고 구별할 것이 아니라 일에 따라 대우하여 줄 것이니라.

여자도 인류 사회에 활동할 만한 교육을 남자와 같이 받을 것이요, 여자도 직업에 근실하여 생활에 자유로울 것이며, 또는 생부모(生父母)의 생전사후(生前事後)를 과거 장자의 예로써 같이 받을 것이요, …….

교육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 타자녀라도 내 자녀와 같이 교육하기 위하여 교육 기관에 힘 미치는 대로 조력도 하며, 또는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자기가 낳은 것처럼 몇 명이든지 책임지고 교육할 것이요, …….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자료와 해설, 한국의 철학 사상" –

1. 박중빈이 원불교를 창시한 동기는 무엇인지 써 보자.

2.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 사회와 원불교에서 그리는 이상 사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서술해 보자.



III

서양 윤리 사상

1. 서양 윤리 사상의 흐름

2. 행복과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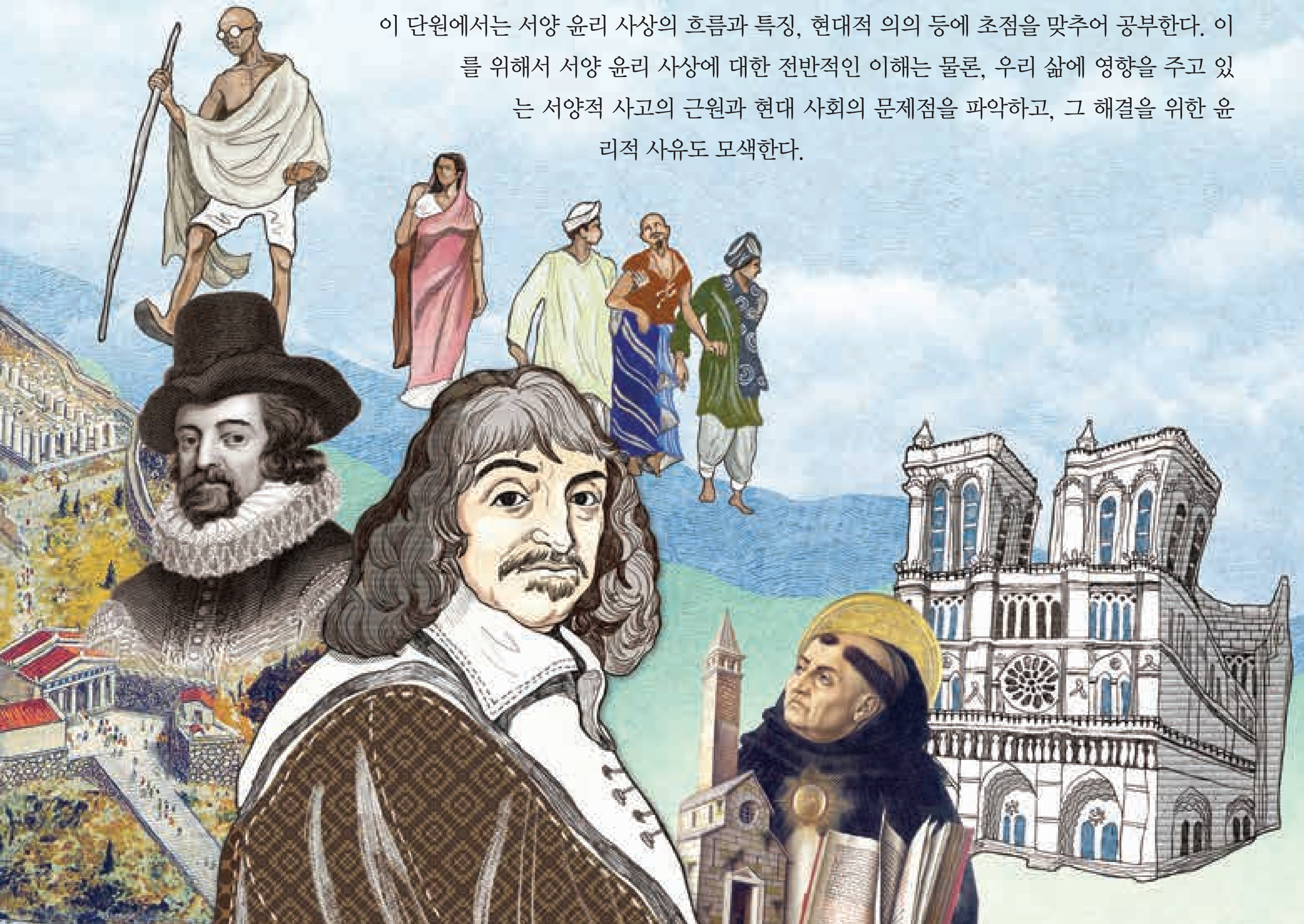
3. 신앙과 윤리

4.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

5. 현대의 윤리 사상

개화기 이후 서양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특히 서양의 합리적 사고, 과학 기술, 산업화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식주는 물론 사고의 영역까지 서양적인 방식으로 변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적인 배경이 바로 서양 윤리 사상이다.

이 단원에서는 서양 윤리 사상의 흐름과 특징, 현대적 의의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한다. 이를 위해서 서양 윤리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서양적 사고의 근원과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한 윤리적 사유도 모색한다.



1 서양 윤리 사상의 흐름

학습 목표

- 서양 윤리 사상의 흐름을 서양 문명의 역사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 서양 윤리 사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설명할 수 있다.
- 현대 사회에서 서양 윤리 사상이 지니는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중단원 스케치


▲ 아테나 신전(그리스)


▲ 작자 미상, '제임스 와트의 증기 기관'

현대 문명은 서양이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에서는 산업 혁명이 성공하면서 과학 기술과 그 힘을 앞세워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였다. 서양 이외의 문명권은 그 거대한 물결 속으로 흡수되기도 하였으며, 우리 삶도 많은 부분에서 서구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환경 파괴나 인간 소외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서양이 주도하는 문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서양 문명의 뿌리에 해당하는 서양 윤리 사상에 대해 깊이 성찰하도록 한다.



01 서양 윤리 사상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


▲ 에렉테이온 신전(그리스)


▲ 자연과의 조화(훈데르트바서 작품)


▲ 몽생미셸 수도원(프랑스)

단원 열기

- 현재 나의 삶에서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서양 윤리 사상의 특징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있을까?

서양 윤리 사상의 유입 배경과 흐름

서양은 동양과 대비하여 주로 유럽과 미국을 지칭한다. 서양 문명은 19세기 말(개화기)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의 제도와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가치관과 삶의 여러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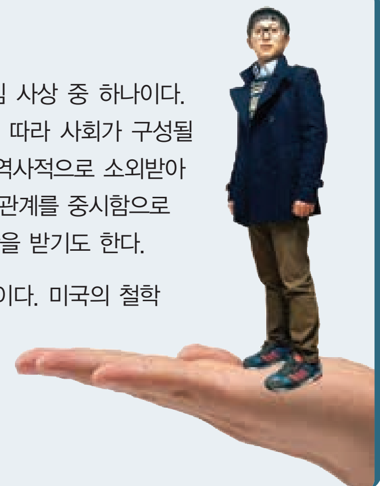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서양 문명과 본격적으로 접촉한 시기는 일본을 패망시킨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광복 이후였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같은 정치 · 경제 사상은 물론, **개인주의**와 **실용주의** 같은 윤리 사상을 받아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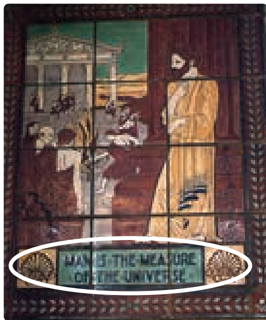

▲ 19세기 말 김준근이 그린 "천로역정" 삽화
원 안은 예수가 도포를 입고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모습이다.

기초 개념 탐구

개인주의와 실용주의

- **개인주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개인에 두는 사상으로, 근대 시민 사회를 이끌어 온 중심 사상 중 하나이다. 개인주의자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분리된 존재이고, 개인의 필요와 계약에 따라 사회가 구성될 수 있을 뿐, 개인을 넘어서는 공동체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역사적으로 소외받아 온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본 사상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를 중시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약화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실용주의:** 모든 판단의 잣대를 실용성, 즉 인간의 삶 또는 경험과의 관련성에 두는 사상이다. 미국의 철학자인 듀이(Dewey, J.)가 대표적인 실용주의자로 꼽히는데, 그는 인간의 삶과 관련이 없는 지식은 쓸모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실용주의는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한 반면, 윤리적 가치와 도덕규범을 쓸모 있음(실용성)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프로타고라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소크라테스와 나눈 도덕의 상대주의와 보편주의의 논쟁에서 상대주의를 옹호하였다.

*** 계몽주의**
17~18세기 유럽의 정치, 사회, 철학, 과학 이론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사상적 입장이다. 신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인간은 인간과 세계의 보편적 원리나 자명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평등한 존재이며,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이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면서 우리 사회는 서양 문명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교와 불교 윤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우리 전통 윤리의 기반이 상당 부분 흔들렸으며, 오늘날에는 그 자리를 서양 윤리 사상이 중요한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

서양 윤리 사상은 **고대 그리스의 윤리 사상**과 **그리스도교 윤리 사상**을 뿌리로 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윤리 사상은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인간의 내면에서 찾고자 했던 소피스트에 의해 본격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하였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주장한 **프로타고라스***가 대표적인 인물이며, 소피스트와 치열한 논쟁을 벌인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보편성에 주목하여 새로운 삶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사상적 입장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서양 윤리 사상의 또 다른 뿌리를 이루는 그리스도교 윤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나 하느님과 같은 유일신에게서 찾았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교 사상에서 출발한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등장으로 보편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맞았으며, 바울과 같은 선교자의 노력으로 로마 제국의 국교로까지 채택되면서 서양 전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와 같이 고대 그리스 윤리 사상과 그리스도교 윤리 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서양 윤리 사상은, 중세 그리스도교 사회를 거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같은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을 통해 고대 그리스 윤리 사상이 그리스도교 사상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종교 개혁과 산업 혁명을 배경으로 등장한 근대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여 도덕 법칙을 찾고자 하는 의무론적 윤리와,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과 행복의 증진에 두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리주의 윤리가 나타났다. 의무론적 윤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꼭

참고 자료

서양의 교양 교육 전통

서양의 교육은 그리스의 전통적 교육에서 비롯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교육을 인간으로서의 '훌륭함' 또는 '탁월함'을 의미하는 덕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덕을 기르기 위해서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체육,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시와 음악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플라톤은 더 나아가 오직 이성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이데아 세계를 상정하였으며, 기하학을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서양의 교양 교육 전통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비판적 사유와 참신한 상상력,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 그리스인들은 유럽 전역의 이상이 된 '전인 교육'의 원리를 개발하였다.

지켜야만 하는 도덕 법칙을 발견하고자 한 반면, 공리주의 윤리는 행위의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도덕 법칙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생철학은 인간의 의지, 충동, 욕망 등과 같은 반이성적 개념에 주목하였다.

20세기 들어 서양 윤리학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좋음', '옳음' 등과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실존주의자들이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개인적이고 현실적이며 결코 상대화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 문제, 즉 '어떻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였다. 더불어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리주의와 의무론과 같은 기존의 윤리 이론을 응용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러한 관심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정보 윤리,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떤 윤리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환경 윤리, 타인에 대해 어떤 윤리적 자세를 가져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배려 윤리와 덕 윤리 등으로 구체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서양 윤리 사상의 특징



▲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 (13세기 터키의 원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서구 문명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서양 윤리 사상은 이처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 고대 그리스로부터 오늘날까지 서양은 물론, 비서구권 국가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윤리 사상과 접촉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서양 윤리 사상은 다음과 같은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

첫째, 서양 윤리 사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 중에서 **경험**과 **이성**을 중시하였다. 감각에 근거한 경험 속에서 올바른 삶을 모색하고자 하는 **경험주의**의 흐름은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사상에서 시작되어 근대의 흄 등 도덕적 감정을 중시하는 흐름을 거쳐 벤담과 밀로 대표되는 공리주의로 나타난다. 반면에 이성을 근거로 하여 도덕적 사유를 통해 올바른 삶을 찾고자 하는 **이성주의**의 흐름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게서 시작되었으며, 근대의 데카르트, 칸트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둘째, 서양 윤리 사상은 **개인**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각각의 윤리적 관점이 등

▼ **프라고나르(Fragonard, J. H., 1732~1806), '빗장'(1778)**
흄은 인간의 행동이 욕구와 정념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정념의 노예인 이성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용될 뿐이라고 보았다.





▲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크로폴리스(acropolis)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유사시에 시민들의 피난처로 이용되었고, 도시의 수호신을 모신 신전이 있었다.

장하여 논쟁 과정을 거쳐 왔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폴리스'라는 공동체, 중세에는 교회 중심의 공동체 안에서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근대 이후에는 이성을 지닌 주체로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더불어 도덕 공동체를 전제로 덕성을 중시하는 덕 윤리가 다시 부각되기도 하였다.

셋째, 서양 윤리 사상은 도덕 판단의 근거를 각각 행위의 **결과**와 **동기**에서 찾는 관점이 서로 대립 관계를 형성하면서 전개되었다. 목적론은 그 행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행위의 결과에 의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이론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과 공리주의 윤리가 있다. 그에 비해 도덕 판단의 근거를 행위의 동기에서 찾는 이론은 칸트의 의무론이 대표적이다. 칸트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은 행위의 결과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에 대한 의무에서 우러나오는 동기 때문이다. 목적론은 그 목적을 쾌락 또는 행복으로 보는 데 비해, 의무론은 목적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 밖에, 서양 윤리 사상은 전통적으로 **앎과 실천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해 왔다. 인간 자신이 외부의 대상에 관한 참된 지식이나 진리와 법칙 등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왜냐하면 서양 윤리 사상에서는 아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었을 때 인생의 궁극 목표인 행복이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탐구해 보기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두 가치가 갈등하는 상황을 제시한 후,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아래 조건에 맞추어 논술해 보자.

현대 한국인의 생활을 지배하는 논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의식보다는 가족적 유대감과 공동체의 소속감, 상호 의존적 관계의 중시 등이다. 이러한 상호 의존적 인간관계는 가족 의식, 동문 의식, 지역 의식, 민족의식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함께하는 태생 의식'은 한국 사회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간의 마찰을 빚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와 한국의 생활 전통에서 오는 상호 의존적 가치는 한국 사회의 운영 기반이 되는 정의(正義)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요구할 수 있다.



▲ 식생활에서 드러나는 동서양의 문화 차이

조건 **1.** 자신의 직접 경험 또는 간접 경험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상황을 제시한다.
2. 갈등 해소 방안을 윤리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제시하되, 분량은 500자 내외로 한다.

| 현대 사회와 서양 윤리 사상 |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두려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는 삶의 의미를 상실한 데서 오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만 계산하고자 하는 **도구적 이성***이 만연하는 가운데 오는 삶의 목표 상실이라는 두려움이며, 세 번째는 자유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다.

– 테일러(Taylor, C. M.), "불안한 현대 사회" –

***도구적 이성**
목적의 타당성이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목표를 가장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는 능력이다.

오늘날 인간은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에, 핵무기나 자연재해의 위협 속에서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 현대인이 이러한 시대에 살게 된 까닭은 다양하게 분석해 볼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만족감이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우리는 첨단 휴대 전화 같은 과학 기술에서 비롯되는 문명의 이기(利器)를 통해 오락을 즐기거나 전 세계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행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서양 윤리 사상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 서양 윤리 사상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와 흐름을 함께해 왔고, 20세기 이후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의 확산 과정에서 서양 윤리학자들은 현대인이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였고, 또 자신의 사상적 입장과 현재 상황을 대비시키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양 윤리 사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길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올바른 삶을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 절대자에 대한 신앙을 통해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각 개인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윤리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양 윤리 사상은 우리 주변의 환경 파괴나 전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기업의 집단적 책임 등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현대에 들어 논의가 활발해진 환경 윤리와 전쟁 윤리, 여성 윤리, 기업 윤리 등은 인간의 윤리적인 사고 영역을 한층 확장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 국가별 행복 지수(HPI) 순위
전 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기대 수명, 삶의 만족도, 탄소 발자국(환경 오염 지표) 평가



순위	국가	행복 지수
1	코스타리카	64.0
2	베트남	60.4
3	콜롬비아	59.8
4	벨리즈	59.3
5	엘살바도르	58.9
6	자메이카	58.5
⋮		
45	일본	47.5
60	중국	44.7
63	**한국**	**43.8**
105	미국	37.3

–영국 신경제 재단(NEF), 2012.–

성찰해 보기

 개별 □ 모둠 활동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나 삶의 목표를 제시한 후,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서양 윤리 사상 또는 서양 윤리학자가 있는지 조사해 보자.

●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 삶의 목표 ● 서양 윤리 사상 또는 서양 윤리학자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

헬레니즘 시대의 혼재된 동서양 문화와 역동성, 풍부한 감정을 잘 표현한 조각 작품

알렉산드로스(Alexandros, 기원전 356~기원전 323) 대왕 사후부터 31년, 그리스가 로마에 흡수되기까지 약 300년간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그리스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손들이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인도 국경, 이집트까지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에 동서양 문화가 자연스럽게 혼합되었으며, 예술 작품에는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려는 화려하고 강인한 표현 기법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는 자연 과학이 발달한 반면, 문학은 침체하여 역사가에 따라서는 그리스 문화의 창조성이 사라져 가는 그리스 문화의 쇠퇴기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시기를 그리스 문화의 융합적 보편화와 확산의 시기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문화사적 측면에서 헬레니즘 문화를 세계화된 그리스 문화라고 일컫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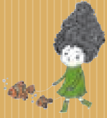


▲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트로이의 사제인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 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대제국 건설은 그리스 미술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리스의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된 그리스 미술이 그 지역을 넘어 세계의 절반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특히 헬레니즘 시대의 조각상에서는 고대 그리스 조각에서 보이는 조화미와 세련미 대신에, 때로는 거칠고 격렬하기까지 한 역동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시기의 조각상은 그리스 미술의 이상주의적 특성은 약해진 반면, 육체와 정신의 격동성이 잘 표현되었다. 현실적인 인간미를 추구하여 자유로운 모습과 표정으로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였고, 격한 비장미의 표현도 자주 등장하였다.

***헬레니즘(Hellenism)**
그리스 문화와 동양의 문화가 만나면서 질적으로 변화를 일으켜 탄생한 새로운 문화를 의미한다. 1863년 독일의 드로이젠(Droysen, J. G., 1808~1884)이 그의 저서인 “헬레니즘사”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넓게는 그리스 문화와 정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중단원 갈무리

내용 정리 문제

1 **아래 빈칸을 채우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자.**

(1) 서양 윤리 사상은 고대 그리스의 윤리 사상과 □□□□□ 윤리 사상을 그 뿌리로 하고 있다.

(2) 중세의 서양 윤리 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와 □□□□ 같은 그리스도교 사상가를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의 윤리 사상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3) 근대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도덕 법칙을 찾고자 하는 □□□적 윤리와, 가치의 기준을 효용성과 행복의 증진에 두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 윤리가 나타났다.

(4)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그 동기가 □□□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5)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그리스도교 사상에 □□ □□□ □□ 사상을 통합하였다.

2 **다음 진술을 검토하고, 틀린 부분은 바르게 고쳐 보자.**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바로잡음
(1)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상대성에 주목하여 새로운 삶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자 하였다.	○ / ×	
(2)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도덕 법칙을 찾고자 하였다.	○ / ×	
(3) 서양 윤리 사상은 전통적으로 앎과 실천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해 왔다.	○ / ×	
(4) 경험주의의 흐름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서 시작되어 근대의 흄에 이르러 정리되었다.	○ / ×	
(5) 도덕 판단의 근거를 행위의 동기에서 찾는 이론은 칸트의 목적론이 대표적이다.	○ / ×	
(6) 의무론은 그 목적을 쾌락 또는 행복으로 본 데 비해, 목적론은 목적과 상관없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다.	○ / ×	

3 **다음 진술한 내용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해 보자.**

(1)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하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였다.

(2) 결과론은 어떤 상황에서도 꼭 지켜야만 하는 도덕 법칙을 찾고자 하는 입장이다.

(3) 배려 윤리와 덕 윤리는 타인에 대해 어떤 윤리적 자세를 가져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

인물과 고전을 말하다

소피스트와 그들의 사상


▲ 프로타고라스의 강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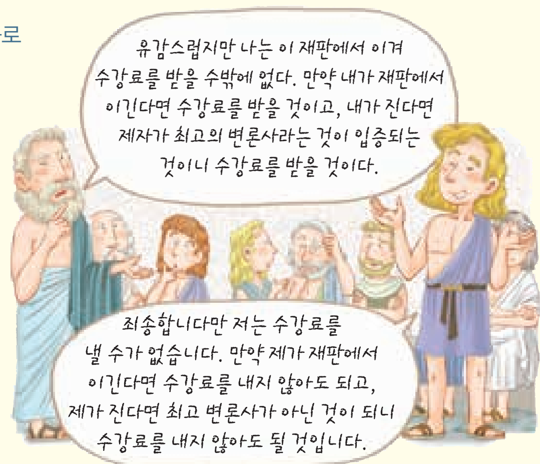
서양 윤리 사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에서 본격적으로 인간 존재와 생활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등장한 사람들이 소피스트(Sophist)이다. 이들은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그리스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변론술을 가르쳤으며, 진리와 정의를 상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식과 재주를 가르치고 보수를 받았다.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사상가는 프로타고라스(Protagoras)와 고르기아스(Gorgias)이다. 특히 이들은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궤변으로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후세에 '궤변론자'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소피스트 사상의 특징 |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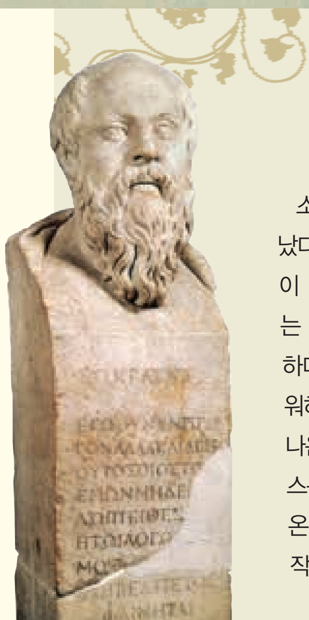
프로타고라스는 똑같은 사물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각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되고 선악의 가치 판단도 개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보편적인 윤리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극단적 회의주의자인 고르기아스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파악할 수 없다. 파악한다 해도 그것을 전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여기서 세 번째 명제를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단어를 전달하지만, 단어란 단지 상징이나 기호에 불과하며 사물 자체와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가 확신한 것은 믿을 만한 지식, 더 나아가 확실한 진리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프로타고라스의 딜레마 | 수업료 반환 청구 소송

어느 날 프로타고라스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다. 자신을 에우아틀로스라고 밝힌 그 청년은 프로타고라스에게 제자로 삼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프로타고라스는 즉석에서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대신 수강료를 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에우아틀로스는 프로타고라스에게 만약 자신을 최고의 변론사로 만들어 준다면 그때 수강료를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프로타고라스는 그 조건을 수락하였다. 이후 프로타고라스는 유명한 변론사가 된 에우아틀로스에게 수강료를 받으러 갔다. 그런데 에우아틀로스는 돈을 내라는 프로타고라스를 무시해 버렸다. 화가 난 프로타고라스는 에우아틀로스를 고발하였고, 곧 재판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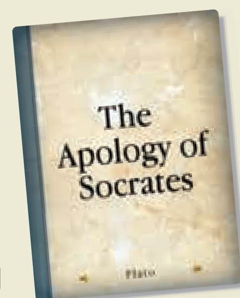


Q 위의 수업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프로타고라스 혹은 에우아틀로스 어느 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를 가정하고, 수업료 논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자.



소크라테스와 “변명”

소크라테스(Socrates)는 그리스의 가장 번화한 도시 국가였던 아테네에서 태어났다. 그는 시장 거리를 누비며 끊임없이 사람들과 대화하며 사색을 즐겼고,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의 목적은 지식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신념이 과연 올바르고 의미 있는지를 검토하며 마음 깊숙이 박힌 독단과 선입견을 제거하는 데 있었다. 편견과 독단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지향해 나아간 진정한 철학자가 바로 소크라테스였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생전에 저서를 남기지 않았다. 그에 대한 사상은 모두 다른 사상가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주요 등장인물로 삼아 “대화편” 연작을 썼다. 그중 “변명”은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 중 하나이다.



▲ “변명” 표지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때 그의 변론 내용이 제자인 플라톤의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는 “변명”이다. 다음은 법정에 선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최후 진술을 하는 변론 내용의 일부이다.


▲ 다비드(David, J. L., 1748~1825), ‘소크라테스의 죽음’

……나는 아테네 시민 여러분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의 신체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꾸도록 하는 일을 하라고 설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젊은이들에게 “부(富)는 덕(德)을 가져다주지 않지만, 덕(德)은 개인이나 국가에 부와 여러 가지 복을 가져다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혈통이 좋긴 하지만 살이 너무 쪄 늘어진 준마를 일깨우라고 신이 이 나라에 내려보낸 등에와 같은 사람입니다. 등에의 역할을 하라고 신께서 나를 아테네에 태어나게 한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언제 어디서나 나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나에게 유죄 투표를 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내 자식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거든 내가 여러분을 괴롭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 자식들을 괴롭혀 주십시오. 즉 나의 자식들이 덕보다 돈이나 그 밖의 다른 것에 마음을 쓴다면, 또 별것도 아닌 주제에 무엇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잘난 체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질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나 자신이나 나의 자식들에게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중 누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지는 오직 신만이 알 것입니다.

위와 같은 소크라테스의 당당한 모습에 반감을 느꼈는지 배심원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사형을 당하리라고 믿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당시 유명인들은 보통 뇌물을 써서 탈출하고자 했으므로, 사형 선고는 단지 망신 주기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그의 친구들은 그를 탈출시키고자 돈을 모아 교도관을 매수해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친구들의 탈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결국 독약을 마시고 숨을 거두었다.

Q 소크라테스가 친구들의 탈출 제안을 거절하고 독배를 마신 이유를 생각해 보자.

2 행복과 윤리

학습 목표

- 상대주의 윤리와 보편주의 윤리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플라톤의 이상주의 윤리,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주의와 덕 윤리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고, 각각이 서양 윤리 사상의 흐름에 끼친 영향을 말할 수 있다.
- 에피쿠로스학파의 쾌락주의 윤리와 스토아학파의 금욕주의 윤리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각각의 윤리설을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중단원 스케치

고대 그리스 시대에 등장한 다양한 윤리설은 도덕적인 삶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인간의 행복한 삶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각기 자신의 입장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행복은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행복한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



01 상대주의 윤리와 보편주의 윤리

유목민들은 농사를 짓는 농경민과는 달리 보통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가축들에게 먹이를 공급할 수 있는 목초지를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이러한 유목민 중 일부에서는 흔히 **고려장***이라고 불리는 풍습이 발견되기도 한다.

티베트(Tibet)의 고원 지대에 사는 한 유목민 집단은 양떼를 치며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늙고 건강이 쇠약해진 노부모를 머물렀던 곳에 일정한 음식과 함께 남겨두고 길을 떠난다. 남겨진 노부모는 결국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고 독수리의 먹이가 된다. 이누이트(Innuit)족 역시 사냥을 위해 이동하는 유목민으로 늙은 부모를 빙야 속에 버려두는 풍습이 있다. 노부모는 자신들의 거동이 불편해져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식들에게 먼저 고려장을 요구한다. 그리고 노부모는 추운 빙야에서 삶을 마감하고 백곰의 먹이가 된다.



***고려장(高麗葬)**: 늙고 쇠약한 부모를 산야에 버렸다고 하는 장례 풍습으로 일부 설화에서 전해지지만 사실로 보기에는 역사적 자료가 부족하다. 이러한 풍습과 관련된 설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나타난다.

단원 열기

- 위와 같은 유목민의 풍습에 대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까?(예□,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 보자.

소피스트와 상대주의 윤리

기원전 5세기를 전후하여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수업료를 받고 실용적인 지식과 수사학, 논쟁술 등을 가르치는 일군의 지식인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을 **소피스트**(sophist)라고 한다. 대표적인 소피스트로는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등이 있다.

소피스트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당시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 시민들은 부와 명예를 얻고 법정에서 승리하고자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타인의 견해를 조리 있게 반박할 수 있는 기술인 수사학을 필요로 하였다. 이때 이러한 필요에 부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소피스트를 '지식을 팔고자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사냥꾼', '돈을 받고 영혼을 파는 상점의 주인들'이라며 비판하였고, 이후 그들은 '궤변론자'라고 불렸다.

소피스트는 하나의 지식 공동체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철학적 관심을 자연과 우주의 질서에서 인간에 대한 탐구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들은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데 치중하였으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즉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하는 척도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척도이다. – 프로타고라스, "단편" –

***실용적인 지식**
역사, 천문, 시, 음악, 웅변술과 같이 상대를 설득하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가리킨다.

▼ 소피스트는 철학의 관심을 자연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돌려놓았다.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기원전 485?~기원전 410?)
소피스트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플라톤의 "대화편", '프로타고라스'에서 소크라테스와 덕에 관하여 논변을 펼쳤다.

이 명제를 통해 **프로타고라스**✱는 진리에 대한 **만물 척도론**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를 때 한 사람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과 관찰에 기초해 있는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을 넘어설 수 없다. 각자가 경험을 통해 지각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그대로가 진리인 것이다.

본래 뜨거움이나 차가움 그 자체는 없다. 단지 이 사람은 뜨겁게 느끼고 저 사람은 차갑게 느낄 뿐이다. 따라서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실제로는 뜨거운가, 아니면 차가운가?"라고 물어보는 것은 의미 없는 물음이다. 실제로 바람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서로 다르게 느낄 뿐이다.

그렇다고 프로타고라스가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도덕마저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관습과 규범을 만들었다. 그는 공동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관습과 규범은 다르지만, 적어도 공동체 내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도덕규범을 인정한다고 보았다. 결국 공동체의 도덕규범을 인정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는 실용성에 근거하여 집단 내의 공동 규범을 인정하는 것이다.

탐구해 보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발칸 반도 동남부에 사는 트라키아 부족의 풍속은 이러하다. 이 부족의 남자는 모두 많은 아내를 거느린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어떤 아내가 죽은 남편에게 생전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아내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다. 죽은 남편의 친구들도 편을 나누어 논쟁을 벌인다. 그리고 평결 결과 가장 사랑을 받은 아내로 선정되면, 그 아내는 모든 부족민에게서 찬사를 받으며 살해되어 남편과 함께 매장된다. 그러나 다른 아내들은 이보다 더한 치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불운을 한탄한다.



– 헤로도토스(Herodotos), "역사" –

1. 윗글에서 남편에게 가장 사랑받은 아내가 살해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2. 프로타고라스의 관점에서 위의 풍습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써 보자.

고르기아스는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 입장을 넘어서 **회의주의***로까지 나아갔다. 프로타고라스가 개인과 공동체에 따라 진리와 도덕규범이 다를 수 있다는 상대주의 입장을 취했다면, 그는 더 나아가 어떠한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의주의 입장을 보였다. 고르기아스는 더 이상 보편적 진리의 탐구에 매달리지 않고, 타인을 설득하고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사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전념하였다.



▲ 고르기아스(Gorgias, 기원전 483~기원전 376)

말이란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보잘것없고 희미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려움을 멈추게 하고, 슬픔을 없애며, 기쁨을 만들어 내고 연민을 한층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고르기아스, "단편" –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고르기아스에게 있어서 타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들의 지성과 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말이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약이 우리의 몸에 미치는 영향에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약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쓰면 병이 낫지만, 잘못 사용하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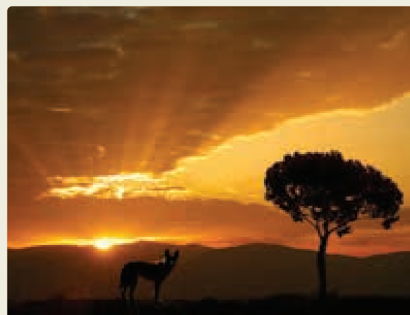
하지만 소피스트가 중시한 수사학은 인간의 영혼을 기만할 수 있다. 수사학은 개인의 이익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당시의 소피스트가 궤변론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보편적 진리와 공공선을 목표로 하지 않는 수사학은 방향키를 잃어버린 배와 같아서 자칫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

*회의주의
인간의 감각이나 인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므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또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한토막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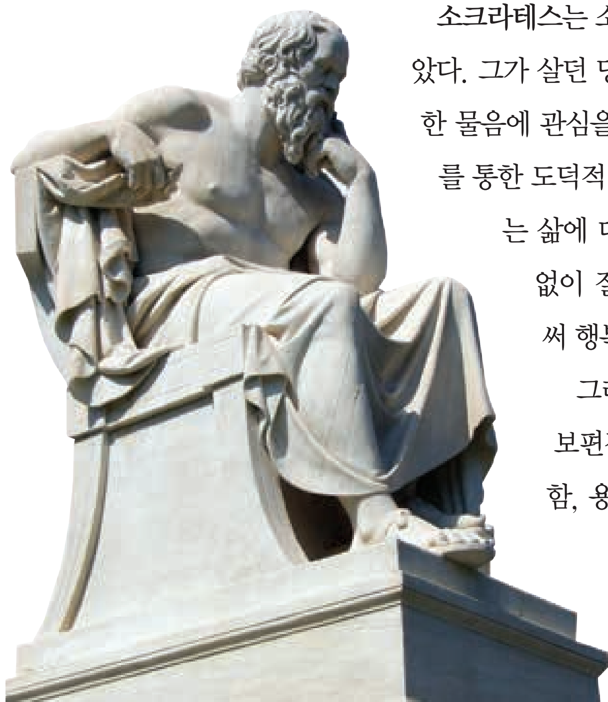
'개와 늑대의 시간(개늑시)'과 현대판 소피스트

프랑스에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다. 해가 저물 무렵 세상이 붉게 물들고, 언덕 너머의 짐승이 자신이 기르던 개인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황혼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철학자와 소피스트를 각각 개와 늑대에 비유한다. 생김새는 유사하지만 우리는 양들을 지키는 개와 양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늑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만약 늑대를 잘 길들여진 개로 착각하여 가까이하면 우리는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논쟁에서의 승리와 입신양명을 위한 처세술만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전락한 소피스트는 소크라테스의 눈에 선량한 시민을 잡아먹는 늑대의 모습으로 비추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늑대는 고대의 아테네에서만 존재했을까? 우리 사회에는 그런 늑대가 없을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과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시민의 그것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윤리 사상



▲ 소크라테스(Socrates, 기원전 470?~기원전 399)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에 맞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가 살던 당시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물음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통한 도덕적인 삶 속에서 인간은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무지(無知)**를 깨닫고, 끊임없이 절대적인 진리를 탐구하며, 일상 속에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도덕적인 삶을 위해 요구되는 덕(德)의 보편적인 의미를 규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경건함, 용기, 절제, 정의 등과 같은 덕의 의미를 이성과 논리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삶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예컨대 소크라테스는 한 청년과 '경건함'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소크라테스는 "무엇이 경건하고, 또 무엇이 경건하지 못한 것인가?", "여러 가지 경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경건하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에게 물었다. 그 청년은 스스로 경건함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소크라테스의 계속되는 물음에 그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리를 떠났다. 소크라테스가 그와의 대화에서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상대방에게 면박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적은 경건함이라는 것이 문화나 개인에 따라 다른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유형의 경건한 행동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그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함께 탐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대화 과정은 상대방이 스스로 무지를 깨달아 가는 과정인 동시에 도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요구되는 덕의 의미를 명료화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는 **문답법***을 통해 덕의 의미를 캐물으면서 행복한 삶의 기준이 되는 덕을 정의(定義)하고자 하였다.

***문답법**
대화하는 사람들이 서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탐구해 가는 대화법이다.

소크라테스가 덕의 의미를 정의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졌던 까닭은 앎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는데, 인간이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용기, 절제와 같은 덕의 실천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덕을 실천하려면 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므로, 덕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면 이를 실천하여 행복한 삶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지덕복합일설(知德福合一說)**을 주장하였다.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모두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못 이겨서 그렇다고 합니다. …… 다른 행동이 지금 자신의 행동보다 더 좋고, 또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은 무지와 다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지혜입니다.

– 플라톤, "프로타고라스"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옳지 않은 행동인 줄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예컨대 시험공부를 해야 하지만 컴퓨터 게임의 유혹을 이겨 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부모님께 혼나는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해 본 적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볼 때 무엇이 선인지를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부도덕한 행동은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저 멀리 있는 나무보다 내 앞에 서 있는 나무가 더 커 보이듯이, 눈앞의 쾌락이 앞으로 다가올 고통보다 더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닌 순간적인 착각일 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소크라테스는 도덕적 실천을 통해 행복한 삶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성적인 사유와 지혜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현명함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찾아 나

참고 자료

'소크라테스는 누구일까?'

소크라테스는 생전에 한 권의 책도 저술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플라톤, 크세노폰, 아리스토파네스 등의 저술들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과 크세노폰은 그를 당대의 대표적인 현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반면,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는 "구름"이라는 작품 속에서 그를 소피스트의 전형으로 묘사한다. "구름" 속 소크라테스는 천체를 탐구하고, 돈을 받고 수사학을 가르친다.

그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묘사는 당대 그를 바라보던 시선과 태도가 일치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즉 그의 가르침과 삶이 당대에 이미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중세를 거쳐 오늘날까지지도 지속되고 있다. 어쩌면 서양 사상사는 각 시대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소크라테스를 창조해 온 것이 아닐까?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본모습이 무엇이고, 그 초상이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고 할지라도, 그가 서양 사상사에서 철학적 · 윤리적 사유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 되어 온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무지를 깨우쳐 주고자 토론과 강연을 즐겼다.

설 수 있도록 자극하는 아테네의 **등에*** 역할을 신이 부여한 소명(召命)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그가 죽음을 맞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삶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캐물었다. 이러한 물음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보람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 자신에게 묻고 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제2의 소크라테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오늘날 성찰과 반성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등에**
식물의 수분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과에 속하는 곤충이다.

음미하지 않는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다. – 플라톤, "변론" –

상대주의와 보편주의 윤리 사상

고대 그리스 윤리 사상의 흐름은 소피스트를 중심으로 한 상대주의,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들의 보편주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2500여 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윤리학을 바라보는 중요한 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윤리에 대한 상대주의 입장과 보편주의 입장의 특징은 무엇일까?

윤리적 상대주의는 도덕적인 진리가 문화 · 계층 · 개인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서로 다른 사회에는 서로 다른 도덕규범이 존재하므로, 한 사회에서 무엇이 옳은가는 그 사회의 도덕규범에 의존한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의 규칙이 다른 사회의 그것보다 더 좋거나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도덕적 진리가 없으므로 옳고 그름은 관점의 문제이며, 그 관점은 문화 · 계층 · 개인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판단되는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도덕규범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오늘날 모든 사회에서 금하고 있다. 이처럼 **윤리적 보편주의**는 문화적 특수성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도덕규범이 있다고 믿는 입장이다. '도둑질하지 말

라.',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것은 모든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규범이다. 이러한 도덕규범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것으로 보편성을 지닌다. 인간은 비록 살아가는 환경과 문화가 서로 다를지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 보편주의는 도덕규범의 근원을 인간의 이성, 그리고 그 이성에서 비롯되는 도덕 법칙에서 찾는다. 따라서 도덕규범은 특정 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초월하여 보편적일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모든 행동을 정의롭게 하는 정의의 덕은 보편적이고 이성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윤리적 보편주의는 문화권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도덕규범보다는 그 규범의 이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고 인간 존엄성, 인권, 자유, 평등 등과 같은 가치가 지니는 보편성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모든 인간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

보편적 도덕 원리의 예
-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 "논어" –
-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 "성경" –

성찰해 보기

☑ 개별 □ 모둠 활동

1. 문화를 선진 문화와 후진 문화, 우월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로 구분할 수 있을까? 클래식 음악과 대중가요 사이에 우열이 존재할까? 이에 대한 자신의 평소 생각을 써 보자.



2. 다음 글을 읽고 우리나라의 보신탕 문화가 고유한 음식 문화로서 존중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비판받아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자.

프랑스의 한 여배우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한국인이 보신탕을 먹지 못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배우는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잔인한 관습에 충격을 받고 있다. 이 배우는 이와 같은 야만적인 관습은 한국의 위상을 해친다."라고 하면서 개고기 판매 금지와 함께 이러한 음식 문화를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한국 정부의 대통령에게 요청하였다. – ○○ 일보, 1996. 2. 28. –



02 이상주의 윤리와 현실주의 윤리



단원 열기
- 위의 두 학생처럼 무엇인가가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아쉬웠던 경험이 있는가?
- 우리는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에서 적절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사상사에 큰 획을 그은 사상가들이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토대로 이상주의적 세계관의 기초를 마련한 데 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에 관한 경험적 탐구를 토대로 현실주의적 세계관의 기초를 닦았다. 오늘날 이들의 가르침은 서양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데아(idea)**
그리스 어로 '보이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플라톤은 순수한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사물의 원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다.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윤리 사상

우리는 "플라톤 이후의 서양 사상사는 플라톤 사상에 대한 풀이와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통해 플라톤의 학문적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플라톤**(Platon, 기원전 427?~기원전 347?)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심화 · 확대하였고, **아카데미아***를 열어 학문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아카데미아의 입구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여기에 들어서지 말라."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는 플라톤이 감각적 경험보다는 이성에 기초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고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플라톤 사상의 핵심은 이데아론이다. 그는 영혼이 지향하는 이데아 세계와 인간이 실제 살아가는 현실 세계로 세계를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데아 세계**는 참된 실재가 존재하는 관념의 세계이자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이상 세계이다. 반면,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고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변화의 세계이므로 영원하고 참된 진리를 인



***아카데미아(academia)**
기원전 387년 플라톤이 개교한 후 약 900여 년 동안 존속하였다. 이 학원이 있었던 곳은 전설적인 영웅 아카데무스와 관련되어 있어 아카데미아로 불렸고, 이는 오늘날 대학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기하학(幾何學)**
공간의 수리적(數理的)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로, 본래 토지를 측량하는 데 이용된 학문이다.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이성적 탐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식하기 위해 인간이 극복해야 할 세계이다. 또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이데아의 모방이요 그림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 따라서 끊임없는 탐구와 성찰을 수행하는 소수의 철학자만이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지하 동굴에는 어릴 적부터 사지(四肢)와 목이 묶여 동굴의 입구를 등진 채 살아가는 죄수들이 있다. 이들은 동굴의 앞쪽만을 볼 수 있도록 묶여 있다. 뒤쪽 멀리에서는 불빛이 타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 불과 죄수들 사이에는 높은 담장이 있고, 그 담장 너머에서는 사람들이 인공적인 인물상, 동물상 등을 담 위로 쳐들고 지나다닌다. 죄수들은 불빛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벽에 비친 상(像)들의 그림자만 볼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묶여 있던 줄에서 풀려나 불빛 쪽을 바라본다면 처음에는 눈이 아파서 고통스러워 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눈은 불빛에 익숙해지고, 더 나아가 동굴을 탈출하면 그는 동굴 밖의 환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 플라톤, "국가" –



위에서 동굴 밖 세계를 본 사람들은 그 세계가 참된 진리의 세계이고 동굴 안의 세계는 그것의 **모사***임을 알게 되며,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주려고 노력한다. 플라톤은 이와 같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이상 세계를 설명하였다.

플라톤에 의하면, 이데아 세계는 보편적인 진리의 근원이자 탐구의 대상이며,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세계이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불변하는 관념의 세계이므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데아를 모사한 것이므로 이데아는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 근거이기도 하다. 반면, 강물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현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이다.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에는 다양한 이데아가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선(善)의 이데아**를 최고의 이데아로 보았다. 선의 이데아는 마치 자연을 비추는 태양과도 같다. 태양이 모든 것에 생명과 **가시성***을 부여하듯이, 선의 이데아는 모든 이데아에 본질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데아의 존재 이유와 그것의 좋은[善] 상태를 규정한다. 따라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선의 이데아에 의지하여 존재하지만, 선의 이데아는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성을 갖는다.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은 **망각의 강***을 건너 현실 세계에 태어나면서 이데아 세계에서의 모든 기억을 상실한다. 그에게 교육이란 상실된 이데아에 대한 기억, 즉 완전함에 대한 기억을 **상기***해 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따라서 상기설의 입장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 학생이 망각했던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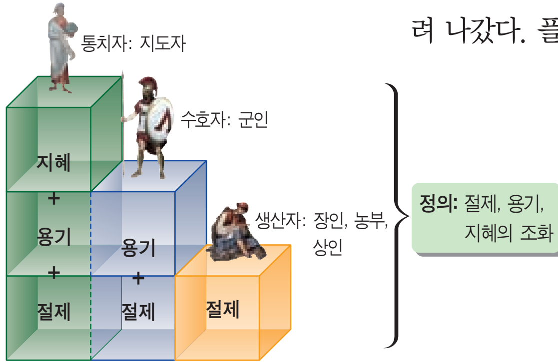
*** 모사(模寫)**
이데아의 형태를 본뜸.

*** 가시성(可視性)**
태양이 사물에 빛을 비춤으로써 우리는 대상을 볼 수 있음.

*** 망각의 강**
망각의 강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강으로, '레테(Lethe)의 강'이라고도 한다. 죽은 사람이 레테의 강물을 마시면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잊는다고 한다.

*** 상기(想起)**
과거의 일이나 생각을 다시 떠올리는 것.

*플라톤의 세 계급과 4덕



플라톤은 이러한 이데아론을 토대로 이상 국가와 도덕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려 나갔다.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공동체를 만들고, 분업을 통해 서로의 필요와 요구에 응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에는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 계급***이 형성된다. 생산자는 경제 활동, 수호자는 나라를 보호하는 활동, 통치자는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시민의 복지를 기획하는 활동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각 계급은 그에 합당한 역할과 기능이 있다. 그리고 시민이 '자기의 일을 다하면서 다른 계급의 일에 참견하지 않을 때' 국가는 올바른 상태, 즉 **정의(正義)**가 실현되는 이상 국가를 이룰 수 있다.

각 계급의 시민이 제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 통치자는 철인(哲人)으로서의 **지혜**, 수호자는 통치자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용기**, 생산자는 욕망에 빠지지 않기 위한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절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다른 계급에게도 공통으로 요구되는 덕목이다. 이처럼 각 계급의 시민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갖출 때, 그 국가에서는 비로소 정의의 덕이 실현된다.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 역시 **이성**, **기개**, **욕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영혼의 각 부분이 제 기능을 잘 수행하여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의 덕이 실현되고, 비로소 이상적인 도덕적 인간상이 구현된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마차에 비유하였다. 마차를 끄는 두 마리의 말이 있는데, 한 마리는 말을 잘 듣는 좋은 말이고 다른 말은 채찍을 들어야 말을 듣는 좋지 않은 말

탐구해 보기

플라톤이라면 다음 자료에 제시된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할지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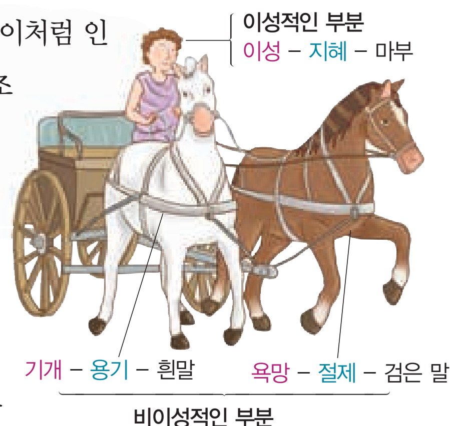
플라톤은 이상 세계의 모든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에 근거하고, 현실 세계의 모든 존재는 이데아의 모사물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현실 세계에서 오른쪽 자료와 같은 '악'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플라톤의 생각처럼 현실 세계가 이데아 세계의 모사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발생하는 악 또한 이데아의 모사물인가? 그렇다면 악의 이데아가 존재한다는 것인가?



이다. 실제로 마차를 끄는 것은 이 두 마리의 말이다. 그러나 말이 마음대로 날뛰면 마차는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마차가 가야 할 방향은 마부가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인간의 영혼 역시 이성(마부)의 다스림 아래 기개와 욕망(두 마리 말)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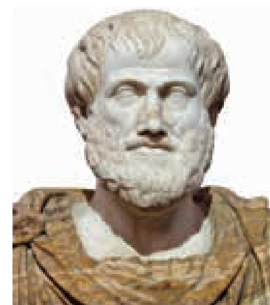
도덕적인 삶도 이처럼 이성의 인도 아래 기개와 욕망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의미한다. 이성에 요구되는 덕으로서 지혜는 이데아 세계에 대한 통찰을 통해 삶의 목표를 판별하며, 기개와 욕망을 조화시키고 통합한다. 용기란 기개가 육체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고 이성을 따를 때 얻게 되는 덕이요, 절제는 인간이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이성과 용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덕이다. 마지막으로 **정의**는 한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이성, 기개, 욕망의 세 부분이 그 기능을 탁월하게 수행하여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되는 덕이다. 따라서 플라톤이 주장하는 도덕적인 삶은 영혼을 구성하는 각 부분 사이에 정의의 덕이 실현되는 삶으로 집약할 수 있고, 이것은 곧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 플라톤의 영혼 비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이론과 윤리 사상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까지 역사에 등장한 가장 풍부하고 심오한 천재 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에게 맞설 만한 것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플라톤에 버금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밑에서 약 20여 년 동안 학문을 배웠다. 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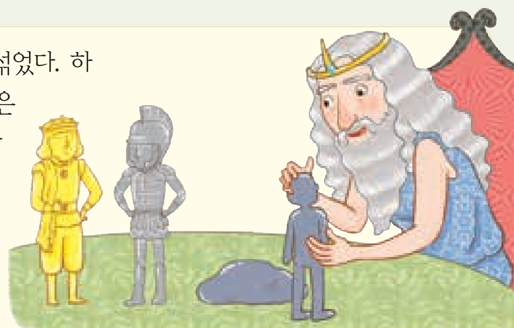
▲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기원전 384~기원전 322)

탐구해 보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신은 인간을 만들면서 통치자에게는 황금을, 수호자들에게는 은을 섞었다. 하지만 농부나 장인에게는 쇠와 청동(구리)을 섞었다. 여러분은 자신을 닮은 자손을 낳지만, 가끔 황금의 자손에서 은의 자손이, 은의 자손에서는 황금의 자손 등이 탄생하기도 한다. 자손이 청동 성분이 혼합된 상태라면, 장인이나 농부에게 보내야 한다. 반대로 누군가 황금이나 은의 성분이 혼합된 상태라면, 그런 사람은 통치자나 수호자의 지위로 상승시켜야 한다.

– 플라톤, "국가" –



1. 자신은 황금, 은, 청동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를 말해 보자.
2. 위와 같은 플라톤의 입장에 대해 '인권'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비판적인 글을 써 보자.

스승을 존경하였으나 학문적으로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상을 정립하였다. 그는 현실 세계와 분리 · 독립된 이데아 세계를 부정하고, 경험을 통해 현실 세계에 있는 원리와 법칙을 탐구하였다. 즉 현실 세계에 뿌리를 두고 **형상 이론**을 구축해 나아갔다. 플라톤과 학문적 입장이 달랐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리케이온***이라는 학원을 열고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탐구하였는데, 이 학문 공동체를 **소요학파***라고 한다.



***리케이온(Lykeion)과 소요학파(逍遙學派)**
리케이온은 '아폴로 리케이우스'라는 신전에서 따온 이름이며, 제자들과 함께 산책로(peripatos)를 거닐며 학문을 토론했던 것에서 '소요학파'라는 이름이 유래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생명 유지 · 영양 섭취 · 감각적 지각 등과 같은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 · 식물도 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이성의 발휘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다. 따라서 이성을 잘 발휘하는 삶을 통해 인간은 궁극적 목적인 최고선, 즉 **행복(eudaimonia)***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행복은 이성에 따르는 삶을 통해 지성의 덕과 품성의 덕을 쌓음으로써 이를 수 있다. **지성의 덕**은 지혜, 식견 등과 같이 이성 그 자체를 고양하여 얻을 수 있고, **품성의 덕**은 지성의 덕인 **실천적 지혜***에 따르는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도덕적인 사람은 실천적 지혜를 통해 어떤 행동이 좋은가를 **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이를 실천에 옮겨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인간은 옳은 행위를 함으로써 옳은 사람이 되고, 절제 있게 행동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며, 용감한 행위를 함으로써 용감해진다.

***에우다이모니아**
오늘날의 행복과 번영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그리스 어로, '잘 살고 잘 행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행복(happiness)보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실천적 지혜**
일상생활 속에서 충동, 욕구, 감정 등에 치우침 없이 중용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도덕적인 삶을 인도하는 지성의 덕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숙고**
적절한 목적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적절한 시간 안에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기초 개념 탐구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이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은 질료와 형상으로 구성된 복합체들이다. 질료는 형상이 실현될 수 있는 재료가 되고, 형상은 질료가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형상은 질료 안에 잠재적 가능성으로 들어 있으므로 사물 ·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도토리가 질료라면, 참나무는 형상이다. 도토리가 참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도토리 내부에 참나무의 형상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적당한 물과 영양분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도토리는 참나무로 성장할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질료를 바탕으로 자신 속에 품고 있는 형상을 끊임없이 실현해 가는 과정, 즉 자아실현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 참나무를 다른 사물과 구별해 주는 것은 참나무의 형상이고, 다른 참나무와 구별해 주는 것은 참나무의 질료이다.

하지만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하여 봄이 오는 것이 아니듯이” 한 번의 실천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덕한 행위가 습관화될 때 품성의 덕이 쌓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품성의 덕은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 중용이자 최선이고, 이것이 덕의 특징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과도함과 부족함은 악덕의 특징이요, 양 극단 사이에서 적절함을 선택하는 **중용**이 품성의 덕이 갖는 특징이다. 이때의 적절함이란 1과 5 사이의 중간이 3인 것처럼 산술적인 중간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중용은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사람에게는 한 끼 식사로 한 공기의 밥이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굶은 사람에게는 두 공기 혹은 그 이상의 밥이 중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적절함에 대한 오랜 경험과 훈련, 그리고 꾸준한 배움을 통해 중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인 삶은 중용을 찾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과 더불어 **실천 의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예컨대 어린아이는 올바른 행동을 정확하게 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어린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무지가 그 원인일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도 모두 무지가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후자의 경우 **의지의 나약함***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무엇이 선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의지의 나약함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 자신의 욕망에 굴복하여 자신의 행위가 그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성에 근거한 실천적 지혜와 더불어 중용을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형상을 현실 속에서 찾았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형상의 실현, 즉 자아실현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간은 이성을 잘 발휘하여 지성의 덕과 품성의 덕을 함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철학적 성찰과 관조(觀照)를 통해 지성의 덕을 쌓는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중용의 실천을 통해 품성의 덕을 쌓음으로써 궁극의 목적인 최고선, 즉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용의 덕

부족함	중용	과도함
비겁	용기	만용
무감각	절제	방종
인색	절약	낭비
비굴	긍지	오만
수줍음	겸손	파렴치
무뚝뚝함	재치	허풍

***의지의 나약함(akrasia)**
무절제의 문제로 선하다고 인식된 것을 행하지 않거나 선하지 않다고 인식된 것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윤리 사상의 비교와 그 영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각기 자신만의 고유한 사상 체계를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각 아카데미아와 리케이온을 통해 학문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들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서양인들의 사유와 도덕적인

성찰해 보기

☑ 개별 ☐ 모둠 활동

1. 아래의 자가 진단표를 통해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자.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 척도

보기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2점 – 그렇지 않다 / 3점 – 그렇다 / 4점 – 매우 그렇다
(단, 문항 8, 10, 13은 다음과 같이 역채점 실시(4점–전혀 그렇지 않다 / 3점–그렇지 않다 / 2점–그렇다 / 1점–매우 그렇다)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9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남들에게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즐겁다.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11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한다.				
4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다.					12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서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취미 활동 등)을 하기 어렵다.					13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4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공황 상태에 빠진다.				
7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8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합계 총점:					

※ 문항 1~15의 합계 총점이 45점 이상이면 고위험 사용자군, 42점 이상~44점 이하이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41점 이하이면 일반 사용자군에 해당한다.

–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http://iapc.or.kr/) –

2.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에 근거하여 자신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 스마트폰 등의 사용에 대해 평가해 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적절한지 그 중용을 찾아보자.

삶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사상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또 그들은 이후 서양 사상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먼저 두 사상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사상가 모두 보편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데 감정보다 이성을 그 중심에 두고 중시하였다. 아울러 이성을 통해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함으로써 유덕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악의 뿌리를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에서 찾았고, 이성이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셋째,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행복은 덕을 함양하는 도덕적인 삶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일부 그림(이 책 164쪽 참고)**
왼쪽의 플라톤은 형이상학에 관한 저작인 "대화편"을 손에 들고 더 높은 차원의 이상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 반면, 오른쪽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을 손에 든 채 땅을 가리키며 현실 세계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에도 두 사상가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 첫째, 플라톤은 존재의 **본질***을 초월적인 이데아 세계에서 찾은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의 본질이 사물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둘째, 학문을 연구하는 데 플라톤은 순수한 이성적 사유를 중시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각과 경험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플라톤은 기하학을 통해 불변하는 관념의 세계를 탐구하고자 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 자연법칙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셋째,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지행합일의 **주지주의***적 입장에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지주의적 입장에 있으면서도 '의지의 나약함'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실천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질(本質)**
어떤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사물의 고유한 성질로, 플라톤에게는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형상'이 이에 해당한다.

***주지주의(主知主義)**
인간의 마음은 이성, 지성과 감정, 의지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 지성을 중시하여 우위에 두는 입장이다. 소크라테스가 덕은 곧 앎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주지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사상가의 가르침은 이후 전개된 윤리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플라톤의 가르침은 윤리의 근거를 초월적인 신에서 찾는 중세의 교부 철학, 도덕 법칙이 순수한 이성에서 비롯된다고 본 근대의 의무론적 윤리 등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중세 후기 스콜라 철학자들이 적극 수용하였고, 근대의 경험론적 윤리는 경험과 관찰을 중시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현대의 덕 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현대에 부활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윤리 사상과 윤리학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는 동양의 공자와 맹자, 석가모니와 노자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인 삶의 바탕을 이루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 해부학 수업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늘 사실에 대한 면밀한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 브라이언 매기,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철학의 역사" –

03 쾌락주의 윤리와 금욕주의 윤리





단원 열기
- 왼쪽 그림은 사랑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 새로운 스마트폰을 샀을 때 행복은 얼마나 갈까? 물질을 통한 행복 외에 또 다른 행복은 없을까?

헬레니즘 시대의 도래

일반적으로 헬레니즘 시대(기원전 323~31)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이후부터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한 시기를 말한다. 약 300여 년에 걸친 이 시기에 그리스인의 삶의 방식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삶의 안정적 토대였던 도시 국가(polis)의 공동체적 질서는 무너지고, 동방 문화의 유입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이상(理想)의 추구보다는 현실 속에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안정과 평온을 찾는 데 몰두하였다. 당대의 사상이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때,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윤리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삶의 안정을 갈망하던 당시 사람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쾌락주의와 에피쿠로스학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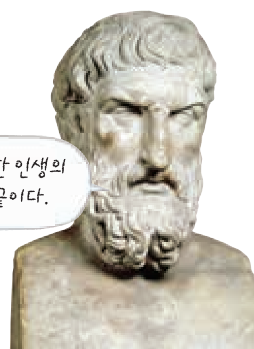
고대 그리스의 쾌락주의 윤리에 의하면, 쾌락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추구하는 것이요, 쾌락만이 진정한 선(善)이자 삶의 목표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쾌락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쾌락주의는 **에피쿠로스**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는 쾌락, 즉 **'고통의 부재(不在)'**를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만약 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은 필요하지 않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타고난 첫째 선이요, 또 인간의 모든 선택과 기피의 근거로 보았다.

정욕의 충족이나 안락한 생활, 사치스러운 삶은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진정한 쾌락과 거리가 멀다.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쾌락을 얻고자 끊임없이 주의와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이른바 **쾌락주의의 역설***이라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쾌락은 끝없는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구를 줄여 나갈 때 얻을 수 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겪게 되는 고통을 극복하려면 불필요한 욕구를 절제하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기만족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욕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욕구를 크게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은 욕구,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으며 그 근거 또한 찾기 어려운 욕구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욕구 중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욕구는 생명 유지의 욕구와 같은 첫 번째 유형의 욕구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욕구 중에서 추구해야 할 것과 자제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 욕구 중에서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 욕구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욕구의 대상을 얻기가 어렵거나 해로움을 가져오는 욕구도 필수적인 욕구가 아니다. 예를 들어 성적 욕구는 자연적인 욕구이기는 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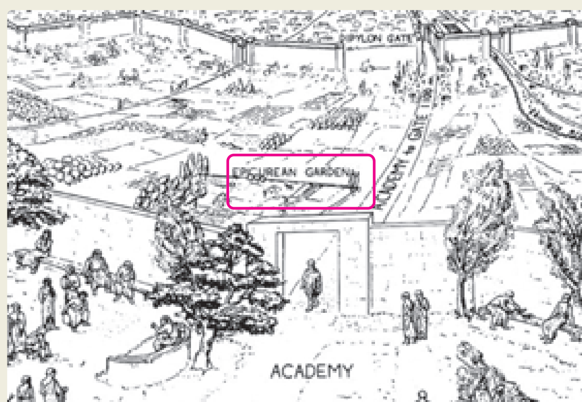
▲ 에피쿠로스(Epicouros, 기원전 341 ~ 기원전 270)

***쾌락주의의 역설**
쾌락을 찾는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 쾌락을 얻으려 하지만, 실상 그것 때문에 쾌락을 잃게 되며, 오히려 쾌락을 얻으려는 노력을 포기할 때 참다운 쾌락을 얻게 된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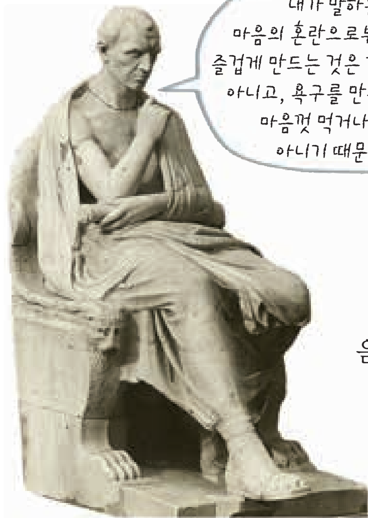
한 토막 이야기

에피쿠로스의 '정원'

에피쿠로스는 아테네 교외에 정원이 딸린 집을 구입하여 그 정원에서 사람들을 모아 죽음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다. 에피쿠로스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여자, 노예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의 정원에 참여하여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이들을 가리켜 '정원 학파'라고 부른다. 이들은 최소한의 욕구 충족을 추구하였고, 번잡한 세상일로부터 벗어나 조용한 은둔의 삶을 살았으며, 치즈가 진수성찬이 될 정도로 검소한 식사와 일상생활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그대는 내일 죽을 것이지만 먹고 마시고 즐겨라."라는 말이 에피쿠로스의 신조였다고 전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이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고통을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화려한 옷, 사회적 명성 등에 대한 욕구는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이다. 옷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화려한 옷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적 명성 또한 사회적 분위기와 관습이 만들어 낸 것이다.



▲ 에피쿠로스

> 가장 큰 부를 소유하고, 또 군중들에게서 명예와 존경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 마음의 동요는 결코 끝나지 않으며 진정한 기쁨도 생기지 않는다. – 에피쿠로스, “쾌락” –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쾌락은 동적인 쾌락과 정적인 쾌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적인 쾌락**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쾌락이다. 즉 몸이 고통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상태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적인 쾌락**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가 충족된 결과로 얻게 되는 쾌락이다. 따라서 정적인 쾌락은 더 이상 어떤 욕구도 없는 상태, 즉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정적인 쾌락의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하였으며, 이것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아타락시아(ataraxia, 평정심)** 어떠한 욕구도 없고, 마음의 흔들림(taraxia)이 없는 고요하고 안정된 평온한 마음의 상태이다.

이러한 아타락시아에 이르려면 무엇이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할 것인가를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인간은 모든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고, 또 무조건 고통을 회피하지도 않는다. 인간은 분별력을 통해 고통을 회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쾌락과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쾌락을 비교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도구적 가치로서의 덕과 본래적 가치로서의 쾌락

플라톤은 영혼의 각 부분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할 때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4덕과 같은 덕목들은 쾌락을 얻기 위한 도구적 가치를 지닐 뿐이라고 보았다. 즉 덕목들은 쾌락을 얻는 데 기여를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덕은 고통의 회피, 욕구의 충족을 위한 도구적 가치를 지닐 뿐, 그 자체로는 본래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본래적 가치란 그 자체로서 추구되거나 목적 자체로서 욕구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무엇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 에피쿠로스의 관점에서 덕은 도구적 가치이고, 쾌락은 본래적 가치인 것이다. 그는 “도덕적인 덕은 쾌락을 제공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쾌락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라고 하였다.



▲ 플라톤 ▲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는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욕구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소극적 쾌락주의**를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최소한의 욕구만을 충족하면서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이와 같이 에피쿠로스는 부질없는 헛된 욕망으로부터 초연하면서도 자기만족을 느끼는 삶, 즉 고통에서 벗어난 아타락시아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행복이자 삶의 목표라고 주장하였다.

쾌락주의의 두 유형
- 소극적 쾌락주의: 고통의 회피를 통한 쾌락 추구
- 적극적 쾌락주의: 적극적인 욕구 충족을 통한 쾌락 추구



◀ 제논(Zenon, 기원전 334～기원전 262)

금욕주의와 스토아학파

고대 그리스의 쾌락주의가 에피쿠로스학파로 발전하였다면, **스토아학파***는 외부의 사물이나 쾌락, 권력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에 따르는 자족적이고 검소한 삶을 추구했던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들의 사상과 삶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 학파의 특징은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드로스의 일화를 통해 잘 드러난다.

*** 스토아(Stoa)학파**
제논이 여러 색의 페인트가 칠해진 주랑(stoa poikile)에서 강의한 데서 '스토아(Stoa)'라는 말이 유래하였다. 오늘날 'stoical'이 '금욕적', 'Stoicism'이 '금욕주의'를 뜻하는 것은 스토아학파가 인내와 초연함을 표방했기 때문이다.
키프로스 섬에서 살던 키티온 출신의 제논은 가족의 상업 활동을 도우려고 아테네로 왔다가 철학에 관심을 가진 이후 스토아학파를 창설하였다. 한편, 그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인 엘레아의 제논과는 다른 사람이다.



디오게네스는 개[犬]의 삶을 찬양하며 커다란 나무통 속에서 잠을 자고, 검소한 식사를 하며,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다. 어느 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디오게네스의 기이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하였다. 이때 통 안에서 쉬고 있던 디오게네스는 "지금 비치고 있는 햇빛이나 가리지 말고 비켜 주시오."라고 부탁하였다.

이와 같이 스토아학파는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삶, 위험과 고통이 닥쳐도 아랑곳하지 않는 용기,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초연함 등을 소중하게 여겼다.

기초 개념 탐구

스토아학파에서 보는 자연의 의미

- 모든 사물을 형성하고 만드는 힘 또는 원리
- 스스로 움직이는 생성력 있는 호흡
- 신, 섭리, 모든 것을 만드는 장인, 옳은 이성
- 세계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힘 또는 원리
- 필연과 운명

스토아학파에서 자연은 세계를 통합된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인 동시에 지상의 사물이 성장하는 원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자연은 안정과 변화를 일으키는 물리적 힘일 뿐만 아니라 합리성을 지니고 있고, 자연은 좋은 목적을 향하도록 모든 사건을 이끌어 가기도 한다.

– 앤서니 A. 롱, "헬레니즘 철학" –



▲ 스토아학파는 신적인 질서에 의해 자연이 운행되고, 그것에 순응하는 삶을 이상적으로 보았다.

스토아학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계는 질서가 잘 잡힌 자연이다. 그리고 그 질서는 이성에서 비롯되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연을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따라서 자연과 개별 존재 간의 관계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며, 부분은 이성이 세워 놓은 자연의 질서와 규범에 따라야 한다.

우리는 자연에 의해 두 가지 성격을 부여받았다. …… 그중 한 가지는 …… 우리 모두가 이성을 소유하고 있다. …… 바로 여기서 모든 도덕적 선이 유도되며, 의무를 창출하는 합리적 사유가 모색된다. – 키케로, "도덕적 선에 대하여" –

자연은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하였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 질서에 참여하여 자연의 합리성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며, 그에 따라 행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스토아학파의 입장에서 윤리적인 삶이란 이성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덕한 인간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인간의 의무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충동, 즉 자기애(自己愛)를 타고난다. 자기애는 해로운 것은 피하고 이로운 것을 추구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애만으로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에 부족하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기애를 넘어서야 한다. 자연 전체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세계와 자신의 삶을 조망해 보고 자연의 질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무엇이 옳은지, 의무는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인 삶이란

한 토막 이야기

노예 출신으로 스토아 철학의 대가가 되다



▲ 에픽테토스(Epiktētos, 55?~135?)

스토아학파 사상가 중 한 명인 에픽테토스는 젊은 시절 노예였다. 그는 평생 한쪽 다리를 절었는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다.

에픽테토스가 노예로 일하던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난 주인이 그의 다리에 고문을 하려고 하였다. 이때 그는 주인에게 태연히 "주인님은 제 다리를 부러뜨리실 겁니까?"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더욱 화를 내었고, 계속되던 고문 끝에 그가 말한 대로 그의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에픽테토스는 조금 전과 똑같은 담담한 말투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이 이야기는 비참한 노예 생활을 견디고 위대한 철학자가 된 에픽테토스라는 인물의 됨됨이를 보여 주는 한편,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 앞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스토아 철학의 일면을 보여 준다. 스토아 철학은 이처럼 외부에서 가해진 나쁜 조건, 심지어 육체적인 고통조차도 태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자족성을 강조하였다.

이성이 금지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요, 자연의 섭리에 따라 다른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사유 능력이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라면, 우리를 이상적인 동물로 만드는 이성의 소유도 보편적인 것이다. 이성은 '해야 한다.'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을 한다.

–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

이렇듯 스토아학파는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였다. 이성적인 삶은 욕망과 정념에서 벗어나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삶을 의미한다. 정념은 이성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고, 또 우리는 정념으로 말미암아 이성의 인도를 외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념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정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일종의 환자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병의 원인을 알려 주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정념에 사로잡힌 환자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 즉 **아파테이아***에 이를 수 있도록 의사인 사상가는 환자의 상태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정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병을 앓고 있는 부도덕한 사람인 반면, 어떠한 욕망이나 정념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이성의 인도에 따르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현자(賢者)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것은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정념이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생각을 제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Antoninus, 121~180)**
로마의 황제로서 그의 스승인 에픽테토스의 영향을 받았다. 모두 스토아학파의 철학자였음에도 에픽테토스는 노예였던 반면, 아우렐리우스는 위대한 황제였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아파테이아(apatheia, 부동심)**
외부의 그 어떤 것에서도 영혼의 비이성적인 쾌락, 두려움, 욕구 등과 같은 것을 겪지 않는 순수한 이성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

탐구해 보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너는 ㉠ 작가의 의지에 따라 배역이 결정된 연극배우라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작가가 연극의 길이가 짧기를 바란다면 그 연극은 짧아지고, 길기를 바란다면 그 연극은 길어진다. 만일 그가 너에게 거지 역할을 원한다면, 너는 그 역할을 능숙하게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가 절름발이, 공직 관리, 평범한 사람의 역할을 원한다고 해도 말이다. 주어진 그 역할을 잘 연기해야만 하는 것이 너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극과 역할을 선택하는 것은 ㉡ 다른 것에 속한다.

– 에픽테토스, "엥케이리디온" –



1. 스토아학파의 입장에서 밑줄 친 ㉠과 ㉡이 공통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인간을 연극배우로 비유하는 이유를 스토아학파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자.



▲ 스토아학파가 최고의 삶의 방식으로 간주하는 덕의 실현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임을 자각하고 자연의 섭리와 일치하는 생활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생활이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의 운행은 우연이 아닌 신적 질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거하면 억울하다는 정념 또한 사라진다. 따라서 정념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성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성을 통해 자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처럼 아파테이아는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자연을 따르는 삶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곤궁한 사람을 도울 때 그의 처지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이성에 근거한 인간으로서의 의무에 따라 도와야 한다. 동정심이라는 정념 때문에 돕는 것은 스토아학파의 본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스토아학파는 행위의 의도와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려는 태도에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재빨리 목욕을 한다. 이때 "그는 나쁘게 목욕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재빨리 목욕을 한다."라고 말한다. …… 그의 동기를 알기 전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 에픽테토스, "엥케이리디온" –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의 영향

에피쿠로스학파는 행복을 쾌락의 추구 속에서 찾았다. 덕이라는 것도 쾌락을 얻는 데 기여할 때 가치가 있다. 그리고 쾌락은 고통에서 벗어날 때 얻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욕구에 대한 분별과 절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에피쿠로스학파가 주장하는 **쾌락주의**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삶의 목표로 추구하였다.

반면,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욕구 · 희망 · 공포 · 쾌락 · 고통 등의 정념은 이성과 갈등을 일으키므로 이러한 정념으로부터 벗어나 이성에 따르는 삶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도덕적인 삶은 욕구나 정념에 흔들리지 않고 보편적인 이성에 따르는 삶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사람은 이성의 명령을 의무로 여기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금욕주의**라고 부른다.

이 두 사상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나 정념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쾌락주의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최소한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삶을, 금욕주의는 정념에서 벗어난 이성에 따르는 삶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두 학파의 사상은 욕구에 의해서이든, 정념에 의해서이든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궁극적인 행복의 상태로 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에피쿠로스학파의 쾌락주의는 근대의 경험론과 벤담, 밀 등의 공리주의, 듀이의 실용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쾌락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공리주의 속에서

우리는 에피쿠로스학파의 쾌락주의를 엿볼 수 있다.

>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쾌락이야말로 목적으로서 바람직하고 유일한 것이다. 바람직한 모든 것은 그 자체에 들어 있는 쾌락 때문에, 또는 고통을 막아 주고 쾌락을 늘려 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리주의의 핵심 명제이다.
> – 밀, "공리주의" –



▲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의 사상은 경험주의 윤리와 이성주의 윤리의 흐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스토아학파는 도덕적인 삶에서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유 방식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상을 계승하는 것으로, 이후 전개되는 이성 중심의 윤리가 서양 윤리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였다.

> 모든 도덕 개념은 전적으로 이성 안에 그 자리와 근원을 가지며, 어떠한 경험적인 인식으로 도출될 수 없다. 도덕은 그 근원이 이렇게 순수하기 때문에 존엄성을 갖고, 우리에게 최상의 실천적인 원칙이 된다.
> – 칸트, "도덕 형이상학의 근본 원리" –

또한 그들의 **자연법사상***과 이성을 지니는 모든 인간은 서로 형제이며 평등하다고 보는 **세계 시민주의**는 로마의 만민법, 중세와 근대의 자연법사상가에게 영향을 주었다. 우리는 중세의 스콜라 철학, 근대의 합리론자인 스피노자와 칸트의 윤리학에서 스토아학파의 주요 개념인 자연, 이성, 의무의 개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자연법사상**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여 우주, 자연,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법이다. 스토아학파의 사상이 그 전형이고, 로마의 만민법, 중세의 아퀴나스 사상에서 완성된 형태를 보였다.

성찰해 보기

 개별  모둠 활동

다음 (가), (나)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가족과 함께 시골길을 가다 과일을 파는 농부를 보았다. 길가에 주차를 하고 가족들과 차에서 내려 과일을 고르던 중 커다란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던 차를 덮쳤다.

(나)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불행을 불평하는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는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깨닫고 순응하라. 풀은 바람에 순응하여 눕지 않는가?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자연의 섭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달을 때 모든 일은 잘 되어 갈 것이다.

1. (가)와 같이 본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2.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신문과 뉴스는 각종 범죄와 악행을 연일 보도한다.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이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그렇다면 (가)의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스토아학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발표해 보자.

아테네 학당

고대 그리스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사상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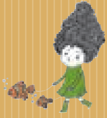
▲ 라파엘로(Raffaello, S.), '아테네 학당'

라파엘로는 고대 철학자들의 모습을 같은 시대의 화가들을 모델로 삼아 형상화하였다. 중앙 왼쪽의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설파하고 있다. 중앙의 두 인물은 서양 사상사의 중심을 차지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한 손에는 "대화편"을 들고, 검지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이데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수염을 기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모델로 삼았다.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을 한 손에 들고 오른손으로는 땅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현실 세계, 그리고 자연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중시했던 그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두 철학자 앞 계단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 초라한 노인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햇빛을 가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디오게네스이다. 그리고 디오게네스 왼쪽 아래 계단에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하는 사람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말했던 헤라클레이토스이다. 헤라클레이토스 뒤에는 피타고라스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는 모습이 보이고, 그 반대쪽에는 기하학을 창시한 유클리드가 제자들에 둘러싸여 컴퍼스로 원을 그리고 있다.

라파엘로는 이 작품을 통해 고대 그리스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사상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있다. 그의 이러한 상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벅찬 일이다. 이 위대한 사상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연과 우주, 인간의 삶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가히 대단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많은 인물들 중 작가인 라파엘로는 어디 있을까?

– 최승규, "서양 미술사 100장면" –



중단원 갈무리

내용 정리 문제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합한 말을 각각 써 보자.**

(1)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는 사회적인 성공과 법적 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을 가르치는 데 치중하였고,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2) 프로타고라스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과 □□에 기초한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을 넘어설 수 없다.

(3) 소크라테스는 행복이란 덕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다는 □□□□□을 주장하였다.

(4) □□□는 경험을 초월한 진실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플라톤이 사용하였다.

(5)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와 □□의 복합체이다.

(6) □□□□□는 쾌락이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며, 선택과 기피의 근거라고 주장하였다.

2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인간이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써 보자.**

3 **다음 〈보기〉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괄호 안에서 써 보자.**

보기

㉠ 학문 탐구에서 순수한 이성적 사유를 중시하였다. (　　　　　　　　　　)
㉡ 현실에 대한 경험과 지각을 학문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　　　　　　　　　　)
㉢ 철학적 지혜를 갖춘 철인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였다. (　　　　　　　　　　)
㉣ 중용을 통해 최고선인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

4 **다음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기〉에서 세 개씩 골라 보자.**

(1) 어떤 욕구도 없고,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고요하고 안정된 평온한 상태

(2) 외부의 그 어떤 것에도 영혼의 비이성적인 쾌락, 두려움, 욕구 등과 같은 정념을 느끼지 않는 순수하고 이성적인 마음의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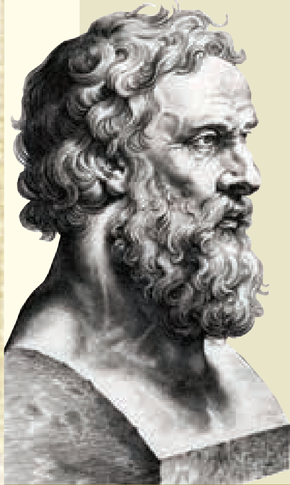
보기

㉠ 쾌락주의	㉡ 스토아학파	㉢ 금욕주의
㉣ 에피쿠로스학파	㉤ 아파테이아	㉥ 아타락시아

5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입장이 되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하는 ‘의지의 나약함’ 문제에 대해 변론해 보자.**

아크라시아(akrasia), 즉 ‘의지의 나약함’의 문제는 선하다고 인식된 것을 행하지 않거나 선하지 않다고 인식된 것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아크라시아는 욕망이 우리의 이성의 눈을 가리는 문제이다. 무절제하고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한다.

인물과 고전을 말하다



플라톤과 “국가”, “파이돈”

플라톤은 아테네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당대의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성장하였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이후 소크라테스가 부당한 판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 정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데아론을 토대로 이상 국가의 모습을 그려 보고, 또 현실 속에서 그것을 구현해 보고자 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그는 공적인 일에서 물러나 아카데미아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학문 탐구와 저술 활동에 몰두하였다.



▲ “국가” 표지



▲ 장 데빌(Delville, J., 1867~1953), ‘플라톤의 학교’
그림 중앙에 앉아 오른손을 들고 설교하는 사람이 플라톤이다. 그에게 있어 세상은 이데아의 그림자로서 마치 동굴 속 벽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 즉 원본은 저 하늘 이데아에 있고, 현실의 모든 것은 모사물에 불과하다.

| “국가” |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 국가의 모습

국가에는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라는 세 계급이 존재한다. 생산자는 국가의 경제 활동을 담당하고, 수호자는 국가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군사의 역할을 담당하며, 통치자는 시민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적인 이념과 청사진을 제시한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은 분업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가와 계급이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국가의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가?

선주(船主)가 덩치나 힘에 있어서 그 배에 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만, 약간 귀가 멀고 눈도 근시인 데다가 항해와 관련된 다른 것들에 대해 아는 것도 특별히 없다네. 그런데 선원들은 키의 조종과 관련해서 서로 다투고 있네. 그 누구도 일찍이 그 기술을 배운 적도 없으면서 말이야. …… 이들은 이 선주를 에워싸고는 자신들에게 키를 맡겨 달라고 요구하며 온갖 짓을 다 하네. 때로 자신들은 설득에 실패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설득에 성공하기라도 하면, 그들을 죽이거나 배 밖으로 던져 버린다네. 그러고 나서는 점잖은 선주를 최면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한 다음, 배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또 배를 지휘한다네. …… 배를 지휘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려면, 한 해와 계절, 하늘과 별, 바람 그리고 그 기술에 합당한 것에 대

해 마음을 쓰는 것이 필수적이라네. 하지만 이런 배에서는 정작 조타술에 능한 사람이 오히려 천체 관측자나 수다쟁이로, 그리고 선원들에게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 플라톤, "국가"–

플라톤이 볼 때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이러한 미숙한 선원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국가가 갈팡질팡하는 것 또한 무지몽매한 선원들의 손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이러한 선원들의 손에서 국가를 되찾아 항해술을 익힌 키잡이의 손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숙련된 항해사의 손에 키를 맡길 때 비로소 배는 적절히 통제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 또한 영원불변의 이데아 세계를 깨달은 철인(哲人)의 손에 맡겨질 때 정의가 실현된 이상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국가는 영원불변의 진리와 이상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국가를 이끄는 사람은 진리와 이상, 즉 이데아 세계를 본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철인이 왕이 되거나 왕이 철인이 되지 않고서는 시민들의 불행이 그칠 날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보게나 글라우콘, 철학자들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거나, 현재의 왕이 '진실로 그리고 충분히 철학을' 하게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정치권력과 철학이 각자 따로따로 향해 가는 상태가 강제로 저지되지 않는 한, 나라와 인류에게 있어서 '나쁜 것들의 종식'은 없다네. – 플라톤, "국가"–

| "파이돈" | 죽음 앞에서 더욱 빛난 소크라테스의 영혼

"파이돈"은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맞기 직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친구들과 진지하게 나눈 영혼 불멸에 관한 대화, 그리고 독배를 마신 후 서서히 죽어 가는 그의 모습을 전해 준다. 영혼 불멸을 믿었던 그는 죽음을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믿었다.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영혼은 죽음을 통해 사멸(死滅)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계를 떠나 또 다른 세계로 자리를 옮기는 것, 즉 일종의 변화일 뿐이다. 따라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의 생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멸하지 않는 영혼을 잘 돌보는 것이다. 영혼이 저세상으로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육체가 아닌 영혼의 교양과 생활 방식이기 때문이다.


▲ 소크라테스의 조각상 앞에서 사색에 잠긴 플라톤의 모습이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철학적 동일체를 이룬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자 함께 있던 사람들 중 소크라테스 자신을 빼고는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였다.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나! 사실 무엇보다도 이 때문에 내가 여자들을 보내 버린 걸세. ……나는 숙연한 가운데 죽음을 맞아야만 한다고 들었으니 말일세. 조용히 하고 의연하게나." ……그분께서는 이리저리 거니시다가, 두 다리가 무겁다고 말하고서는 침상에 똑바로 누웠다. ……소크라테스는 얼굴에 덮었던 것을 걷고서 마지막으로 말하였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네. 갚게나. 소홀히 하지 말고." – 플라톤, "파이돈" –

Q 1. 이 시대에 국가의 이상에 관한 진실한 철학을 지닌 철인으로서의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자.

Q 2. 여러분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3 신앙과 윤리

학습 목표

- 그리스도교 윤리의 기원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의 윤리적 특징을 말할 수 있다.
-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를 중세 그리스도교의 윤리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중단원 스케치

그리스도교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종교로서 오늘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윤리적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윤리적 지평을 이해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이다. 예수의 핵심적 가르침이었던 사랑이란 무엇일까?









01 그리스도교 윤리



- 네 원수를 사랑하라.
-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내어 주어라.
-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 **산상 수훈**
예수가 선교 활동 초기에 갈릴리의 작은 산 위에서 제자들과 군중에게 행한 설교이다.

단원 열기
- 예수의 산상 수훈의 내용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종교인에는 누가 있을까? 또 그 사람이 존경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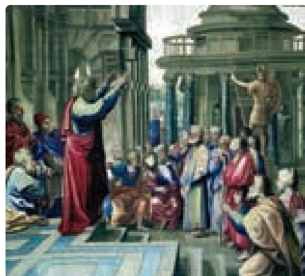
그리스도*교는 예수(Jesus Christ)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포교 활동을 통해 하나의 종교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예수는 유대교를 믿었지만, 유대교의 엄격한 율법주의와 **선민 사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을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규범집을 만들어 그들에게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예수는 "위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유대교의 엄격한 율법주의를 사랑의 교리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고,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라고 가르치며, 유대교의 선민사상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웃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도덕적인 의무, 민족과 신분을 넘어 신 앞에서의 평등을 강조한 예수의 가르침은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누리는 데에만 집중하던 헬레니즘 시대의 자기만족적 사유와 로마의 노예제와 같은 불평등한 사회 제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리스 어로는 크리스토스(christos), 히브리 어로는 구세주(메시아, messiah)이다. 그래서 구세주로 예수를 받드는 종교를 그리스도교(크리스트교)라고 부른다.

***선민(選民)사상**
유대인만이 하느님에 의해 선택된 민족이라는 믿음을 가리킨다.


▲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St. Paul, 10?~60?)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의 윤리 사상

예수는 생전에 자신을 추종하는 종교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교가 하나의 종교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중세 초기 **교부***들이 교리를 체계화하고자 노력했기 때문

***교부(Father of the Church)**
말 그대로 '교회의 아버지'를 의미하며, 중세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체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일군의 신학자들을 가리킨다.



▲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us, A., 354~430)

이다. 특히 바울은 예수의 가르침을 로마에 전파하여 그리스도교가 유럽으로 확산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후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차 늘면서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였고, 어떤 해석이 예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정통적인 해석인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중세 초기의 교부 철학자들은 성경 해석의 문제를 탐구하고 교리를 체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하였고, **마니교***에 빠지기도 하였으며, 수사학자로서 세속적인 성공도 거두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고민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악의 문제'였다. 그는 절대적으로 선한 신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을 창조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까닭을 인간이 신의 법칙에 등을 돌리고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저급한 것을 선택한 데서 찾았다.

'악이란 무엇인가?' …… 악이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의지의 왜곡이다. 의지의 왜곡이란 인간의 의지가 최고 실체인 하느님에게서 돌아서 자신 안에 깊이 놓여 있는 보배를 버리고 낮은 부분으로 떨어져 교만해지는 것을 말한다. —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

***마니교**
예언자 마니(Mani: 216?~276)가 페르시아 지방에서 창시한 종교이다. 빛과 어둠은 선과 악의 상징이며, 인간은 마니교의 계율에 충실하고 금욕적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리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신이 인간에게 이성과 자유 의지를 부여한 덕에 인간은 선택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법칙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지만, 동시에 탐욕에 빠져 일시적인 쾌락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 의지의 타락에서 악이 비롯된다고 강조하였다. 잘못된 것을 사랑한 나머지 진리와 신을 저버린 교만이 악의 원인이다. 그

참고 자료

"고백록"과 "신국론"



▲ "고백록"



▲ "신국론" 일부

아우구스티누스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고백록"과 "신국론"이 널리 알려져 있다. "고백록"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의 방탕했던 시절을 고백하며 하느님과의 내면적인 만남의 과정을 자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더불어 인간이 타락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성적인 피조물인 인간은 외적인 사물을 더 좋아한 나머지 행복이 육체적인 만족에 있다고 보고 하느님을 무시하면서 하느님에게서 떠났다. 영혼은 돼지우리에 들어가 겨우 목숨을 유지하는 탕자처럼 자신이 있던 단계 아래로 추락하였다."

그의 또 다른 저서인 "신국론"에서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신학에 접목하여 영원한 천상의 나라인 '신의 도성'과 유한한 지상의 나라인 '인간의 도성'이라는 두 도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두 도성은 인간의 의지에 기초하여 건설된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의 도성을, 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신의 도성을 건설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은총과 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통해 우리는 신의 도성에서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신재식,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

는 악을 선에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을 신학에 접목하여 악의 문제를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세계는 신의 법칙이 지배하고 인간의 이성은 신의 은총을 통해 진리에 이를 수 있다. 불완전한 인간은 신에 대한 사랑과 은총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육체적인 탐욕과 욕망에 빠져 헛되고 일시적인 기쁨과 쾌락을 선택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고 불행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우리는 신과 직접 대면하는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 즉 신과의 실존적 만남을 통해 카리타스(caritas)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과 정신적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 카리타스를 통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세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면, **아퀴나스***는 중세 그리스도교 신앙의 철학적 토대를 굳건히 다진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다. 그는 이전의 신학적 전통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접목하여 **스콜라 철학***을 완성하였다. 또한 이성에 기초하여 신 존재를 증명하고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복은 신의 섭리인 자연법을 따르는 삶 속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윤리학적 탐구는 '인간에게 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완전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완전성이란 인간이 내면적 성찰을 통해 신과 접촉하고 인간을 위한 신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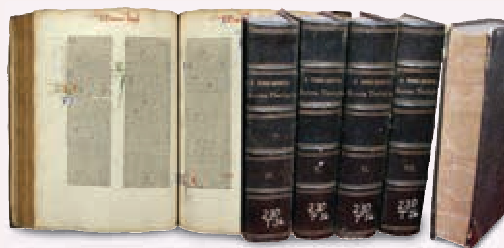
***아퀴나스(Aquinas, T., 1225~1274)**
아퀴나스는 신학과 철학,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킴으로써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하고자 하였다.

***스콜라 철학**
'스콜라(schola)'는 '학교(school)'라는 말의 어원이다. 스콜라 철학은 중세의 수도원에 소속된 학교에서 이성을 통해 그리스도교 교리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철학 사상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아퀴나스의 이성을 통한 '신 존재 증명'

중세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이성을 통해 교리를 체계화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그들에게 '신 존재 증명'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아퀴나스는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인 "신학대전"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자 하였다.



▲ "신학대전"

- 운동을 통한 증명: 운동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원동자(原動者), 즉 신이 존재해야 한다.
- 능동 원인을 통한 증명: 결과는 원인을 갖는다. 원인을 소급해 가면 모든 것이 의존하는 제1원인으로서 신이 존재해야 한다.
- 가능성과 필연성을 통한 증명: 우연적인 존재자는 그 존재 근거로 필연적인 존재, 즉 신의 존재를 요구한다.
- 완전성을 통한 증명: 우리는 어떤 사람의 선함과 참됨을 평가한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내리려면 기준이 되는 가장 완전하고 선한 존재, 즉 신이 존재해야 한다.
- 우주의 질서를 통한 증명: 모든 사물에게 자신들의 목적으로 향하게 해 주는 지성적 존재인 신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완전성을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아퀴나스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신의 섭리가 지배한다. 그리고 신의 섭리는 인간의 내면에 자연법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아퀴나스에게 자연법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영원한 법칙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법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성을 통해 감각적인 욕구와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인도해야 한다.

이 우주의 모든 공동체가 신의 마음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신의 마음은 단지 시간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개념이기 때문에 …… 이로부터 생겨난 자연법 또한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 아퀴나스, "신학대전" –



▲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그리스도교 사상에 반영한 최초의 철학자이다. 위 그림에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왼쪽)와 플라톤(오른쪽) 사이에 그려져 있다.

하지만 신학자였던 아퀴나스는 자연법에 따르는 삶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덕으로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은 불완전한 것이므로, **믿음 · 소망 · 사랑**이라는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덕의 함양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완전한 행복에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루터(Luther M., 1483~1546)**

한때 아우구스티누스 교단에 속했던 루터는 스콜라 철학과 아퀴나스의 신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이성보다는 신앙을 더 강조하였다.

프로테스탄티즘과 윤리

15세기 말에 이르러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과정에서 교회는 다시 한번 큰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독일의 수도사였던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교황청에서 판매하던 **면죄부(면벌부)***의 가치에 대한 토론을 요구하였다.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기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며 개혁을 요구했던 그의 노력은 종교 개혁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

루터에 따르면, 진정한 신앙은 어떠한 경험이나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신과 인간을 이어 주는 교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루터는 오직 성서만이 궁극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성서를 통해 신과 직접 대면하면서 모든 신앙인은 누구나 사제가 될 수 있다는 **만인 사제주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루터는 **소명(召命)**을 통해 신의 뜻이 현세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소명은 신이 인간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마땅히



***면죄부(면벌부)**

교회가 특정한 개인에게 죄를 사면해 주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위 그림은 성직자와 은행 대리인이 면죄부를 팔고 있는 모습이다.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일상 속에서 소명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에 성실히 종사해야 한다.

교황, 주교, 사제, 수도사들은 영적 신분이고, 군주, 영주, 장인, 농부는 세속적 신분이라고 부르는 것은 순전히 조작적인 것이다. ……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직책의 차이 이외에 다른 아무런 차이도 없다. …… 구두 수선공, 대장장이, 농부는 각자 자기의 일과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모두는 사제와 같다.*

– 루터, "루터 선집" –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위한 일'과 '생계를 위한 일'을 모두 독일어인 'Beruf'로 번역하였다. Beruf는 본디 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소명을 뜻하는 단어였지만, 루터 이후 소명 또는 생계를 위한 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루터의 개혁적인 생각은 **칼뱅***에게서 더욱 급진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칼뱅은 루터보다 더욱 성서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성서의 원칙에 따라 종교 생활과 사회생활을 엄격히 체계화하였다. 더불어 소명설에 **예정설**을 접목하여 근면 · 성실한 삶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의 예정설에 따르면,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구원 여부를 직접 알 수 없고, 단지 구원의 징표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세속의 직업에 충실한 삶 속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칼뱅 역시 루터처럼 중세 수도사의 탈세속적이고 내세 지향적인 삶보다는 현세의 직업에 충실하며 금욕적이고 근검 · 절약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욕적인 삶의 원칙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직업에 근면 ·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다.



***칼뱅(Calvin, J., 1509~1564)**
프랑스의 종교 개혁가로서, 신이 우리에게 내린 소명인 직업에서의 성공이 바로 구원의 징표라는 '직업 소명설'을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루터를 파면으로 몰고 간 '95개조 반박문'

- 제6조: 교황은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시인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없다.
- 제21조: 교황의 면죄부를 통하여 인간이 모든 형벌에서 벗어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 제27조: 교회의 헌금함에 던진 동전이 짤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다.
- 제32조: 면죄부를 통하여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받게 될 것이다.
- 제36조: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부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 제88조: 교황은 무엇 때문에 지금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돈 대신에 자신의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지 않는가?

***연옥(煉獄)**: 가톨릭 교리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 있는 동안 지은 죄를 씻고 천국으로 가고자 일시적으로 머무른다고 믿는 장소이다.





▲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있는 루터와 '면죄부(면벌부)'



▲ **알라드(Allardt, H.), '성경의 무게'(1562)**
'성경의 무게'는 사탄, 교황, 인간이 기록한 모든 책, 모든 사제의 권위보다 더 무겁다는 것으로,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하는 개혁가의 정신을 보여 주고 있다. 칼뱅을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이 성경 뒤쪽에 서 있다.



▲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
종교 개혁 당시 교회의 부패와 타락, 교리에 항의했던 사람들이 이후 교황청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종교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이들을 기존의 교황 중심의 교회와 구분하고자 '프로테스탄티즘', 즉 '신교'라고 명칭을 붙였다. 이는 개신교를 의미한다.

종교 개혁 이후 교회는 현실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삶을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성서를 통해 신과 인간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강조하였고, 검소하고 금욕적인 삶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중시하였다.

프로테스탄트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재산 축적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았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구걸하는 것은 나태함이자 죄악이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에도 반하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이러한 가르침은 한 인간이 종교적인 구원을 얻고자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 되었고,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과 결부되어 자본주의의 윤리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교부 시대 이후 이성을 통해 교리를 체계화하고 신앙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성적인 노력이 중세의 서양을 관통하였다. 반면, 종교 개혁은 지나치게 현학적인 교리의 논증에 치우친 스콜라 철학과 아퀴나스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성서에 기초한 신앙과 예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스도교와 우리의 삶

그리스도교는 종교인 동시에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자 일상의 삶을 도덕적으로 인도하는 윤리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윤리적 가르침에 공감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테레사 수녀의 삶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윤리가 특정한 종교를 넘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도덕적인 삶의 전형을 보여 주기 때문일 것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개인의 성공만을 향해 질주하는 무한 경쟁, 부의 편중으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심각한 상황에 처한 학교 폭력 등과 같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사랑의 부재를 엿볼 수 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던 예수의 윤리적 가르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그 무엇보다 강조했던 예수의 가르침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길을 제시한다.

예수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파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다. 인간의 무한한 가치에 근거하여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고, 소외된 이웃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윤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진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 보게 한다.

하나의 종교로서 그리스도교를 바라보지 않더라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가 극심해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대에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는 그리스도교의 윤리 사상은 우리가 오늘을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데 소중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

탐구해 보기



*달란트(talent): 유대(Judea)의 화폐와 무게의 단위를 가리킨다.

1. 주인이 칼뱅이었다면 마지막 하인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써 보자.

2.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미친 영향을 서술해 보자.

‘이아 오라나 마리아’

타락한 문명에 속박되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



▲ 고갱(Gauguin, P., 1848～1903), ‘이아 오라나 마리아’



▲ 고갱의 자화상

고갱은 프랑스 파리에서 증권 거래업자로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예술가로서의 삶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관에 부딪혔지만, 가난한 시절에 만난 고흐(Gogh, V., 1853~1890)와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생활하면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잦은 다툼으로 결국 3개월 만에 고갱은 고흐의 곁을 떠났다.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이 결별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고흐와 헤어진 고갱은 강한 원색이 두드러진 상징주의 미술을 시도해 나갔고, 근대화된 서구의 물질 만능주의에 염증을 느끼고 홀연히 남태평양의 타히티로 길을 떠났다.

‘이아 오라나 마리아’는 고갱이 타히티에서 그린 작품으로, 이는 타히티 원주민 말로 ‘나는 마리아를 경배한다.’는 뜻이다. 어린 예수와 함께 있는 성모 마리아에게 두 손을 모아 경배하는 두 여인을 그린 종교적인 그림으로, 고갱은 서양 미술의 대표적 아이콘인 성모 마리아를 재해석하였다.

그림 속의 마리아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타히티 여인이 허리에 두르는 전통 의상을 걸치고 어린 예수를 목말 태우고 있다. 왼쪽에는 노란색 날개를 가진 천사와 타히티 여인들이 서 있다. 이들이 성모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장면과 같은 전체적인 구도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문화의 **도상***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고갱은 문명에 노출되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표현하고자 그들의 모습을 타히티 원주민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인류의 근원을 타락한 서양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인 남태평양 타히티 원주민에게서 찾고자 하였다.

* **도상(圖像)**: 종교나 신화적 주제를 표현한 미술 작품에 나타난 인물 또는 형상을 가리킨다.



중단원 갈무리

내용 정리 문제

1 **다음 설명이 옳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해 보자.**

(1) 예수는 유대교의 엄격한 율법주의와 선민사상을 존중하고 추종하였다.

(2) 예수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율법을 전파하였다.

(3) 예수는 모든 인간의 평등과 인류의 형제애를 강조하였다.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합한 말을 각각 써 보자.**

(1) □□는 말 그대로 '교회의 아버지'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인물로는 중세 초기의 아우구스티누스를 들 수 있다.

(2)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의 □□으로 이해하였다.

(3) 아퀴나스는 기존의 신학적 전통에 □□□□□□□ 철학을 접목하여 □□□ 철학을 완성하였다.

(4) 루터와 칼뱅은 직업을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으로 이해하며, 탈세속적이고 내세 지향적인 수도사적인 삶에서 벗어나 현세의 직업에 충실하며 □□ · □□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3 **다음과 관련 있는 것을 〈보기〉에서 각각 세 개씩 골라 보자.**

(1) 신과의 실존적 만남을 통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성에 따라 선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2) 이성을 통한 '신 존재 증명'과 신의 섭리가 새겨진 자연법에 대한 이성적 탐구,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였다.

보기

㉠ 플라톤	㉡ 스콜라 철학	㉢ 아우구스티누스
㉣ 교부 철학	㉤ 아퀴나스	㉥ 아리스토텔레스

4 **다음에서 설명하는 루터의 사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 보자.**

하느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은 성서를 통해 모두가 사제가 될 수 있다. 성서를 통해 개별적인 인간은 신과 직접 대면할 수 있고, 스스로 한 명의 사제가 될 수 있다.

5 **칼뱅의 예정설에 근거하여 프로테스탄트가 다음과 같이 청빈한 삶을 강조한 이유를 서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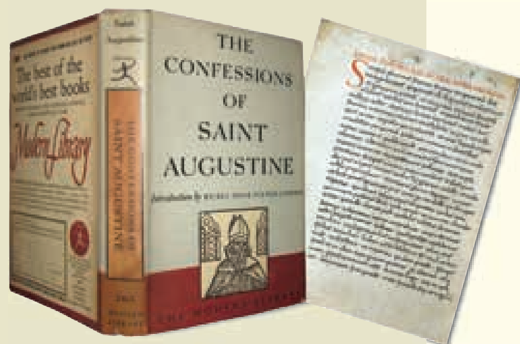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구걸하는 것은 나태함이자 죄악이다. 종교 개혁 당시 프로테스탄트의 청빈한 삶에 대한 강조는 신교도들에게 재산 축적이라는 합당한 결과를 가져왔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인물과 고전을 말하다

아우구스티누스와 “고백록”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A.)는 354년 지금의 알제리 지역인 북아프리카의 ‘히포’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이교도였지만 아우구스티누스를 지극히 사랑한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였다. 그는 젊은 시절 페르시아의 마니교를 받아들였다. 마니교에서는 우주를 선과 악, 밝음과 어둠이 서로 맞대결을 하는 전쟁터라고 보았다. 또한 물질은 악이지만 정신은 선이고, 인간은 육체라는 천한 물질에서 해방되기를 열망하는 영혼의 불꽃을 가진 선악의 혼합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점차 마니교의 건전하지 못한 이론들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되었다.



루소, 톨스토이의 “고백록”과 함께 세계 3대 고백록으로 꼽히는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린 시절과 어머니에 대해 쓰고, 젊은 시절 자신의 방황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늘날 그리스도교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청년 시절 자신의 방탕했던 생활을 “고백록”에서 진솔하게 고백하였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교로의 개종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개종 이전까지의 삶에서는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할 만한 무절제한 모습이 엿보인다. 그는 공부하기 싫어하고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했지만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었다.


▲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신의 세계가 되었다.

나는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감각적인 쾌락에 만족하는 욕망으로 불타 있어 여러 가지 허망한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맹렬한 정욕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 나는 당신의 법을 떠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 자신을 그 지배에 맡겨 버렸습니다. ……내가 도둑질하게 된 것은 배가 고프거나 궁핍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착한 일을 무시하고 싶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충동에 어찌할 수 없어 범한 것입니다.

……우리 집 포도밭 근처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열매가 많이 열리기는 했으나 그 열매의 색깔을 볼 때 따 먹고 싶을 정도는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불량배인 우리는 다 같이 가서 나무를 흔들어 배를 땄습니다. 우리는 한 아름씩 배를 가지고 와서는 몇 개만 맛을 본 다음 나머지는 모두 돼지우리에 던졌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즐거웠으니,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재미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명석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할 정도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로마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는 플라톤 사상을 접하게 되면서 플라톤과 관련된 서적을 읽게 되었다. 그는 플라톤 사상을 통해 악의 근원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고, 마니교의 이원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교 신앙의 합리적인 근거를 찾게 되었다. 그는 성서와 바울의 서신을 읽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욕과 돈, 명예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로의 귀의와 세속적인 부귀영화 사이에서 고뇌하던 그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무화과나무 밑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내가 지은 죄를 마음으로부터 뉘우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는 말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흘러나오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서를 펴서 첫눈에 들어온 곳을 읽으라고 하신 하느님의 명령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에 빠지지 말고, 투쟁과 시기를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 진리의 영감을 받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내면 속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은 무화과나무 밑에서의 경험을 통해 신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신과의 실존적 만남이 그를 그리스도교로 이끈 것이다.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세례를 받았다. 무화과나무 밑에서 그간의 세속적 욕망을 좇던 그는 죽고, 새로운 아우구스티누스가 태어난 것이다. 이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수도원을 만들어 명상하고 공부하는 수도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고백록”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내 고백록 13권은 나의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을 말함으로써 의롭고 선하신 신을 찬양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이해와 사랑을 자극하여 신에게로 향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고백록”을 통해 신 앞에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였고 그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였다.

우리는 “고백록”을 통해 성자의 모습 이면에 그려진 세속적인 인간으로서의 삶, 그리고 이를 내면적 성찰을 통해 극복해 나아간 성인의 역사를 읽을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 종교를 막론하고 널리 읽히는 이유는 이러한 그의 인간다운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 그의 가르침이 방황의 끝에서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기에 우리의 가슴속에 더욱 와 닿는 것이 아닐까?

Q **과거에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 솔직히 고백하고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4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

학습 목표

-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의 특징과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의 특징과 각각의 대표적 이론인 공리주의와 칸트주의를 설명할 수 있다.
-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가 우리 삶에서 가지는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될까? 어떤 경우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까?

중단원 스케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갈등할 수 있는 다음 두 사례에 대해 목적론적 윤리 (가)와 의무론적 윤리 (나)는 서로 다른 행위 지침을 내리고 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자.

(가)



(나)







01 경험주의와 이성주의



단원 열기

- 위의 두 사상가는 각각 경험과 이성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할까?
-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확실할까? 아니면 이성을 통해 도출한 지식이 더 확실할까? 그 이유를 말해 보자.

서양 근대 사상의 성립

서양 근대 사상의 출발은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문예 부흥 운동인 르네상스는 신 중심으로부터 세속적 인간 중심으로의 변혁을 가져온 인본주의의 부활 운동이었다. 서양 중세에는 신과 신의 섭리에만 관심을 가질 뿐, 현실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는 등한시하였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 서양 근대 사상가들은 인간과 현실의 문제를 논의의 핵심으로 삼고, 신과 독립된 인간의 활동을 그 자체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16~17세기 서양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활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과학 기술을 창조하고 활용하고자 했던 자연 과학자들의 탐구 활동이었다. 그리고 눈부신 자연 과학적 탐구의 이면에는 고대로부터 진행되어 온 수학적 전통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이러한 자연 과학의 발달, 수학적 전통의 부활 등과 더불어 서양 근대 사상가들은 두 가지 학문적 방법, 즉 수학적인 형식적 추리의 방법인 **연역법**과 경험적 추리를 통한 과학적 방법인 **귀납법**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이 두 방법을 통해 모든 학문을 확고한 기초 위에 세우고자 하였다.


▲ **자연 과학의 발달**
근대에 접어들면서 자연 과학의 급속한 발달은 자연 전반에 변혁을 초래하였고, 인간의 사고와 행동 양식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근대 자연 과학과 수학의 발전, 그리고 그에 대한 탐구 방법으로서의 귀납법과 연역법은 철학의 풍토를 변화시켰다.

***인식론**
'인간이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어떻게 도달하는가,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는가, 도대체 지식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을 탐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이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이성을 통해 얻은 지식의 예

경험주의	• 날씨가 추우면 얼음이 언다. • 소금은 짜다.
이성주의	• 직선이란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이다. • 2+3=5

이제 철학적 탐구가 중시해야 할 절대적 규칙은 종래의 형이상학적 사고나 신학적 세계관이 아닌 인식의 확실성과 합리성뿐이었다. 이에 따라 현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그에 관한 철학적 탐구, 즉 **인식론***이 서양 근대 사상가들의 핵심 주제로 떠올랐다. 사상가들이 몰두한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올바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경험주의는 직접 지각한 경험적 지식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으로, 대체로 귀납법을 사용하여 경험적 사실로부터 일반 법칙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이에 비해 **이성주의**는 확실한 지식이란 오로지 이성적 사유만을 통해 성립된다는 입장으로, 일반 법칙으로부터 특수한 원리를 도출해 내는 연역법에 관심을 더욱 기울였다.

이 두 사상은 서양 윤리 사상의 흐름과 변혁을 가져오는 데 기틀이 되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경험주의는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꽃을 피우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성주의와 관념론은 **칸트의 윤리 사상**이 형성되는 데 기반이 되었다.

기초 개념 탐구

귀납법과 연역법

귀납법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나 원칙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경험(관찰과 실험)을 중시한다.

• 전제: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말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 결론: 그러므로 모든 말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 귀납법은 전제에 없는 정보가 결론에 포함될 수 있다.
• 학문의 내용을 확장하고 관찰된 증거를 수집하여 일반 원리에 도달한다.

연역법

기존의 일반 원리를 개별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 논법이 대표적이다.

• 대전제: 모든 포유동물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 소전제: 모든 말은 포유동물이다.



• 결론: 그러므로 모든 말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 연역법은 전제가 옳다면 결론도 반드시 옳다.
• 학문의 타당한 형식을 추구하고 일반 원리로부터 특수한 이치를 도출한다.

귀납법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논리적 필연성을 포기하는 대신 내용의 확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반면, 연역법은 내용의 확장을 포기하는 대신 전제와 결론의 형식적 필연 관계를 획득하고자 한다. 이런 까닭에 형식과 내용이라는 두 측면에서 귀납법과 연역법은 과학적 방법의 주된 두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 베이컨(Bacon, F., 1561~1626)

| 베이컨, 홉스, 로크, 흄의 경험주의와 윤리적 통찰 |

르네상스 시대 영국의 철학자인 **베이컨**은 경험주의 전통의 선구자로 불린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역설하면서 인간에게 유용한 과학적 지식을 얻는 새로운 방법으로 귀납법을 제창하였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식의 연역법에 기초한 철학은 추상적인 원리의 탐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실험과 관찰에 의한 개별 사례를 비교하고 고찰함으로써 자연의 일반 법칙을 찾아내고자 하는 귀납법이 과학의 필수적인 방법임을 주장하였다.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통해 인류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으며, 그 결과 인간의 삶의 방식 또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 세계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방해하는 요인, 즉 **우상(偶像)**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베이컨은 참된 지식의 진보를 저해하는 우상의 목록을 엮어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 **베이컨의 "신기관" 표지**
과학을 상징하는 배가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의미하는 기둥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밑부분에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지식은 더하리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성찰해 보기

☑ 개별 □ 모둠 활동

베이컨의 '4대 우상'에 관한 다음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모든 현상을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려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편견



▲ 종족의 우상

개인적 경험이나 성격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편견



▲ 동굴의 우상

언어의 잘못된 사용 및 해석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편견



▲ 시장의 우상

전통, 권위에 근거한 지식이나 학문에 대한 맹종에서 비롯된 편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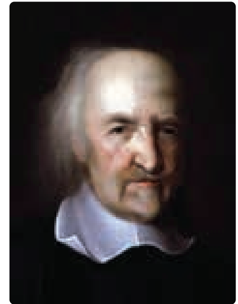


▲ 극장의 우상

1. 자신이 위와 같은 오류나 편견에 빠졌던 경험을 돌이켜 보고,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2.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우상에 대한 이와 같은 편견이 있음을 찾아보고, 그에 대해 깨달은 점을 발표해 보자.

*윤리적 이기주의와 심리적 이기주의
- 윤리적 이기주의: 하나의 규범적 이론으로, 인간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행위를 할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이익을 가장 많이 증진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심리적 이기주의: 인간의 행위 동기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이론으로, 모든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홉스(Hobbes, T., 1588~1679)

영국 경험주의 사상가인 **홉스**는 인간 역시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인식하였다. 그는 자연법칙에 따라 인간은 자신을 보존하고자 이기적일 수밖에 없으며, 저마다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추구하여 결국 법도 도덕도 없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홉스의 사상은 인간이 자기 보존을 모색하고자 사회 계약과 같은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윤리적 이기주의***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이 스스로 절대적 권위를 지닌 주권자에게 복종할 것을 승인하는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국가를 수립함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홉스는 국가와 같은 절대적 통치자에게 인간의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근대의 시민 국가가 형성되는 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 로크(Locke, J., 1632~1704)

*로크의 백지설(tabula rasa)
'타불라 라사'란 라틴 어로,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흰 종이'라는 뜻으로, 일체의 경험 이전 인간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베이컨의 사상을 이어받은 영국 경험주의 사상가는 로크와 흄이다. 자유주의 사상으로도 철학 전반에 영향을 끼친 **로크**는, 사회 계약을 맺는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가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확보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인식 문제와 관련하여 로크의 경험주의는 감각적 경험의 요소를 강조한다. 로크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백지***와 같고, 태어날 때부터 백지 위에 정신적 내용을 계속하여 써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각적 경험이다. 이런 까닭에 감각적 경험만이 우리의 모든 관념을 형성하는 기초이자 모든 인식의 근원이 된다.

흄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홉스의 "리바이어던(Leviathan)*"과 거인

"리바이어던"에서는 인간이란 이기적인 동물이므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사회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 것을 주장한다. '리바이어던'이라는 이름은 거인을 뜻하는데, 이 거인은 일반 시민보다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존재이며, 시민 위에서 신처럼 군림한다. 또한 일반 시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이 책을 통해 홉스는 일반 시민의 인간다움을 보장해 주는 강력한 군주(절대 군주,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가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사회 공동체의 질서가 잘 유지되고 강력한 국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리바이어던: 본래 "구약 성서" '욥기'에 나오는 영생(永生)의 괴물을 가리킨다.


▲ "리바이어던" 표지
홉스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절대 군주제를 주장하였다. 홉스가 도안했다고 알려진 이 표지에는 300여 명의 시민으로 이루어진 거인이 칼과 지팡이를 들고 산 너머 도시를 굽어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 흄(Hume, D.,. 1711～1776)

인간에 대한 학문이 다른 학문의 유일하고 견고한 토대가 되듯이, 우리가 인간에 대한 학문에 부여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견고한 토대는 경험과 관찰에 기초한 것일 뿐이다. – 흄, "인성론" –

흄에 따르면, **형이상학***의 주요 개념인 신, 정신, 실재, 본질 등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의미 있는 주장도 할 수 없다. 인과 관계 역시 우리가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알게 된 것일 뿐, 원인과 결과의 실제적 결합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자아에 대한 인식 역시 알 수 있는 것은 감각적 지각일 뿐, 자아 그 자체를 파악할 수는 없다. 흄의 사상은 이러한 의미에서 회의주의라고 할 수 있다.

***형이상학(metaphysics)**
형이상학은 '이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세계에 실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실재란 무엇인가?' 등과 같은 물음을 탐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이다.
그리스 어로 '자연학 이후'를 의미하며, 원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중 "자연학" 다음에 올 책의 제목이었다.

흄은 도덕에 있어서도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흄에 의하면, 도덕 또한 이성과 원리의 형태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의 형태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 까닭은 도덕이 실천적 학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성 같은 것보다는 감정이 진정한 도덕적 실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흄은 진정한 도덕규범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공통된 감정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흄에 따르면, 도덕규범의 타당성은 한 개인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공통으로 갖게 되는 공유된 감정으로부터 형성된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共感)**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흄은 이러한 공통된 감정과 함께 사회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것을 도덕적으로 가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장 라우(Raoux, J., 1677~1734), '거울 보는 숙녀'
흄은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은 생각, 정서 등과 같은 경험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볼 때 동정심이나 이타심과 같은 감정은 인간에게 공유된 감정인 동시에 인류에게 효용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선을 가져온다. 이와 같이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한 흄의 윤리 사상은 향후 공리주의 윤리의 기반이 되었다.

| 데카르트, 스피노자의 이성주의와 윤리적 통찰 |

근대 이성주의 전통의 창시자이기도 한 **데카르트**는 인간에게는 감각적 경험의 도움 없이도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였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대한 확신을 보여 주는 방법적 회의를 제시하였다. **방법적 회의(懷疑)**란 감각적 경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성을 통해 절대적 진리에 도달하고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의심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적 회의를 통해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한 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출



▲ 데카르트(Descartes, R., 1596～1650)



▲ **데카르트의 삶의 장면들**

위 그림은 데카르트와 그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왼쪽 위는 자신의 딸의 죽음을, 오른쪽 위는 크리스티나 여왕의 스승으로서 데카르트를 보여 주고 있다.

발점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 사상의 중심 명제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이다. 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는 과정 속에서도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자아'를 확인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떠한 의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이 명제를 모든 진리의 원형이자 근원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이치를 논리적으로 연역해 나가는 기본 원리로 삼았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는 아주 확고하고 확실한 것이므로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는 터무니없는 억측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내가 찾고 있는 제1원리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데카르트, "방법서설" –

데카르트의 사상은 이후 유럽 대륙의 이성주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가운데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이성주의를 채택한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 스피노자(Spinoza, B., 1632~1677)

스피노자는 수학적 추론 방법을 활용하여 윤리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완벽한 실체란 모든 사물의 총합이므로 오직 하나라고 제안한 후, 그 실체는 자연 전체이자 신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자연이 곧 신"이라는 **범신론**적 사고를 반영한 것이다.

나는 신을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모든 것이 각각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실체로 이해한다.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고 파악될 수도 없다.

한 토막 이야기

데카르트의 죽음

데카르트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네덜란드에서 주로 활동했고 말년에는 스웨덴에 머물렀다.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이 데카르트의 저작에 관심을 갖게 되어, 오랜 설득 끝에 데카르트를 스톡홀름에 초청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일은 데카르트가 죽음을 맞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의지가 강한 스웨덴 여왕은 데카르트가 새벽 5시부터 철학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고, 평소 병약하여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던 데카르트는 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 쇠약해져 스웨덴으로 간 지 채 반년이 되지 않아 폐렴으로 죽고 말았다. 스웨덴의 추운 새벽 날씨는 데카르트의 이성적 사유와 무관하게 데카르트의 감각을 극도로 자극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데카르트는 이성적 사유에 충실한 철학을 전개했지만, 추위라는 감각은 도외시한 채 그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데카르트와 크리스티나 여왕 ▶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생성되는 모든 것은 오직 신의 무한한 본성의 법칙에 의해 생기고, 또 신의 본질의 필연성으로부터 생긴다.
– 스피노자, "에티카" –

이와 같이 신과 자연에 대한 전통적 구별을 비판한 스피노자는 자연의 질서에 대한 이성적 통찰, 즉 신에 대한 이성적 이해를 통해서만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자연 혹은 신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만을 갖고 있는 인간은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깨달음으로써 평온한 행복과 같은 최고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피노자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면 자연의 필연 법칙을 인식하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어 이웃을 사랑하고 우주와 참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평온한 행복과 같은 최고선의 달성은 자연 전체에 대한 **이성적 관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스피노자에게 이성의 기능이란 삶에 활력을 주고 인생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이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고귀한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드물게 얻을 수 있다.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얻는 것은 힘들고 드문 일일 수 있지만, 우리는 철저한 이성적 관조를 통해 이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는 길이 멀고 험난할 수 있지만, 인간의 이성은 완전한 행복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 없이 자기 역할을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성적 관조(觀照)**
이성을 통해 모든 사물의 궁극적인 원인과 질서를 인식하는 것으로, 자연의 모든 사물이 신의 섭리, 인과 법칙에 의해 결정되어 있음을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이다.

탐구해 보기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1. 오른쪽 사진의 도로는 내리막길이다. 오르막길 같이 보이는 착시 현상처럼 경험은 간혹 인간 자신을 속이기도 한다. 이런 까닭으로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겠는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겠는가?(예 □, 아니요 □) 그 이유를 말해 보자.

2. 자기 존재 또는 자아에 대한 다음 두 사상가의 견해 중 어느 사상가의 관점에 동의하는가?(흄 □, 데카르트 □) 그 이유를 써 보자.


▲ 제주도 관음사 앞 '신비의 도로'

-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는 내가 이른바 '자아'에 가장 깊숙이 들어갔을 때 항상 이러저러한 특수한 지각, 즉 뜨거움이나 차가움, 밝음이나 그늘, 사랑이나 미움, 고통이나 쾌감을 만났었다. 나는 결코 지각이 없는 자아를 포착할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오로지 지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관찰할 수 없었다.
– 흄, "인성론" –
- '나는 오직 생각하는 존재, 즉 마음이나 정신, 또는 지성이나 이성으로서의 존재이다.' 이 말의 뜻을 이제 비로소 내가 알게 되었지만, 나는 정말이지 참된 것으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바로 '생각하는 존재'라고 대답한다.
– 데카르트, "성찰" –



▲ 카소(Caso, P. B., 1835~1910), '비평으로부터 도망치기'
인간은 대상을 자세히 관찰 · 경험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는 사유 활동을 통해 감성, 사고, 상상력, 창의성 등을 키울 수 있다.

경험주의와 이성주의가 서양 윤리 사상에 끼친 영향

서양의 근대 윤리 사상가들은 감각적 경험과 이성적 사유 중 어느 한쪽만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인간의 인식 자체는 어느 한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험과 이성이라는 두 축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경험주의는 이성보다는 감각적 경험이 인식을 하는 데 용이하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이성주의는 감각적 경험을 부차적 역할이나 사소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감각과 경험을 낮추어 보는 사고 경향과 결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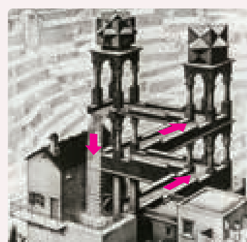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의 이러한 차이는 향후 전개되는 서양 윤리 사상의 주된 흐름에 영향을 주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공리주의와 칸트주의이다. 공리주의는 경험주의를 기초로 태동한 윤리 이론인 데 비해, 칸트주의는 이성주의를 모태로 하여 성립된 윤리 이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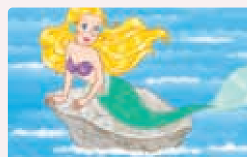
경험주의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무게를 두고 경험적으로 잘 헤아려 보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 예컨대 경험주의적 가정은 로크의 감각적 경험 사상으로 체계화되었고, 로크의 경험주의는 현실에 기반을 둔 인간의 공통 감정과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한 흄의 윤리 사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선에 대한 강조는 공리주의 윤리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성주의는 이성적 사유에 의해 파악된 일반 원리를 통해 사려 깊게 삶을 통찰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 예컨대 이성주의의 가정은 데카르트의 이성적 자아 개념으로 정립되었고, 데카르트의 이성적 방법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삶을 살 것을 강조한 스피노자의 윤리 사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성주의의 흐름은 실천 이성에 기반을 두고 오로지 이성으로부터 도덕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한 칸트주의로 연결되었다.

참고 자료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의 한계





- **경험주의의 단점**

성 위를 흐르는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흔히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공간의 경계는 의미가 없다. 이처럼 인간의 눈은 착시 현상을 겪을 수 있다. 눈만이 아니라 다른 감각 기관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므로 '경험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이성주의의 단점**

인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처럼 이성은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을 때, 즉 경험에 기반을 두지 않을 때 자칫 공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02 결과론적 윤리와 공리주의

나는 엄청난 부자와 여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 부자가 어떤 도움의 손길도 미치지 않는 곳에서 죽어 가면서, 나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친구에게 전해 줄 것을 부탁했고, 나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친구가 자기 재산만 불리기에 급급한 수전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후, 부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산을 지금 당장 기아에 허덕이며 죽어 가는 수많은 어린아이를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단원 열기

- 위 주인공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가?(예□, 아니요□) 그 이유를 말해 보자.
- 과정이나 결과 중 어느 한 가지를 중시한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사례를 제시해 보자.

결과론적 윤리의 특징

결과론적 윤리란 행위의 잘잘못을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윤리 사상이다. 그래서 도덕과 관련하여 결과론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직 좋은 결과의 산출에 있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핑계 대지 말고 좋은 결과를 보여 줘."라고 말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론적 윤리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좋은 결과를 산출한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인 반면, 나쁜 결과를 산출하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위가 된다. 이처럼 결과론적 윤리는 도덕 판단을 하면서 주로 좋은 결과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목적론**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윤리 이론으로 **공리주의**가 대표적이다.

기초 개념 탐구

결과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 비교

인간 행동에 대한 윤리 이론	올바른 행위	그릇된 행위	특징	대표 이론
결과론(목적론)적 윤리	좋은 결과를 목적으로 삼고, 그에 맞게 행동할 것을 강조	좋지 못한 결과가 산출되는 행위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목적으로 추구	공리주의
동기론(의무론)적 윤리	올바른 동기에 의한 행위 또는 올바른 행위 자체에 대한 의무가 도덕적 의무임을 강조	올바른 동기 혹은 의무에 따르지 않는 행위	선의지 자체에 대한 의무를 강조	칸트주의

| 벤담과 밀의 고전적 공리주의 |



▲ 벤담(Bentham, J., 1748~1832)

공리주의는 영국의 산업 혁명을 통한 근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확립 과정에서 형성된 사상이다. 산업 혁명 이후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가 곧 국가적 부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자본주의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해졌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아래에서 개인의 무절제한 이윤 추구가 심화되면서 개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벤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 ·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사상적 시도로서 공리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경제적 이윤 추구와 관련하여 벤담이 강조한 것은 공리성의 원리, 즉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벤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통은 불행인 반면, 쾌락은 행복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란 개개인의 집합체와 같은 것이므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쾌락이 돌아가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 실현이나 행복의 달성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행복이란 쾌락이며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벤담의 생각은 '쾌락이 곧 선이고 고통이 곧 악'이라는 **쾌락적 공리주의***를 의미한다.

***쾌락적 공리주의와 비쾌락적 공리주의**

- **쾌락적 공리주의**: 본래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쾌락이므로 쾌락을 많이 산출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본다. 다른 가치 있는 것들도 모두 쾌락으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 **비쾌락적 공리주의**: 쾌락을 포함하여 그 외에도 선(善)이 있다는 입장으로, 지식, 아름다움 등과 같은 것은 본래적 가치를 지니므로, 그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이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오로지 이 두 군주의 결정에 달려 있을 뿐이다.
>
> ……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는 오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것은 쾌락을 산출하거나 고통을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며, 고통을 산출하거나 쾌락을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
>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론" –

벤담의 쾌락적 공리주의는 쾌락이나 고통이 누구의 것이든 상관없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양의 쾌락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을 목표로 삼았다. 모든 쾌락은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쾌락의 양을 많이 늘리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담은 이러한 공리주의적 이념에 따라 자신이 직접 쾌락의 양을 측정해 내는 **쾌락 계산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벤담의 쾌락 계산법**

- **강　도**: 더 강렬한 쾌락을 선호
- **지속성**: 더 지속적인 쾌락을 선호
- **확실성**: 발생할 확률이 확실한 쾌락
- **근접성**: 공간상, 시간상 가까운 쾌락
- **다산성**: 더 많은 쾌락으로 확산될 쾌락
- **순수성**: 고통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쾌락
- **범　위**: 타인에게 미칠 영향이 더 넓은 쾌락

➡ **최대 행복**

벤담의 공리주의는 어떤 상황에서든 올바른 행위란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는 결과론을 가정

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론적 관점에서의 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오직 행위의 결과인 쾌락의 유무 또는 쾌락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할 뿐이다. 이러한 벤담의 공리주의는 단순 명료한 공리성의 원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오직 쾌락의 양만을 늘려 행복에 이르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돼지의 철학'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하였다.

밀은 벤담의 이러한 쾌락을 이른바 '고상한 쾌락'과 '저급한 쾌락'으로 구분하여 계승하였다. 그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더 낫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의 쾌락이 바보의 쾌락보다 확실히 질적으로 더 고상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 밀(Mill, J. S., 1806~1873)

성찰해 보기

 개별  모둠 활동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벤담의 '쾌락 계산법'에 따라 다음 표에 내 삶의 현재 모습을 점검해 보자.

계로: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공자: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공자의 답변을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죽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삶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쾌락 계산법 \ 만족도	매우 그렇다 (5점)	가끔 그렇다 (4점)	그럭저럭하다 (3점)	가끔 그렇지 않다(2점)	늘 그렇지 않다 (1점)
• 나는 현재 내 삶 속에서 강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 나는 현재 내 삶의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한다.					
• 나는 현재 내 삶 속에서 쾌락이나 기쁨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 나는 현재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나의 내면을 통해 행복을 가까이 느낄 수 있다.					
• 나는 현재 내가 느끼는 행복감을 통해 여러 가지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 현재 내가 느끼는 쾌락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 행복감을 가져다준다.					
• 나는 현재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다.					
합 계	점				

2.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되, 그동안 잘했거나 잘못했던 점을 포함하여 발표해 보자.



밀 역시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란 결과적으로 그 행위를 통해 행복에 이르는 데 있다고 본 점에서는 벤담의 입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밀은 행복을 단순히 양적 쾌락의 증가로 간주하는 데서 벗어나 저급한 쾌락보다는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의 계산에서 더 좋은 점수를 얻는다고 생각하였다.

밀에 따르면, 쾌락에는 두 가지 형태의 쾌락이 있다. 하나는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의 탐구와 예술 창조 같은 정신적이면서도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이다. 그런데 육체적이고 저급한 쾌락은 강렬하더라도 잠시 만족감을 줄 뿐이지만, 정신적이고 고상한 쾌락은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인 만족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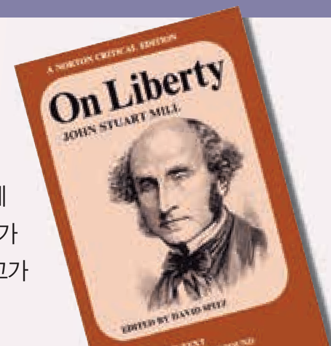
쾌락의 질적 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어떤 특정의 쾌락을 양적으로서가 아닌 질적으로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직 한 가지 답변만 가능할 뿐이다. 두 가지 쾌락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쾌락을 다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것을 선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에 구애받지 않고 선호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 밀, "공리주의" –

밀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더 고상한 정신적 만족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다. 아무리 많은 양의 쾌락이라도 그것이 저급한 것이라면 고상한 쾌락보다 분명히 더 선호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벤담의 공리주의를 **양적 공리주의**라고 하고, 밀의 공리주의를 **질적 공리주의**라고도 한다. 밀의 질적 공

참고 자료

밀의 "자유론"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적 윤리관에 고무된 아버지 제임스 밀(1773 ~ 1836)에게서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이후 밀은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치에도 적극적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유주의를 주창하였다. 밀은 자유주의자로서 "자유론"(1859)에서 자유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밝혔다. 여기에서 밀은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강력하게 역설했으며, 국가 권력이 시민의 생활에 간섭하는 일을 적극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리스도교가 모든 선의 원천이라는 그리스도교 사상에 대해 치밀한 반론을 전개하였다.

…… 사상에 대한 억압이 심각한 문제인 가장 주된 이유는, 그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에 대해서든, 혹은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든 그러한 행위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에게까지도 강도질을 하는 것과 같은 패악을 끼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억압은 오류를 밝히고 진리를 드러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설령 그 견해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 밀, "자유론", '사상과 토론의 자유' –

리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 만족감과 같은 질 높은 쾌락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세련된 형태의 공리주의라고 볼 수 있다.

고전적 공리주의의 장단점

쾌락적 공리주의, 즉 고전적 공리주의의 장점은 모든 쾌락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그 쾌락이 누구의 쾌락인지와 상관없이 모두 값진 것이라는 쾌락의 평등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리주의자는 쾌락과 고통의 소유권을 도덕 판단과 무관한 것으로 본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쾌락의 증대와 고통의 감소이다. 벤담이 주장한 것처럼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쾌락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벤담은 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고전적 공리주의는 개별 행위마다 쾌락의 값을 매번 매겨야 하는 실천적 어려움에 봉착한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매 순간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고 할 때 일일이 쾌락의 값을 매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는 쾌락의 비교 가능성과도 관련된다. 예컨대 무더운 여름날의 시원한 샤워와 추운 겨울날의 따뜻한 목욕은 그 쾌락의 값을 비교하기가 어렵다. 또 고상한 쾌락과 저급한 쾌락에 대한 밀의 구분을 받아들인다 해도, 실제로 쾌락의 값에 대한 비교를 확신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배부른 육체적 쾌락과 지적 탐구의 정신적 쾌락을 명확히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토막 이야기

쾌락적 공리주의와 그 한계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가이다."라는 벤담의 말처럼, 쾌락적 공리주의는 인간과 유사하게 고통이나 쾌락을 느끼는 동물 역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쾌락적 공리주의의 이런 생각은 동물 보호 사상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고전적 공리주의의 쾌락 계산법에 있다. 쾌락적 공리주의는 쾌락 계산법으로 인간이든 인간과 유사하게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이든 모두 똑같은 하나의 개체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그만두더라도, 쾌락적 공리주의는 자연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결정적 난점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어떤 두 종의 동물을 두고, 쾌락적 공리주의는 멸종 위기에 처한 개체와 그렇지 않은 개체를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동등한 개체로 취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멸종 위기에 처한 한국산 수달보다 그 수달이 먹이로 삼는 수십 마리의 물고기가 도덕적으로 더 고려되어야 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백두산 호랑이는 그 호랑이가 먹어 치우는 몇 마리의 닭보다 도덕적으로 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이처럼 쾌락적 공리주의가 자연환경 보호와 관련된 현안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1 : 1'이라는 쾌락적 계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서양 중세의 '마녀 사냥'**
이단자로 판결되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이라도 마녀로 몰려 처형을 당했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비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고전적 공리주의가 갖는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어떤 행동에나 **공리성 원리**를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편리성에 있다. 실천적 측면에서 어떤 개별 행동이든 결과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공리성 원리는 모든 상황에서 고전적 공리주의의 명료한 행위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이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먼저 고전적 공리주의는 우리가 보통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죄가 없는 사람임에도 그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처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 공동체 다수에게 큰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

탐구해 보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홍길동은 온갖 부정적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탐관오리들의 돈과 재물을 훔쳤다. 본래 탐관오리들의 재산은 거의 대부분 주변의 가난한 백성들의 것이었다. 따라서 홍길동은 훔친 재산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합당할 뿐만 아니라 탐관오리들의 더 많은 재산을 훔쳐 어려운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무고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침략자들에 의해 살해 위기에 처하였다. 막 처형이 집행되려는 현장에서 집행자의 우두머리가 한 사내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내가 너에게 총을 줄테니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죽일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살려 주겠다. 만일 거절한다면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처형을 집행하겠다." 받은 총으로 침략자들을 제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내는 정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아무나 한 명을 죽여야만 하는지 고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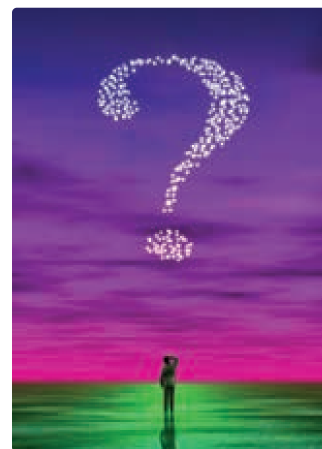


1. 위의 글 (가)를 공리주의 입장에서 옹호할 때 그 근거를 써 보자.

2. 위의 글 (나)를 공리주의 입장에서 반박할 때 그 근거를 써 보자.

면, 공리주의는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 정의감에 어긋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고전적 공리주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데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행위의 결과를 언제나 정확히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도,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반드시 목적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결과의 예측은 행위 자체가 아주 먼 미래와 관련될 때 정확한 것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고전적 공리주의자는 마치 모든 결과를 알기나 하듯이 전지전능한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공리주의는 행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대 공리주의와 그 의의

고전적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쾌락과 고통을 비교하고 계산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고통의 총량을 최소화하는 데 관심을 두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체로 공리주의가 안고 있는 이익 극대화나 쾌락 극대화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서 오로지 고통이나 불행을 줄이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소극적 공리주의**이다. 소극적 공리주의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대신, 불행에 빠지거나 고통받는 사람을 없게 해야 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소극적 공리주의도 고전적 공리주의가 안고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소극적 공리주의도 불행을 계산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어떤 행위로 초래될 불행한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데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불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어떠한 수단이든 정당화할 가능성도 있다.

▼ **오노레 도미에(Daumier, H., 1808~1879), '삼등 열차'** 고전적 공리주의로는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소홀히 하고, 행복을 정의 내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불행과 고통을 줄여 주고자 노력하는 소극적 공리주의가 등장하였다.




▲ 일정한 규칙에 따르면 큐브를 쉽게 맞출 수 있는 것처럼, 규칙 공리주의도 규칙을 도덕적 상황에 적용하면 유용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전적 공리주의의 실천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안된 것이 공리주의를 **규칙 공리주의**로 수정하자는 것이다. 행위 하나하나의 결과를 고려하며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 **행위 공리주의**는 공리주의의 계산이 끝날 때쯤이면 이미 올바르게 행동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결정적 반론에 부딪힌다. 이러한 까닭으로 규칙 공리주의자는 행위의 결과를 저마다 평가하는 대신, 비슷한 행위 유형에 대한 일반 규칙을 미리 만들어 놓을 것을 역설한다. 규칙 공리주의자는 죄 없는 사람을 처형하는 행위의 결과를 따지기에 앞서,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일반 규칙을 채택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칙 공리주의는 실천적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지닌다. 먼저 미리 만들어진 규칙은 우리가 도덕적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복잡한 결과를 계산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 준다. 사회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용한 것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숙고를 해야겠지만, 곧바로 도덕적 결정을 해야 하는 행위자는 이미 만들어진 규칙을 자신의 도덕적 결정 상황에 적용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규칙 공리주의는 고전적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의무론의 장점을 도입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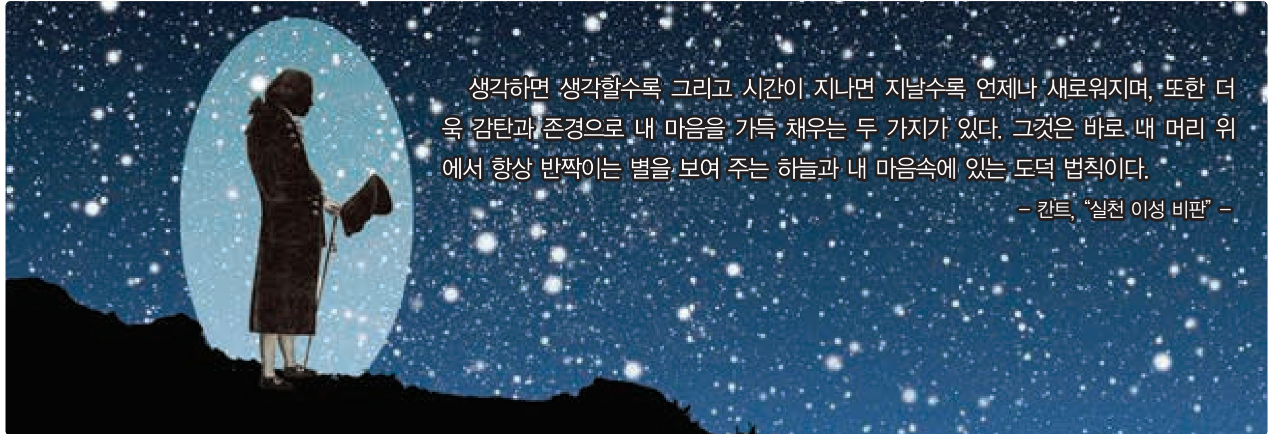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 좋은 결과만이 행동의 이유가 된다.	• 도덕 규칙이 행동의 이유가 된다.
•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행동을 추구한다.	•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 규칙을 추구한다.
• 행동의 평가 기준을 전적으로 그 결과에서 찾는다.	• 일반화된 행동의 결과를 문제 삼는다.
• 행동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예시

투표일에 투표하지 않고 등산을 가는 행위는 자신에게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일반화되어 행위의 좋은 결과 때문에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투표제 자체가 붕괴되어 민주주의의 정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투표일에는 민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해야 한다."라는 규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규칙이 적용된 결과를 따져 보아야 한다.



03 의무론적 윤리와 칸트주의



단원 열기

- 인간이 자연법칙의 지배만을 받는 동물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 칸트는 행위의 선악이 결과가 아니라 그 동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는가?(예□, 아니요□) 그 이유를 말해 보자.

의무론적 윤리의 특징

의무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무나 의무를 중시하는 윤리 사상이다. 어떤 행위든 그에 따르는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데, 이러한 의무란 의무를 촉발시키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것과도 무관하다. 예컨대 "네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냥 의무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저 옳기 때문에 무조건 의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론의 입장이다.

의무론에 따르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단지 의무이기 때문이다. 의무론은 의무나 도덕적 책무에 대해 일반적이고도 근본적인 성격을 탐구한다. 이러한 윤리 사상으로 대표적인 것은 칸트주의이다. **칸트**의 이름을 따서 칸트주의라는 이론으로 윤리 사상이 전개될 만큼, 칸트는 이 분야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칸트에 의하면, 어떤 행위가 올바른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따라야 할 절대적 의무를 지닌다.


▲ 칸트(Kant, I., 1724~1804)

칸트의 윤리 사상과 도덕 법칙의 의미



▲ '자율성'
칸트는 아픈 사람을 돌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와 같은 도덕 문제가 의미를 가지려면 먼저 우리가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사회 계약론에 근거한 윤리 사상이 사회적 동기와 같은 외부의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하였다. 특히 그는 사회적 계약이 있을 때만 보장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율성**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진정한 자유, 즉 자율성을 동물적 욕구나 본능에서 벗어나 스스로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인간의 중요한 능력으로 보았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자연법칙을 거스를 수 없듯이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와 스스로 명령하는 도덕 법칙 또한 거스를 수 없다. 그것은 자연에 자연법칙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덕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도덕 법칙에 집중한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의지는 외부 영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의지 스스로 그 자체를 다스리는 것이다. 칸트는 자율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의지 그 자체로 도덕 법칙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율적이면서 도덕적인 의지로 **선의지(善意志)**를 제시하였다. 선의지란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인 동시에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드는 의지이다. 또한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며, 다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선이다.

칸트에 의하면, 선의지에 따른 행위는 단순히 좋은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순수한 의무 그 자체에 대한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이다. 도덕적 의무는 다른 동기가 아닌 오로지 의무 자체를 위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말미암아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필연성을 의미한다.

▼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칸트 사망 당시 독일 영토)에 있는 칸트 묘석이다.



의무! 너, 위대하고도 숭고한 이름이여! 너는 네 안에 환심을 살 만한 사랑받을 것을 어떠한 것도 지니지 않는데도 복종을 요구하는구나. 그럼에도 너는 의지를 실행하려는 사람의 마음속에 혐오와 공포를 안겨 주는 위협은 조금도 가하지 않은 채 오직 단 하나의 법칙만을 제시할 뿐이구나.

– 칸트, "실천 이성 비판" –

칸트는 행위자가 자기 이익을 얻고자 행동하거나 어떤 다른 결과를 예상하여 행동하고, 아니면 행위자의 감정 또는 경향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결코 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예컨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왔는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서였다면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에서 그를 도왔을 경우에도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 의무에 따른 행동이 아닌 경우

없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결과를 고려하거나 감정적 동기에서 행동하는 것일 뿐, 순수한 도덕적 의무감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쾌락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역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행복의 추구가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에 의한 것일 뿐,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는 또한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근거를 인간의 **실천 이성***에서 찾았다. 그에 의하면, 도덕 법칙은 실천 이성이 우리 스스로에게 부과한 자율적 명령이다. 여기에서 실천 이성은 행위자 스스로 인식하여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하는 인간 특유의 도덕적 능력이자 이성이다.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
순수 이성이란 선천적 인식 능력이자 우리로 하여금 경험과 종합을 가능하게 하는 학문적 이성이다. 순수 이성이 인간의 인식 능력에 관한 것이라면, 실천 이성은 도덕적 능력에 관한 이성이다. 따라서 실천 이성은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숙고하게 하는 도덕적 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성찰해 보기

☑ 개별 ☐ 모둠 활동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위 Ⓐ~Ⓓ에서 칸트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답을 한 학생을 모두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해 보자.

2. 지금까지 내가 남을 도왔던 일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 당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표해 보자.



칸트는 실천 이성의 명령을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며 무조건적인 명령으로서의 도덕 법칙으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도덕 법칙은 가언 명령이 아니라 무조건적 명령으로서의 **정언 명령(定言命令)*** 형식을 띤다. 그리고 정언 명령은 언제 어디서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므로, 누구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 명령과 같은 것이다.

***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
정언 명령은 무조건적 명령으로서 어떠한 조건적 이유 없이 "약속을 지켜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라."라는 형식을 지닌다. 반면, 가언 명령은 조건적 명령으로서 "결과가 좋다면 약속을 지켜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라."와 같은 형식을 지닌다.

칸트가 제시한 도덕 법칙으로서 정언 명령을 살펴보자. 도덕 법칙으로서 첫 번째 정언 명령은 "네 의지의 **준칙(準則)***이 언제나 동시에 도덕의 보편적 입법 원리로서 항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준칙에 따라 행위하라."라는 것이다. 이 말은 행위자 자신의 행위 준칙이 항상 보편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 준칙(maxim)**
'격률(格律)'이라고도 하는 행위 준칙은 개개인 행위자로 하여금 어떤 도덕 판단을 내릴지를 결정하게 하는 개인의 행위 지침이자 주관적 원리 같은 것이다.

칸트가 도덕 법칙으로 제시한 또 다른 정언 명령은 "자기 인격이든 타인의 인격이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간을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동시에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라는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서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존엄한 존재이므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인격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영원한 평화에 대한 칸트의 진보적 생각

칸트는 1795년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라는 작은 책자를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에 의해 국제 연맹이 맺어져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에 칸트의 이러한 제안은 상당히 급진적인 것이었다.

국제 연맹, 더 나아가 국제 연합(UN)의 모태적(母胎的)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칸트의 이러한 사상은 20세기에도 평화 사상이 논의되는 경우에 자주 거론되었고, 세계 평화에 기여했으며, 오늘날에도 군사적 · 경제적 우월성을 담보로 일방적인 침략 전쟁을 일삼는 국가들을 비판하는 철학적 근거가 되고 있다.


▲ 칸트의 친필 원고,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칸트주의의 장단점



▲ 칸트는 인간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나쁘게 혹은 불법적으로 대해도 옳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먼저, 칸트의 의무론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이유만으로도 마땅히 목적적 존재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인간 존엄성의 원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칸트는 행위 준칙을 보편화하면서 인간이 이성 능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보면 인간이 이성적 존재임이 분명하므로 도덕 법칙을 스스로 만들고 따르는 존엄한 인격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칸트의 이러한 인간 존중 이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칸트주의는 의지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지 외부의 영향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자율적 도덕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도덕적 이상을 구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칸트의 도덕적 이상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 법칙을 혼자 힘으로 스스로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누구든지 동일한 보편적 도덕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에서 윤리적 보편주의의 전형을 보여 준다. 즉 자율성과 보편성의 결합을 통한 도덕적 이상의 완성을 추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칸트의 의무론적 체계는 경험적 내용이 전혀 없는 순수한 형식적 원리로써 도덕 법칙을 형성하고, 이러한 원리를 정언 명령과 같은 간단명료한 형식으로 제

한 토막 이야기

칸트의 삶과 죽음



▲ 칸트가 친구들과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칸트는 그의 고향 쾨니히스베르크(현재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에서 태어나 평생 한 번도 약 160km 이상 떨어진 곳에 나가 본 적이 없는데도 영국의 런던 교 교각 위치를 세세히 알았을 정도로 상식이 풍부하였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으며, 지나친 금욕주의자는 아니었지만 평소 경건한 자세로 매우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생활을 하였다. 칸트는 마치 시계처럼 산책 시간을 준수하여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시간을 맞출 정도였다고 한다.

규칙적인 생활에도 그리 건강한 편이 아니었던 칸트는 1790년에 이르러 건강이 쇠약해져 가르치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만 저술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1804년, 칸트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칸트는 거의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사람에 대한 예의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죽기 전에도 모든 기력을 다해 힘들게 서서 자기를 방문한 의사가 앉기 전까지 결코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칸트가 사력을 다해 힘겹게 한 말은 “나에게 인간을 대우하는 예의를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칸트는 숨을 거두었다. 칸트는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좋다(Es ist gut).”라는 말을 남겼다.

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칸트가 형식적 원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것은 누구든지 정언 명령을 지상 명령이자 절대 명령으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윤리적 절대주의**였다. 이런 까닭에 절대적 의무에 대한 칸트의 강조, 그런 절대성을 목표로 한 칸트의 체계적 이론 구성은 모두 의무론 특유의 도덕적 특성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칸트주의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칸트주의는 도덕의 실제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먼저, 칸트주의는 형식적 이론 체계이므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칸트의 정언 명령은 행위 준칙이나 법칙이 형식상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도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거의 없다.

칸트주의의 이러한 비현실성은 곧바로 의무 간 갈등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실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 이상의 의무가 충돌할 수 있음에도, 칸트주의는 이에 대한 해결

탐구해 보기

다음 ①~③ 그림을 보고, 칸트주의의 문제점을 각각 제시해 보자.



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대 우리는 '결코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명령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지만, 칸트는 단지 이 두 명령이 절대적 의무에 속한다고 말할 뿐이다.

칸트주의의 비현실성은 행위의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칸트는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만 한다.'거나 '결코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의무가 어떤 상황에서든 절대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절대적 의무가 결과와 관련하여 합리적 예외를 가질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예를 들어 칼을 든 강도에게 쫓기는 무고한 사람을 숨겨 주고, 우리는 그의 생명을 구하려고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진실을 말한다면 무고한 사람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결과를 우리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예측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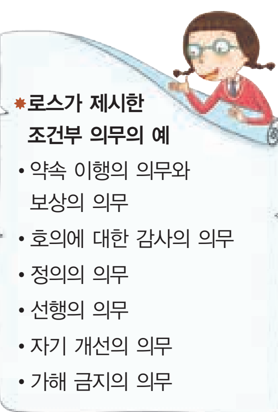
현대 칸트주의와 그 의의


▲ 로스(Ross, W. D., 1877~1971)

현대에 들어서면서 의무론자인 로스는 칸트주의의 비현실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성을 통해 올바른 도덕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칸트와 달리, **도덕적 직관**이 정확한 도덕 원리를 찾아 주기도 하고, 그 원리를 현실에 올바르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믿었다.

이와 관련하여 로스가 도덕 원리의 특성에 대해 깨달은 것은 어떠한 도덕적 의무도 절대적 의무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로스는 이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우리에게 부과되는 의무나 규칙을 **조건부 의무***와 실제적 의무로 구분하였다.

조건부 의무란 언뜻 보아도 의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직 실제적 의무가 아니면서 현실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실제적 의무가 될 수 있는 의무이다. 이런 까닭에 어떤 조건부 의무는 다른 조건부 의무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경우에만 실제적 의무가 될 수 있는 가정상의 효력을 지닌다. 만일 두 조건부 의무가 갈등을 일으키면, 행위자는 그 중요성을 따져 두 의무 가운데 어떤 것이 실제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의 도덕적 직관은 현실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칸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로스가 마련한 방법은 칸트의 절대적 의무 개념을 탈피하는 것이다. 현대 도덕철학으로서 로스의 의무론은 칸트주의의 여러 장점과 더불어 도덕 규칙의 올바름을 강조하는 의무론적 시야를 넓힌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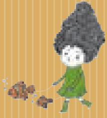
경험주의의 핵심, 감각과 경험

로크는 감각만이 우리와 외부 실재를 연결하는 유일한 직접적 통로라고 주장하였다.



▲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
로크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감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며, 이를 통해 외부의 대상에 대한 관념을 지니게 된다고 믿었다. 무리요(Murillo, B. E., 1618~1682)의 '신성한 가족'(1650)에서 어린아이는 나중에 분별력을 통해 개로 인지하게 되는 대상과 마주 보고 있다.

로크는 외부에 대한 자료와 정보는 감각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인지한 어떤 것이 외부에서 우리에게로 들어오려면 감각을 통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 머릿속에서 놀랍고 복잡한 것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만을 작동시켜 우리가 감각으로 얻을 수 없는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 인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외부 실재와 정신 간의 유일한 통로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정신 작용은 외부 세계의 존재와 연결되지 않는다. 물론 정신은 주어진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외부 세계의 존재와 대응되지 않는 꿈과 다양한 허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로크는 실재와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늘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것에서 도출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경험에서 도출되는 요인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경험주의의 핵심이다.



중단원 갈무리

내용 정리 문제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써 보자.

(1) 서양 근대 사상가들은 두 가지 학문적 방법, 즉 수학적인 형식적 추리의 방법인 □□□과 경험적 추리를 통한 과학적 방법인 □□□에 주목하였다.
(2) □□□□는 직접 지각된 경험적 지식을 제외하고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신조이며, □□□□는 확실한 지식이란 오로지 이성적 사유만을 통해 성립된다는 신조이다.
(3) □□□은 행위의 잘잘못을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윤리 이론이다.
(4) '쾌락이 곧 선이고 고통이 곧 악'이라고 보는 고전적 공리주의는 □□□ □□□□라고도 불린다.
(5) □□□은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무나 의무를 중시하는 윤리 사상이다.

2 다음 진술을 검토하고, 틀린 부분은 바르게 고쳐 보자.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바로잡음
(1) 흄은 도덕의 가치를 이성의 형태로 파악한다.	○ / ×	
(2) 스피노자에게 감정의 기능이란 삶에 활력을 주고 인생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 / ×	
(3) 밀은 자신이 직접 쾌락의 양을 측정해 내는 '쾌락 계산법'을 제시하였다.	○ / ×	
(4) 밀은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더 낫다."라고 주장하였다.	○ / ×	
(5) 칸트주의는 가장 대표적인 결과론적 윤리이다.	○ / ×	
(6) 칸트는 절대적 의무를 떠나 조건부 의무를 제시하였다.	○ / ×	

3 다음 각 윤리 사상가와 관련된 설명을 서로 연결해 보자.

(1) 칸트 •

(2) 벤담 •

(3) 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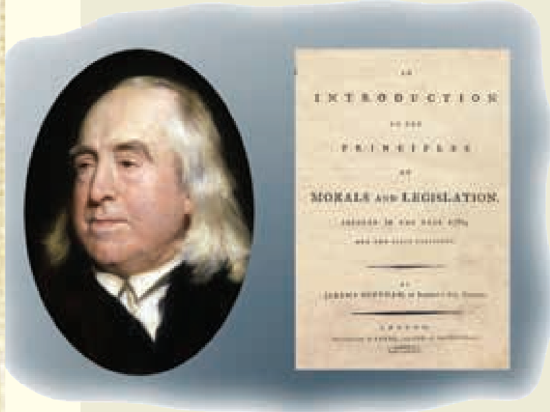
• ㉠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정식화하고, 이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 ㉡ 오직 쾌락의 양만을 늘려 행복에 이르고자 하는 것을 '돼지의 철학'이라고 보고, 쾌락을 이른바 '고상한 쾌락'과 '저급한 쾌락'으로 구분하면서 질적인 쾌락을 추구하였다.

• ㉢ 도덕 법칙은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 명령으로서의 정언 명령으로 제시된다고 보았다.

인물과 고전을 말하다

벤담과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론"



벤담(Bentham, J.)은 영국의 법학자이자 윤리학자로서 영국 런던에서 출생하여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학을 배우고 변호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철학 공부에 몰두함으로써 자신의 윤리 사상을 정립하고자 힘썼는데, 그 이유는 법률과 정치,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부정의에 대한 혐오 때문이었다. 사회 개혁을 꿈꾼 벤담의 이러한 도덕적 열망은 그가 독창적인 윤리 이론을 만들어 내는 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1789년, 벤담은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론"에서 사회 개혁과 정치 개혁에 필요한 좋은 법을 악법으로부터 구별해 내고자 '최대선', '최대 행복'과 같은 기초 개념을 도덕 원리에 사용하였다. 이것은 벤담 자신이 고백했던 바와 같이, 흄의 "인성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저술한 것이다.

공리성의 원리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벤담은 자신이 법률에 대해 제기했던 똑같은 물음을 도덕을 향해 다음과 같이 던졌다. "도대체 그것은 무엇을 위해 쓸모가 있는 것인가?" 벤담은 이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 쾌락을 주기 위한 것이면 무엇이든 도덕적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요컨대 쾌락이 크면 클수록 도덕적 가치가 더욱 커지며, 많은 사람이 그 쾌락을 더욱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장려할 만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로 정식화하였다.

사실 쾌락에 대한 윤리학적인 관심은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학파가 사라진 이후 거의 2000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벤담은 인간의 올바른 행동과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을 인간의 쾌락 추구와 결부시켰다. 많은 사람에게 쾌락이 돌아가야 한다는 쾌락의 공리성은 근대 공리주의 탄생의 새 장을 열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쾌락적 공리주의'이다. 쾌락적 공리주의는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가능한 최대의 쾌락이 결과적으로 산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담의 주요 저서인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론" 역시 인간의 모든 행위가 쾌락과 고통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말로부터 시작한다. 벤담은 쾌락이란 즐겁고 행복한 것이며, 고통이란 괴롭고 불행한 것이라는 원리를 도덕의 근본 원리로 삼았다. 벤담은 도덕의 이러한 근본 원리를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랫말처럼 만들어 놓았다.

강렬하고, 지속적이며, 확실하고, 근접해 있고, 생산적이고, 순수한 것.
쾌락에도 고통에도 이와 같은 성향이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이 쾌락이라면 추구해야 하는 법.
사적이라면 당신의 목표로 삼고, 공적이라면 널리 파급시켜라.
당신이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와 같은 고통은 피해야 하는 법.
만약 당신에게 고통이 온다면,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라.

Q **벤담의 공리주의 윤리 사상이 인간의 도덕적 실천에 주는 의의를 생각해 보자.**

칸트와 "도덕 형이상학의 근본 원리"



칸트(Kant, I.)는 그의 고향에 있는 쾨니히스베르크 대학을 다녔다. 졸업 후 몇 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기도 한 칸트는 모교인 이 대학에서 1755년 강의를 시작하였고, 쉰 살을 바라보는 나이인 1770년에 비로소 논리학과 형이상학을 가르치는 철학 교수가 되었다. 물리학에도 조예가 깊어 "천체에 관한 이론"이나 "바람에 관한 이론"의 저서를 내기도 하였지만, 칸트의 궁극적 관심은 독창적인 철학 저서를 출판하는 일에 있었다. 이런 깊고도 오랜 숙고 끝에 그의 위대한 철학서들이 탄생하였다. 1781년에 출판된 "순수 이성 비판", 1785년에 출판된 "도덕 형이상학의 근본 원리", 1788년에 출판된 "실천 이성 비판", 1790년에 출판된 "판단력 비판" 등은 칸트의 거의 모든 철학 세계를 집대성한 저작들이다.

| 선의지 | 도덕적 가치를 지닌 행위란?



▲ 칸트의 3대 비판서(왼쪽부터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칸트는 이 책에서 '도대체 인간의 행위를 진정으로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궁극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칸트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알기 전에는 도덕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해 보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해 칸트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도덕적 가치를 지닌 행위는 오로지 선의지(善意志, good will)에 따른 행위밖에 없다. 무조건적으로 선하고 또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칸트에 의하면, 선의지 이외에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 밖에서도 도무지 생각해 낼 수 없다.

우리가 흔히 좋거나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다. 지식도 좋고 건강도 좋고 감정과 절제도 선하고 냉정을 잃지 않는 것도 선하지만, 이런 것은 모두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의지가 선할 때만 선한 것이다. 의지가 선의지가 아니면, 이런 것은 자칫 선한 것이 아니라 유해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선의지를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고자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는 것으로 본다. 선의지에 따른 행위는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철저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선의지'라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의무'라는 개념을 다루어야 한다. 의무란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뿐이고, 주관적으로는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다. 따라서 나의 모든 경향성을 버리더라도 그 법칙을 따르겠다는 준칙뿐이다.

Q 칸트의 도덕적 행위에 관한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말해 보자.

5 현대의 윤리 사상

학습 목표

- 실용주의와 실존주의를 통해 현대 윤리 사상의 형성 배경과 그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 현대 덕 윤리 사상의 특징과 한계를 이해하여 현대 덕 윤리의 장단점을 비교 · 분석할 수 있다.
- 배려 윤리의 특징과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배려 윤리가 추구하는 바를 검토할 수 있다.

중단원 스케치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용주의가 등장하였으며,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불신과 과학 기술로 말미암은 수많은 병폐는 실존주의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도덕성 파괴, 인간 소외, 이기주의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적 덕목을 갖추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일은 윤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음 그림은 실용주의와 실존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현대의 덕 윤리와 배려 윤리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보여 준다.



01 실용주의 윤리와 실존주의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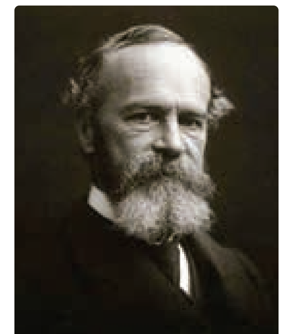
단원 열기
- 우리가 실생활에서 유용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독특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실용주의 윤리와 현대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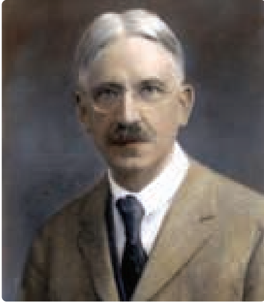
영국의 경험주의와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실용주의는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철학적 시도로서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상이다. 실용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옳은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까닭에 실용주의자는 어떤 사람의 신념이나 주장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면 그 신념이나 주장 역시 옳다고 보았다. 이때의 유용함이란 실제로 쓸모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덕 역시 인간의 문제를 개선하거나 고충을 완화하는 데 실제로 기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실용주의는 도덕의 이론적 측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측면까지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퍼스(Peirce, C. S., 1839~1914)

미국의 철학자인 **퍼스**는 실용주의의 창시자로 불린다. 그는 어떤 것이 옳으려면 그 것이 무엇인가 유용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제시한 **실용적 준칙**(pragmatic maxim)에 따르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반드시 쓸모 있는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며,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과에 대한 고려이다. 또한 인간의 탐구 활동도 무엇인가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시작하여 불안정한 마음을 없애기 위한 실제적 활동이다. 그리하여 그는 탐구 활동 가운데 실험적 태도를 존중하였는데, 그 이유는 실제 효력에 의해 그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 제임스(James, W., 1842~1910)

제임스는 실용주의를 매우 강력한 사상으로 정립하였다. 그는 옳은 것이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


▲ 듀이(Dewey, J., 1859~1952)

임스에 따르면, 어떤 신념이든 그 신념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옳게 된다. 그리고 그 신념이 옳다는 것은 경험 속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으로, 옳은 신념이란 만족할 만하고 편리하며 유용한 신념이다. 따라서 진리란 확고부동하고 절대적인 불변의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롭다는 것과 옳다는 것은 같은 맥락을 지니게 된다.

퍼스와 제임스 이후 실용주의를 주도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 **듀이**는, 미국의 실용주의를 체계적으로 확립하였다. 하지만 듀이는 자신의 철학 이론이 실용주의(pragmatism)보다는 **도구주의(instrumentalism)**로 불리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듀이는 지식을 형성하는 모든 기초 개념을 인간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환경에 적응하거나 환경을 지배하려는 도구 또는 그러한 실제적 활동에 필요한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인 도구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목적 달성에 유용한 역할을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념이나 지식의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듀이는 자신의 사상을 진리 이론에 대한 탐구를 넘어 사회적 · 정치적 · 윤리적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그의 사상은 특히 교육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실제로

성찰해 보기

□ 개별 ☑ 모둠 활동

다음 글은 제임스가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를 비교하여 실용주의 사상의 장점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물음에 답해 보자.

제임스의 구분에 따르면, 이성주의는 물질적인 것을 희생시키고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성주의는 낙관적인 성향을 보이고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며 실험을 무시하고 내성을 중시한다. 제임스는 이런 이론을 인정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을 '유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렀다. 다른 한편으로 경험주의가 있는데, 이 이론은 물질적 세계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경험주의는 비관적 성향을 보이고 이 세계의 부분들이 분할되어 있음을 인정하며 사변적 궁리보다는 실험을 더 중시한다. 제임스에 의하면, 이런 이론은 '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지지를 받는다. 이 구별이 지나치게 확대 · 해석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실용주의는 이 두 구분 중에서 '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편에 서 있음이 분명하다. – 러셀, "서양의 지혜" –

1. **위의 밑줄 친 '유연한 마음'과 '강직한 마음'에 대한 제임스의 구분에 따라 자신의 성향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성찰해 보고, 그 까닭을 써 보자.**

2. **제임스의 구분을 바탕으로 할 때, 경험주의 편에 있는 실용주의자는 경험과 실험을 중시하며 이 세계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각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태도를 돌이켜보며 자신이 경험과 실험을 중시하는 학습을 하는지, 아니면 이성적 사유에 집중하는 학습을 하는지 성찰해 보고, 자신의 학습 태도에 대한 장단점을 친구들과 논의해 보자.**

자신의 철학 이론을 교육 이론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에 따르면, 교육이란 경험을 통한 성장과 삶의 과정이므로 생각, 욕구, 신념, 지식 등은 고정불변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과의 상호 작용에 따라 일시적이고 잠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언제나 수정이 가능하고 성장 ·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



▲ **실천적인 배움**
듀이는 이론과 실천의 영역 모두에서 어린이들을 창의적으로 이끌 때 교육의 효과가 커진다고 주장하면서 행위를 통해 배우는 교육 방식을 지지하였다.

역동적이면서 진보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던 듀이는 윤리 분야에서도 역시 성장 · 개선 · 진보를 강조하는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가치는 하나의 연속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고정된 표준으로서의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절대적인 최고선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고정된 틀에 얽매어 결국 그 속에 주저앉고 말 것이며, 이는 도덕적 성장을 가로막는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책임도 환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인간성 역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고 도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듀이는 인간성의 변화가 개선 · 진보되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 질적인 변화가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타락한 사람으로 간주하였다.



▲ **듀이, "학교와 사회"**
교육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듀이의 저서로서, 그의 기본적인 교육 철학을 담고 있다. 이 책에는 안내자와 협력자로서 교사의 역할과, 교육의 과정은 어린이의 관심과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도 그들이 어떤 고정된 결과에 접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악한 사람이란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선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타락하기 시작하고 점점 덜 선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란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더 선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성장 그 자체만이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 듀이, "철학의 재건" –

듀이의 도덕 이론은 객관적 가치를 부정하고 주관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실용주의는 현실 문제의 해결이나 목적 실현을 위한 유용성을 진리와 가치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주의적 속성을 지닌다. 하지만 실용주의 윤리는 이론과 실천 간의 간격을 좁힌 철학적 시도이기도 하다.

듀이의 도덕 이론은 인간의 현실 문제를 개선하고 그에 따른 도덕적 진보를 강조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듀이는 도덕이 인간의 실천적 문제와 연결된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운명을 개선시켜 주고 인간에게 닥친 재난을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도덕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인간은 올바른 지성적 선택을 통해 얼마든지 현실 문제를 개선하고 도덕적 진보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근대 이성주의 철학의 한계

근대에 들어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는 서양 사상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근대 철학 사상가들은 철학의 과제를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대한 탐구, 그에 따른 보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윤리 사상 역시 인간의 이성적 사유에 기초한 도덕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특히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의 가능성을 제시한 칸트의 윤리 사상은 이성 그 자체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들어 이와 같은 절대적 이성의 신뢰에 대한 반발로 반이성적 경향이 철학의 저변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반이성적 경향은 과학 기술을 태동시킨 합리적 이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그것은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삶의 풍요에도 물질 만능주의, 인간 소외, 비인간화 등과 같은 사회적 병폐가 만연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다.



▲ 크루거(kruger, B., 1945~),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I shop. therefore I am).'
데카르트의 말을 패러디하여 인간 존재의 근거가 물신(자본주의)이 되어 버린 현대인을 비꼬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인간의 충동, 의지, 욕망, 본능 등이 주목을 받고, 그에 대한 철학 사상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반이성적인 개념을 기초로 해서 등장한 비합리적 철학이 **생철학(生哲學)**이다. 생철학자들은 의지나 충동 등과 같은 반이성적인 개념이 이성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생(生)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들은 직관적이며 비합리적 방법을 통해 생의 의의나 가치, 본질 등을 파악하려고 하였고, 충실한 삶 속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를 찾으려고 하였다.

실존주의의 등장과 인간의 삶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 준 근대 이성주의 철학에 대한 반발은 **실존주의(實存主義)**로 이어졌다. 실존주의는 생철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인간에 대한 탐구 역시 합리적 인간의 일반적 본성보다는 개개인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실존주의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떠나 구체적인 실제 상황 속에서 주체적 자아로서의 한 개인이 어떻게 규정되

***주체성(主體性)**
인간 일반이 아닌 오로지 한 개인 고유의 특성을 뜻하는 것으로, 그 개인 자신의 주관적인 삶과 결부되어 있다.

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실존주의가 개별적 인간의 주체적인 삶의 모습에 관심을 집중한 까닭은 20세기 나치즘과 파시즘의 등장, 그리고 전체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제1, 2차 세계 대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사실 실존주의는 이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거의 폐허가 되어 버린 유럽 세계와 그 속에서 황폐화된 인간의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실존주의는 당면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인간 존엄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철학적 시도였다.

또한 실존주의의 등장은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맹신과 그로 말미암아 만연한 수많은 인간 사회의 병폐, 즉 인간의 물신 숭배, 인간 소외, 비인간화, 비개성화 등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실존주의는 근대 산업화에 따른 삶의 부정적 측면에 맞서 인간의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는 동시에 인간 고유의 참된 모습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극복하고자 각 개인으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실천적인 지성의 힘을 발휘할 것을 강조하였다.

실존주의의 선구자인 **키르케고르**는 헤겔이 제시한 보편적 이성의 절대성을 반박하였다. 그는 헤겔의 철학을 통해서는 개개인의 특수성과 주관성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키르케고르에 의하면, 진정한 철학은 개개인의 고유하고 특수하며 주관적인 실존적 체험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존이란 주체적 단독자(單獨者)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체적 단독자**란 다른 사람으로는 도저히 대체될 수 없는 한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존재자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서 있으면서도 오직 주체적인 자기 자신 한 사람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그를 진정으로 실존하게 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주체성밖에 없다.



▲ **키르케고르**(Kierkegaard, S., 1813~1855)



▲ **알베르토 자코메티**(Giacometti, A., 1901~1966), **'도시 광장'**
자코메티는 유령과도 같은 가늘고 긴 초췌한 인체를 통해 극한의 한계 상황에 놓인 인간의 고독한 실존을 형상화하였다. 그의 인체상은 이러한 비인간화된 문명으로부터 비롯한 황폐한 정신적 상황과 실존적 고독을 상징한다.

키르케고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실존을 세 단계, 즉 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종교적 실존으로 정리하였다.

미적 실존은 향락의 삶을 살아가면서 곧 절망에 이르게 되는 실존이다. **윤리적 실존**은 일상적 책무에 따라 현실 생활을 성실하게 영위해 가지만,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여 그 유한성 앞에 다시 절망하게 되는 실존이다. 최후의 단계로서 **종교적 실존**이란 신 앞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여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자각하는 참된 실존이다. 키르케고르는 종교적 신념을 마음에 새긴 상태에서 신 앞에 서 있는 주체적인 자신의 본질을 자각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참모습을 찾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신 앞에 선 단독자**
유신론적 실존을 주창한 키르케고르 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용어로, 인간이 신을 통해 주체적인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무신론적 관점에서 **사르트르**는 신의 존재를 생각해서는 결코 인간의 진정한 실존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 이유나 어떠한 목적도 없이 우연히 던져진 실존적 존재이다. 이런



▲ 키르케고르

까닭에 인간의 존재 이유 또는 존재 목적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인간의 본질을 먼저 주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이 이 세계 속에 실존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은 결코 인간의 실존에 앞서 있을 수 없다. 즉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 사르트르(Sartre, J. P., 1905~1980)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므로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완성해 나아가는 존재이다. 즉 인간은 무엇인가를 결코 신에게 기대서는 안 되며, 자신의 실존 그 자체를 인정하는 존재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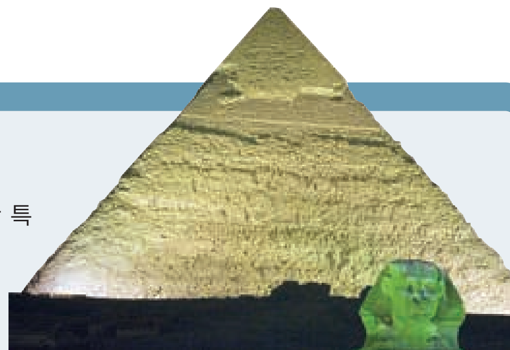

▲ 하이데거(Heidegger, M., 1889~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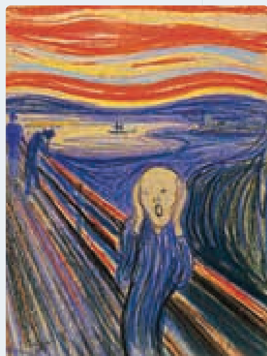
이 밖에도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로서 하이데거와 야스퍼스를 들 수 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란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이므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빠져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보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주체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실존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초 개념 탐구

본질과 실존

- **본질(essence)**: 한 사물을 규정할 때 그 사물의 변화하지 않는 고유한 특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떤 것을 어떤 것이게끔 하는 성질'을 말한다. 예컨대 삼각형은 어떤 것이든 세 변과 세 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사물은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 목수가 의자를 만든다고 가정할 때 목수는 먼저 의자의 형상을 구상하고 실존적인 의자를 만든다. 의자라는 실제적인 물질을 만들기 전에 본질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의자의 본질은 그 쓰임새, 가치, 형상의 개념적 관념 등으로 이루어진다.


▲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세 변을 갖고 있는 다각형은 삼각형의 본질이다.


▲ 뭉크(Munch, E., 1863~1944), '절규'
인간의 실존적 고뇌를 잘 표현하고 있다.

- **실존(existence)**: 어원상으로 'ex(밖에, 밖으로)' + 'sistere(나타나다, 나아가 서다)'로 이루어져 있는 개념으로, 인간의 존재 방식에 관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실존이란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의 참모습을 주체적으로 찾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참된 삶의 모습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참된 실존의 모습을 그려내는 일은 모든 실존 철학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은 어떠한 사물과도 달리 실존 그 자체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실존, 즉 살고 있는 그 몸 자체가 먼저 존재해야 '인간'이라는 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의 몸 자체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공부를 하는 어떤 본질적인 인간의 특징 또한 성립할 수 없다.

***현존재**
현존재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한다. 하이데거는 이 세계에 던져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늘 불안과 염려 속에 놓여 있으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현존재란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놓여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계 상황**
한계 상황이란 야스퍼스 실존 철학의 기초를 이루는 용어로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대 상황을 말한다. 그는 죽음, 고통, 싸움, 죄의식에 직면해 있는 인간의 네 가지 상황을 위태로운 숙명적인 상황, 즉 한계 상황이라고 보았다.

사르트르처럼 무신론적 관점에서 실존주의 사상을 전개한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현존재***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신이 처한 이러한 현존재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죽음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현존재인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이데거와 달리 **야스퍼스**는 키르케고르와 연결되어 있는 유신론적 관점에서 실존주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야스퍼스는 인간이 죽음이나 고통과 같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여 그 속에서 철저히 좌절해 보고, 그 좌절을 발판 삼아 진정한 존재 자체로의 초월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야스퍼스(Jaspers, K., 1883~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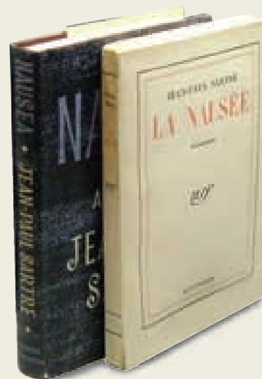
야스퍼스에 따르면, 단독자(單獨者)로서의 인간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절대 상황, 즉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죽음, 고통, 싸움, 죄의식과 같은 네 가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은 철저히 절망하고 좌절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절망과 좌절을 통해 신과 같은 절대자로의 초월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진정한 존재 자체로의 초월과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통해서만 자신의 실존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 토막 이야기

사르트르의 생애

프랑스 파리에서 1905년에 태어난 사르트르는 12살 때 어머니의 재혼에 배신감을 느껴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이때 이미 신은 없다고 결론을 내려 버렸다고 한다. 사르트르 실존 철학의 결정적 형성 계기는 제2차 세계 대전이었는데, 실제로 사르트르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독일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직접 벌이면서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맹활약하였다.

사르트르는 철학 논문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설을 쓴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는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불의에 맞서 과감히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역설하기도 하였다. 1964년 사르트르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그는 “작가는 스스로 제도화되기를 거부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주체적 결단 아래 노벨상 수상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1980년 폐수종을 견디지 못해 그의 실존적 삶을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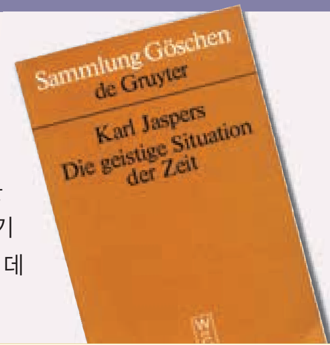


▲ 사르트르의 장편 소설 “구토”

***레지스탕스(résistance)**
저항을 뜻하는 프랑스 어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파시즘 정권에 대한 저항이나 독일 점령군에 대한 프랑스인의 저항을 가리킨다.

참고 자료

야스퍼스의 "현대의 정신적 상황"(1931)



야스퍼스가 키르케고르의 "현대 비판"에 영향을 받아 쓴 "현대의 정신적 상황"이라는 이 책은 정치에 관한 작은 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물론 교육, 언론, 스포츠 등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여 가정 문제부터 국가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현대 상황들을 검토하고 있다. 시대 비판서인 이 책에서 야스퍼스는 비로소 자신의 사상을 제대로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 책은 야스퍼스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럼 오늘날에도 계속 남아 있는 문제란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철저한 위기의식에 따른 위험과 상실감이 있다는 것뿐이다. 단지 오늘날에는 가능성만 있을 뿐이며 어떠한 보장도 그리고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 객관성은 전부 희미해졌다. 참다운 것은 돌이킬 수 없이 사라졌고, 실체는 혼미해졌으며, 현실은 가장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 야스퍼스, "현대의 정신적 상황" –

탐구해 보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실존주의자들의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된 관심사가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①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간의 개인적 특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이론은 개개인의 중요한 고유 특성에 대한 논의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② 실존주의자들은 이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진리보다는 인간 삶의 주관적 의미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실존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주관적 체험이나 내면적 고뇌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마련해 보고자 노력한다.
③ 실존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삶의 목적과 태도,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정한 삶의 방식은 각 개인들 스스로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 키르케고르, 사르트르, 하이데거, 야스퍼스의 각 사상을 위의 ①, ②, ③ 각각에 대입하여 논의해 보자.

2. 위의 ①, ②, ③ 가운데 '단독자', '주체성', '자유로운 존재', '현존재', '한계 상황'의 용어와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항목을 써 보고, 그 이유를 밝혀 보자.

02 현대의 덕 윤리와 배려 윤리


▲ 고르프(Gorp, H. N), '선행(善行) 수업'


▲ 여성의 투표권 주장


▲ 양보

단원 열기
- 우리에게 좋은 성품의 계발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 여성이 주로 가진 도덕적 성향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덕 윤리가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


▲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드로스(왼쪽)와 그를 가르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오른쪽)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를 중심으로 전개된 **덕(德) 윤리**는 서양 윤리 사상사를 거의 전부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수많은 윤리 사상가는 인간이 마음에 새겨야 할 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18세기 공리주의와 칸트주의가 등장하면서 덕 윤리는 서양 윤리 역사에서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공리주의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선을 산출하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평가하고, 칸트주의는 실천 이성을 통한 도덕 법칙의 실현만이 도덕적 의무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서양 근대 윤리의 두 기둥인 공리주의와 칸트주의는 도덕적 행동의 기준과 그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일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공리주의와 칸트주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간의 성품을 탐구하는 덕 윤리를 의미 있는 윤리적 탐구로 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덕 윤리는 도덕적 탐구의 의미 있는 체계로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덕 윤리가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공리주의와 칸트주의 같은 근대 윤리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인간의 올바른 행동이나 도덕적 의무 · 원칙만을 강조하는 **의무 윤리***는 인간의 직접적인 행위에만 관심을 가질 뿐, 의무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도덕적 주체인 인간의 내면에 대한 탐구에는 소홀하였다.

현대 덕 윤리학자들은 근대 윤리 사상가들이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도덕적 의무를 북돋우는 데만 열중한 나머지, 도덕적 품성이 인간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

***의무 윤리**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의무 윤리는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판단의 지침이 될 도덕 원리를 연구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행위 지향형 윤리' 또는 '행위 윤리'로 불리기도 한다.

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에는 실패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계속해서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와 같은 당위나 도덕적 명령의 형식을 만들면서 오직 규칙과 원리를 강조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또한 덕 윤리학자들은 의무 윤리가 인간의 도덕적 기반으로서 전통적 요소나 공동체적 맥락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하였다. 의무 윤리는 인간 존재를 독립된 섬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뿐, 도덕적 삶이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덕 윤리학자들은 인간의 훌륭한 삶과 그 토대가 될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덕성과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 덕 윤리에 따르면, 도덕 이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규칙이나 원리가 아니라 전통과 공동체에 대한 도덕 학습이다.

현대 덕 윤리의 특징

현대 덕 윤리학자들*은 한 개인이 지닌 도덕적 품성이 개인의 도덕적 행동보다 더 우선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행위의 옳고 그름이 행위자의 훌륭한 도덕적 품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강조하기에 앞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면 당연히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품성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덕 윤리는 행위 중심의 윤리가 아닌 인간 중심의 행위자 윤리로 간주된다. 그래서 덕 윤리학자들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규칙과 의무보다는 행위자의 품성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됨됨이, 즉 행위자의 도덕적 성향에 관

***현대 덕 윤리학자들**
이들은 도덕적 품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현대의 대표적인 덕 윤리학자인 매킨타이어(MacIntyre, A., 1929~)는 공동체주의적 전통에서 덕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덕의 상실"이라는 저서를 통해 전통과 공동체 속의 자아를 강조하면서 그에 맞는 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초 개념 탐구

덕과 덕목들

덕(virtue)

흔히 '덕' 또는 '탁월성'으로 번역되는 그리스 어 '아레테(arete)'에 기원을 둔 용어로, 일반적으로 '덕성', '됨됨이', '훌륭한 성품', '탁월한 성품' 등을 가리킨다. 덕 윤리학에서는 구체적으로 '훌륭한 도덕적 성품'을 말할 때 사용된다. 이와 달리 '악덕(vice)'이라는 용어는 도덕적 사악함이나 부덕함을 말할 때 사용된다.

동서양의 주요 윤리 덕목의 예

- 플라톤의 4주덕: 지혜, 용기, 절제, 정의
- 공자의 덕목: 인(仁), 예(禮), 효 · 제 · 충 · 신(孝悌忠信), 서(恕)
- 예수의 덕목: 믿음, 소망, 사랑
- 불교: 자비, 육바라밀(六波羅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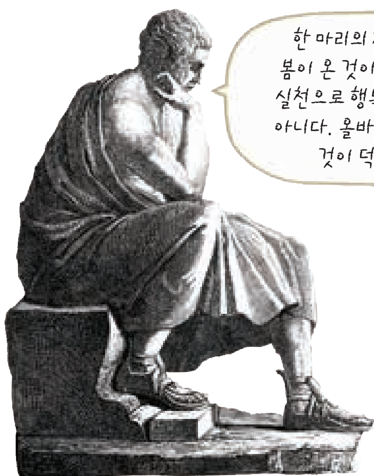


그리스 덕의 조각상 ▶

심을 두고자 한다. 예컨대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정직한 심성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는 도덕적으로 정직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야.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덕 윤리는 인간의 훌륭한 품성에 초점을 두는 품성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와 관련된 기준으로서 훌륭한 품성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훌륭한 도덕적 품성을 지닌 사람을 덕성이 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간주한다.

현대 덕 윤리는 덕성이나 덕망, 즉 도덕적으로 훌륭한 품성을 공동체나 인간관계 유지에 필요한 탁월한 성품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인간이 지녀야 할 탁월한 성품을 통해 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덕목을 마련하고자 한다. 도덕적으로 탁월한 성품이란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규범들을 이해하여 실행하려는 숙련된 행위 성향이다. 여기서 숙련된 행위 성향이란 특정한 덕목에 집중해서 이루어지는 반복된 행위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품성의 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올바른 행위의 **습관화**와 **반복**을 통해 덕이 길러진다고 주장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 반복적 습관을 통해 형성되는 덕을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

현대 덕 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에서 더 나아가, 덕성의 함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도덕적으로 탁월한 성품을 함양하거나 연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좋은 방법 중 한 가지는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도덕적으로 덕망 높은 사람을 본보기로 하여 자신의 품성을 반복적으로 숙련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덕적 모범 사례로 인정받는 탁월하고 훌륭한 인물을 설정하여 마음속에 품고 자신 역시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는 것이다.

이상적인 도덕적 인물로는 시간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람을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예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간디, 테레사 수녀 등과 같은 성인(聖人)들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덕 윤리는 의무의 윤리가 아닌 **소망의 윤리**로 불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올바른 행동을 실행하기에 앞서 덕망이 높은 탁월한 사람이 되겠다는 소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탁월한 인물이 되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겠다는 소망을 갖는 데는 굳이 추상적인 도덕 규칙이나 도덕 원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도덕 행위자 스스로 올바른 도덕적 실천을 하게 될 동기를 찾는 데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동기 부여 요소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자신 역시 덕망 높은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스스로의 결심 그 자체이다.



▲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Gandhi, M. K., 1869~1948), '소금의 행진'
현대의 덕 윤리는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인 인물을 본보기로 삼아 본받을 것을 강조한다.

현대 덕 윤리의 장점은 도덕적 실천에 앞서 도덕적 품성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덕 행위자는 언젠가는 도덕적으로 탁월한 역사적 인물처럼 덕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서 스스로 도덕 연습생의 입장에서 훌륭한 성품을 계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현대 덕 윤리의 한계 |

현대의 덕 윤리 사상가들이 강조하는 품성의 윤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훌륭한 품성으로 간주되는 특정한 덕목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현대의 덕 윤리는 행위자 중심의 윤리이므로 행위자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덕목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현실적 덕목이 있다 하더라

성찰해 보기 ☑ 개별 □ 모둠 활동

다음 주장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현대 덕 윤리에 따르면,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도덕적 삶을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인물을 설정하여 그에 따르는 일이다.

1. 자신이 본받아야 할 도덕적 인물들을 제시해 보자.

2. 그 가운데 자신이 삶의 표본으로 삼아야 할 이상적인 도덕적 인물을 한 명 들고, 왜 그처럼 살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숙고해 보자.

3.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자신에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습관이나 성향은 무엇인지 돌이켜 보자.



▲ 19세기 말 중국에 들어온 서양인들
서양인들은 악수하고 볼에 입을 맞추는 것과 같은 문화가 중국인의 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당시 중국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점잖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였다.

도, 그것은 행위자가 속한 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다.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문화와 전통에 따라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공동체에 필요한 훌륭한 품성으로 간주된 덕목이 행위자의 비판적 사고를 거치지도 않은 채 얼마든지 행위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입될 수 있다. 왜냐하면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행위자가 속한 문화와 전통에 부합하는 것이어야만 하므로, 그러한 덕목이 문화와 전통 속에서 무조건 강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현대 덕 윤리는 자신이 속한 특정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으로 말미암아 도덕의 보편성에 대한 관심이 결여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거대한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는 행위자는 사회 전체를 올바르게 유지시키고자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특정한 도덕만을 고집하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리 사상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에 걸맞는 지침을 설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 존엄성, 개인의 자유, 개개인의 이해 관심과 같은 핵심 사항에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기본적 원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탐구해 보기

다음 내용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 서양의 근대 윤리(공리주의와 칸트주의):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도덕적 의무나 규칙들을 설정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 덕 윤리: 아무리 많은 도덕 규칙들을 만든다 해도 규칙들만으로는 훌륭한 도덕적 성품의 계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예컨대 신의를 지켜야 하는 규칙이 언젠가 아무런 필요도 없을 경우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훌륭한 도덕적 성품의 함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 도덕 규칙에 대한 의무 윤리와 덕 윤리의 비교를 통해 우리 인생에서 규칙이 먼저인지 성품이 먼저인지 생각해 보자.

2. 만일 자신이 교육자가 된다면, 학생들에게 먼저 도덕 규칙을 지키라고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성품을 연마하라고 말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만일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두 가지 사항 모두를 충족할 것인지 고민해 보자.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행위의 지침이 될 만한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나 도덕 규칙을 마련하고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덕 원리나 규칙을 통해 현실적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실질적인 도덕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무 윤리는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주는 데 어려움을 지닌 덕 윤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

올바른 행동을 안내하는 도덕적 의무와 규칙, 올바른 행동을 이끄는 훌륭한 품성은 도덕적 삶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여겨지는 것이 적절하다. 도덕적 삶은 의무 윤리가 강조하는 도덕 규칙과 덕 윤리가 강조하는 도덕적 품성 간의 조화를 통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 여성주의와 여성주의 윤리학 |

인류의 절반은 여성이지만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란 쉽지 않았다. 20세기 들어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되면서 여성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나섰고, 이는 **여성주의**(feminism)로 발전하였다.

보부아르는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보부아르에 의하면,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태어나지만 남성과 여성의 역할까지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역사와 문화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사회적 역할(**젠더***)을 규정한다. 여성주의가 주목하는 것은 교육과 사회화 등을 통해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차별적인 성 역할관을 바로잡는 것이다.


▲ 보부아르(Beauvoir, S., 1908~1986)

***젠더(gender)**
생물학적으로 정의된 성(sex)이 아니라 사회 · 문화적으로 정의된 성(性)을 의미한다.

여성주의는 남성이 만들어 놓은 여성다운 모습이 아닌 여성 고유의 본질과 특성에 주목하면서, 여성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부장적이고 여성 배제적이며, 여성 차별적인 문화와 사회 구조를 파헤치고 비판하면서 여성의 해방과 자유를 추구한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의 삶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양성평등과 ‘모성적 사유’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 **공익 광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은 여성주의 윤리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남성 중심적인 전통의 윤리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여성주의 윤리는 관계와 맥락에 기초한 배려 윤리를 또 하나의 도덕으로 제시하며, 또 남성 편향적인 정의(正義) 중심의 전통적인 윤리에 반발하여 배려를 중심으로 한 여성 고유의 도덕적 사유를 강조한다.

배려 윤리의 특징과 의의



▲ 주디 시카고(Judy Chicago, 1939~), '디너 파티'
이 작품은 역사 속에서 여성의 업적을 표현한 것이다. 시카고는 "여성들이 억압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여성의 전통 유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여성주의는 남성과 다른 여성의 도덕적 · 심리학적 성향을 반영하는 **배려 윤리**에 주목한다. 배려 윤리는 배려와 보살핌을 지향하는 여성의 본질적 성향에 주목하여 타인의 고통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이 중심이 되는 윤리이다. **배려**란 상대방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보다 우선시하고, 그들의 고통이나 필요에 기꺼이 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려는 상대방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들에 대한 의무감과 사랑 속에서 그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길리건에 따르면, 남성은 정의 · 권리 · 자율성 · 독립성 등에 근거하여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배려 · 책임 · 관계 · 맥락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여성의 도덕적인 성향은 아동기의 모-자녀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남자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에게서의 독립'을 통해 남성성을 형성하지만 여자아이는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를 통해 여성성을 형성한다. 이처럼 길리건은 발달 과정상의 차이가 서로 다른 두 가지 도덕적 관점을 형성하게 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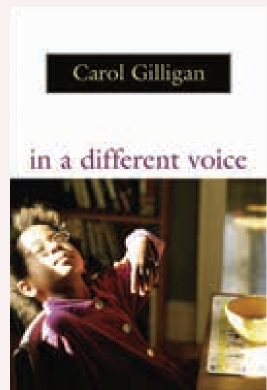
▲ 길리건(Gilligan, C., 1936~)

그녀는 오랫동안 여성의 도덕적 지향이 배제되고 존중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자신의 심리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여성의 배려 지향적 목소리가 도덕 문제에 관한 또 다른 목소리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존재하지만 들리지 않던 '목소리'

길리건은 "다른 목소리로(In a different voice)"를 통해 오랫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저서는 '보살핌'이 윤리학, 도덕 심리학 분야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길리건은 남성의 경험이 마치 모든 인간의 경험을 대변하는 것과, 여성의 삶을 가리고 여성의 목소리를 침묵하게 하는 이론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들 스스로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억압하며 기존 문화에 순응해 온 관행도 지적하였다. 그녀에게 '목소리'는 어떤 의미일까?



목소리는 본성적인 동시에 문화적인 것이다. 그것은 숨결과 소리, 단어, 리듬, 언어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목소리는 내면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강력한 심리적 도구이자 통로이다. 따라서 목소리를 이해하는 것은 심리적 · 사회적 · 문화적 질서를 이해하게 해 주는 새로운 열쇠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이 자기의 목소리를 스스로 억압하지 않는 사회,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가 남성의 목소리와 동등한 가치로 인정되는 사회, 나아가 두 목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사회, 이러한 사회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양성평등의 사회가 아닐까?

많은 여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응적이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위하고, 그들의 감정이나 사고에 대해 고려하며, 그들의 삶에 대해 공감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



▲ 나딩스(Noddings, N., 1929～)

길리건이 여성은 심리학적으로 배려 지향적 성향이 강함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면, **나딩스**는 배려의 윤리학적 토대를 다지고, 배려를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녀는 개인의 권리를 도덕의 중심에 두는 정의 지향적 윤리와 달리, 관계에 뿌리를 두고 맥락을 고려하는 배려 지향의 윤리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망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친화성, 친절, 감정적 민감성 등은 배려 윤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배려 윤리는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받는 사람 사이의 만남을 중요시한다. 배려자는 타인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피배려자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피배려자는 배려를 수용하고 적절히 반응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배려가 완성된다고 나딩스는 말하였다. 그녀는 배려 윤리가 여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는 하지만, 남성에게 배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남성 또한 관계적 존재임을 깨닫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첫째, 배려 윤리는 자아를 거미줄과 같은 관계망 속에 존재하는 관계적 자아로 파악하는 반면, 정의 윤리는 분리되고 개별적이며 자율적 원자화된 자아로 규정한다. 둘째, 배려 윤리는 책임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

나딩스에 따르면, 배려 행위의 근원에는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 두 가지가 있다. 자연적 배려는 타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어떠한 윤리적인 노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도덕적 의무감에서 비롯된 배려가 아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배려적 경향이 자연적 배려인 것이다.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모성적 배려가 좋은 예이다.

윤리적 배려는 우리에게 배려하고자 하는 의지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배려하는 것이 좋다고 행위자가 의식적으로 인식할 때 실천된다. 나딩스에 의하면, 윤리적 배려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과거 어머니에게서 배려를 받고 또 어머니를 배려했던 경험과 기억, 즉 자연적 배려라는 점에서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근거한다.



배려 윤리와 정의 윤리 비교	
배려 윤리	정의 윤리
배려	정의
의무와 책임	권리
상호 의존성	독립성
맥락주의	보편주의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정의 윤리는 권리 간의 갈등을 도덕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한다. 셋째, 배려 윤리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맥락적 사고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지만, 정의 윤리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통해 도덕적 갈등 상황에 접근한다. 넷째, 배려 윤리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도덕적 명제를 중시하는 반면, 정의 윤리는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명제를 도덕적 형식으로 취한다.

이러한 배려 윤리는 덕 윤리와 더불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도덕적인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정의 윤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연민, 동정심 등과 같은 도덕적 감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는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라는 두 윤리적 관점을 통해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한층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배려의 맥락성

"배려를 베푸는 사람의 눈과 배려를 받는 사람의 눈을 통해 비추어진 무수한 조건에 근거하여 행동한다." – 나딩스 –

배려 윤리의 한계

배려가 정의와 더불어 인간의 도덕적 지향점으로 자리 잡으려면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그렇다면 배려 윤리의 한계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배려 윤리는 정의 윤리를 비판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배려 윤리는 여성 편향적이고 여성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배려가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배려 윤리는 성숙한 도덕 판단을 위해 요구되는 불편부당성과 **보편화 가능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편화 가능성**

어떤 도덕 판단을 내렸을 때 그 판단 속에 사용된 표현들을 지배하는 논리 규칙에 의해 보편화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배려 윤리는 관계를 초월하는 도덕적 책임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배려는 피배려자의 반응을 통해 완성된다.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는 이러한 상호 작용을 넘어서기도 한다. 예컨대 우리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 요구는 아프리카 난민의 굶주림보다 먼저 인식된다. 따라서 우리는 아프리카 난민을 도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의 장난감을 먼저 사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 배려 윤리는 인종, 민족 등을 초월하는 도덕적 책임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마지막으로, 배려 윤리는 자신보다는 타인의 고통과 필요를 앞세운다는 면에서 여성에게 억압적일 수 있다. 배려 윤리에 따르면, 배려자의 정체성은 타인의 요구와 필요를 배려하는 삶 속에서 발달한다. 피배려자에게는 배려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을 요구하는 데 비해, 배려자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배려자의 역할을 통해 주로 여성이 담당해 오던 삶을 돌아볼 때, 배려 윤리는 오히려 여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한층 성숙한 도덕적인 삶을 위해 배려 윤리를 또 다른 목소리로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배려 윤리와 정의 윤리를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정의 윤리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반면, 배려 윤리는 거시적인 도덕적 문제에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려와 정의의 조화를 통해 감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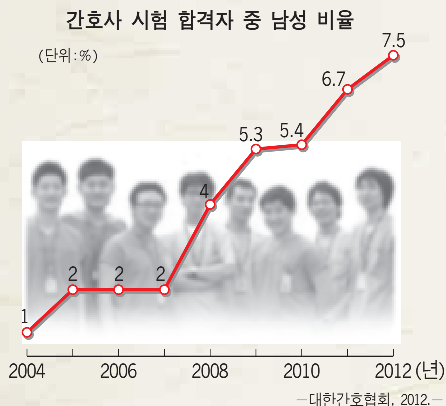


▲ 배려 윤리는 타인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관계를 추구한다.

성찰해 보기

☑ 개별 ◻ 모둠 활동

다음 글을 읽고 아래 두 학생의 질문에 답해 보자.



—대한간호협회, 2012.—

○○○ 씨는 단지 남자가 간호사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 대학 간호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하지만 ○○○의 대학 입학 과정은 여느 학생들처럼 평범하지 않았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왜 남자 간호사를 선택했는지 궁금해했다.

간호학과 진학을 결심하자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면담을 하셨다. 여자 친구의 부모님조차도 "남자가 무슨 간호사냐? 그런 것은 여자나 하는 거지."라며 핀잔을 주었다. 또한 여자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보수적인 집단에서 남학생이 생활해야 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다. 그는 '남자 간호사'라는 이름을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① 남자여서 괴로웠던 경우와 행복했던 경우는?
② 여자여서 괴로웠던 경우와 행복했던 경우는?
③ 남자여서 갖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직업은?



④ 여자여서 선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직업은?
⑤ 남자 형제가 피부 미용관리사를 꿈꾼다면?
⑥ 누나나 여동생이 자동차 정비공을 꿈꾼다면?

명화 / 사진 / 영화 속
윤리 이야기

‘마당을 나온 암탉’

꿈을 간직한 삶의 아름다움과 당당함, 그리고 지극한 모성애(母性愛)

여성은 자신의 권리보다는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타자의 필요와 요구에 응하는 것을 중시하는 배려 지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배려 지향적 성향은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서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동화는 따뜻한 배려의 손길이 필요한 각박한 세상에 배려의 원형인 모성적 배려의 따뜻함을 감동적으로 전해 준다.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양계장을 탈출해 낯선 세계에 발을 내딛은 잎싹이는 청둥오리알과 맞닥뜨린다. 잎싹이는 자신이 낳지도 않았고, 또 아무 상관도 없는 청둥오리알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품는다. 그리고 부화된 초록이를 좌충우돌하며 키워 나간다. 알을 품고 초록이를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성의 원초적 모성애를 느낄 수 있다. 철새인 초록이를 떠나보내고, 자신과 초록이의 생명을 위협했던 족제비의 새끼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잎싹이의 모습은 모성적 배려의 극치를 보여 준다. 각박한 현대의 삶 속에서 잎싹이의 모성적 배려가 진하게 묻어나는 아름다운 삶은 우리로 하여금 가슴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숨진 엄마가 자신의 아기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차갑게 굳은 채 무릎을 꿇고 손을 바닥에 대고 있었다.



▲ **‘위대한 모성애’**
2008년 중국의 쓰촨 성 대지진 당시 엄마의 희생 덕분에 아기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누가 낳았을까? 이럴 때는 어떡하지. 어쩌면 좋아.”

잎싹은 ‘꼬꼬’ 거리며 덤불 주변을 오락가락했다. 누구의 알인지 몰라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따뜻하게 감싸 주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엄마가 올 때까지만, 그래 그때까지만이라도!”

“아직 따뜻하구나. 낳은 지 얼마 안 됐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내가 너를 품어 주마. 무서워하지 말아라.”

⋮

나는 정성껏 알을 품었고, 아기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어. 알이었을 때부터 끊임없이 사랑했단 말이야. 단 한 번도 이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의심하지 않았어. 그런데 병아리가 아니라 오리였지. 하지만 그게 뭐 어때. 아기도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는걸!

–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



중단원 갈무리

내용 정리 문제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합한 말을 각각 써 보자.

(1) □□□□에 따르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쓸모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어야 한다.

(2) 실용주의는 □□과 □□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자 한 철학적 시도이다.

(3) □□□은 이성보다 오히려 의지, 충동, 욕망, 본능 등을 인간의 본질로 삼았다.

(4)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인간을 실존하게 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밖에 없다.

(5) 여성주의 윤리는 관계와 맥락에 기초한 □□ 윤리를 또 하나의 도덕으로 제시한다.

2 키르케고르가 구분한 실존의 세 단계의 의미를 써 보자.

(1) 미적 실존:

(2) 윤리적 실존:

(3) 종교적 실존:

3 사르트르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의 의미를 서술해 보자.

4 다음의 각 주장과 관계 깊은 것을 〈보기〉에서 세 가지씩 골라 보자.

(1) 여성은 관계를 중시하고,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존중하며, 타인에 공감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강조한다.

(2) '죽음과 고통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절대 상황'

보기

㉠ 배려 윤리	㉡ 야스퍼스	㉢ 주체성
㉣ "다른 목소리로"	㉤ 길리건	㉥ '한계 상황'

5 의무 윤리와 현대 덕 윤리의 차이점을 서술해 보자.

6 〈보기〉에서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의 입장에 해당되는 것을 각각 세 가지씩 골라 보자.

보기

㉠ 관계적 자아관	㉡ 원자적 자아관	㉢ 책임과 의무 강조
㉣ 개인의 권리 강조	㉤ 상황적 · 맥락적 사고	㉥ 형식적 · 추상적 사고

인물과 고전을 말하다



사르트르와 비판적 지식인의 삶

사르트르(Sartre, J. P.)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인 동시에 소설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사회의 정치적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적 투사이자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으며, 여성주의의 큰 별이 된 보부아르의 연인이기도 하였다.

그는 서른 살이 되던 해에 “구토”라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군에 입대하였으며,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수감되기도 하였다. 수용소를 탈출해 파리로 돌아와 문학가로서의 작품 활동을 하며 여러 편의 희곡을 발표하였고, 1943년에는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인 “존재와 무”를 출간하였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라고 말한다. 자유는 신 혹은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나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어떤 정당화된 설명 없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리고 던져진 세상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만들어 나아간다.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선험적으로 결정된 어떤 의미나 본질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끊임없이 생성해 나아가는 존재이며, 이를 통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그의 실존주의적 입장이다.

한 청년이 있었다. 그의 형은 1940년 독일군이 침공했을 때 죽었다. 형의 원수를 갚고 싶지만 함께 사는 어머니가 걱정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변심과 형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었다. 어머니는 그에게서 위안을 받고 있다. 청년은 선택을 해야 했다. “어머니를 포기하느냐, 어머니 곁에 머물면서 생활을 돕느냐?” 하나는 한 개인만을 위한 행동이요, 다른 하나는 국가 전체를 위한 행동이다. 그는 두 가지 종류의 도덕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감에서 오는 도덕, 즉 한 개인에 대한 헌신이며, 또 한편으로는 더 광대하나 효과성이 의심스러운 도덕이다. 그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누가 그 선택을 도울 수 있을까? ……그 청년이 나에게 조언을 요구한다면 나는 단 하나의 대답밖에는 할 수 없다.

“당신은 자유요, 선택하시오. 다시 말하면 창조하시오. 당신이 할 바를 지시하는 어떠한 보편적인 도덕도 존재할 수 없소. 세상에는 아무런 표적도 없다오.

–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 **보부아르와 사르트르를 취재하는 기자들(1975)**
사르트르는 사회 부정의에 항의하고 시위에도 참여하는 등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사람들은 자유로우며 인간은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을 실현하는 한도 내에서만 존재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뛰어들어 자기의 모습을 그리고, 자기가 그려 낸 그 모습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고, 또 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섰던 시대의 양심이었다. 자신의 철학에 근거하여 시대의 물음에 답하고,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바로잡는 데 참여하였으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자 자신을 던졌던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삶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지식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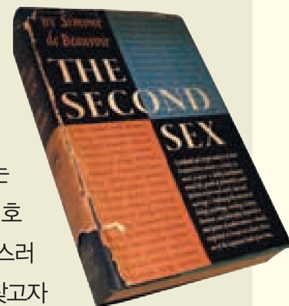
Q 사르트르를 비롯한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대중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보부아르와 "제2의 성(性)"



보부아르(Beauvoir, S.)는 대학 시절 토론 모임에서 사르트르를 만났다. 그의 영향을 받아 실존주의 철학을 익혔으며, 이를 사상과 행동의 기조로 삼았다. 두 사람은 서로가 자신의 완벽한 대화 상대라는 것을 쉽게 알았고, 당시의 부르주아적 결혼 문화를 비판하며 파격적인 계약 결혼을 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후 약 5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1949년 그녀는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이 책은 오늘날 여성주의의 고전이 되었다. 이 책은 문화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여성다움'이라는 신화의 실체를 파헤치고, 또 그것을 타파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그녀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종속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거부하면서 여성다움 때문에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여성의 본질적인 자아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 "제2의 성"

보부아르에 의하면, 기존의 문화 속에서 여성은 사춘기를 지나 결혼하여 부인이 되고, 또 어머니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육체를 남성의 그것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느끼고 남성이 만들어 놓은 여성적인 역할을 내면화해 간다. 이로 말미암아 여성은 남성 의존적이고 자유롭지 못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고 그녀는 주장하였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성(性)'이 아닌, 불완전하고 의존적인 '제2의 성'으로 교육되고 사회화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고착된 남성 중심의 문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성은 자신의 호르몬이나 신비스러운 본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과 여성 자신의 몸과의 관계보다는 타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여성이 수정되었던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청소년기의 소년과 소녀를 분리했던 굴레는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발달된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은 나중에 형성된 자신 이외의 다른 존재가 될 수 없고, 자신의 과거는 그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영향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여성의 운명이 영원히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는 것이다.

여성을 '불완전한 남성'으로 보았던 문화 속에서 보부아르는 여성이 자신의 자유와 주체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자아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에게는 직업 생활이 필요하다. '여성다움'으로부터 해방된 여성은 자기 스스로 능동적이 되고, 삶의 주도자가 되며, 남성이 자신에게 강요하는 수동성을 거부해야 한다. 남자와 똑같은 자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노동하고 창조하는 여성, 남성을 자기와 동등하게 생각하는 여성이 곧 그녀가 말하는 해방된 여성인 것이다.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다움이라는 가짜 보석을 선물했고, 여성은 그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살아 왔다. 보부아르는 그것이 가짜였음을 "제2의 성", 그리고 자신의 실존적 삶을 통해 여실히 보여 주었다.



▲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묘비

Q 여러분을 옭아매는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제시해 보자.



Ⅳ 사회사상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존재인 동시에 각자의 삶에서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율적 존재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사회사상은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고찰,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관점을 담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사상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다양한 사회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바람직한 이념적 시각의 틀을 형성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한다.



1 사회사상의 흐름

학습 목표

- 사회사상의 의미를 정의하고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사회사상을 공부하는 이유를 사회 현실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인성 함양과 사회 개선에 기여하는 사회사상의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

중단원 스케치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삶과 사회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려면 사회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개인과 집단의 관계 속에서 인성을 함양하는 데 사회사상이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자유

– 김남주 –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이다.
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중략)…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 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01 사회사상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







단원 열기

- 인간의 삶에서 사회사상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사회사상은 어떤 역할을 할까?

사회사상의 의미와 특징

사상이란 넓은 의미에서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세계와 인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이성의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사상**은 사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이성의 작용으로,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체계적인 생각이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사상은 자연 과학 분야처럼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에 의해 이론적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사회 문제에 대해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탐구를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사상은 여러 학문 분야에 담긴 생각과 의견을 수용하게 되었다.

사회사상은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로 발생하며, 사회가 번영하고 구성원이 삶에 만족할 때에는 쇠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사상은 사회 위기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로서, 사회 위기에 따라 형성과 쇠퇴, 새로운 형성 과정을 반복하며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사상은 이론과 현실 관계에 있어서 자연 과학과는 다른 복잡성을 띠고 있다. 사회사상을 자연 과학과 비교해 봄으로써 사회사상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첫째, 사회사상과 자연 과학은 탐구 대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회사상가가 연구하는 사회는 그 자체가 변화하는 속성이 있지만, 자연 과학자가 탐구하는 대상인 자연계의 원리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예컨대 중세 유럽의 봉건 사회와 근대 민족 국가, 전



▲ 자연 과학은 자연의 비밀을 밝히고 자연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 시대의 동아시아 사회와 서구적 근대화를 겪고 있는 현대 동아시아 사회 간에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뉴턴(Newton, I., 1642~1727)이 주장한 '만유인력의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연계에 작용하고 있다.

둘째, 사회사상가와 자연 과학자는 연구 목적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회사상가는 사회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에 비해 자연 과학자는 자연의 비밀을 밝히고 자연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예컨대 19세기 후반 최제우는 천주교의 침투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서 동학사상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사회사상은 변화 지향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사상가와 자연 과학자는 시각에 대한 합의 여부가 서로 다르다. 사회사상가는 같은 시대, 같은 문화권에 살더라도 동일한 사회 문제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자연 과학자는 자연계를 바라보는 기본 방법과 시각에 관해서 합의하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컨대 사회사상가들은 경제 정책에 있어 성장과 분배의 가치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 다른 시각을 갖는다.

사회사상을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사회사상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사회사상이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거나 변화시키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회사상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윤리, 사회 제도, 사회 운동 등을 통해 다양하게 구현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사상은 과거는 물론 오늘날에도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사상이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의 사회적 삶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사상을 공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 사회적 행동과 사회 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해 봄으로써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고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현실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는 이론, 사회적 행동 및 제도에 대한 청사진과 대안을 비교 · 분석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카를 마르크스는 사회적 삶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을 경제력과 사회 계급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물신주의(物神主義)**의 비합리성에 빠져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것이기도 하다.



▲ 사회사상을 공부하면 사회 전체를 보는 안목을 기르고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둘째, 사회 현실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개념, 가치와 규범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사회 문제나 위기를 발생시킨 본질적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행동과 사회 제도의 본질,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에 대한 지식 등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사회 문제나 위기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가 된다.

셋째,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진단하고 비판하며 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더 나아가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사상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사고이며, 이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상을 담고 있다.



▲ 우리가 사회사상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론적 · 실천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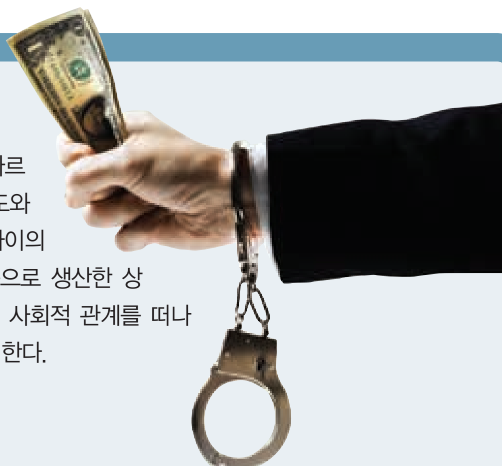
넷째,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와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선에 대한 신념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개인은 사회사상에 따라 사회의 규범적 기준을 따르며, 집단이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할 때 개인의 요구와 가치를 담아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공동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개인과 집단이 갈등할 때 사회사상은 갈등의 쟁점을 더욱 분명하게 해 주고, 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논쟁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삶에 대한 비판적이고 독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사상은 개인이 사회 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사회사상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틀을 갖출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사상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사회사상을 정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초 개념 탐구

물신주의

인간이 물질을 신격화하여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카를 마르크스(Marx, K.)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경제와 그것과 연관된 사람들의 태도와 신념을 비판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본주의 생산 체제에서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사물 간의 관계 형태를 띠게 됨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생산한 상품, 화폐, 자본 등의 물질이 마치 고유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그 배후에 있는 사회적 관계를 떠나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여겼는데,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물신주의'라고 한다.



사회사상의 현대적 의의

현대 사회에서 사회사상은 어떤 의의가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사회사상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오늘날 다양한 사회사상은 사회를 분석하는 유용한 틀로서 기능하고 있다. 우리가 비록 지식과 정보가 재화의 원천을 이루는 정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도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사회사상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세기 이후 현대 사회사상이 다루었던 대표적인 사회 문제는 사회 불평등과 비인간화 문제이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삶이나 행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며, 사회 구조나 사회 발전과도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사회사상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사상은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이 조금씩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국가의 소극적 역할이 중시되었지만 현대의 복지 자본주의에서는 평등의 가치와 분배 정의의 실현,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자본주의는 영국과 미국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비해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회사상이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각 사회마다 사회 환경과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사상은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사상이 시대나 지역에 따라 차이를 지니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사회가 지닌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함으로써 개인의 행복한 삶과 함께 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사회사상은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이상 사회의 모습과 그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 사회사상에서 제시하는 이상 사회는 비록 현실 사회에서 실현하기 어렵더라도 기존 사회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공자가 주장한 대동 사회나 플라톤이 제시한 정의로운 국가는 대표적인 이상 사회의 모습이다.

현대 사회사상 역시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과 그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스트모더니즘***은 합리성에 대한 고정 관념의 해체, 개성의 중시, 다원화 등이 존중되는 사회를 추구하며, 여성주의는 사랑, 포용, 보살핌과 같은 여성의 도덕적 · 심리학적 성향을 반영하는 배려 윤리에 주목한다. 그런가 하면 복지주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녕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지향하며, 생태주의는 인간을 생태계의 일부로 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
1960년대에 일어난 문화 운동인 동시에 정치 · 경제 · 사회 등 여러 영역과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으로, 오늘날에도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사상은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 모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에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 식량 · 자원 부족, 환경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지구촌 사회의 수많은 문제는 모든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다원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주의 등과 같은 사회사상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사상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사상이 제시하는 미래 사회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사상의 성격이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여러 사회사상이 주로 다루었던 자유와 평등, 복지, 정의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사회사상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추구되며, 사회 불평등이 해결되고, 복지와 정의 등이 실현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단테와 신곡을 논하며(Discussing the Divine Comedy with Dante, 2006)'**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구촌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103명의 인물을 묘사하고 있다.
어느 인물이, 어떤 영역에서, 무슨 영향을 끼쳤을까?



마드리드 1808년 5월 3일

자유에 대한 열망과 비정한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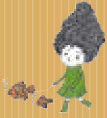


▲ 고야(Goya, F., 1746~1828), '마드리드 1808년 5월 3일－프린시페 피오 언덕에서 벌어진 총살'

이 작품은 1808년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의 침략에 맞서 저항했던 에스파냐의 이름 없는 사람들을 프랑스 군대가 처형하는 장면이다. 실제로 5월 2일 저녁부터 3일 오전 4시경까지 벌어진 끔찍한 학살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1808년 마드리드를 점령한 나폴레옹은 당시 에스파냐의 왕자였던 페르난도 7세 대신, 자신의 동생 조셉 보나파르트(Joseph Bonaparte)를 에스파냐의 왕위에 앉혔다. 이에 분노한 마드리드의 시민들은 1808년 5월 2일, 프랑스 군대에 대항하여 봉기를 일으켰다. 다음날인 5월 3일 밤에는 이 봉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프랑스 군대에 의해 총살로 희생된 사상자의 수는 수천 명에 달하였다.

프랑스 군대가 철수한 후 고야는 이와 같은 봉기와 처형 장면을 그려 자유에 대한 열망과 이를 저지하는 비정한 힘을 대비시켰다. 이 작품에서 고야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피로 물드는지를 강조한다. 이제 곧 총탄이 뚫고 지나갈 하얀 웃옷은 전쟁에 대한 반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어둡고 암울한 배경과 함께 총살당하는 희생자와 총을 겨누는 가해자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중단원 갈무리

내용 정리 문제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써 보자.**

(1) □□□□은 사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이성의 작용으로,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체계적인 생각이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사상은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로 □□하며, 사회가 번영하고 구성원이 삶에 만족할 때에는 □□하는 경향이 있다.

(3) □□□□는 인간이 물질을 신격화하여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

(4) □□□□□□□은 1960년대에 일어난 문화 운동인 동시에 사회 여러 영역과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으로, 합리성에 대한 고정 관념의 해체, 개성의 중시, 다원화 등이 존중되는 사회를 추구한다.

(5) □□□□는 인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녕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지향한다.

2 **다음은 사회사상 또는 자연 과학의 특징을 진술한 것이다. 틀린 부분을 바로잡아 보자.**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바로잡음
(1) 사회사상가가 연구하는 사회는 그 자체가 변화하는 속성을 지닌다.	○ / ×	
(2) 자연 과학자는 사회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 / ×	
(3) 자연 과학자는 자연계를 바라보는 기본 방법과 시각에 관해서 합의하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 ×	
(4) 자연 과학자는 자연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있는 자연 그대로를 연구한다.	○ / ×	

3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해 보자.**

(1) 사회사상을 공부하면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지만,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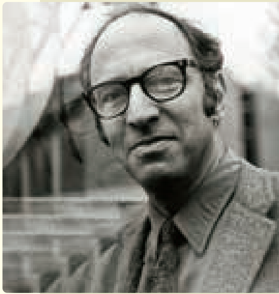
(2) 사회사상을 공부하면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진단하며 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3) 사회사상은 지역이나 시대가 다르더라도 그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4) 사회사상은 사회 구조나 발전의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개인의 삶이나 행복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인물과 고전을 말하다

토머스 쿤과 ‘패러다임(paradigm)’



인류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변화해 온 것일까, 아니면 급작스러운 혁명을 통해 변화해 온 것일까? 한 사회를 풍미한 사상이 점차 시들어 가고, 새로운 사회사상이 그 자리를 대신해 가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상의 변화를 조망하고 해석하는 유력한 관점으로 우리는 쿤(Kuhn, T. S., 1922~1996)이 제시한 ‘패러다임 이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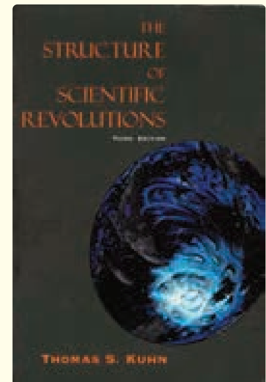
과학 철학자 쿤은 1922년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뛰어난 물리학도였다. 그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의 역학을 공부하였다. 과학의 역사에 흥미를 느꼈던 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졌던 물리학에 대한 관점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 답을 “과학 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통해 내놓았다. 이 책은 과학계의 커다란 반발과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철학, 정치, 예술, 문학 등 과학 이외의 분야에서는 열렬한 호응을 얻었고, 지금은 현대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 패러다임의 의미 |

‘패러다임’이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로, 쿤이 “과학 혁명의 구조”(1962)에서 새롭게 제시하여 널리 통용된 개념이다. 쿤은 패러다임을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 이론, 관습, 사고, 관념, 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라고 정의하였다.

쿤에 따르면, 과학사의 특정한 시기에는 언제나 개인이 아니라 전체 과학자 집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모범적인 틀이 있는데, 이 틀이 바로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이 패러다임은 전혀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연 과학 위에서 혁명적으로 생성되고 쇠퇴하며,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하게 된다.

패러다임은 과학자 집단의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신념, 가치, 기술 등을 망라한 총체적 집합을 가리킨다. ……하나의 패러다임은 과학자 집단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그 무엇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과학자 사회는 어느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 “과학 혁명의 구조”

| 패러다임의 전환 |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칙 사례들이 포착되고, 그것이 쌓이면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가 다가온다. 쿤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을 ‘과학 혁명’이라고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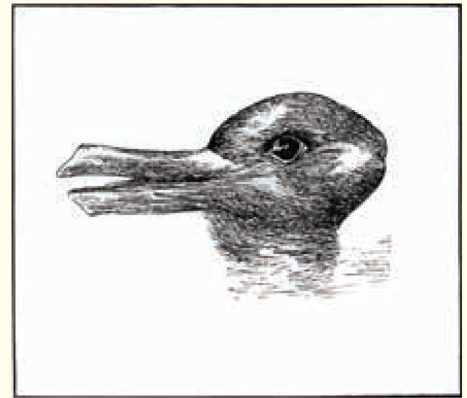
쿤은 과학 혁명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하나의 패러다임이 구성되면, 이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연구 · 탐구 활동을 하는데, 이를 ‘정상 과학(normal science)’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상 과학을 통해 일정한 성과가 누적되면 기존의 패러다임은 차츰 부정되고, 경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과학 혁명이 일어나면서 한 시대를 지배하던 패러다임은 완전히 사라지고, 경쟁 관계에 있던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패러다임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으며, 항상 생성 · 발전 · 쇠퇴 · 대체되는 과정을 되풀이하게 된다.

| 패러다임과 사회사상 |

본래 패러다임은 자연 과학에서 출발하였으나 자연 과학뿐만 아니라 각종 학문 분야로 파급되어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회 현상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한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빗대어 표현할 때 사람들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도 말한다.

자본주의가 위세를 떨치던 근대 초기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노동자들의 소외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주의가 등장하였다. 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사고의 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즉 고전적 자본주의의 틀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문제가 누적되면서 새로운 사고의 틀인 사회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정치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했던 소련의 사례는 쿤이 주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일맥상통한다.

정치 혁명은 기존의 제도가 주위 상황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를 더 이상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정치적 사회의 집단에 팽배해지면서 시작된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과학 혁명은 자연 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탐구에서 그 방법을 주도하던 기존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적절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과학자 사회에 점차 증대되면서 시작된다. 정치적 · 과학적 발전 모두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결함을 깨닫는 것은 혁명의 선행 조건이다.



▲ **오리일까, 토끼일까?**
토머스 쿤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이론 안에서 근본적인 가정의 어떤 변화를 기술하고자 사용한 것이다. 이후 이 용어는 인간의 경험에 관한 많은 학문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쿤은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동일한 정보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하는 방식을 보여 주고자 위와 같은 오리-토끼 착시 그림을 사용하였다.

새로운 사회사상의 등장은 당시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새로운 사회사상이 싹튼다. 사회사상이 당시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었음을 이해할 때 사회사상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Q **쿤에 의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변칙 사례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는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서술해 보자.**

2 개인·공동체·국가와 윤리

학습 목표

- 자율, 권리와 의무, 책임의 상호 보완성, 관용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다양한 공동체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인간관을 통해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가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 국가에 대한 의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전한 애국심 함양에 필요한 충성과 호국 정신, 청백리 정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중단원 스케치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또 모두가 각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우리가 바라는 국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01 개인과 자율







단원 열기
- 자유와 자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 나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태어나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간다. 또한 사회 구성원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구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자유로운 선택과 자율성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원하는 삶을 실현하고자 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선***을 이루고자 한다.

***공동선**
한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리킨다.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근대 서양의 **자연법사상**에서 천부 인권으로 강조되었던 자유권은 절대 왕권이나 국가의 법률 등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였다.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실현한다는 의미도 된다. 자유권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유권과 선택권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선택권을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선택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려면 자율성을 필요로 한다. **자율성**이란 외부의 영향이나 즉흥적인 충동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자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율성은 인간을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 만들며, 나아



▲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선택권을 행사한다.



▲ 칸트는 진정한 자유란 스스로 명령하고 그 명령을 스스로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자율'이라고도 하였다.

가 존엄한 존재로서 인정받게 되는 중요한 요건이다.

칸트는(Kant, I.)는 자율적인 의무를 전제로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을 제시하였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행동은 오로지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인 선의지의 산물이다. 우리가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하는 도덕 법칙을 따름으로써 도덕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행위는 타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나온 자율적인 것이다.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권이 타인의 그것과 공존하고 조화롭게 실현되려면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는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국가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공동선의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이때 국가는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특정 종교와 사상에 치우치기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자유주의 국가들은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만을 추구하는 편협한 입장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만약 국가가 지나치게 중립적 입장만을 추구하면 선택권과 관련한 개인 및 사회와의 갈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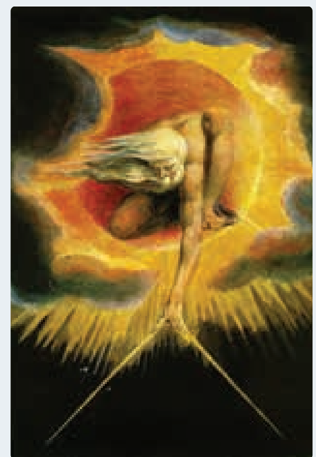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개인이 지닌 잠재 가능성의 실현을 방해하는 어떠한 체제에도 반대하는 정치적 · 철학적 관점을 의미한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전통과 가치, 공동선, 책임 등이 중요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사회사상이다.

기초 개념 탐구

자연법사상에서의 자연권

자연권(自然權)은 자연적 정의에 기초한 보편적인 권리이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다는 의미에서 '천부 인권'이라고 하며 인간이 만든 실정권(實定權)과 구별된다. 인간의 자연권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루어졌으며, 스콜라 철학에서는 자연권을 신이 인간의 본성에 부여한 권리라고 보았다. 근대에 들어 정치적 · 철학적 측면에서 자연권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홉스(Hobbes, T.)이다. 그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보고, 자연권인 자기 보존의 권리를 지키고 투쟁 상태를 극복하고자 자연법을 도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홉스의 사상은 법이 신에게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근대 정치사상의 모태가 되었다. 이후 로크(Locke, J.)는 자연권에 자기 보존의 권리 외에도 자유와 재산권을 포함시킴으로써 더욱 사회적인 권리로 재정립하였다. 이러한 로크의 사상은 자본주의에 기초한 근대 시민 사회의 성립에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부여하였고, 또 저항권을 포함시킴으로써 미국의 독립 혁명(1776)과 프랑스 혁명(1789)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자연권이나 자연법을 부정하고 실정법만이 유일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법 실증주의자도 있지만, 자연권 사상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다루는 근대 정치 이론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블레이크(Blake, W.), '태고의 날들'**
자연권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을 포함한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반드시 엄격한 **국가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권리와 의무, 권리와 책임의 상호 보완성

권리란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말하며, **의무**는 사회생활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 물리적 · 정신적 강제 및 구속을 가리킨다. 권리와 의무는 모두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누리고 지켜야 할 사회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권리와 의무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 즉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어떤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권리를 행사할 때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 반대로 권리 없이 의무만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은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며, 인간 존엄성마저 박탈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은 모두 자신의 개인적 권리 행사와 더불어 사회에 대한 의무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집단 및 사회의 공동선을 중요시하는 공동체주의를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를 추구하고, 공동체주

한 토막 이야기

칼레의 시민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 로댕(Rodin, A., 1840~1917), '칼레의 시민'

1347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백 년 전쟁 때의 일이다. 프랑스의 북부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 포위되었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칼레 시는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에게 협상을 간청하였다. 이때 영국의 왕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항복한다면 시민들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칼레에서 가장 명망 높은 6명의 시민을 골라 교수형에 쓸 밧줄을 목에 걸고 영국군 진영으로 보내라. 그러면 다른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시민들은 동요하였다. 이때 귀족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며 외쳤다. "칼레의 대표 시민이여, 나와 함께 가자. 용기를 가지고!" 곧바로 시장이 나섰고, 칼레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부자도 나왔다. 모두 귀족이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시민을 위한 희생을 자처한 이들은 담담히 왕 앞으로 나아갔다. 처형이 집행되기 직전, 영국의 왕은 이 용감한 칼레 시민 6명을 살려 주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높은 신분이나 지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를 가리킨다.



의는 공동선을 지향하며 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추구한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목적으로서의 이상적인 삶과 그 삶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 계약론과 공리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 계약론은 사회 구성원의 계약으로 성립된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적 계약에 의해 성립된 국가의 역할도 배제하지 않는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의 필요성도 강조하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이며,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행복이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서양 근대의 역사를 볼 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주의가 생겨나고, 이후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의무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권리와 의무의 유기적 연관성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탐구해 보기

다음 글을 읽고 국민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공동체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자.

오늘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관한 논쟁 가운데 가장 분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이 '국가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다. 국가의 중립성이란 사회 구성원이 서로 다른 다양한 종교적 · 도덕적 · 철학적 신념 체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편파적으로 지원하거나 장려해서는 안 되며, 또 여러 다양한 신념 체계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주의자는 국가가 중립적일 때만 국민 각자의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공동체주의자는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고 전통적인 가치가 무너지며 각 공동체의 유대가 약화되는 것은, 바로 자유주의자의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국가의 중립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본다. 국가의 중립성을 강조할 경우 국가가 시민들의 품성 교육에 관심을 쏟지 못하고, 사회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 참여적 시민들의 활동을 가로막게 되기 때문이다.



– 김영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국가의 중립성을 중심으로' –

갈등의 예방과 그 바람직한 해결 방법으로서의 관용

인간은 삶의 목적에 따라 수많은 판단과 그에 따른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자신의 자아실현 및 행복을 추구하며, 더불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며 최선을 선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립과 고통이라는 오류와 마주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사회 속의 개인은 더불어 사는 타인과의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인간관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자세이다. 그렇다면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비판적 견해나 자신의 견해와 다른 의견



▲ **황현수(1954~), '각축의 인생'(국립 현대 미술관)**
4명의 인간이 사방에서 중앙의 구(球)를 힘껏 밀고 있다. 얼핏보면 협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위를 생각하지 않고 각자의 목적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개인적 갈등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찰해 보기

☑ 개별 □ 모둠 활동

다음 글을 읽고 아래 물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



▲ 루소(Rousseau, J. J.)



▲ 벤담(Bentham, J.)



▲ 포퍼(Popper, K.)



▲ 롤스(Rawls, J.)

1. 위 사상가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주장:
- 그 이유:

2. 1번의 주장에 대한 사례를 적어 보자.


▲ 관용은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

을 폭넓게 수용하는 열린 마음인 관용이라고 할 수 있다.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견해나 사상, 행동을 인정하고 허용하며, 자신의 견해나 사상, 행동을 외적인 힘, 특히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강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느 쪽도 우월하지 않은 동등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주장을 이해하고 받아 주는 포용적인 자세를 말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올바른 의사 결정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 선입견과 편견과 같은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마음인 관용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용은 적어도 자신과 상대방이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이 지켜지며, 사회 질서와 공동선이 유지될 수 있는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관용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과장해서 평가하는 등 상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의 입장은 관용을 방관이나 허용 등으로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관용의 역설**에 빠질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다원화,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개인과 집단 및 사회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통해 공동선을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관용을 바탕으로 한 '다름'에 대한 인정과 허용의 자세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류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관용의 역설(paradox of tolerance)

관용의 역설은 두 가지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자유주의자가 해석한 역설적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의 사상가 마르쿠제(Marcuse, H., 1898~1979)가 해석한 관용의 역설이다.

……단지 반대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소극적 관용)뿐만 아니라, 관용되는 대상에 대해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적극적 관용).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용납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을 우리는 '관용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 '쾌락주의의 역설' 처럼 관용도 그 한계가 어디인지는 모르나 어느 한계선 이상으로 추구되는 관용은 악덕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것이 자유주의자가 이해하고 있는 관용의 역설적 상황이다.

이에 비해 마르쿠제가 해석하고 있는 관용의 역설은 자유주의 사회에서 관용이 어떻게 역설적 상황으로 바뀌는가를 보여 준다. 그에 의하면, 관용은 처음부터 자유의 영역과 내용을 확대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는 빨치산(partisan: 유격대)과 같은 성격을 지닌 개념이다. ……관용이 본래의 유격대적인 성격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다시 말해 관용이 자유의 확대에 기여하려면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것에 대해 불관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관용을 위해 불관용해야 한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 김용환, "관용과 열린 사회" –

02 공동체와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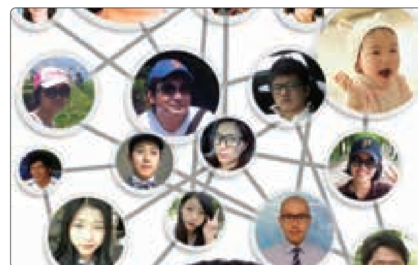

단원 열기

-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종류를 나열해 보고, 각각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해 보자.
-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개인은 자유 의지에 따라 스스로 삶의 목적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다.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이는 자신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공동체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본다. 특히 자아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갈등하는 모습을 자유주의 인간관과 공동체주의 인간관에 연결하여 살펴봄으로써 이 둘의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공동체의 정체성 및 소속감 형성 기능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또는 저 조합의 회원이다.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내게 이로운 것은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로워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빚,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는 내 삶에서 이미 결정된 사실이자 도덕의 출발점이다. 또한 내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 매킨타이어(McIntyre, A.), "덕의 상실" –

공동체는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여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한 개인은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개인은 독특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 공동체는 소속감을 통한 안정감, 구성원 간의 유대감, 일체감 등 정서적인 면을 포함하여 공동체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 개인은 이러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바람직한 역할과 삶의 목적 등을 찾아가면서 더욱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유주의적 공동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들에게 공동체란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바탕이며,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공동체를 이익의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익의 공동체**는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의해 선택되는 공동체이다. 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수단적 공동체**'라고도 하며, 그 예로 회사·동호회·정당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은 이익의 정도나 목적 달성의 여부에 따라 공동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의 공동체는 공동체가 개인의 발전과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공동체는 개인이 자아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같은 생물학적·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또 어떤 역할에 적합한지와 같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측면을 포함한다. 따라서 각 개인이 소속된 공동체의 특성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공동체는 개인이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때의 공동체를 구성적 공동체라고 한다. **구성적 공동체***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구성적 역할을 하는 공동체로, 가족과 같이 개인의 삶의 방향, 행복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를 예로 들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은 공동의 실천과 목적, 애착 등을 통해 공동의 정체성을 공유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에 의해 결속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공동체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공동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나'라는 개인은 부분적으로 공유된 실천, 전통, 공동체의 목적에 의해 구성되고, 또 나의 개체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협동적 실천, 공동의 **담론*** 등을 통하여 발전된 사회적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은 고립이 아니라 결속된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다.



***구성적 공동체**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삶의 방향, 행복 등에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는 공동체를 가리킨다.



***담론(談論)**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討論)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토론이 대립적이고 논증적이며 자기 주장적 진술이라면, 담론은 토론보다 더 넓은 일반적인 대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동체주의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공동체가 인간의 삶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사상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공동체를 우선

시하는 공동체주의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특정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며, 개인의 선택의 자유보다는 그가 속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고 본다. 개인의 취향이나 삶의 태도는 이미 그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고 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개인도 공동체의 구성원과 함께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선과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공동체 구성원과 개인적 자아의 갈등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이 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 동시에 자아실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 자아와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 간 갈등 문제를 자유주의 인간관과 공동체주의 인간관을 통해 살펴보자.

자유주의 인간관은 개인을 사회보다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의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한다. 또한 근대 이전의 종교와 신분적 질서로 말미암아 보장되지 못했

한토막 이야기

"미래 세계의 희망은 모든 활동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작고 평화롭고 협력적인 마을에 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의 책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에 나오는 구절이다. 2012년, '콘크리트 디스토피아' 서울 곳곳에서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가 한창이다. 함께 집밥을 먹고 책을 읽고 텃밭을 가꾸는 것부터, 아이를 같이 키우고 일자리를 나누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까지. 반세기 전 간디의 정신은 아직도 유효하다.

지난 3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공포한 서울시는 지난 5월 주민 주도의 35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을 공동체의 양태는 천차만별이었다. 마포구 성미산 마을, 강북구 삼각산 재미난 마을처럼 '공동 육아 공동체'로 시작해 현재는 대안 학교, 마을 카페, 밴드, 극단 등 다양한 연결망을 이루고 있는 종합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성북구 장수 마을, 은평구 산새 마을처럼 낙후된 '달동네'를 주거 재생 사업을 통해 살려 내는 사례도 있다. 아파트에서도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성북구 ○○ 아파트 단지에서는 임차인 대표자 회의를 중심으로 문화 학교, 마을 도서관 등을 준비 중이고, 송파구 △△ 아파트에서는 주부 온라인 공동체가 실제 모임으로 이어져 벼룩시장,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 뉴스, 2012. 8. 21. –


▲ 공동체주의 인간관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던 개개인의 인간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한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다양한 사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격체이다.

따라서 사회는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실현하는 장이 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인간관은 지나친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기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강조하면서 타인의 그것을 훼손하고 사회 구성원끼리 충돌하는 무질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공동체주의 인간관은 사회나 집단의 공동체적 관점에서 개인을 바라보고, 공동선과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로 파악한다. 홀로 존재하는 개인의 정체성은 무의미하며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개인의 정체성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근대 자유주의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제기된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인격과 권리, 존엄성은 개인이 사회 구성원일 때 존재하며, 공동체를 벗어난 개인의 존재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 인간관에서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하여 획일화, 단일화, **몰개성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여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기도 한다.

＊몰개성화(沒個性化)
공동체나 집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개인이 개성을 상실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향이다.

이처럼 자유주의 인간관에서 자아를 찾고 완성하는 것과 공동체주의 인간관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서로 갈등할 수도 있다.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의 노력은 자유주의 인간관의 목표이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로 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주의 인간관의 핵심이다. 내용상 이 두 가지 인간관의 입장은 상반되지만, 어느 한쪽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아를 찾는다는 것은 공동체에 유익한 일이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한다는 것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무단 횡단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갈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되는 무단 횡단은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갈등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개인이 조금이라도 빨리 길을 건너고자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사회가 지향하는 공공선을 가로막는 행위이며, 그 결과 공동선이 위협받게 된다. 공동선과 개인적 선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 법칙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개인적 선이 주관적인 가치를 지닌다면, 이는 자칫 타인에게 피해가 되거나 타인의 선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선이 타인의 선과 방향이 일치하거나 모두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개인적 선이 공동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선이 개인적 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선이 공동선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둘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공동선과 개인적 선이 조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연대***가 필요하다. 연대감, 연대 의식 등과 같은 정서적인 면과 함께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 사회, 국가와 같은 공동체

* **연대(連帶)**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것, 또는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탐구해 보기

다음 글을 읽고 아래 물음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

〈상황 1〉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많은 국가가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한 장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해마다 수천 명의 환자가 신장 이식을 기다리다 죽어 간다는 점, 자유 시장에서 신장을 거래한다면 신장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고 자기가 원하면 신장을 팔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장 거래의 허용에 찬성하는 주장은 내 몸은 내가 소유한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목숨을 구하는 행위이며, 신장은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상황 2〉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가?

역사적 부당 행위에 대한 사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앞선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현세대가 사죄할 필요가 없으며, 사죄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사죄는 부당 행위에 용서를 비는 것인데, 내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죄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전 총리가 1970년 폴란드의 홀로코스트(Holocaust,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 추모비를 방문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다.

1. 위의 두 가지 상황을 자유주의적 관점과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각각 기술해 보자.

	〈상황 1〉	〈상황 2〉
자유주의 관점		
공동체주의 관점		

2. 위의 두 상황 중 자신이 생각하는 더 타당한 관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적어 보자.



▲ 공동선과 개인적 선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연대는 개인의 삶의 목적과 공동체의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연대는 단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상황이나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공동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동선과 관련된 개인의 책임은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는 개인의 의무를 함축한다. 이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용, 민주적 절차와 소통 등도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를 이루어 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대 사회는 자유주의와 함께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개인에게 공동체 및 이에 대한 연대는 자신을 표현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 공동체에서는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공동선과 개인적 선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연대와 소속: 가족의 의무



[부모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두 아이가 익사 직전인데, 한 명밖에 구할 시간이 없다고 가정하자. 한 명은 당신의 아들이고, 한 명은 모르는 사람의 아이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이를 구하는 것이 잘못일까? 사람들은 당신의 아이를 구하는 행위가 전혀 잘못이 아니며, 만약 동전을 던져서 누구를 구할지 결정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반응의 바탕에는 부모라면 자식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자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두 노인이 있다고 가정하자. 한 사람은 내 어머니이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머니이다. 두 사람을 다 보살핀다면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자기 어머니를 돌볼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 경우 합의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나는 부모를 선택한 적도, 부모를 갖기로 선택한 적도 없으니까. 내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도덕적 책임은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는 사실에서 나온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어머니가 제공한 혜택을 받았다면,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은혜를 갚겠다고 합의한 셈이라는 것이다. 합의와 상호 이익을 따지는 이 계산은 가족의 의무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관심한 부모를 둔 자식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 나중에 부모가 되어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에게 요구할 수 있는 책임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말해야 할까? 부모 노릇을 못하더라도 자식에게 그 부모를 보살필 책임이 있다면, 그때의 도덕적 책임은 상호 이익과 합의라는 자유주의 윤리를 넘어서게 된다.



– 마이클 샌델(Sandel, M.), “정의란 무엇인가” –

03 국가와 윤리









단원 열기

-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웠을 때는 언제였는가?
- 나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국가의 발전은 개인의 생존과 자아실현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개인과 국가의 발전은 균형 있게 상호 공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국민은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특히 개인은 정치적 의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는 국민으로서 정치적 의무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건전한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충성과 호국 정신, 청백리 정신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보자.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의 도덕적 근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이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권위와 법률을 따른다는 의미이다. 현실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국가에 대한 의무에 대해 도덕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자.

첫째, **인간의 정치적 · 사회적 본성에 근거한 의무**이다. 인간을 정치적 · 사회적 동물로 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시민적 유대감과 결속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가족, 마을, 국가 공동체를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은 복잡한 현대 국가에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정치적 본성에 근거한 의무



둘째, **동의에 근거한 의무**이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약속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제약하는 것처럼, 개인은 국가의 정당한 권위와 법률에 복종하기로 자유 의

공공재 및 제도의 혜택에 근거한 의무



*공공재(公共財)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방, 경찰, 소방, 도로, 공원 등과 같은 재화(財貨)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에 따라 동의하고 승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동의를 얻은 정부가 시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정부보다 우월하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시민의 동의 행위가 정치적 의무를 반드시 산출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공공재* 및 제도의 혜택에 근거한 의무**이다. 이는 국가의 다양한 공공재와 제도의 관행에서 비롯되는 혜택은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국가의 혜택을 받는 조건이나 상황이 개인적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무 의식의 정도도 다를 수 있으며,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타산적으로 볼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넷째, **자연적 의무**이다. 이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범주만을 고려하는 의무이며, 정치적 의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의 법과 제도의 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의무이다. 예컨대 인간을 존중하고 정당하게 행동하며 잔인한 행동을 삼가는 등의 의무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의 도덕적 근거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나 법률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기도 한다.

'소극적 저항'이라고도 하는 시민 불복종은 자유의 한 부분으로, 소수자나 사회적

참고 자료

소로의 시민 불복종



소로(Thoreau, H. D., 1817~1862)는 시민 불복종의 선구자로 유명하다. 그의 저서 중 "시민의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은 그가 죽은 뒤 간디와 영국의 노동 운동가들, 마틴 루서 킹과 같은 인권 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소로는 불의한 국가 권력과 법률에 대해 불복종함으로써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폭력을 거부하면서도 폭력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지금도 전 세계인의 양심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시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집단에 양심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양심적인 집단이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은 없다.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 소로, "시민 불복종"–

약자가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모든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되려면 공공성, 공개성, 비폭력성, 양심성 등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한편, 동양 사상에서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의 정당성을 충(忠)에서 찾는다면, 시민 불복종과 관련된 사상은 맹자의 민본주의적 혁명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충과 맹자의 민본 사상은 당시에도 결코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었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현대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시민들이 '1%의 소수 부자에 대항하는 99% 시민'이라는 의미로 '99%'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자민족 · 자국가 중심주의와 건전한 애국심

민족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혈통 · 언어 · 풍습 · 역사 · 종교 · 정치 · 경제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결합한 공동체를 말한다. 하지만 민족과 **국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단일 민족 국가도 있고,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다민족 국가도 있으며, 한 민족이 여러 국가에 흩어져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단일 민족 국가에서 다민족 국가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
국가는 일정한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구성원에 대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 단체이자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포괄적인 강제 단체이다.

탐구해 보기

다음은 시민 불복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다. 물음에 답해 보자.

- 시민 불복종은 법률을 경시하게 한다.
-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인 이익보다 이기적인 이익을 우선적인 가치로 전제한다.
- 시민 불복종자 스스로 법률을 좌우하려고 한다.
- 시민 불복종은 법률에 대한 존중심의 토대를 파괴한다.
- 시민 불복종은 자기 파괴적이다.
- 합법적인 대화 통로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행해지는 불법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절차를 전복시키기 때문에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 **마틴 루서 킹**
흑인 차별 대우에 반대하여 5만의 흑인 시민이 벌인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투쟁(1955~1956)'을 이끌었다.

1. 위의 입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보자.

2.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시민 불복종 사례를 찾아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족이나 국가 내에서 구성원이 가지는 **공동체 의식**이다. 민족애와 국가 정체성은 개인의 삶과 행복이 그가 속한 민족과 국가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다는 의식과, 민족과 개인은 국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호혜적 원칙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애국심은 국가적 차원의 어려움이나 개인과 지역 사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구성원 간의 강한 결속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 수많은 주변국의 침략에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숭고한 목숨을 희생했던 선조들과,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온 국민이 나서서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고 함께 국난을 극복하려 했던 모습은 우리 민족의 민족애와 애국심이 잘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파시즘(fascism)**
1919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Mussolini, B.)가 주장한 자민족 중심의 극단적 전체주의로, 폭력적 방법으로 일당 독재를 주장하였다.

자민족이나 자국가를 중시하는 마음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민족주의는 민족을 으뜸으로 여기는 정치 이념이나 사회사상을 말한다.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주의의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다.



▲ **나치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남자**
나치 지배 아래에서 이 남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맹목적이거나 편협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원칙과 배려 없이 자기 민족과 국가만을 위한다거나, 다른 민족과 국가를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세계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다른 민족과 국가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파시즘***과 **나치즘***, **쇼비니즘*** 등과 같은 자민족 · 자국가 중심주의를 표방했던 국가들은 모두 세계 속에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나치즘(nazism)**
1930년대 독일의 히틀러(Hitler, A.)가 주장한 아리안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종 차별적 자국가 중심의 극단적 국가주의이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나 공리주의의 원칙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과 자유의 가치가 민족과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희생되거나 민족주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이 민족과 국가를 위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인권과 자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다른 민족과 국가에 보편화될 수 없는 요구를 자민족이나 자국가 안에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쇼비니즘(chauvinism)**
나폴레옹 군대에 참가하여 황제를 신과 같이 숭배하고 열광적이고 극단적인 애국심을 발휘했던 쇼뱅(프랑스 속요에 나오는 가공의 인물)이라는 군인의 이름에서 유래한 편협하고 배타적 애국주의를 말한다.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촌 사회에서 우리는 편협하거나 수단적 의미를 지닌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민족 · 자국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갖게 하는 초석이며, 모든 인류가 공존하고 발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자민족 · 자국가 중심주의의 사례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억지 주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자주권과 민족적 자긍심을 훼손하여 국가 간 분쟁의 불씨를 지피는 행위이다. 우리는 독도에 대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일본에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영토 분쟁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애국심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가치 지향적 애국심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세계 시민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올바른 애국심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세계화 시대 다문화 사회에서 자민족 · 자국가 중심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참고 자료

다문화 시대, 우리의 올바른 태도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유입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다인종 ·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와 관련된 각종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풍조와 이주민의 문화에 대한 편견으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따돌림과 학교 폭력의 표적이 되고, 어른들의 편견 또한 더해져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 피부색이나 눈동자 색, 쓰는 말과 문화가 다를 뿐, 우리와 다르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인 그들! 편견을 버리고 우리 아이에게 보내는 시선과 같이 그들을 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 문화적 다양성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1980년대를 전후로 하여 급속한 세계화가 진행되어 단일 민족 국가들이 점차 자취를 감추면서 서로 간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고자 등장하였다. 세계적으로 문화 통합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각 국가가 스스로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문화주의는 그 중요성을 갖는다.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해야 자신의 문화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을 전후로 다문화 가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혈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문화주의가 자리 잡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샐러드 볼 이론***이 지배적인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인 중심적이고 한국 문화로의 다문화를 지향하는 **용광로 이론***이 지배적인 사회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도 이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포용의 자세를 가져야만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은 개인과 집단의 창조적 사고의 원천이며,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 시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태도와 함께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샐러드 볼(salad bowl) 이론**: 샐러드 볼에 담긴 각종 과일과 채소들이 각각 특유의 맛을 내는 것처럼 각 인종들은 각자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샐러드가 색깔과 영양 면에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듯이, 각 인종들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용광로(melting pot) 이론**: 여러 민족이 가진 고유한 문화가 해당 사회의 지배적인 주류 문화 안에서 변화하고 섞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문화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 이론은 제2차 세계 대전 직전까지의 미국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당시 미국인은 세계의 민족이 미국에서 마치 용광로에서 녹아 새로워지듯, 세계인은 미국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 충성과 호국 정신, 청백리 정신의 필요성 |



자신을 포함한 사회, 나아가 국가를 위하는 마음은 과거 우리 조상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유학에서 강조하는 **충(忠)**은 '중(中)'과 '심(心)'이 결합된 글자로 '조금의 속임이나 꾸밈없이 나의 온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다. 이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이며,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가정, 사회, 국가로 그 정신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으로서 국가와 함께 번영해 나아가려면 국가에 대한 의무와 애국심, 호국 정신 등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이어 왔다는 사실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평소에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호국 정신을 바탕으로 국난을 극복하며 국가의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했음을 보여 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 '열전(列傳)'에 등장하는 충신들
고구려의 을지문덕 · 온달 · 밀우와 유유, 백제의 성충 · 흥수 · 계백, 신라의 김유신 · 사다함 · 관창 · 원술 등의 충절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역사에서 충성을 강조했던 사례는 신라 화랑도의 계율이었던 세속오계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충신들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 시대에는 절개 높았던 정몽주와 길재의 충효 정신에서, 그리고 몽고군의 침략에 대한 오랜 항전 속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조선 시대에 간행된 **"삼강행실도"***는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까지도 충효의 정신을 널리 보급하는 데 이바지하였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조헌 장군의 충의(忠義) 정신, 유정의 승병 활동 등은 조상들의 국난 극복 의지를 잘 보여 준다.



***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군신, 부자, 부부의 삼강에 모범이 될 만한 효자, 충신, 열녀의 행실을 모아 만든 책으로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가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조직하여 저항하기도 하였는데, 민군(民軍) 또는 의병 활동은 삼국 시대부터 고려와 조선, 한말에까지 그 맥이 이어졌으며 항일 독립군의 모태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조상들의 충성과 호국 정신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 준 것임을 잊지 말고 온전히 계승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개인과 국가의 발전이 균형 있게 상호 공존하려면 개인은 국가에 대해 애국심과 충성심, 호국 정신 등을 가져야 하며, 국가 및 공직자도 국민에게 민본 사상과 청백리 정신에 바탕을 둔 정치를 펼쳐 나아가야 한다. 특히 국가가 추구하는 여러 가치를 실현하려면 국민을 대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대표적인 덕목으로는 **청백리 정신***을 들 수 있다.

*** 청백리(淸白吏) 정신**
국가의 관리나 공직자가 가져야 하는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의 마음가짐을 말한다.

우리 조상들은 공사(公私)를 구분하여 공직에 있을 때 자신의 영달과 출세만을 추구하지 않고 멸사봉공(滅私奉公),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목민관***이 되어 백성들

*** 목민관(牧民官)**
백성을 다스려 가르는 벼슬아치라는 뜻으로, 고을의 원(員)이나 수령 등 지방 관리를 통틀어 말한다.

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정치를 중시하였다. 또한 사사로움 없이 공적인 일에 매진하고, 공직에서 물러나서는 청빈한 생활 태도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청백리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선 시대의 황희, 맹사성, 이원익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관직에 있거나 재상을 지내면서도 초라한 집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여 오늘날까지 청백리의 표상으로 칭송받고 있다.



▲ 황희(黃喜, 1363~1452, 좌)와 맹사성(孟思誠, 1360~1438, 우)

오늘날의 공직자는 그 직무를 국민이 위임한 것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도 공직자로 하여금 청렴과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맡은 일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공무원법에 의거해 모범 공무원을 포상하고 있다.

청렴을 바탕으로 하는 청백리 정신은 단순히 공직자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공적인 이해관계가 언제 어디서나 상충될 수 있다. 지나친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도 문제될 수 있지만, 공익만을 앞세우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과 국가 모두를 위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고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한 토막 이야기

청백리의 표상, 이원익

'오리(梧里) 대감'이라고 불렸던 이원익(李元翼, 1547~1634)은 조선 태종의 12번째 아들 익녕군의 4대손으로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영의정을 지낸 청백리의 표상이다.

다음은 청렴한 신하 이원익과 그를 아끼는 임금의 마음이 잘 드러난 일화이다.



명화 / 사진 / 영화 속
윤리 이야기

쉰들러 리스트(Schindler's List)

위대한 이성과 인간애



이 영화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자행되었던 독일군의 유대인 대학살(Holocaust)에 관해 다루고 있다. 영화 서두에서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Schindler, O., 1908~1974)는 체코 태생의 독일인이자 전형적인 사기꾼으로 묘사된다.

사업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던 그는, 유대인 회계사와 함께 군용 식기 제조 공장을 운영하였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는 다른 쉰들러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살인광인 독일 장교 아몬 괴트가 수용소의 책임자로 오면서 유대인을 표적 삼아 사격을 하는 등 잔인한 행동으로 유대인을 학살하였다. 쉰들러는 아몬 괴트와 담판을 벌여 그가 모은 모든 재산을 털어 괴트에게 뇌물로 주고 유대인들을 사들였다. 쉰들러와 회계사는 구해 낼 유대인 명단을 작성하지만, 결국 여자들을 실은 기차는 아우슈비츠로 향하게 되었다. 이들이 독가스실로 끌려들어 가기 직전, 쉰들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장과 다시 담판을 지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숨겨 두었던 금붙이를 내놓고 여자들을 구해 냈다.

> **쉰들러:** 이 아이들은 포탄 제조 공장에서 일할 거야. 이 아이들의 작은 손으로 포탄 구멍을 청소한다고! 이 작은 손이 아니면 무엇으로 청소하겠어? 어서 차에 타게 해!



이렇게 하여 쉰들러는 1,100여 명에 이르는 유대인의 목숨을 구하였다. 쉰들러 리스트는 생명부였다.

독일의 항복으로 전쟁은 끝나고, 마지막 작별 인사에서 쉰들러는 말하였다.

> 여러분은 인내와 용기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패전국 사람인 저는 도망을 가야 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승용차에 오르려던 순간, 그는 울고 말았다.

> 왜 내가 이 차를 팔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열 명의 목숨을 더 구했을 텐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 영화는 아몬 괴트와 오스카 쉰들러의 행위를 대립적으로 극명하게 보여 준다. 괴트와 그의 아래에 있던 독일군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살인에 대해 죄의식을 갖지 않았고, 모두 상부의 명령에 따를 뿐이었다. 아몬 괴트는 전쟁 후 정신병자로 가장하여 병원에 숨어 지내다가 잡혀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죽음 직전에도 "Hi, Hitler"를 외쳤다고 한다.

– 이승민 · 강안, "청소년을 위한 추천 영화" –



중단원 갈무리

내용 정리 문제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써 보자.**

(1) 자율성이란 □□ □□를 가지고 스스로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란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가리킨다.

(3) □□은 자기와 다른 견해, 사상 등을 인정하고 허용하며, 자신의 그러한 것을 외적인 힘을 이용해 강제하지 않는 것이다.

(4) 공동선과 개인적 선을 조화시키려면 반드시 □□가 필요하다.

(5) □은 '조금도 속임이나 꾸밈없이 나의 온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이다.

2 **다음과 관계 깊은 설명을 서로 연결해 보자.**

(1) 공동체주의 인간관 •

(2) 이익의 공동체 •

(3) 자유주의 인간관 •

(4) 구성적 공동체 •

• ㉠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의해 선택되는 공동체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 ㉡ 개인을 사회보다 우선시하는 개인주의 입장에서 인간을 자유와 권리를 가진 존재로 파악한다.

• ㉢ 구성적 역할을 하는 공동체로서, 개인의 삶의 방향, 행복 등에 중요한 바탕이 된다.

• ㉣ 인간을 사회나 집단의 관점에서 보고 공동선과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로 본다.

3 **가로 열쇠와 세로 열쇠의 문제를 읽고 빈칸을 채워 보자.**

①				교		
②		불		종		
		립				
		문			④	
		③자				
				⑤		

[가로 열쇠]

② '소극적 저항'이라고도 하며 국가 권력이나 법률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에 따르지 않는 것

③ 근대 서양의 □□□□□에서 천부 인권으로 자유권이 강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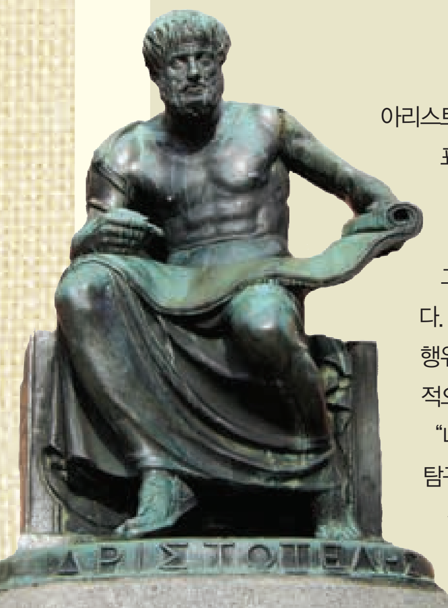
⑤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방, 경찰, 소방, 도로, 공원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

[세로 열쇠]

① 무솔리니가 주장한 자민족 중심의 극단적 전체주의

④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힘씀.

인물과 고전을 말하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그리스의 철학자로서 스승인 플라톤과 함께 고대 서양 철학의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17세 무렵부터 20년간 아카데미아에서 공부와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이곳에서 플라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의 초청을 받아 왕자였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가정교사로서 일하기도 하였다.

그는 학문을 이론적 학문, 실천적 학문, 제작에 관한 학문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론적 학문이란 지식 자체를 위해 탐구하는 학문이고, 실천적 학문은 개인의 행위나 바람직한 사회 체제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이며, 제작에 관한 학문은 실용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학문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은 개인의 행위나 바람직한 사회 체제에 관해 탐구한 실천적 학문에 속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총 8편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인과 국가의 관계, 이상 국가와 시민, 정치 질서, 정치적 이상과 교육적 원리 등을 담고 있다.



▲ "정치학" 표지

| 인간은 정치적 · 사회적 동물 |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정치적 · 사회적 동물이며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였다.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회생활을 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악한이나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 또는 짐승이나 신이 아닌 이상 어떤 인간도 공동체를 벗어나 살아갈 수 없다고 하였다.

국가는 자연의 피조물이며, 또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임이 명백하다. 더구나 우연적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국가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은 사악한 인간이거나 또는 인간을 넘어선다. ……유일하게 선과 악, 정당함과 부당함 등의 관념을 갖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며, 이런 관념을 갖는 생물들의 결합이 가족이고 국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이유가 단순히 먹고살기 위한 일용품의 공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 또는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국가와 같은 대규모 공동체는 물론, 가정이나 마을과 같은 소규모 공동체도 모두 인간의 선을 위해 존재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규모가 큰 공동체일수록 더욱더 좋고 고귀한 선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모든 국가는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다. 왜냐하면 인류는 항상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획득하고자 행동하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공동체가 어떤 선을 목표로 한다면,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상위이며 나머지 공동체들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나 정치적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보다 더 나은 선 또는 최상위의 선을 목표로 할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하는 정치 체제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체제를 나누는 두 가지 기준을 말하였다. 첫째는 통치자의 수에 따른 구분이다. 둘째는 통치의 목적에 따른 구분으로, 이는 통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따른 것이다. 이 두 기준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는 통치 체제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체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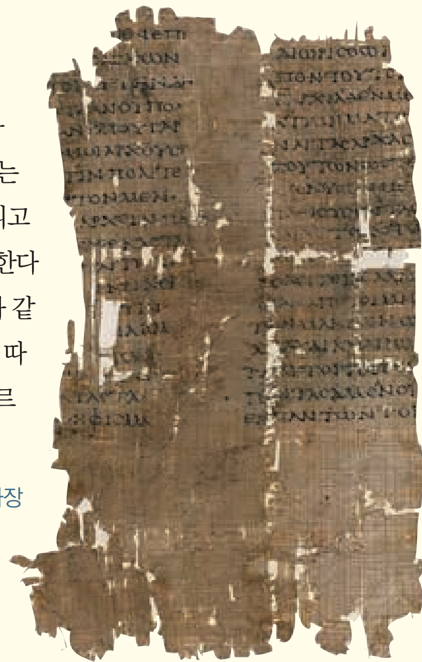
▲ **로렌체티(Lorenzetti, A., 1290?~1348?), '좋은 정부의 알레고리'(1340)**
왼편에 앉아 있는 여인은 정의를, 오른편 왕좌에 앉아 있는 왕은 공익을 상징한다. 좋은 정부는 정의를 바탕으로 공익을 추구할 때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래의 시민들도 모두 공익을 향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부의 종류와 통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왕과 시민이 모두 공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담은 이 그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과 잘 맞아 보인다.

한 사람이 통치하는 정부 형태 가운데서 공공의 이익에 관심을 가진 것을 '군주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한 사람 이상이지만 소수인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을 '귀족제'라고 부른다. 그것이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통치자들이 가장 우수한 사람이거나 그들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국가의 공익을 위해 통치할 때, 그 정부는 '폴리테이아제(혼합 정체)'라고 불린다.

국가의 목적은 모든 국민의 행복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국가는 선(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이다. 국가의 선이란 단순히 생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의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국가를 이루는 모든 국민의 선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민의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나 권력자와 같은 일부 구성원만의 복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통치하는 정부는 올바르지 못한 정부라고 지적하였다.

모든 학문과 기술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선이다. 모든 기술과 학문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것, 즉 정치학의 기술과 학문에서 목적으로 하는 선이 가장 좋은 선이다. 정치학 분야에서 선은 정의이며, 정의는 공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



▲ 파피루스(papyrus)에 쓰인 "정치학" 조각

국가의 공교육 중시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사람들이 이전보다 한층 더 평등해졌기 때문에 특별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가 전체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므로, 교육은 모두에게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것은 공적이어야 한다. 모두가 자기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보살피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도록 개별적으로 가르치는 지금의 교육처럼 개인적이어서는 안 된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훈련은 모두에게 똑같아야 한다.

– 유원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행복의 조건을 묻다" –

Q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관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3 민주주의와 정의

학습 목표

- 민주주의의 특징과 그것이 현대 민주주의에 주는 윤리적 시사점을 설명할 수 있다.
- 민주주의의 시대별 전개와 자연법적 계약 사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의론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중단원 스케치

맹자는 군주가 올바른 정치를 하면 백성이 신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민본주의적 혁명 사상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 민본주의에서 강조하는 통치자의 역량과 도덕성은 국민을 위한 정치의 조건으로,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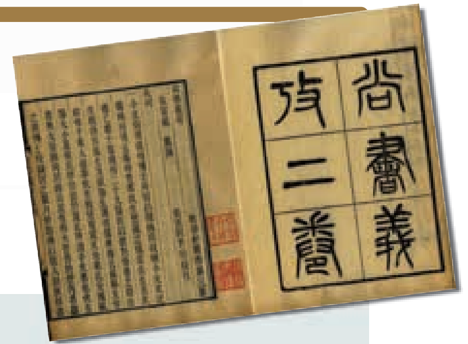
전국 시대 강력한 제후국 가운데 하나였던 제나라의 선왕은 천하 통일의 야심을 품은 사람이었다.
어느 날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01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하늘이 듣고 보는 것은 백성을 통하여 듣고 보는 것이다. 하늘이 밝히고 두렵게 하는 것 또한 백성을 통하여 밝히고 두렵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늘과 백성은 통하는 것이니,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을 공경해야 한다. 백성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 "서경(書經)" –



단원 열기

- 현대 민주주의에 민본주의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 현대 민주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오늘날 지구촌의 많은 국가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등장했던 정치 이념이나 제도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는 군주제의 전통이 오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서양에 비해 민주주의 역사가 짧다. 그러나 서양의 민주주의 이념에 상응하는 동양의 민본주의와 위민(爲民) 사상은 오랫동안 동양의 정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에 들어와 민주주의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 **고대 그리스의 민주 정치**
고대 그리스인들이 지성의 여신 아테나(중앙)의 감시 아래 조약돌로 투표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 민주주의의 쇄신과 질적 발전을 위해 동양의 민본주의와 서양의 민주주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또한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민주주의의 규범적 특성과 바람직한 시민 윤리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민본주의의 특징과 시사점

정치 이념으로서 서양에 민주주의가 있다면 동양에는 민본주의가 있다. 민본주의는 백성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정치 이념이다. **'민본(民本)'**이라는 말은 원래 **"서경"*** 에 나오는 '민유방본 본고방녕(民有邦本 本固邦寧)'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온하다.'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양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위민 사상, 즉 백성을 위하는 정치가 옳다는 정치사상이 등장하여 발전해 왔다.

민본주의의 특징으로는 도덕성, 인륜성, 호혜성, 참정과 저항의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도덕성**은 공자의 덕치(德治)에 잘 나타나 있다. 공자는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으로서 인(仁)을 강조하였는데, 인을 바탕으로 한 정치가 바로 덕치이다. 덕치는 엄격한 형벌이나 법률이 아니라 도덕과 예의로써 백성을 교화하는 정치이며, 군주가

***서경(書經)**
유가(儒家)의 오경(五經) 중 하나로서 58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서(尙書)"라고도 한다.

백성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 자연스럽게 백성이 군주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정치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덕치를 실현하려면 왕이나 군주가 높은 도덕성과 군자다운 인격을 갖추고서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기이안백성***은 덕치의 중요한 근본이 되며, 민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수기이안백성(修己以安百姓)**
"논어(論語)", '헌문(憲問) 편'에 나오는 말로, 군주가 군자(君子)다운 인격을 갖춘 뒤에야 백성이 편안하다는 말이다.

둘째, **인륜*성**을 들 수 있다. 유학의 국가관은 가족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가정에서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곧 사회나 국가에서 해야 할 도리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며, 가정의 확대된 모습을 국가로 보는 입장이다. 가정에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형제자매 간에 우애를 다지는 바탕이 되며,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회적 신의라고 하는 도리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민본 사상은 국가를 가족 공동체가 확장된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가족을 보살피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민본주의 이념은 인륜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인륜(人倫)**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가리킨다.

셋째, **호혜성***을 제시할 수 있다. 공자는 정명(正名) 사상을 통해 직분과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곧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중시했음을 의미한다. 직분에 충실함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도리란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이는 **서(恕)**의 자세를 바탕으로 한다. 서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타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호혜적 의미를 담고 있다. 백성이 존재함으로써 군주가 될 수 있고 덕 있는 군주에 의해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호혜성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민본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호혜성(互惠性)**
상대방에게 서로 이로움과 혜택을 주는 성향을 가리킨다.


▲ 서(恕)는 "내 마음[心]과 같이[如] 한다." 즉 "내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친다."는 뜻이다.

넷째, **참정과 저항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공자의 덕치는 "민심(民心)이 곧 천심(天心)이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백성의 뜻, 즉 민의(民意)가 반영되는 정치이다. 만약 군주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정치를 한다면, 군주는 백성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또한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가 그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라는 맹자의 주장에서 우리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군주도 바꿀 수 있다는 역성혁명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실학자 정약용이 **탕론**에서 민의를 저버린 걸왕(桀王)을 왕위에서 내쫓았던 탕왕(湯王)의 역성혁명을 지지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동양의 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있다. 우선 민본주의는 정치의 주체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군주가 백성을 정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전통적인 군주제의 모습이다. 동양의 전통 사회에서도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가 있었지

만 엄격한 신분제로 말미암아 백성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그들의 뜻을 직접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군주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사회를 정당화하는 혁명론도 단지 고문서(古文書)에서나 볼 수 있는 경고 정도로 여겨졌을 뿐 상당히 제한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양의 민본주의가 현대 민주주의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첫째, 민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인간을 위한 정치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은 모든 인간을 위하는 것이고, 정치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민본주의는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를 전제하며, 백성을 정치의 자율적 주체가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 한계가 있다.

둘째, 민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정치적 정당성을 각각 백성과 국민에게서 찾는다는 것이다. 백성과 국민이 존재할 때 국가가 존재하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언제나 백성과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셋째, 백성과 국민을 위하는 정치, 즉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사회 복지를 추구하는 정치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이상을 추구하는 사회가 민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의 참모습인 것이다.

참고 자료

정약용의 탕론(湯論)

정약용은 맹자의 역성혁명론을 발전시킨 탕론(湯論)을 통해 고대 중국 탕왕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민의(民意)에 반하는 통치자는 언제라도 추방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민주론을 펼쳤다. 이와 같은 정약용의 주장은 그의 실학적 태도가 정치 인식에 반영된 것이지만, 세습 권력의 기반이 공고했던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탕왕은 걸왕이 주색에 빠져 백성을 돌보지 않자 왕위에서 쫓아냈으니, 과연 옳은 일인가? 신하가 임금을 친 것이 옳은 일인가? 이는 옛 도를 따른 것이요, 탕왕이 처음 한 일이 아니다. …… 무릇 천자(天子)의 지위는 어떻게 해서 갖게 되는 것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자가 되었단 말인가?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 천자가 되었단 말인가? …… 여러 현장(縣長)들이 추대한 사람이 제후(諸侯)가 되는 것이요, 제후들이 추대한 사람이 천자가 되는 것이니, 무릇 천자란 여러 사람이 추대해서 된 것이다. ……5가(五家)에 불협화음이 있다면 5가가 의논하여 인장(隣長)을 바꿀 수 있고, 5린(五隣)이 화합하지 못하면 25가가 의논하여 이장(里長)을 바꿀 수 있고, **구후팔백***이 화합을 못하면 구후팔백이 의논하여 천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구후팔백이 천자를 바꾸는 것은 5가가 인장을 바꾸고 25가가 이장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어느 누가 신하가 임금을 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걸왕과 탕왕

***구후팔백(九侯八伯)**: 후는 제왕의 밑에 예속된 소국의 군주이며, 백은 제왕의 밑에서 몇몇 지역으로 나누어서 군소 제후들을 감독하는 사람이다. 결국 구후팔백은 여러 제후와 백을 통칭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동양의 민본주의는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민본주의의 특성인 도덕성, 인륜성, 호혜성, 참정과 저항의 가능성은 정치인과 공직자, 더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국민을 위하는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준다. 또한 앞으로 민주주의가 더욱 확고한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으려면 민본과 위민에 바탕을 둔 정치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자연법적 계약 사상과 근 · 현대 민주주의와의 관계 |

민주주의(democracy)는 '민중(demos)'과 '지배(kratos)'의 합성어로,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를 가리킨다. 현대 민주주의는 근대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발전하였지만 최초의 민주주의 정치 형태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와 다른 모습이었다. 산과 자연을 경계로 형성된 도시들의 연합이었던 아테네는 왕정에서 시작하여 귀족정, 참주정을 거쳐 민주 정치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당시 주변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정치 형태였다. 아테네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 시민만으로 구성된 민회가 중요 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시행하였으며,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500인의 평의회와 시민 배심원은 30세 이상의 남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하였다. 그러나 여성, 외국인, 노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민주적 개혁으로 시작된 **도편 추방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력한 정치가를 추방하기 위한 정쟁(政爭)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도편 추방제(ostracism)**
아테네에서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고자 비밀 투표로 조개껍데기나 도자기 조각에 기피 인물을 적어 6천 표 이상 득표한 자를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던 제도이다.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주권을 행사할 때, 그 이념과 목적을 바르게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 사회에서는 신분제나 사회 특권층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를 바르게 실현하기 어려웠으며, 당시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시민 의식과 정치 참여 의식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근대 민주주의는 **자연법적 계약 사상***에 기초하여 발전하였다. 자연법적 계약 사상은 로크의 사회 계약론에 잘 나타나 있다. 로크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이 부여한 권리와 자유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지만, 더욱더 안전한 자유와 복지를 보장받고자 구성원이 합의하여 사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를 구

***자연법적 계약 사상**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법에 따라 자연권을 가지고, 이러한 자연권을 가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권리와 평화, 안녕을 위해 계약을 맺어 정치 공동체, 즉 국가를 형성한다는 국가 이론이다.

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로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론을 바탕으로 하는 **입헌 군주제**를 제시하였다. 이후 로크의 사회 계약론은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으며, 현대 자유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자연법적 계약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각 개인으로 하여금 인간이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 인권을 자각하게 하고, 국민에 대해서도 책임과 의무 의식을 제고하게 하며, 정치 공동체인 국가에는 인간 존엄성을 바



▲ 로크의 정치 철학은 영국을 넘어 미국 독립 혁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탐구해 보기

홉스, 로크, 루소가 주장한 사회 계약론의 차이점을 각각 비교해 보자.

사회 계약론은 주장한 사상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영향을 미쳐 근대 시민 사회의 발전에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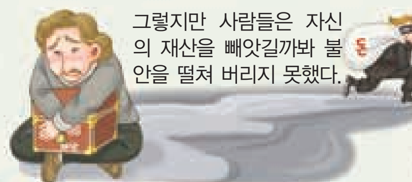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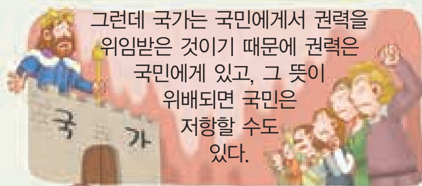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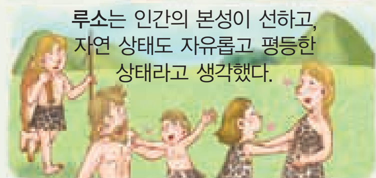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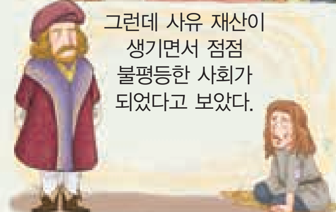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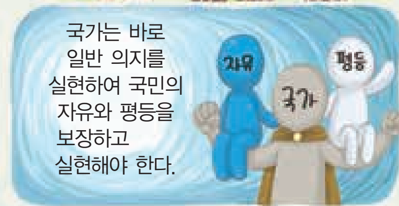












*일반 의지: 이 책 287쪽 참고

탕으로 공동선의 실현과 개인의 행복에 도움을 주는 이상적인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질적 변화를 요구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사회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존속하고 더욱더 발전해 나아가려면 국민은 국가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주체적으로 행사하는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 현대 민주주의의 규범적 특성과 시민 윤리 |



▲ 대의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는 특성에 따라 대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대의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가 대표성을 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며 정치 활동을 하는 민주주의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거대하고 복잡한 현대 국가에서 간접 민주주의 방식인 대의 정치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선출된 대표자가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만약 대표자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대표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다수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계층 간의 불화를 초래하고 소수의 의견과 권리를 무시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대표자와 국민의 의사가 다를 수 있으며, 나아가 소수의 대표자가 국정을 좌우할 수 있다.



▲ 참여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란 시민 다수가 의사 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즉 대표자의 선출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 시민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직접 참여하여 행정의 일탈 행위를 감시하는 등 국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동등한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정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질을 더욱 높이는 것 또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는 국민 스스로 자신이 국가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실현해 나아갈 수 있다.

절차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중시한다는 것은 절차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국민이 민주적 제도 안에서 공정한 의결을 거치고 합의를 이루었다면, 그 합의를 따르는 것이 절차적 공정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절

차 민주주의가 민주적 제도 안에서 그 기능을 다하려면 다수의 합의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예컨대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가 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선거 자체를 부정하거나 자신이 속한 단체의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도나 절차를 무시하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절차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태도이다.



▲ 전자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란 사회적 쟁점에 대한 토론과 심의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여 논의함으로써 개인의 선호를 적절하게 반영하며, 더 나아가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심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국민이 정치에 대해 신뢰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민주주의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관용과 이해, 수용, 합의 등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자 민주주의**가 등장하여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과 실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전자 민주주의란 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아가는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아고라***의 부활로 불리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확대, 정보의 독점과 왜곡 방지, 나아가 복지의 실현과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 민주주의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론 조작, **이미지 정치***,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 현대 사회에 **판옵티콘***이 재현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아고라(agora)**
직접 민주 정치를 했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광장을 가리킨다.



▲ 영화 '아고라'의 한 장면

***이미지 정치**
정책적 전망이나 능력보다 미디어로 전달되는 정치인의 성격, 용모, 말씨나 정당의 이미지가 더 큰 힘을 갖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특성을 보여 왔다. 우리가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치적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해 가려면 현대 민주주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시민 윤리를 확립해 나아가야 한다. 민주 시민의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의 정치적 신뢰와 소속감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 냄으로써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판옵티콘(panopticon)**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볼 수 있지만, 피감시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으므로 항구적인 감시 효과를 가져오는 원형 감옥을 말한다.

02 사회 정의







단원 열기

- 사회 정의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왜 그러한 생각을 하였는가?
-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면 사회 구성원의 의식, 제도, 법률 등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까?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사회 정의는 사회적 협력 과정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정의의 원칙은 사회 구성원이 이익을 둘러싼 다툼이 있을 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회 정의의 원칙은 시대와 사회 상황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권리의 충돌을 공정하게 해결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적 · 정치적 행위에 방향과 정치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사회를 결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사회 정의의 원칙에 대한 이론은 정의의 개념이 무엇이냐에 따라 크게 공정으로서의 정의, 권리로서의 정의,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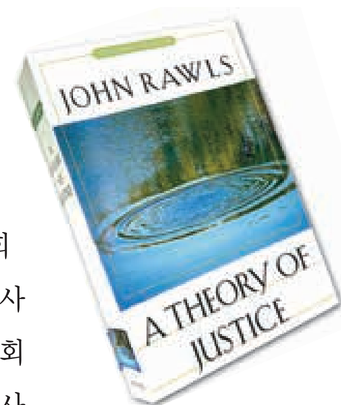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Justitia)'



정의는 사회생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규칙을 정할 때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지를 말해 준다. 정의에는 권위와 힘이 있어야 사회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권위와 힘이 있으려면 정의는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치아는 불편부당성을 지키고자 두 눈을 가리고 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힘이 세든 약하든 규칙을 적용받는 모든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규칙에 의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의의 여신은 각자의 정당한 몫을 각자에게 정확하게 배분하고자 왼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오른손에는 남의 것을 침범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응징하는 칼을 들고 있다. 정의의 원칙은 저울과 칼의 역할을 한다.

– 오트프리트 회페(Hoffe, O.), "정의" –

각의 정의론은 정의로운 사회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지만 서로를 보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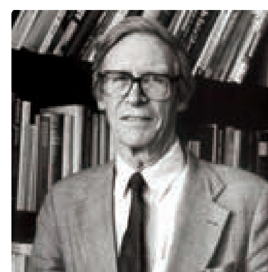


▲ 롤스의 대표적 저서, "정의론"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은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본 원칙과 정의로운 사회가 갖추어야 할 사회 제도를 제시한다. 헌법, 사유 재산제, 시장 경제 등과 같은 사회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배분, 부 · 소득 · 기회 · 권력 등과 같은 사회적 이익과 부담의 적절한 배분 방식을 결정한다. 또한 구성원 각자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과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끼어들지 않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복지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회적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 롤스(Rawls, J., 1921~2002) "정의론"(1971)에서 공리주의를 대신할 실질적인 사회 정의 원리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을 전개하였다.

롤스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 · 도출될 것으로 가정한다.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장막**을 쓴 사회 구성원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와 합의된 정의의 원칙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모른다. 무지의 장막은 정의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끼어들지 못하게 해 주는 장치에 해당한다.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장막에 가려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기초 개념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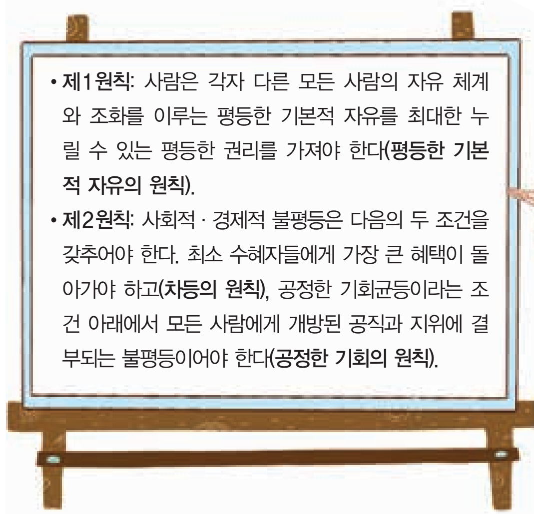
원초적 상황과 무지의 장막

롤스는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상 상태를 '원초적 상황'이라고 부르며, 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무지의 장막'을 쓰고 있는 상태로 가정하였다.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원초적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불공정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정신적 · 신체적 능력, 성격, 가치관 등에 대해 무지하며, 서로에게 무관심한 존재로 가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수정하며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기본 가치, 즉 여러 가지 자유, 기회, 권력, 소득, 부, 자존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과 상대에 대한 정보를 모르며 서로에게 무관심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존재이다.

롤스는 참가자들이 무지의 장막으로 자신의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면, 그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 비해 더 공정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서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허용한다는 원칙이다. 제2원칙은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과 연관되며,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제1원칙은 제2원칙에 우선하고, 공정한 기회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예컨대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고자 기본적 자유를 희생시키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의 취업을 위해 고용의 기회균등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기본적 자유와 권리, 즉 표현 · 종교 · 결사 · 직업의 자유 등을 부여해야 한다. 만약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한다면 의사 결정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즉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자본주의 사회의 분배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 수혜자**
부와 명예, 자유와 자존감 등 사회적 기본 가치를 가장 적게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은 사회 구성원이 기본 가치를 불평등하게 소유하는 독점에서 사회 부정의가 발생한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국가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고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부여하여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은 차등의 원칙을 통해 복지 국가의 이념을 다지는 데 크게 이

참고 자료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 피자를 나누는 가장 정의로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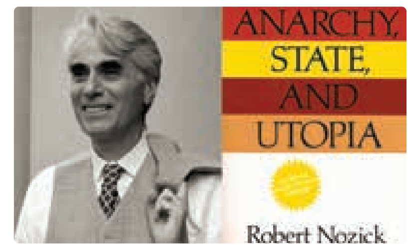
롤스는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직접 답하기보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로운 것이라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내세웠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르지 않은 피자를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적게 먹을 생각이 없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가장 정의로운 분배는 피자를 자르는 사람이 맨 마지막 조각을 먹도록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만약 피자를 자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큰 조각을 먹고 싶어 크게 잘라 놓으면, 그 큰 조각이 자신에게 돌아갈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균등하게 자르려고 노력할 것이다. 즉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이 없지만 공정하고 바른 절차가 있는 경우이다. 이 절차를 제대로 따른다면, 그 이후의 결과 내용과는 무관하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지하였다. 그러나 정의의 원칙이 분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본 가치이므로 어떤 사회의 특정 가치를 분배하는 데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기본 가치가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시되지만, 구성원들이 더 좋은 삶을 위해 기본 가치를 활용하는 능력에는 무관심하다. 예컨대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이 동일한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은 다르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동을 위해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정의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의로운 제도가 구현되도록 하는 윤리적 실천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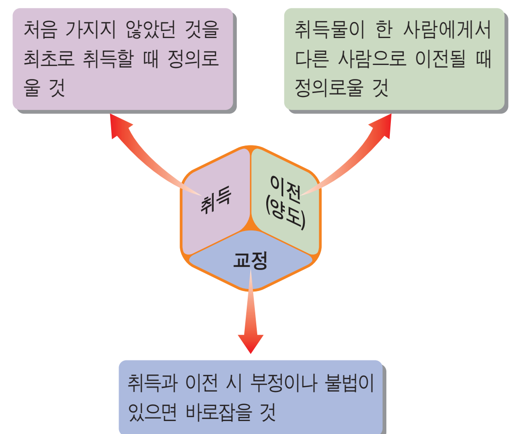
| 권리로서의 정의 |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이 정의로운 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룬다면, **권리로서의 정의론**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의 차등 원칙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유 선택을 분배의 원칙으로서 중시한다. 권리로서의 정의론에서 주된 관심을 갖는 것은 소유권의 분배 문제이다. 모든 개인에게 권리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직은 정의를 각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노직(Nozick, R., 1938~2002)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소유가 돌아가는 것을 정의로 보았으며,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등을 저술하였다.

정의는 모든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할 때 실현된다. 재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는 방식은 **최초의 취득, 자발적 이전(양도), 교정** 세 가지이다.



사회 구성원 각자는 최초로 어떤 것을 취득할 때 타인에게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 소유물을 취득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다. 또한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를 포함하여 타인에 의해 정의롭게 이전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다. 그리고 소유권의 취득과 양도 시 과오가 있거나 절차가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교정이다. 따라서 취득과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와 함께 부정의에 대한 교정도 요구된다.

재화는 개인의 노력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을 통해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자연세계에서 능력과 노력을 결합하여 재화를 창출하고 소유한다. 소유권은 자기 자신이

생산한 재화까지 포함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정당한 소유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교환에 의해 발생한 분배 결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권리로서의 정의론은 사람들의 소유권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고 국가는 재화를 재분배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 각 개인은 자신의 소유물을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줄 수 있지만, 공정한 분배라는 명분으로 자원의 분배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국가가 개인의 소유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주도록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분리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권리로서의 정의론에 의하면, 국가가 자원을 강제로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타인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한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국가의 강제가 아닌 개인의 자발적 결정에 따

***개인의 분리성**
각 개인은 자신의 재능과 특성을 지닌 존재로서 자발적 동의 없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탐구해 보기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2005년 12월에 제정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친일파 소유의 토지 약 1300만m^2를 국가에 귀속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그 후손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1년 3월 헌법 재판소는 친일 재산 귀속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헌법 재판소의 해당 사안 판례에서 뽑은 청구인들의 주요 주장이다.

(가) 같은 법의 조항들은 이 사건 조사 위원회가 친일 재산으로 결정한 재산을 그 취득 · 증여 등의 원인 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자들에게서 소급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같은 법의 조항들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 즉 친일파 후손들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 '정의', '민족의 정기' 등을 구현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과잉 금지 원칙상 수단의 적절성 원칙***에 반한다.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과잉 금지 원칙상 수단의 적절성 원칙**: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작용이 준수해야 할 헌법의 원칙, 또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작용의 목적이 정당해도 기본권 제한의 수단이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만 한다는 원칙이다.

1. 권리로서의 정의의 관점에 기초하여 (가)의 주장을 반박하는 판결문을 작성해 보자.
2.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자.

라야 하므로 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권리로서의 정의론은 분배 불평등을 해소하는 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시될 수 있는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권리를 잘 보호하는 데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재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개인을 목적으로서 대우하고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윤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에 기초한 재분배는 소유권 침해, 계층 갈등 유발 등 강제적 재분배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개인이 자신의 자질과 재화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여 자본주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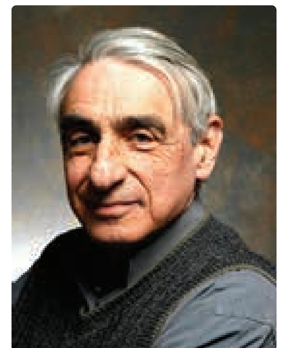
그러나 기본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한 재분배는 부정의를 교정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국가가 부패해 있다면 자발적 기부는 부패 때문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 최소 수혜자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권리로서의 정의론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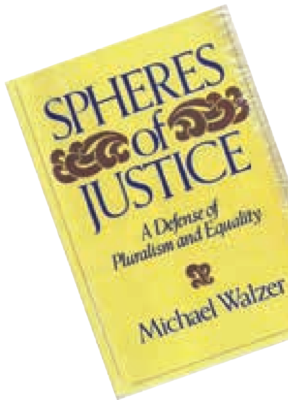
공정으로서의 정의론과 권리로서의 정의론이 단일한 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정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과는 달리,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론**은 모든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하나의 정의 원칙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칙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의 제도와 관습의 자율성 및 순수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정의의 원리인 평등은 사회적 가치의 다원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분배 기준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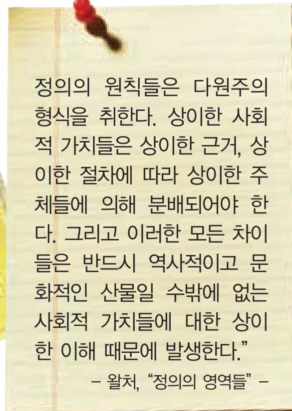
왈처는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는 재화마다 각기 다른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다수의 정의 원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실 사회는 다양한 삶의 영역, 즉 다양한 정의의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각 영역마다 각기 다른 가치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의미에 따라 각기 다른 원칙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이 기본 가치를 분배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과 달리,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론은 사회적 가치를 분배의 대상으로 다룬다.

정의의 각 영역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경계가 존재하므로 어떤 가치도 다른 가치에 의해서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부(富)는 공직이나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의 각 영역의 경계가 안정적으로 보호되어 자율성을 지닐 때에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수 없다.



▲ 왈처(Walzer, M., 1935~)
현대 사회에서 가치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다원주의와 평등에 대한 옹호론을 전개하였으며, "정의의 영역들(Spheres of Justice)" 등을 저술하였다.




"정의의 원칙들은 다원주의 형식을 취한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 상이한 절차에 따라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차이들은 반드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산물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상이한 이해 때문에 발생한다."
– 왈처, "정의의 영역들" –

그러므로 정의의 각 영역이 가지는 자율성은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실 사회에서 정의 영역의 경계를 보호하는 것은 **정치권력**이다. 그런데 정치권력은 그 자체가 모든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시민 사회는 정치권력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견제해야 한다.

사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하나의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같은 경우에는 같게,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면 사회적 삶의 각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를 확인하여 해당 가치에 적합한 분배 원칙을 적용하고, 어떤 영역의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 다른 영역의 가치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지배** 현상이 나타나고 사회 부정의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 정의는 지배를 축소할 때 실현될 수 있다.

왈처는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다원적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일원성이 아니라 다원성을,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을 중시함으로써 다원적인 차원의 평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론은 복잡한 영역 간의 구분이 어렵고, 영역별로 적용되는 정의의 기준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기초 개념 탐구

왈처의 지배(dominance)와 독점(monopoly)의 의미

왈처는 부정의를 독점과 지배로 정의하였다. 독점과 지배는 특정 지배자나 독점자의 권익만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다양한 의견과 권익을 배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억압의 근원이 된다고 보았다.

[지배]
- 뜻: 사회적 가치들이 사용되는 방식에 초점을 두며, 어떤 영역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다른 영역의 사회적 가치를 잠식하는 것이다.
- 예: 경제 영역의 고유한 가치인 부는 경제 영역에, 정치 영역의 고유 가치인 권력은 정치에 머물러야 하므로, 경제 활동에서 성공한 사람이 정치권력까지 장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봄.

[독점]
- 뜻: 사회적 가치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며,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 일부가 배타적으로 소유하여 그 결과 구성원 사이에 불평등과 부정의가 초래된다.
- 예: 사회적 가치(경제적 부)가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만 집중적으로 축적되는 현상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론은 연고주의와 획일적인 가치에 지배되어 온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물질주의와 권력 지상주의에 지배되고 돈과 권력의 유착이 나타나는 사회에서 진정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가치의 다원성을 인식하고, 사회 각 영역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과 자세

시장 경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사회 구성원이 협력하여 나타난 결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경제가 번영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사회 정의의 가치가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사회 구성원은 정의를 사회에서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윤리적 가치로 생각하며, 정의를 우선시하는 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교육 기회, 취업 · 승진, 학벌, 계층 간의 이동 가능성 면에서 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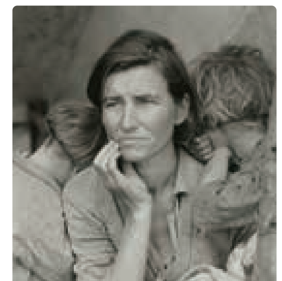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면 개인과 국가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먼저, 공동체의 몫을 개인의 몫으로 취하지 않는 사회 윤리가 형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주택과 토지의 독과점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의한 행위이다. 주택과 토지를 소수가 독과점하면 계층 간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이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다.



▲ 해태상
해태는 정의를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해태는 옳고 그름과 굽고 곧은 것을 판별할 줄 알아서, 재판을 할 때 놓아두면 사악하거나 부정한 자에게 가서 뿔로 들이받고 물어뜯어 부정을 가려냈다고 한다.

다음으로,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재능, 부, 지위 등을 사회적 자산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 구성원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부 운동은 개인이 사회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할 수 있게 한다.

국가는 사회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회 정의의 실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언제나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제도의 절차적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이 교육, 취업 · 승진 등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학벌에 근거한 차별을 해소하고 계층 간의 이동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정치, 경제 영역에서의 권력이 다른 영역의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 사회와 협력함으로써 사회 제도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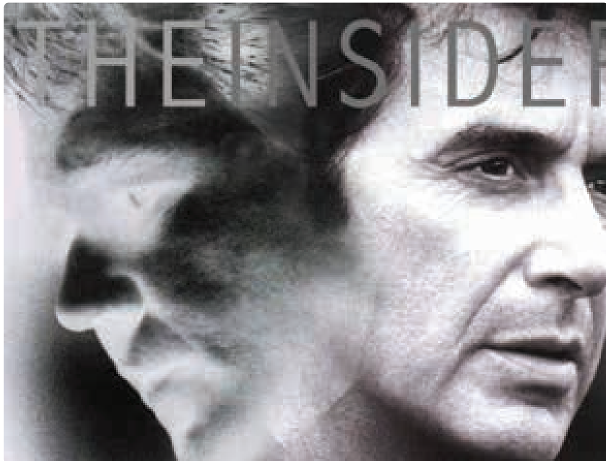


▲ 도르시어 랭(Lange, D., 1895~1965), '떠돌이 엄마'
주로 빈민층을 찍은 랭의 다큐멘터리 사진은 많은 사람에게 '사회 정의'의 문제를 환기시켰다.

명화 / 사진 / **영화** 속
윤리 이야기

인사이더(The Insider)

내부 고발자 문제와 사회 정의



내부 고발자란 공익을 위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문제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 '인사이더'를 통해 내부 고발자와 정의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미국 굴지의 담배 회사에서 해고된 한 중역이 미국 최고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인 '60분'에 출연하여 담배 회사가 엄청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그 중역은 담배의 폐해, 니코틴의 해악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화학자 겸 연구 개발자 출신이다.

담배 회사는 소송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여 그를 협박하지만 그는 방송 제작에 참여한다. 그러자 회사는 녹화된 인터뷰 방송을 막으려고 방송사에 압력을 넣는다. 60분의 담당 프로듀서는 이를 언론사에 흘리고 담배 회사는 소송에서 패해 2000억 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된다.



미국에서 담배 회사와 흡연자 간 소송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1990년대 들어서야 흡연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겨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 냈다. 미국 내 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폐암으로 숨진 미국인 제시 윌리엄스 유족이 지난 1997년 한 담배 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해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이다. 유족은 10년간의 공방 끝에 수천 억의 배상금을 받아 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담배 피해와 관련해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99년 12월 흡연 피해자 31명을 대리해 몇몇의 변호사 등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7년 1심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폐암이 흡연으로 발생했음을 확증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였다. 다만 담배 회사가 담배를 제조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비록 소송에서 패했지만 앞으로 미국에서처럼 인사이더가 나타난다면 유사한 소송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이다.



중단원 갈무리

내용 정리 문제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써 보자.**

(1) □□이라는 말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온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2) 자연법적 □□ 사상이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권리와 평화, 안녕을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한다는 사상이다.

(3) □□□의 부활로 불리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확대, 정보의 독점과 왜곡 방지, 나아가 복지의 실현과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 민주주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4) □□ □□는 사회적 협력 과정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5) 롤스는 가장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 □□이라고 부르며, 이를 합의 절차의 참가자들이 □□의 □□을 쓰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6) 롤스는 만약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한다면 모든 사람, 특히 사회의 □□ □□□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보았다.

(7) 노직에 의하면, 재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는 방식은 최초의 □□, 자발적 이전(양도), □□의 세 가지이다.

(8) □□는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는 재화마다 각기 다른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다수의 정의의 원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2 **다음 〈보기〉와 관련된 민본주의의 특징을 찾아 표기해 보자.**

보기			
㉠ 도덕성	㉡ 인륜성	㉢ 호혜성	㉣ 참정과 저항의 가능성

(1) 공자의 덕치(德治)에 잘 나타나 있으며, 덕치는 인(仁)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이다.

(2) 만약 군주가 민의(民意)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를 한다면, 백성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3)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4) 가정의 확대된 개념으로 국가를 바라보고, 가정에서 해야 할 도리는 곧 사회나 국가에서 해야 할 도리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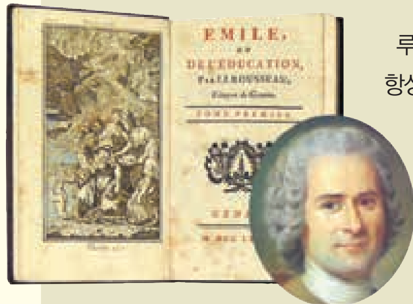
3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아래의 밑줄 친 부분에 이어질 진술을 써 보자.**

> 정의의 1차적인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 즉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장막' 속에서 선택된다. 그럼으로써 보장되는 것은 ______________________

인물과 고전을 말하다

루소와 “에밀”, “사회 계약론”



▲ 루소는 “에밀”에서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조언하였다.

루소(Rousseau, J. J., 1712~1778)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나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를 항상 그리워하며 살았다.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하며 성실했던 루소는 아버지와의 갑작스러운 별거와 아버지의 재혼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방황하기 시작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은 그가 죽은 후 발간된 “고백록”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루소는 “에밀”이라는 교육서를 출간함으로써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프랑스 교육의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자신의 다섯 아이를 모두 고아원에 맡기는 모순된 삶을 살기도 하였다.

루소는 “사회 계약론”에서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사회 계약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고 시민적 신분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인간이 사회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해 준다. 그는 사회 질서를 신성한 권리로 보아 다른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룬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 권리는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기초한 것이다. 루소는 근대 철학, 교육, 정치사상 등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 “사회 계약론”

“에밀” | 교육 성장 소설

“에밀”(1762)은 루소가 20년간의 성찰과 3년의 집필 끝에 이루어 낸 역작이다. 그는 이 책에서 ‘에밀’이라는 가상의 학생을 등장시켜 자연주의 교육론을 내세웠다. 소설 속에서 에밀은 태어날 때부터 루소가 경멸하는 대도시의 해로운 사회 풍속과 완전히 떨어져 자연을 벗 삼아 성장한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규칙 외에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면서도 15년간 에밀의 곁을 떠나지 않은 선생님은 지시하지 않으면서도 지도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한다. 학생 중심의 발견 학습과 인성 교육을 하는 셈이다. “에밀”은 2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육체의 단련, 심신의 조화, 강제보다는 자율에 바탕을 둔 교육을 지향하는 혁신적인 교육서로 평가받고 있다.



신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였으나 인간의 간섭으로 악하게 되었다. 인간은 어떤 땅에 다른 땅의 산물을 낳으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다른 나무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 나무에게 강요한다. ……편견이나 권위, 필요와 같은 것은 우리의 본성을 억제하여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살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그 본성은 길에 난 묘목처럼 사람에게 짓밟히고 꺾이어 이내 시들어 버린다. ……식물은 지배로써, 인간은 교육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의 위대한 능력도 그 사용 방법을 모르면 쓸모가 없다.

“사회 계약론” | 루소의 민주적 이상 사회

루소는 “사회 계약론”(1762)에서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조직체로서 국가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신이 스스로 만든 법에 복종하는 것은 구속이 아닌 권리이고, 법은 일반 의지의 행위이면서 실제 사회적 결합의 계약 조건일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루소가 주장하는 민주 정치의 핵심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개인들이 모여 일반 의지로 사회 계약을 맺어 국가를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여 이상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 이상 사회의 조건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국가는 아주 작아서 인민이 쉽게 모일 수 있고, 서로를 잘 알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생활 양식과 도덕이 매우 단순하여 사무가 복잡하지 않고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인민의 지위와 재산이 상당한 정도로 평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와 권위에 있어서의 평등 역시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치가 아주 적거나 전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치는 재산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거나 재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치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타락시킨다. 부자는 소유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다. 인민이 사치에 빠져들면, 그들은 국가를 팔아서라도 자신들의 안락함과 허영심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고, 국가는 모든 시민들을 강제로 끌어내어 노예가 되게 만들거나, 모든 사람을 편견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

……어떤 정부보다도 민주정만큼 내란과 내분이 일어나기 쉬운 정부는 없다. 민주정은 다른 정부 형태보다도 강력하고 끊임없이 정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동시에 정체를 유지하고자 경계와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정부 형태에서 생활하는 시민은 실력과 인내로 무장해야 한다.



▲ '인권 선언문'(1789)
이 선언문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루소의 사회 계약론과 미국의 독립 선언서를 바탕으로 한 이 선언문은 절대 군주 아래에서는 용납되지 않았던 자유의 구체화를 목표로 삼았다.

루소가 추구하는 민주적 이상 사회란, 빈부 격차가 거의 없는 소농으로 구성된 정치 공동체가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이는 루소의 민주 정치가 유토피아적으로 묘사되고, 소규모의 도시 공동체에서나 가능한 정치 원리로 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루소의 사회 계약론은 직접 민주주의와 근대 서구 시민 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공동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루소의 사회 계약론은 그 주체가 시민이라는 점에서 이미 그 안에 민주주의 혁명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일반 의지(general will)**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지는 보편적 의지, 즉 공동선을 실현하는 국가의 의지를 뜻한다. 일반 의지는 모든 개인의 의지가 반영되어 항상 옳고, 모든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다. 이는 단순히 특별 의지를 모아놓은 전체 의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전체 의지는 단순히 인민의 특별 의지를 모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이에 비해 일반 의지는 이 전체 의지에서 개인 간에 충돌하는 의지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모든 인민의 이익을 동시에 보장해 주는 의지이다. 따라서 일반 의지는 항상 공동의 이익만을 염두에 둔다. 일반 의지 자체가 애초에 모든 인민 공동의 이익을 취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Q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 현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서술해 보자.

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학습 목표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본 정신과 그 특징을 각각 설명할 수 있다.
- 자본주의의 장단점을 윤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주는 윤리적 시사점을 말할 수 있다.
-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유 경쟁 사회와 평등 사회와의 조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중단원 스케치

자본주의는 윤리적 장점과 더불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제 체제이지만, 오늘날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자본주의는 승리하고 사회주의는 몰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지만,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윤리적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사회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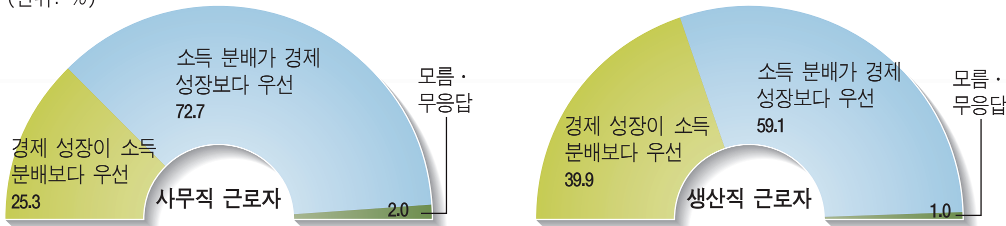






0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직군별 경제 의식



—미디어 리서치 전국 성인 남녀 700명 전화 면접 조사(2011. 5.)—

단원 열기

- 여러분은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 사회, 국가는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자본주의의 의미와 기본 정신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경쟁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제 체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활동의 자유와 개인의 이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이러한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은 경제 주체의 경제적 합리성과 윤리성 때문이다. 경제 주체는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따라 경제 행위를 하며, 자신의 생계유지와 생활 수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때 자기 책임은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개인에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각 개인이 자신의 경제 활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발생 시기, 발생한 국가나 지역의 이념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다. 자본주의는 15세기 이후 상업 자본이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되는 상업 자본주의로 시작되었으며, 산업 혁명 이후 대량 생산과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 자본주의로 이어졌다. 또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국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수정 자본주의를 거쳐 오늘날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금융 자본주의로 변화해 왔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자본주의가 역사 속에서 존재했음에도 우리가 이 모두를 자본주의라는 큰 틀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여러 유형의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된 사상적 배경으로는 **칼뱅이즘*** 등을 들 수 있다. 칼뱅은 누구나 노력하여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자본주의 정신을 합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국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경제 사상으로,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 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1970년대부터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자 하이에크(Hayek, F. A., 1889~1992)는 "시장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라며 민주주의는 자유 시장과 함께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뱅이즘(Calvinism)**
신에 의해 구원받을 사람이 결정된다고 보고 현실에서 부의 축적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금욕주의적 직업윤리로 이어짐으로써 자본주의 정신의 바탕이 되었다.


▲ 베버(Weber, M., 1864~1920)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을 종교 개혁 이후 형성된 서구 유럽의 합리주의와 경제 주체의 윤리적 합리성에서 찾았다. 특히 그는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를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정신은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대의 합리적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삶의 태도와 모습, 윤리를 가리킨다. 베버는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양 사회에 자본주의가 뿌리내리고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상황이 초기 자본주의의 상황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베버가 제시한 자본주의 정신은 오늘날 자본주의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 개선 방안을 탐구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적 장점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윤리적 장점은 경제 주체인 각 개인에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자신의 합리적 결정에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실현하는 데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적 장점을 경제적 · 정치적 · 문화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은 자본주의가 시장을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또 사적 재산의 소유와 축적을 존중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권을 신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의 축적은 곧 금욕적이고 성실한 삶

참고 자료

수정 자본주의와 케인스

1930년대 대공황이 닥쳤을 때 자본주의 국가는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Keynes, J. M., 1883~1946)의 경제학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론을 도입하여 수정 자본주의로 전환하였다. 케인스는 소비가 미덕이고 저축은 악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민 소비가 불충분하면 상품이 팔리지 않고, 기업은 직원을 줄여 실업이 늘고 국민 소득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과 불황이 필연적이라고 진단하고, 그 해법은 정부의 강력한 힘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국가는 시민이 기본적인 구매력을 잃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계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을 위해 부유층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케인스는 번영의 원천은 자유 시장이 아니라 정부라고 확신하였다.

– ○○ 경제, 2012. 10. 12. –


▲ 그로퍼(Gropper, W., 1897~1977), '댐의 건설'
미국 정부는 시장 경제에 적극 참여하여 수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뉴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그림은 '테네시 강 유역 종합 개발' 사업을 묘사하고 있다.

의 징표였다. 그리고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산을 정당하게 축적하는 것은 그들이 부여받은 소명이었다. 베버가 지적한 것처럼, 금욕주의적인 직업윤리와 합리주의는 경제 주체가 자신의 경제적 자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자유가 확산되는 데 이바지하였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민주주의의 발전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논리적으로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사회 제도를 통해 실현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때, 그들의 정치적 자유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은 개인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 속에서 사회 구성원의 개성과 그에 따른 선택을 존중함으로써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사회의 윤리적 장점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이라는 윤리적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와 사적 소유권이 존중되고, 정직 · 관용과 같은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사회 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존중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자발적으로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적 문제

자본주의는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스스로의 위기를 극복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빈익빈 부익부', 계층 간의 갈등 등과 같은 불평등과 부정의**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제 논리와 이윤 추구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자본주의의 도덕적 기반이 상실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경제적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다 보니, 과정과 수단에 있어서 윤리성을 무시한 잘못된 성과주의와 실적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개인의 자율성, 근면 · 성실 등과 같은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면 인간 소외, 몰개성화와 그에 따른 비인간



◀ **영화 '모던 타임스'의 한 장면**
찰리 채플린은 노동으로부터의 인간 소외와 그에 따른 비인간화를 풍자하고 있다.

화와 같이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둘째, 자유주의의 맹신에서 오는 이기주의적 경향을 들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사적 소유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고 사회 전체의 통합을 해칠 수 있다.

애덤 스미스(Smith, A., 1723~1790)는 시장 경제의 자율적인 작동 원리인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공동선이 더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자유는 자본주의의 퇴보와 함께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각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한 채 경제적 자유를 핑계 삼아 자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면 자본주의의 본래 의미는 퇴색되고 수많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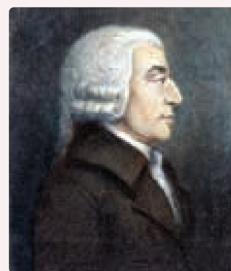
셋째, 자본주의 사회 전반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는 비리와 부정부패 현상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투기, 과소비, 담합, 독과점, 부당 거래, 정경 유착 등과 같은 천민자본주의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베버가 지적한 비합리적·비도덕적인 자본주의가 담겨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 사회: 자본주의의 윤리적 장점

애덤 스미스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지만 그는 인간의 이기심을 나쁘게 바라보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각자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도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그러한 사회는 경제적 부(富)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자유방임 사회이다. 자유방임 사회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부를 추구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하여 개인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이 된다. 또한 시장은 외부의 강제적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개인이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윤리적 장점을 지니게 된다.



▲ 애덤 스미스

-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 대신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한다. 거지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동료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다.
- 사실 각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또 그가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가 국외 산업보다 국내 산업의 지원을 선호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의도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그 자신이 진정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할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게 되는 것이다. – 애덤 스미스, "국부론" –

스미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상품과 화폐의 자유로운 교환이 자동적으로 시장의 정의로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시장에서 완전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고, 때로는 독과점과 같은 문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주체 간의 정보와 부의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으며, 빈부 격차, 높은 실업률, 인간 소외 현상 등과 같은 사회 · 경제적 문제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나아가 자원 고갈, 생태계 위기 등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 버크화이트(Bourke-White, M., 1906~1971), '루이스빌에서의 한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생활 수준이 높다고 선전하는 포스터와 그 앞에서 실업자들이 배급을 받고자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문제인 동시에 윤리적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각자가 자신을 부양할 책임을 진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반면, 타인을 위한 배려나 책임에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의 소외, 계층 간의 갈등, 소득 분배의 양극화 등의 부정적인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바람직한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해 주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공동선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 자본주의의 도덕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각 경제 주체는 금욕적인 생활 속에서 근면 · 성실을 강조했던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을 함양하고, 정직한 노력의 결과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존중함으로써 천민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 사회는 시장 경제 원리가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유층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함양함으로써 빈곤층을 배려하는 문화를 확립하도록 하며, 윤리적 기업 경영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임을 인식시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자본주의는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성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경제 주체로서의 개인은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아임을 인식하고, 공동체 속에서 공동선과 개인적 선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구성원 간의 연대성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더욱 증진해 나아가야 한다.

시민 사회는 개인과 사회의 자선이나 기부를 통한 나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 등 참여 문화를 확산해 나아가야 한다. 국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합리적이면서 건전한 자본주의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셋째, 자본주의가 그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개인은 비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직성을 가져야 하고, 시민 사회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바람직한 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도 끊임없는 질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 주체로서 개인, 시민 사회, 국가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인간을 위해 작동하는 윤리적 자본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탐구해 보기

다음은 자본주의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즉 '마태 효과'*에 대한 글이다. 물음에 답해 보자.

지난 30년간 빈곤층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그 수가 증가하는 동안, 부유층은 부유해지고 또 부유해지고 끝없이 부유해졌다. 특히 한 정부가 집권한 기간 동안 경제 피라미드의 최상위층에서는 새로운 부자가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부의 대부분은 빈곤층과 노동 계층이 희생한 대가였다. …… 2011년에는 최상위 1% 가정이 미국의 개인 소득 총액의 33.4%를 차지한 가운데, 상위 20%의 가정이 개인 소득 총액의 84%를 가져갔다. 80%의 하위 소득 계층은 개인 소득의 16%를 버는 데 그쳤다.

– 코닝(Corning, P.), "공정 사회란 무엇인가?" –



*마태 효과(Mattew Effect): 사회학자 머튼(Merton, R. K., 1910~2003)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로, 사회적 우위가 더 나은 우위로 이어지고 사회적 열위는 더 못한 열위로 이어짐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 자본주의 계급 풍자화

1.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를 말해 보자.

2.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자.

02 사회주의 사상의 윤리적 의의



•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분열하는 착취를 제거함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 공산주의자들은 오로지 일당 독재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러한 계급의 분열을 첨예화하려고 노력한다.
•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는 생산 성과의 분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조건이다. 하지만 개인이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할 의욕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 사회주의는 민중 스스로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 '프랑크푸르트 선언'(1951) 일부 요약 –

단원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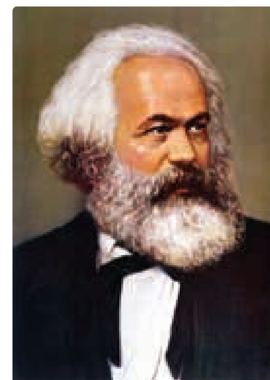
• 위의 선언은 공산주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위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회주의의 기본 정신과 경제적 평등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자유와 사유 재산제를 최대한 보장하여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의 이면에는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다수의 노동자는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직면했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의 이념적 목표는 '계급이 없는 사회, 국가가 없는 사회'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예속된 불평등한 관계가 해소된 사회를 가리킨다.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카를 마르크스***는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사회적 공유와 사유 재산제의 폐지를 핵심적인 주장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경제적 자유와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경제적 평등과 형평성을 추구한 사회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경제적 평등**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평등과는 다르다. 자본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로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 반면,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결과적 평등**을 추구한다. 경제적 평등에 관한 사회주의의 이러한 입장은 '어떤 결과에 대해 각자가 기여한 바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정의로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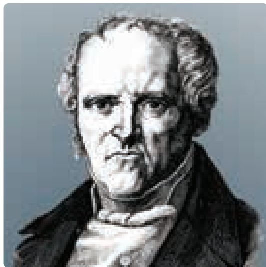


▲ **카를 마르크스(Marx, K., 1818 ~ 1883)**
독일의 경제학자 · 철학자로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창하였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자본론", "공산당 선언" 등이 있다.

하지만 결과적 평등이 당시의 불평등한 부의 분배 문제에서 비롯되었고,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던 점에서 볼 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의 양극화, 불평등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훈을 준다.

사회주의의 흐름


▲ 생시몽(Saint-Simon, 1760~1825)


▲ 푸리에(Fourier, C., 1772~1837)


▲ 오언(Owen, R., 1771~1858)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원은 통치 계급의 재산 공유와 국가에 의한 자녀의 공동 양육을 주장한 플라톤의 이상 사회, 공동 작업을 토대로 소박한 생활을 강조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 생산과 생산물의 공유를 강조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대 산업화 이후, 사회주의는 사회의 시대적 조건과 상황 아래 다양한 유형으로 변모하며 전개되었다. 특히 초기 사회주의의 지적 토대와 이론적 틀이 형성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사회주의가 바로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이다.

공상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평등, 조화, 이타적 행위 등에 기초한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생시몽과 푸리에, 영국의 오언 등은 당시의 억압적 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사회주의적 평등을 추구하는 이상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산업 사회의 물질적 기반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산업 사회의 기반 위에서 일부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대중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카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초기 사회주의의 이상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 개혁 내용과 실현 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기존의 사회주의와 구분하여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다.

이들은 "공산당 선언"(1848)을 통해 인류의 모든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규정하고, 자본주의는 부르주아(bourgeois, 유산 계급)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투쟁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카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부르주아의 과도한 이윤 추구로 내부적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프롤레타리아의 실업률과 빈곤이 심화되고, 생산


▲ 카를 마르크스(왼쪽)와 엥겔스(오른쪽) 동상(독일 베를린)

***프롤레타리아(prolétariat)**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 이외에는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와 같은 무산 계급을 가리킨다.

과 소비 활동이 위축되며, 결국 사회는 생산 수단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양극화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유 재산제가 폐지되고 생산 수단의 사회적 공유와 계급 없는 이상 사회를 달성하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카를 마르크스 사상의 영향을 받은 레닌(Lenin, V. I., 1870~1924)은 러시아 혁명을 통해 제정(帝政)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수립하였다(1917). 이후 소련은 195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의 중심축 역할을 하였으나, 1950년대 중반 이후 동구 유럽과 중국 등이 독자적인 노선을 채택하면서 사회주의는 다양한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급진적 혁명론을 내세웠던 공산주의자와 달리, 점진적인 사회 개혁론을 주장하는 **민주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가 등장하였다. 1950년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정당에 기반을 둔 민주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였다. 특히 1951년 범세계적인 기구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ocialist International)이 채택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 사회주의의 이상을 민주주의적인 수단을 통해 건설할 것을 선포하였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서구의 민주 사회주의는 이후 서구 국가들이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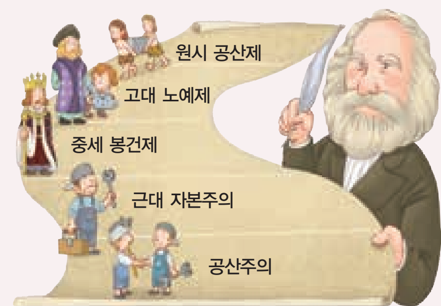
▲ 왕, 자본가, 성직자를 청소하고 있는 레닌을 묘사한 포스터

참고 자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비교

카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오늘날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역사 발전 5단계설'을 주장하였다. 즉 생산 양식이나 경제 형태에 따라 원시 공산제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공산주의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과도기로서 사회주의 단계를 설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로 자본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는 단계이며, 공산주의는 사회주의가 무르익어 사유 재산과 계급, 국가가 완전히 소멸된 단계이다.



▲ 역사 발전 5단계설

사회주의 단계와 공산주의 단계 비교

구분	사회주의 단계	공산주의 단계
계급	노동자 · 농민 · 지식인 계층 간의 차이 존재	계급 없는 사회
분배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 실적에 따라 분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사회 개혁	노동자 계급의 독재를 통한 공유 재산 제도의 추구	사회 개혁의 완성
국가	존재	소멸
공통점	착취 계급이 없고,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가 극복되며, 생산 수단이 사회적으로 공유됨	

사회주의의 한계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주는 윤리점 시시점



▲ 독일 통일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유토피아적 이상 세계를 지향했음에도, 실제로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동독은 서독에 흡수 통일되었고(1990), 사회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은 붕괴되고 말았다(1991).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분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사회주의가 그 한계를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 사회주의는 '계급 없는 사회'라는 평등 사회의 이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카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사람이 계급 없이 평등하며, 누구나 사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독재 체제와 **노멘클라투라***와 같은 특권층이 존재하여 계급 없는 평등 사회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모순을 드러냈다.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 구소련의 특권 계급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들은 직업적 혁명가라는 명분으로, 특권을 누리면서 생산적 기반 없이 지대(地代,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되는 임대료)만을 추구했던 봉건 시대의 귀족 같은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둘째,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빈곤을 초래하였다. 사회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통제하고 사유 재산제를 부정함으로써 개인의 생산 동기와 창의성을 억압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경제 성장은 급격히 둔화되었다. 결국 사회주의가 내세운 경제적 평등은 최소한의 생필품마저 제때 보급하지 못하는 빈곤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졌고, 이는 사회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평등주의와 실용주의 간의 노선 갈등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계속되는 경제 성장의 둔화로 사회주의 국가는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려면 개인의 생산 동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물질적 유인책으로서 사유 재산의 인정이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실용주의 노선은 사회주의의 이념적 목표인 평등주의와 모순된다. 하지만 평등주의 노선을 계속 유지한다면 극심한 빈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오늘날 중국은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여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빈부 격차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였지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시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의 과도한 경제적 자유의 추구로 말미암은 빈부 격차,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불평등 관계 등 사회 불안 요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자

본주의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불평등 문제로 사회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점차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주는 윤리적 시사점은 무엇일까?

먼저, 사회사상이 아무리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해도, 그것이 인간존엄성, 자유와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위협한다면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초기 자본주의 체제에서 나타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와 평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을 인정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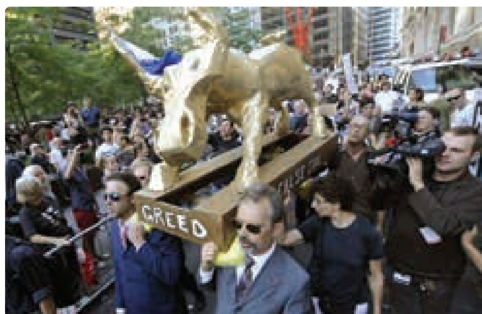
오늘날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의 대부분은 경제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여러 분야에서 치열한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강한 경쟁력을 가진 소수에게 부와 권력이 편중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주의의 발생과 몰락 과정은 우리 사회가 지나친 사익 추구로 비인간화된 자본주의 사회로 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더불어 자본주의 사회를 더욱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



▲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층 간의 양극화를 묘사한 그림(영국의 한 신문에 실린 풍자화)

자유 경쟁 사회와 평등 사회의 조화 방안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지나친 사익만을 추구하는 경쟁은 재화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며, 이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위화감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월 가(Wall Street)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 금융 시장의 중심가로, 1792년 창립되어 세계 제1의 규모를 자랑하는 뉴욕 증권 거래소를 비롯해 증권 회사, 은행 등이 밀집되어 있다. '월 가'라는 이름은 17세기 중반 이곳으로 이민을 온 네덜란드인이 인디언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쌓은 벽(Wall)에서 유래하였다. 위 사진은 월 가 점령 시위대가 월 가의 상징인 '돌진하는 황소'의 동상을 본뜬 황금소 모형에 '탐욕', '그릇된 우상'이라는 글을 붙여 메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자본주의는 분배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고자 복지 국가의 이념을 수용하였다. 인간을 생산과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자본주의의 비도덕성을 해결하고자 사회주의가 내세우는 평등의 가치를 수용한 것이다. 오늘날 중국과 베트남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시장 경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자유 경쟁과 경제적 평등의 장점을 조화시키려고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011년 9월, 세계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뉴욕 **월 가***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 지구적 차원의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 시위에서 많은 사람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전 세계적 경제 불평등과 비인간화된 자본주의의 현실을 비판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결과 자본주의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복지 정책 또한 위축될 수 있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지고, 빈곤층의 비율이 증가하며,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 소득(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계층 간의 양극화가 해소되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려면 자본주의 사회가 지니고 있는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우선, 사회 정의가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확충하고 장애인 특수 학교를 설립하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행동에 기초하는 시장은 효율적이고 활력 넘치는 경제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정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영역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경제적 부를 가진 사람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가치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부당한 권력의 행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실천과 노력이 확산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재능 기부*** 운동은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평등과 사회 정의를 자유 경쟁 사회에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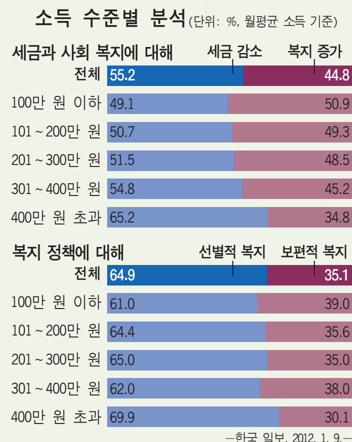
***재능 기부**
단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를 가리킨다. 최근에는 개인도 재능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 육교에 설치된 장애인 엘리베이터
장애인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이다.

탐구해 보기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 복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1. 세금 감소*와 복지 증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소득 수준별 입장 차이를 정리해 보자.

2. 세금 감소와 복지 증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과거에 가졌던 나의 입장은 무엇이었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를 적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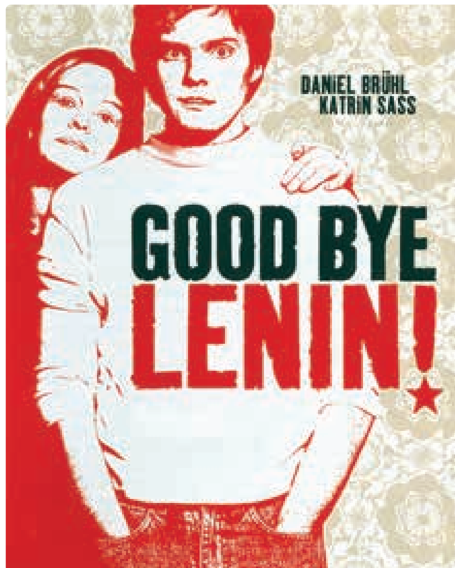
3. 지금 나의 입장과 생각을 과거와 비교할 때 달라진 것이 있는가?(예□, 아니요□) 그 이유를 말해 보자.

4. 20~30년 후에 내가 원하는 직업이나 부를 가지게 되었을 때 복지에 대한 나의 입장과 생각을 예상하여 적어 보자. 그리고 복지에 대한 나의 입장과 생각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순으로 비교해 보자.

***세금 감소**: 사회 복지 지출이 감소하더라도 세금 감소를 지지함.
***복지 증가**: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 복지 지출 증가를 지지함.
***선별적 복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사람만이 도움받는 것을 지향함.
***보편적 복지**: 세금 부담을 늘려 모두가 복지 혜택받는 것을 지향함.

굿바이, 레닌!(Good Bye, Len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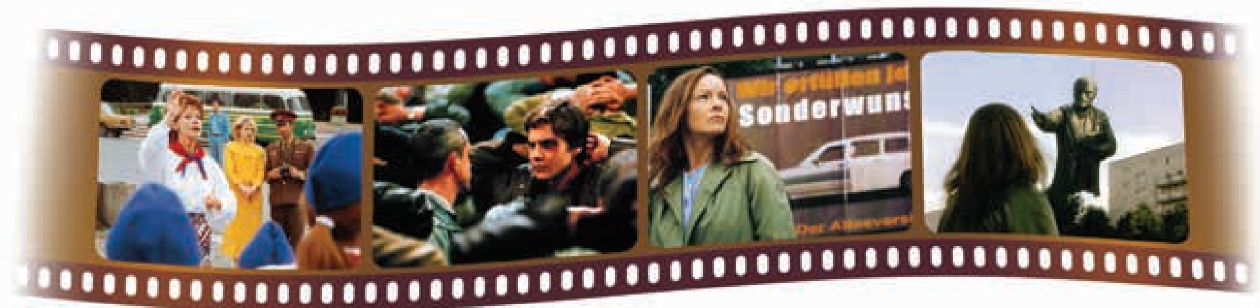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나타난 구동독인들의 불편한 현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거리로 뛰쳐나온 동독인과 서독인, 그리고 독일 통일의 소식을 알리는 자동차의 우스꽝스러운 행렬이 이어진다. 까마득한 옛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 모든 것은 1989년에 일어난 일이다. 통일은 동서 독일의 국민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굿바이 레닌'은 독일인의 고통과 불안의 한가운데에 웃음도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이 영화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인 1989년 동독을 배경으로 한다.

알렉스의 어머니는 동독의 사회주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활동적인 정치 투사이다. 시위 현장에서 아들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지고, 통일이 된 얼마 후에 깨어난다. 어머니를 끔찍이 위하는 알렉스는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충고를 듣는다. 그래서 알렉스는 공산주의의 붕괴와 동독의 해체가 치명적인 충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바로 어머니를 위해 옛 동독을 다시 만들어 내기로 한 것이다. 그는 감동적이고도 웃음을 자아내는 일련의 상황을 통해 병상에 누워 있는 어머니에게 옛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믿게 만든다. 어린이 스카우트 대원들을 데려와 사회주의 찬가를 부르게 하고, 지금은 구할 수 없게 된 동독의 식료품을 만들어 내는 전문가가 되며, 심지어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뉴스 프로그램까지 가짜로 제작하기에 이른다.



영화는 사회주의의 이상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상실된 것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독일의 통일만큼이나 불편한 또 다른 통일이 이루어진다. 한때 동독을 탈출하였고, 지금은 그저 또 한 명의 독일인일 뿐인 알렉스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알렉스의 집착이 어떤 면에서는 통일과는 또 다른 불편한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스티븐 제이 슈나이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편" –



중단원 갈무리

내용 정리 문제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써 보자.

(1) 자본주의는 상업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를 거쳐 오늘날 □□□□□를 기초로 한 금융 자본주의로 발전해 왔다.

(2) □□는 자본주의 정신의 기원을 종교 개혁 이후 형성된 합리주의에서 찾았다.

(3) 초기 사회주의자인 생시몽, 푸리에, 오언은 □□□□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이상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4)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한 □□ □□ 5단계설에 따르면, 사회 발전은 생산 양식이나 경제 형태에 따라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를 거쳐 □□□□ 사회로 이행한다.

2 다음 진술을 검토하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자.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바로잡음
(1) 수정 자본주의는 거대한 정부가 시장의 결함을 보완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 ×	
(2) 민주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을 추구한다.	○ / ×	
(3) 사회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통제하지만 사유 재산은 인정한다.	○ / ×	

3 가로 열쇠와 세로 열쇠를 읽고 빈칸을 채워 보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가로 열쇠]

② 생산 수단을 소유한 유산 계급 ↔ 프롤레타리아

④ 한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가치

⑤ 결과와는 무관하게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무나 의무를 중시하는 윤리 이론

⑦ 빈곤층,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노동자, 혼혈인 등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⑨ 케인스는 정부 주도의 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자유방임주의를 □□□□□□로 전환할 것을 주장함.

[세로 열쇠]

① 애덤 스미스의 대표적인 저서로, 자유방임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함.

③ 사회의 여러 가지 일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는 생각이나 사고

④ 생시몽, 푸리에, 오언 등이 평등에 기초한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초기 사회주의

⑥ 주권이 주로 세습적인 군주에 의해 운용되는 정치 형태

⑧ 노동으로 인한 인간 소외를 비판한 카를 마르크스의 대표적인 저서

카를 마르크스와 "공산당 선언"



▲ 엥겔스(뒷줄 왼쪽)와 카를 마르크스(뒷줄 오른쪽), 그리고 부인과 두 딸

카를 마르크스(Marx, K.)는 독일에서 유대인 변호사인 아버지와 네덜란드 출신의 어머니 밑에서 7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유년기에는 유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으며 불우한 시기를 겪었으며, 10대에는 종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당시 마르크스는 "종교에 대한 비판은 모든 비판의 기초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 시절 법학을 공부하던 중 철학에 흥미를 느껴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의 차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845년에 파리로 건너간 카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운동에 빠져들었다. 파리에서 추방당한 후에는 엥겔스와 함께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산당 연합의 당 강령인 "공산당 선언"을 썼다. 이 시기 유럽은 계속된 불황으로 빈곤과 기아가 휩쓸고 있었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에 저항하는 혁명이 일어나 독일로 번지고 있었다. 1848년 2월 21일 베를린과 런던 거리에는 23쪽 분량의 소책자로 된 "공산당 선언"이 뿌려졌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이 책은 계급 투쟁의 역사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형성, 계급 투쟁에 의한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와 사회주의 사회의 필연적 도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산당 선언" 표지 ▶

"공산당 선언"은 카를 마르크스 사상의 기본 내용을 잘 보여 준다. 이 책은 인간의 역사를 계급 투쟁의 관점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형성, 자본주의 사회의 소유와 임금 노동에 대한 비판적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짧은 분량이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계층 간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보완되어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그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자.

"인간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이제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끊임없이 대립했으며,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 왔다. ……우리 시대, 즉 부르주아 시대는 ……직접 대립하는 두 개의 계급, 즉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분열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은 상품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였다.

프롤레타리아, 즉 현대의 노동자 계급은 일자리를 찾는 한에서만 생존하며, 자신들의 노동이 자본을 증식하는 한에서만 노동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급이다. 자신을 한 조각씩 팔아야 하는 이 노동자들은 다른 판매품과 같은 상품이며, 그래서 시장의 모든 변동에 내맡겨져 있다.



▲ 혁명적 지식인들과 만나고 있는 카를 마르크스와 엥겔스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 계급을 단결시키고, 이러한 단결은 노동자 계급의 승리로 귀결된다.

부르주아 계급의 존립과 지배에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부(富)가 사적 개인의 수중에 축적되고, 자본이 형성되어 증가하는 것이다. 자본의 조건은 임금 노동이다. 임금 노동은 오로지 노동자들 간의 경쟁에 근거한다. 산업의 진보는 연합을 통해 그들을 혁명적으로 단결시킨다. 부르주아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을 만들어 낸 셈이다. 부르주아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는 둘 다 불가피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소유와 임금 노동은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공산주의의 핵심은 '사적 소유의 폐지'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자본은 공동의 산물이며 오로지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 활동을 통해서만 가동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은 개인적 권력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이다. 삶의 재생산을 위해 노동 생산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취득의 비참한 성격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본을 증식하기 위해서만 살고 있을 뿐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노동자의 삶의 과정을 풍요롭게 하고 장려하는 수단이다. ……우리가 사적 소유를 청산하려 한다고 경악한다. 그러나 기존 사회에서 사적 소유는 구성원의 10분의 9에게는 이미 폐지되었다. 사적 소유가 10분의 9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사적 소유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의 압도적 다수의 무소유를 필수 조건으로 전제하는 소유를 우리가 폐지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사회적 생산물을 취득할 권력을 빼앗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이 취득을 통해 타인의 노동을 자신에게 예속시키려는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와 정치권력이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갈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공산당 선언"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해소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공산당 선언"이 발표된 이후 세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둘러싼 격렬한 이념 투쟁과 물리적 충돌을 겪어야 했다. 이는 "공산당 선언"이 그만큼 인류의 역사에 깊고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말해 준다. 카를 마르크스의 바람처럼, 자본을 사회적인 권력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될 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유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두커(Dooker, E.), '기계에 종속된 인간'
자본주의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생산물로부터 소외된다. 카를 마르크스에 의하면, 소외의 원인은 사유 재산제나 사회 분업과 같은 사회 · 경제적 제도에 있다.

Q 위의 "공산당 선언"이 자본주의 사회에 주는 윤리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서술해 보자.

동서양 윤리 사상 한눈에 보기

■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 공자 |

① **인(仁):** 타인을 사랑하는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적으로 완성된 인격체를 지향

- “오직 어진 사람만이 남을 좋아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다.”
- “효제(孝悌)는 인(仁)을 행하는 근본이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부모의 뜻을 살피고, 돌아가신 후 3년 동안은 그 뜻의 고침이 없어야 효라고 할 수 있다.”

② **예(禮):**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조절하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

-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간다면 온 세상이 인(仁)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남에게 달려 있지 않다.”

③ **정명(正名):**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과 역할에 걸맞게 행동할 것을 주장

-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 맹자 |

① **성선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과 사단(四端)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선한 존재임

② **왕도(王道) 정치:** 백성들과 더불어 소통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치를 강조

- “군주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면 정치는 손바닥을 뒤집듯 쉬울 것이다. 군주가 인의(仁義)를 저버리고 다스린다면 그는 이미 군주가 아니다.”

③ **역성혁명론:** 군주가 덕을 잃고 폭정을 하면 군주를 하늘의 뜻에 따라 교체할 수 있음을 주장

-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社稷)이 그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 순자 |

① **성악설:** 인간이란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추구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남

② **화성기위(化性起僞):** 타고난 악한 본성을 옛 성현의 가르침이나 예법으로 교화하여 바로잡음으로써 선한 존재가 됨

- “사람은 타고난 욕망이 있어서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다투지 않을 수 없고 다투면 혼란해진다. 선왕께서는 이 혼란을 싫어하여 예(禮)를 제정하였다. …… 성(性)은 본래적인 것으로 가공되지 않은 것인데, 인위적인 노력이 없으면 저절로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



| 고자 |

① **성무선악설:** 인간의 성품은 선이나 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오직 식욕과 성욕뿐임

- “인간의 본성에는 선함도 없고 악함도 없다. 인간의 본성에 선과 불선의 구분이 없는 것은 마치 물의 흐름에 동서가 없는 것과 같다.”
- “인의(仁義)란 고유하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버드나무 속에 바구니가 들어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 묵자 |



① **겸애설(兼愛說):**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고, 자기 집 · 자기 나라를 사랑하듯이 다른 집, 다른 나라를 사랑하면 천하가 태평해짐 → 무차별적인 사랑 강조

② **이익 강조:** 사치를 조장하는 유가의 예악(禮樂) 문화를 비판하고 이로움을 나눌 것 강조

• "어진[仁]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해로움을 없애는 데 힘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을 비난하는 이유는 악기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한비자 |



①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의 영향을 받아 법가 사상을 완성

② **법치(法治):** 법(法)과 술(術)에 의한 통치 강조

• "인간은 이기적이며 간사한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오직 상과 벌로써만 조종할 수 있다."



| 노자 |

① **도(道):**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며 발전시키는 실체이자 원리

② **무위자연(無爲自然):**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도(道)와 덕(德)을 존귀하게 여긴다.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지만 도의 존엄함과 덕의 고귀함은 늘 스스로 그러하다."

③ **소국과민(小國寡民):** 작은 공동체 안에서 문명을 멀리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상 사회로 추구



| 장자 |

① **제물(齊物):** 시비와 대립을 초월한 세계에서 사물의 양쪽을 모두 보아야 함

② **물아일체(物我一體):** 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물과 내가 구별 없는 하나임

• "이 세상에 가을 짐승의 털끝보다 큰 것은 없고, 세상 사람이 크다고 생각하는 태산은 오히려 작다고 할 수 있다. 어려서 죽은 아이보다 장수한 자는 없고, 세상 사람이 장수했다고 생각하는 팽조는 차라리 일찍 죽은 자가 된다. 천지도 나와 함께 살아 있고, 만물도 나와 함께 하나가 된다."

| 석가모니 |



① **연기(緣起) 사상:**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함

•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곧 무명(無明)을 인연[緣]하여 행(行)이 있고, 나아가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생긴다. 무명이 멸(滅)하기 때문에 행이 멸하고, 나아가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멸한다.

② **사성제(四聖諦):**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 진리 →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③ **삼법인설(三法印說):** 불교의 세 가지 근본 교설 →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

-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因]과 조건[緣]에 의해 서로 관련되어 생겨나며,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果]도 없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현상에 집착하면 모든 것은 괴로움[苦]으로 나타난다.”
- “우리는 극단적 고행이나 쾌락을 피하고 심신의 조화를 얻는 수행을 통해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즉 모든 사물에 독자적 본성이 없음[無我]을 깨달아 탐욕[貪], 분노[瞋], 어리석음[癡]에서 벗어남으로써 진실로 동요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 원효 |



① **화쟁(和諍) 사상:** 모든 종파, 모든 사상을 분리하여 고집하지 말고, 더 높은 깨달음의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함

-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움직이는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다르기는 해도 둘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생멸(生滅)하지 않는 마음과 생멸하는 마음도 그 본체에 있어서는 둘이 아니다.”

② **일심(一心) 사상:** 모든 종파의 주장은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른 것으로 다투지 말고 부처의 깨달음을 실천해야 함

- “대승의 뜻은 광범위하나 심법은 하나이다. 이 마음에 의하여 대승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마음이 일어나면 만 가지 법이 일어나고, 한마음이 없어지면 만 가지 법이 없어진다.”

| 의천 |



① **교선일치(敎禪一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함

② **교관겸수(敎觀兼修):** 경전을 읽고 참선을 수행하는 방법을 함께 닦아 진리를 깨우쳐야 함

③ **내외겸전(內外兼全)**

- “교종을 공부하는 사람은 내적인 것을 버리고 외적인 것만을 구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선종을 공부하는 사람은 외부의 대상을 잊고 내적으로만 깨달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모두 양 극단에 치우친 것이므로, 양자를 골고루 갖추어[內外兼全] 안팎으로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지눌 |



① **선교일원(禪敎一元):** 선종과 교종은 본래 하나임 →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함

② **돈오점수(頓悟漸修):** 모든 범부(凡夫)가 부처임을 깨닫고 지속적인 수행으로 잘못된 습관을 제거하여 완전한 부처가 되도록 하는 수행 방법

③ **정혜쌍수(定慧雙修):** 혼란된 마음을 바로잡는 선정[定]과 사물의 참모습을 바르게 보는 지혜[慧]를 함께 닦을 것 강조

- “모든 법이 모두 자기의 마음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어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진여(眞如)의 본성을 단박에 보지 못하는가? “보살계경”에서 ‘나의 본래 근원인 자성(自性)이 맑고 깨끗하니, 만약 제 마음을 알아서 견성(見性)하면 모두 불도를 이루리라.’ 라고 하였다.”

| 주희 |



① **성즉리(性卽理):** '성은 곧 이'이며, 인의예지의 사덕임

② **수양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도덕적 수양과 경(敬)의 자세 강조

• "모든 사물에는 이(理)가 있다. 하지만 그 앎에 부족한 바가 있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모두 밝히지 못해서이다. 그러므로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남김 없이 밝혀야 한다."

| 왕수인 |



① **심즉리(心卽理):** 마음 밖에는 어떠한 사물이나 이치도 없으며, '격물(格物)'이란 마음의 이치를 자각하여 사물을 바로잡는 것

② **치양지(致良知):** 인간은 선천적으로 도덕적이고 순수한 마음인 양지를 실천하여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음

• "사람의 마음은 몸을 주재하며, 텅 비고 영험한 마음이 밝게 지각하는 것이 본연의 참된 앎[良知]이다. 참된 앎이 세계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을 의념[意]이라 한다. 의념이 작용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 물(物)이 있다."

③ **지행합일(知行合一):** 앎과 실천은 본래 하나임

• "아픔을 안다고 할 경우도 반드시 자기가 이미 아픔을 겪어야만 비로소 아픔을 안다고 할 수 있으며, 추위를 안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이미 추위를 겪은 것이고, 배고픔을 안다는 것은 자기가 이미 배고픔을 겪은 것이니, 앎과 행위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는가?"



| 이황 |

①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 이와 기가 모두 발동하여 이가 발동하면 기가 이를 따르며, 기가 발동하면 이가 기를 탄다고 봄[理發而氣隨之 氣發而理乘之]

② **사단칠정론:** 사단은 이의 발동이고, 칠정은 기의 발동으로 서로 구별되는 것임을 강조

• "사단과 이(理)의 관계는 칠정과 기(氣)의 관계와 같다. 그 발(發)함에 각각 맥락이 있고 그 이름도 다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사단과 칠정은 주(主)된 바에 따라 분리해 소속시킬 수 있다."



| 이이 |

① **이통기국(理通氣局):** 이는 모든 사물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통하고, 기는 그 형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으므로 국한됨

② **사단칠정론:**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동하는 데 이가 타고 있는 것[氣發理乘]으로 파악

•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善一邊]이고 칠정은 사단을 합쳐 말한 것이니, 칠정의 한 측면과 칠정 전체를 어찌 둘로 나누어 대치시킬 수 있겠는가? 칠정 밖에 다른 정(情)은 없다."

| 정약용 |



① **인간의 도덕성은 실천을 통해 얻는 결과:** 선(善)을 행한 다음 덕의 이름이 성립함

② **성기호설(性嗜好說):**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은 마음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 "성(性)은 기호(嗜好)이다. 하늘은 사람에게 선을 하려 하면 선을 할 수 있고, 악을 하려 하면 악을 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었다. 그 권능이 자기에게 있어서 금수의 정해진 마음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선을 하면 자신의 공이 되고, 악을 하면 자신의 죄가 된다."



▲ 척화비

| 위정척사 사상 |

① **위정척사(衛正斥邪):** '바른 것은 지키고 거짓된 것은 물리친다.'는 뜻으로,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 우리의 주체성을 지켜내는 것은 유교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믿음

- "사악한[邪] 서양 물건을 거두어 이를 거리에서 불태우면 정학(正學)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 개화사상 |

① 개화를 시대적인 운명으로 인식하고 서양의 우수한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근대화를 이룸으로써 민족의 생존과 주체성을 지키고자 함

② **동도서기(東道西器):** 동양의 유교적 정신과 질서는 유지한 채 서양의 발달된 군사 · 과학 기술과 같은 문물만 수용

- "동양의 도(道)를 바탕으로 서양의 기(器)를 받아들이면 지구의 오대주에서 평정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 "대개 동양인들은 형이상(形而上)에 밝기 때문에 그 도가 천하에 홀로 우뚝하며, 서양인들은 형이하(形而下)에 밝기 때문에 그 기(器)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진실로 우리의 도를 잘 시행한다면 서양의 기를 행하는 것이 매우 쉬울 것이니, 이처럼 도와 기는 서로 맞닿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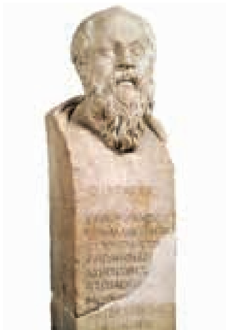
| 동학 |

① 민족 종교 운동의 효시로서 반외세 · 반봉건의 이념 강조

② **"사람이 곧 한울님이다[人乃天].",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吾心卽汝心].", "모든 사람이 자기 안의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侍天主].":** 신분에 의한 차별 제도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의 존엄한 평등을 내세움

- "사람이 바로 한울이요 한울이 바로 사람이니, 사람 밖에 한울이 없고 한울 밖에 사람이 없다."

■ 서양 윤리 사상



| 소크라테스 |

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음
② **지행합일설:**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고의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음
③ **지덕복합일설:** 참된 진리를 알고 이를 실천할 때 행복에 이를 수 있음

- "여러분! 더 이상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저를 무죄 방면한다 할지라도, 제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지혜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의 무지를 자각시키는 일도 결코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저의 무죄 방면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설령 몇 번을 죽인다 할지라도 제가 달리 처신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 "음미하지 않은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며, 영혼의 수련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 플라톤 |

① **이데아론:** 이데아 세계는 보편적인 진리의 근원이자 탐구의 대상으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세계임
② **이상 국가론:**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 계급이 합당한 역할과 기능을 할 때 정의가 실현

- "국가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롭게 된다. 그리고 사물의 참모습을 인식한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

① **행복:** 이성을 따르는 삶을 통해 지성의 덕과 품성의 덕을 쌓음으로써 가능
② **중용의 덕:** 양 극단 사이에서 적절함을 선택하는 것으로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적절함에 대한 오랜 경험과 훈련을 통해 가능

- "모든 인간의 행위는 행복을 목표로 하며, 행복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적절한 중간을 택하는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와 반복적 습관의 형성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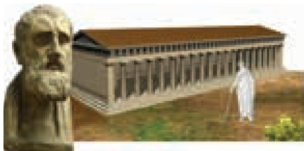
| 에피쿠로스학파 |

① **소극적 쾌락주의:**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최소한의 욕구만을 충족하면서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할 것 강조
② **아타락시아(ataraxia):** '고요하고 안정된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음

- "쾌락은 삶의 목적이다. 참된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된다면, 검소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 "감정적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살아 있을 때는 죽은 것이 아니며 죽었을 때는 감각할 수 없으므로 죽음을 미리 근심하지 말라."



| 스토아학파 |



▲ 제논

① **금욕주의:** 이성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 강조

② **아파테이아(apatheia):** '영혼의 비이성적인 쾌락, 두려움, 욕구 등과 같은 것을 겪지 않는 순수한 이성적인 마음의 상태'를 추구함

• "인간을 혼란시키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인간의 관념이다. 죽음도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관념이 무서운 것이다. 우주의 법칙을 깨달으면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갖게 된다."

| 아우구스티누스 |



① **교부 철학:** 플라톤 철학을 수용하여 교리를 체계화함

② **악:** 신이 아닌 잘못된 것을 사랑한 나머지 진리와 절대선인 신을 저버린 교만에서 비롯됨

③ **카리타스(caritas) 강조:** 불완전한 인간은 신에 대한 사랑과 은총을 통해 진리를 인식하고 행복에 이를 수 있음

• "세계에는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있다. 신에 대한 지식은 이성이 아니라 오직 신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완전한 행복은 오직 신앙을 통해 신에게 귀의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 아퀴나스 |



① **스콜라 철학 완성:**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접목시켜 '신 존재'를 증명하고자 노력함

② 자연법에 따르는 삶과 믿음 · 소망 · 사랑의 신학적인 덕의 함양 강조

• "신앙은 신과 관계하고 자연적 이성은 세계의 현실과 관계한다. 신앙과 이성은 모두 신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 프로테스탄트 윤리 |



▲ 루터 ▲ 칼뱅

① **루터의 '만인 사제주의':** 성서를 통해 신과 직접 대면하면서 모든 신앙인은 누구나 사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

② **칼뱅의 예정설:** 신이 부여한 소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음

| 베이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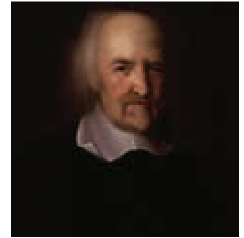


① **귀납법 제창:** 사유와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하고자 함

② **자연 과학적 지식 강조:**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고, 관찰과 실험에 의해 인간과 사물을 인식하여 얻어 낸 지식이 참된 지식이자 유용한 지식이라고 봄

③ **우상론:** 우상의 목록을 엮어 내면의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하고자 함 → 종족, 동굴, 시장, 극장의 우상

| 홉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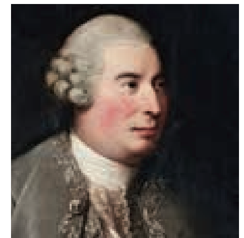


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자연법칙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하여 이기적이며, 결국 법도 도덕도 없는 무정부 상태에 이를 수 있음

② **윤리적 이기주의:** 자기 보존을 모색하는 인간은 사회 계약과 같은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함

- "국가는 개인들이 자신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형성된다. 그러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이기적 개인들의 강권을 통한 상호 계약적 공존이야말로 이기적 인간 본성의 사회화를 위한 최선의 길, 즉 자연 상태로부터의 최대의 구제책이자 목표로서 자기 보존의 실현이다."

| 흄 |



① **주정주의:** 도덕 판단은 이성이 아닌 감정이나 정서에 기초한 주관적 가치를 갖는 것

② **공감(共感) 중시:** 도덕규범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공통적 감정을 통해 형성되어야 함

- "덕(德)은 보는 사람에게 승인의 감정을, 악(惡)은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성은 도덕적 행위의 원리가 될 수 없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여야만 하며, 정념에 종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 데카르트 |

① **이성주의:** 인간에게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있다고 확신함

② **'방법적 회의':** 감각적 경험을 제거하고 이성을 통한 절대적 진리에 도달하고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의심해 나아가는 방법

-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가짜일 수 있으며,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도 거짓일 수 있다. 또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발생한 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만이 확실할 것이다."

③ **기계론적 자연관:** 자연은 신이 수학적 계산으로 설계하고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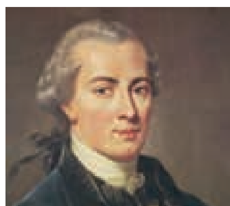
| 스피노자 |

① **범신론:** "자연이 곧 신이다." → 실체는 자연 전체이자 신과 일치하는 것

② **최고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데서 오는 평온한 행복

③ 이성적으로 행동하면 자연의 필연법칙을 인식할 수 있고 마음의 평화와 우주와의 조화에 이를 수 있음

- "인간과 자연은 신의 양태이며 우주의 모든 일은 신에 의해 결정된 자연법칙에 따라 발생한다. 모든 사물의 궁극적인 원인과 질서를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인간은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 칸트 |

① **인간 존엄성 강조:** 인간은 자율적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 유일한 존재

② **선의지:**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이자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게 하는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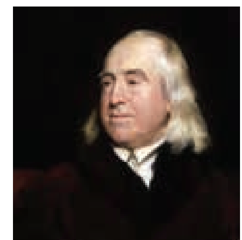
③ **실천 이성:** 행위자 스스로 인식하여 보편타당한 법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하는 도덕적 능력이자 이성

- “자유는 도덕 법칙의 존재 근거이며, 도덕 법칙은 자유의 인식 근거이다. 자유가 없다면 도덕 법칙은 발견될 수 없다. 이러한 자유 덕분에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간주하고,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를 목적의 나라라고 부른다.”
- “이성이 순수한 실천적 법칙들을 규정하는 필연성에 주목할 때, 우리는 그 자체가 목적인 보편적인 도덕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쾌락주의와 경험주의 비판

- “인간의 자기애에 근거한 자연적 경향성은 필연적으로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를 방해한다.”
- “동정심은 감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의 수정적인 정념이며 때로는 악을 옹호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도덕성의 근본 원리가 될 수 없다.”

| 벤담 |



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많은 이익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는 공리성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함

② **양적 공리주의:** 쾌락은 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쾌락의 양을 늘리는 일에 충실해야 함

- “도덕적 원칙의 근거는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성이다. 쾌락을 측정한 결과,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가급적 많은 양의 쾌락을 주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이다.”

| 밀 |



① 쾌락을 고상한 쾌락과 저급한 쾌락으로 구분하여 고상한 쾌락의 추구를 강조

② **질적 공리주의:** 정신적 만족과 같은 질 높은 쾌락을 늘려야 함

- “서로 다른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선택한 쾌락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품위 있는 삶을 위해 저급한 쾌락보다는 고상한 쾌락을 선택할 것이다.”

| 키르케고르 |



① **개인의 주체성 강조:** 주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실존하게 하는 것

② **‘신 앞에 선 단독자’**: 실존의 최후의 단계인 종교적 실존에서 신 앞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체성을 자각하는 참다운 실존임

- “만일 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나의 관심은 단순한 앎과 이론이 아니라 단독자인 내가 어떻게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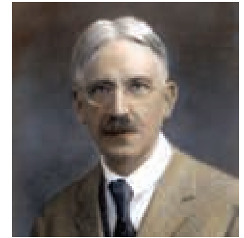
| 사르트르 |

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이 세상에 이유나 목적 없이 던져진 실존적 존재임

②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완성해 나아가는 존재임



- “칼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 구상된 이후에 만들어진다. 칼의 본질은 구상되는 순간 그것이 지니게 될 실제적인 특성들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버린다. 그러나 인간은 먼저 구상되고 어떤 목적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들의 현재 됨됨이는 자신이 행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 듀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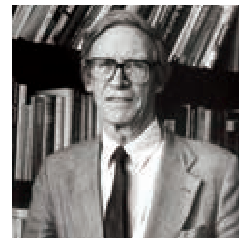
① **도구주의:** 지적 도구가 목적 달성에 유용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지식의 옳고 그름이 결정됨
② 생각, 욕구, 지식 등은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수정이 가능하고 성장 · 발전함
• "사유 과정은 시행착오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게 되는 진리, 관념 등은 현실적 활동의 도구이다. 왜냐하면 지성은 영원한 진리를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에 봉사하는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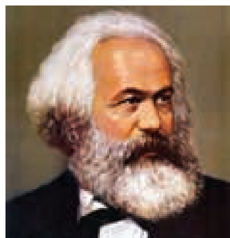
| 길리건 |

① **배려 윤리 제안:** 배려와 보살핌을 지향하는 여성의 본질적 성향에 주목
② 남성과 다른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
• "나는 남녀의 '도덕적 목소리'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 롤스 |



① **공정으로서의 정의:** 정의의 원칙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관련되므로 개인적 이해관계의 개입을 배제하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야 함
② **정의의 원칙:** 무지의 장막 뒤에 있는 원초적 상황에서 선택
• "가상적 상황에 놓인 합리적 당사자들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고려하는 원리에 합의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여건을 향상한다는 조건하에서만 그의 유리한 조건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카를 마르크스 |

①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로, 경제적 생산 양식이 근본적 ·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
② 노동 계급의 혁명적 역할 강조
•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가가 소유한 생산 수단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생산 수단이 사회적 공유물이 되면 계급 투쟁이나 착취가 사라질 것이다."



중단원 갈무리 정답

Ⅰ.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의의

1. 인간의 삶과 윤리 및 사회사상 p.29

1. (1) 축, 시대 (2) 사회사상 (3) 인간다운, 사회적 존재 (4) 도학 정치 (5) 집착, 전체주의 (6) 경험적, 규범적, 경험적, 규범적

2. (1) – ㉢ (2) – ㉡ (3) – ㉥ (4) – ㉤ (5) – ㉣

3. (1) × (2) × (3) ◯

Ⅱ.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1.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흐름 p.43

1. (1) 중간적 존재 (2) 자연 (3) 무명 (4) 조화 (5) 경천애인

2. (1) ◯ (2) ×, 유교 → 도가 (3) ◯ (4) ×, 외래 사상이 전래되기 이전의 순수한 우리나라의 사상만을 가리킨다. → 고유 사상을 토대로 외래 사상을 적극 수용하면서 형성된 독특한 체계와 구조의 사상을 가리킨다. (5) ◯

3. (1) – ㉡ (2) – ㉠ (3) – ㉢

2. 유교 윤리 사상 p.67

1. (1) 인 (2) 정명 (3) 대동 (4) 사단 (5) 왕도 정치 (6) 화성기위

2. (1) ×, 배척하였다. → 계승하였다. (2) ◯ (3) ×, 동일한 연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 그 연원이 다르다고 보았다. (4) ◯ (5) ◯

3. (1) – ㉣ (2) – ㉠ (3) – ㉢ (4) – ㉡

3. 불교 윤리 사상 p.93

1. (1) 중도 (2) 오온 (3) 상의, 인과 (4) 도피안 (5) 공

2. (가) – ㉡ (나) – ㉠ (다) – ㉢

3. (1) ×, 생멸문 → 진여문, 진여문 → 생멸문 (2) ×, 선종 → 교종, 교종 → 선종 (3) ×, 교종 → 선종, 선종 → 교종

4. 도가 · 도교 윤리 사상 p.113

1. (1) 도 (2) 무위자연 (3) 좌망 (4) 청담 (5) 죽림칠현 (6) 공과격

2. (1) ×, 다른 → 같은 (2) ◯ (3) ◯ (4) ×, 황제와 노자의 사상만을 계승하였다. → 황제와 노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유가, 법가, 묵가 등의 학파가 지닌 일부 관점을 수용하였다. (5) ◯

3. (1) – ㉢ (2) – ㉠ (3) – ㉡ (4) – ㉣

5. 한국의 고유 윤리 사상 p.125

1. (1) 인본주의, 현세, 조화 (2) 화랑도 (3) 반외세, 반봉건

2. [가로 열쇠] ① 시천주 ③ 사친이효 ⑤ 원화위인
[세로 열쇠] ② 천지공사 ④ 신화 ⑤ 원효 ⑥ 인내천

3. (1) – ㉠ (2) – ㉡ (3) – ㉣ (4) – ㉢

Ⅲ. 서양 윤리 사상

1. 서양 윤리 사상의 흐름 p.137

1. (1) 그리스도교 (2) 아퀴나스 (3) 의무론, 공리주의 (4) 선의지 (5) 고대 그리스 윤리 사상

2. (1) ×, 상대성 → 보편성 (2) ×,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 동기를 (3) ◯ (4) ×,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사상 (5) ×, 목적론 → 의무론 (6) ×, 의무론 → 목적론, 목적론 → 의무론

3. (1) × (2) × (3) ◯

2. 행복과 윤리 p.165

1. (1) 수사학, 회의주의 (2) 경험, 관찰 (3) 지덕복합일 (4) 이데아 (5) 질료, 형상 (6) 에피쿠로스

2.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3. ㉠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 ㉢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

4. (1) ㉠, ㉣, ㉥ (2) ㉡, ㉢, ㉤

5. 도덕적인 잘못은 무지(無知)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안다면 그것을 행할 것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이기 때문이다.

3. 신앙과 윤리 p.177

1. (1) × (2) ○ (3) ○

2. (1) 교부 (2) 선, 결핍 (3)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 (4) 소명, 근검, 절약

3. (1) ㉠, ㉢, ㉣ (2) ㉡, ㉤, ㉥

4. 만인 사제주의

5. 현실에서의 직업은 신이 개인에게 부여한 소명이므로 우리가 근면 · 성실한 자세로 직업에 충실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칼뱅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에 충실하고 청빈한 삶을 유지하며 재산을 축적함으로써 자신의 구원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4.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 p.205

1. (1) 연역법, 귀납법 (2) 경험주의, 이성주의 (3) 결과론 (4) 쾌락적 공리주의 (5) 의무론

2. (1) ×, 이성 → 감정이나 정서 (2) ×, 감정 → 이성 (3) ×, 밀 → 벤담 (4) ○ (5) ×, 칸트주의 → 공리주의 또는 결과론적 → 동기론(의무론)적 (6) ×, 칸트 → 로스

3. (1)–㉢ (2)–㉠ (3)–㉡

5. 현대의 윤리 사상 p.229

1. (1) 실용주의 (2) 이론, 실천 (3) 생철학 (4) 주체성 (5) 배려

2. (1) 향락의 삶을 살아가면서 곧 절망에 이르게 되는 실존
(2) 일상적 책무에 따라 현실 생활을 성실하게 영위해 가지만,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여 그 유한성 앞에 다시 절망하게 되는 실존
(3) 신 앞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여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자각하는 참다운 실존

3.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실존에 앞서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므로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완성해 나아간다.

4. (1) ㉠, ㉣, ㉤ (2) ㉡, ㉢, ㉥

5. 의무 윤리는 인간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판단의 지침이 될 도덕 원리를 연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반면, 덕 윤리는 행위자의 됨됨이, 품성에 관심을 갖는다.

6. 정의 윤리 – ㉡, ㉣, ㉥ / 배려 윤리 – ㉠, ㉢, ㉤

Ⅳ. 사회사상

1. 사회사상의 흐름 p.241

1. (1) 사회사상 (2) 발생, 쇠퇴 (3) 물신주의 (4) 포스트모더니즘 (5) 복지주의

2. (1) ○ (2) ×, 자연 과학자 → 사회사상가 (3) ○ (4) ○

3. (1) × (2) ○ (3) × (4) ×

2. 개인 · 공동체 · 국가와 윤리 p.265

1. (1) 자유 의지 (2) 권리 (3) 관용 (4) 연대 (5) 충

2. (1) – ㉣ (2) – ㉠ (3) – ㉡ (4) – ㉢

3. ① 파시즘 ② 시민 불복종 ③ 자연법사상 ④ 멸사봉공 ⑤ 공공재

3. 민주주의와 정의 p.285

1. (1) 민본 (2) 계약 (3) 아고라 (4) 사회 정의 (5) 원초적 상황, 무지, 장막 (6) 최소 수혜자 (7) 취득, 교정 (8) 왈처

2. (1) ㉠ (2) ㉣ (3) ㉢ (4) ㉡

3. 원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말미암아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p.303

1. (1) 신자유주의 (2) 베버 (3) 자본주의 (4) 역사 발전, 공산주의

2. (1) ×, 없다고 → 있다고 (2) ×, 추구한다 → 피하고 민주적 수단을 이용한다. (3) ×, 통제하지만 사유 재산은 인정한다. → 통제하고 사유 재산을 부정한다.

3. ① 국부론 ② 부르주아 ③ 주인 의식 ④ 공동선, 공상적 사회주의 ⑤ 의무론적 윤리 ⑥ 군주정 ⑦ 사회적 약자 ⑧ 자본론 ⑨ 수정 자본주의



찾아보기

ㅇ

참고 문헌 및 사진 인용 출처



참고 문헌

- A. 매킨타이어(김민철 역), "윤리의 역사, 도덕의 이론", 철학과 현실사, 2004.
- C. E. 해리스(김학택 · 박우현 역), "도덕 이론을 현실 문제에 적용시켜 보면", 서광사, 2001.
- E. H. 곰브리치(백승길 역), "서양 미술사", 예경, 2003.
- G. C. 필드(양문흠 역), "플라톤의 철학", 서광사, 2002.
- W. K. C. 거드리(박종현 역), "희랍 철학 입문", 종로서적, 1985.
- W. S. 뱁코크(문시영 역),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 서광사, 1998.
- W. S. 사하키안(송휘칠 · 황경식 역),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박영사, 1993.
- "유학원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3.
- 강성률,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사", 평단, 2008.
- 강신주, "철학 VS 철학", 그린비, 2012.
- 강영안, "철학은 어디에 있는가", 한길사, 2012.
- 강재륜, "마르크스주의의 현대적 과제", 인간사랑, 1988.
- 강재륜, "사고와 행동", 일신사, 1992.
- 강준만, "한국 생활 문화 사전", 인물과 사상사, 2006.
- 고정식, "웃기는 철학", 넥서스BOOKS, 2005.
- 곽강제, "철학의 의미", 박영사, 1987.
- 구스타프 A. 베터 저(강재륜 역), "소비에트 이데올로기(I) · (II)", 한울, 1987.
- 금장태, "유교 사상과 유교 문화" 전통문화연구회, 1995.
- 금장태, "율곡 평전", 지식과 교양, 2011.
- 금장태, "한국 유학의 노자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김교빈 외, "동양 철학은 물질문명의 대안인가?", 웅진출판, 1998.
- 김영진, "공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 김영한, "서양의 고전을 읽는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휴머니스트, 2006.
- 김용규, "도덕을 위한 철학 통조림 1, 2", 주니어김영사, 2005.
- 김용환, "관용과 열린 사회", 철학과 현실사, 1997.
- 김진, "페미니즘 윤리학", 울산대학교출판부, 2007.
- 김태길, "윤리학", 박영사(2002), 철학과 현실사(2010)
- 김형효, "원효의 대승 철학", 소나무, 2006.
- 김희수, "기독교 윤리학", 동문선, 2011.
- 나카무라 하지메(이미령 역), "붓다, 그 삶과 사상", 무우수, 2009.
- 노린 드레서(박미경 역), "낯선 문화 엿보기", 프레스빌, 1997.
- 노자(오강남 역), "도덕경", 현암사, 2009.
-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계율과 불교 윤리" , 조계종출판사, 2011.
- 데이비드 존스턴 저(정명진 역), "정의의 역사", 부글북스, 2011.
- 동국대학교불교문화 대학 불교교재 편찬위원회, "불교사상의 이해", 불교시대사, 2005.
- 동국 역경원, "보조국사집", 동국대학교역경원, 2002.
- 로버트 L. 애링턴(김성호 역), "서양 윤리학사", 서광사, 2006.
- 로버트 노직 저(남경희 역),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문학과지성사, 1997.
- 루이스 포이만 외(류지한 외 역), "윤리학: 옳고 그름의 발견", 울력, 2010.
- 루이-앙드레 도리옹(김유석 역), "소크라테스", 이학사, 2009.
- 마이클 샌델(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 마이클 왈쩌 저(정원섭 외 역), "정의의 영역들", 철학과현실사, 1999.
- 마토바 아키히로(최민순 역), "마르크스, 21세기에 끌려오다", 시대와 창, 2008.
- 막스 베버(이종오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계명대학교출판부, 2005.
- 매킨타이어(이진우 역), "덕의 상실", 문예출판사, 1997.
- 맹자 저(우재호 역), "맹자", 을유문화사, 2007.

- 박규철,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동과서, 2009.
- 박병춘, “배려 윤리와 도덕 교육”, 울력, 2010.
- 박연수, “한국인의 지혜”, 집문당, 2003.
- 박일호 · 송하석 · 정재영 · 홍성기, “철학의 숲, 길을 묻다”, 풀빛, 2011.
- 박종대, “현대인의 삶과 윤리”, 민지사, 2002.
- 박종홍, “한국 사상사”, 서문당, 1999.
- 박주영, “악이란 무엇인가”, 누멘, 2012.
- 박찬구 외, “윤리학: 옳고 그름의 발견”, 울력, 2010.
- 박찬국, “인간과 행복에 대한 철학적 성찰” 집문당, 2010.
- 백종현, “윤리 개념의 형성”, 철학과 현실사, 2003.
- 배한식 외, “현대 사회의 이념적 기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버트란드 러셀(서상복 역), “서양 철학사”, 을유문화사, 2011.
- 버드란트 러셀(이명숙 · 곽강제 역), “서양의 지혜”, 서광사, 1990.
- 법정 역, “숫타니파타”, 이레, 2010.
- 베이컨(김종갑 역), “새로운 아틀란티스”, 에코리브르, 2002.
- 변원종, “주자학과 육왕학,”, 한국학술정보(주), 2008.
- 불교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 “현대 사회와 불교 생명 윤리”, 조계종출판사, 2009.
- 불학연구소,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 조계종출판사, 2006.
- 브라이언 매기(박은미 역),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철학의 역사”, 시공사, 2002.
- 사스키아 벤델(송안정 역), “여성주의 윤리학 입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 새뮤얼 플레이쉐커 저(강준호 역), “분배적 정의의 소사”, 서광사, 2007.
- 서화동,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은행나무, 2002.
- 석길암, “불교, 동아시아를 만나다”, 불광출판사, 2010,
- 성철, “돈황본 육조단경”, 장경각, 2006.
- 순자 저(김학주 역), “순자”, 을유문화사, 2008.
- 스털링 P. 램프레히트(김태길 · 윤명노 · 최명관 역), “서양 철학사”, 을유문화사, 2010.
- 시몬 드 보부아르(조홍식 역), “제2의 성 상 · 하”, 을유문화사, 2002.
- 신재식,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아우구스티누스 & 아퀴나스”, 김영사, 2008.
- 아더 핑크(지상우 역), “산상수훈 강해”,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10.
- 아리스토텔레스(손명현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 정치학 · 시학”, 동서문화사, 2007.
- 아리스토파네스(천병희 역), “아리스토파네스 희극”,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 안광복,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 웅진지식하우스, 2007.
- 안네마리 피퍼(문영식 역), “페미니즘 윤리학의 이해”, 철학과 현실사, 2008.
- 안옥선, “불교와 인권”, 불교시대사, 2008.
- 앙드레 콩트-스퐁빌(이현웅 역), “자본주의는 윤리적인가?”, 생각의 나무, 2010.
- 앤서니 케니(김성호 역), “중세 철학”, 서광사, 2010.
- 앨릭젠더 스터지스, 권영진 옮김, “주제로 보는 명화의 세계”, 마로니에 북스, 2007.
- 어거스틴(선한용 역),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에리히 프롬 저(최재봉 역), “에리히 프롬, 마르크스를 말하다”, 에코의서재, 2007.
- 에피쿠로스(오유석 역), “쾌락”, 문학과 지성사, 2005.
- 에픽테토스(김재홍 역), “엥케이리디온”, 까치, 2010.
- 오트프리트 회페 저(박종대 역), “정의”, 이제이북스, 2004.
- 오현철, “시민 불복종 : 저항과 자유의 길”, 책세상, 2001.
- 올리비에 크리스텡(채계병 역), “종교 개혁”, 시공사, 1998.
- 요슈타인 가아더(장영은 역), “소피의 세계1”, 현암사, 1994.
- 요한네스 힐쉬베르거(강성위 역), “서양 철학사 3권”, 이문출판사, 1988.
- 윌리엄 J. 프라이어(오지은 역), “덕과 지식, 그리고 행복”, 서광사, 2011.
- 유명종, “송명 철학”, 형설출판사, 1985.
- 유원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행복의 조건을 묻다”, 사계절, 2009.
- 윤사순, “한국 유학 논구” 현암사, 1991.
- 이기상, “실존 철학”, 서광사, 2002.
- 이기상, “서양 철학의 수용과 한국 철학의 모색”, 지식산업사, 2002.
- 이동주,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움”, 시공사, 1996.
- 이병욱, “한국 불교 사상의 전개”, 집문당, 2010.
- 이서행, “한국 윤리 문화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 이석호, “고대 · 중세 서양 윤리 사상사”, 철학과 현실사, 2009.
- 이석호, “장자”, 삼성출판사, 1989.
- 이세동, “대학 · 중용”, 을유문화사, 2007.
- 이승민 · 강안, “청소년을 위한 추천 영화 77편”, 씨네이십일, 2006.
- 이용필 편, “마르크스주의”, 인간사랑, 1990.
- 이정전, “시장은 정의로운가”, 김영사, 2012.
- 이종은, “평등, 자유, 권리”, 책세상, 2011.
- 이종훈, “현대 사회와 윤리”, 철학과 현실사, 1999.

- 임석진, “철학 사전”, 이삭, 1983.
- 임혁백, “시장 · 국가 · 민주주의”, 나남출판사, 1994.
- 장선희, “페미니즘과 페미니즘 윤리”,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 장 자크 루소(김성범 역), “사회 계약론”, 부북스, 2011.
- 장 폴 사르트르(방곤 역),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문예출판사, 1999.
- 전용만, “불교학개론”, 불교대학교교재편찬위원회, 1997.
- 정승우, “인류의 영원한 고전 신약 성서”, 아이세움, 2007.
- 정제원, “고전 탐독”, 평단문화사, 2011.
- 제오프 다이더 · 스티븐 파딩(한성경 · 하지은 역),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명화 1001점” , 마로니에 북스, 2007.
- 제임스 레이첼즈(노혜련 · 김기덕 · 박소영 역), “도덕 철학의 기초”, 나눔의 집, 2010.
- 조동일, “학문론”, 지식산업사, 2012.
- 조르조 본산티 외(안혜영 역), “유럽 미술의 거장들”, 마로니에 북스, 2009.
- 조지프 슘페터 저(변상직 역), “자본주의 · 사회주의 · 민주주의”, 한길사, 2011.
- 존 롤즈 저(황경식 역), “사회 정의론”, 서광사, 1985.
- 최용철, “윤리란 무엇인가, 묻고 생각하다”, 간디서원, 2012.
- 최용철, “인간 행위의 탐구”, 자작아카데미, 1999.
- 최희봉, “철학의 근본 문제에 관한 10가지 성찰”, 자작나무, 1997.
- 카를 마르크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이진우 역), “공산당 선언”, 책세상, 2002.
- 칸트(백종현 역), “실천 이성 비판”, 아카넷, 2005.
- 캐롤 길리건(허란주 역), “다른 목소리로”, 동녘, 1997.
- 케니스 맥리쉬(장영란 역), “아리스토텔레스”, 궁리, 2001.
- 토마스 모어(권혁 역), “유토피아”, 돋을 새김, 2006.
- 폴 테일러(김영진 역), “윤리학의 기본원리”, 서광사, 1985.
- 풍우란(박성규 역), “중국 철학사 상 · 하”, 까치, 2011.
- 플라톤(강성훈 역), “프로타고라스”, 이제이북스, 2011.
- 플라톤(김인곤 역), “고르기아스”, 이제이북스, 2011.
- 플라톤(박종현 역), “국가 · 정체”, 서광사, 2006.
- 플라톤(박종현 역),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서광사, 2003.
- 피터 싱어(김성한 역), “사회 생물학과 윤리”, 인간사랑, 1999.
- 피터 하비(허남결 역), “불교 윤리학 입문”, 씨아이알, 2010.
- 한국사상사학회편, “한국 사상사 입문”, 서문문화사, 2006.
- 한국사상연구소, “자료와 해설, 한국의 철학 사상”, 예문서원, 2010.
- 한나 아렌트(김선욱 역), “칸트 정치 철학 강의”, 푸른 숲, 2002.
- 한병철(김태환 역), “피로 사회”, 문학과지성사, 2012.
- 한상기, “철학의 길잡이”, 원미사, 2000.
- 한자경, “불교 철학의 전개, 인도에서 한국까지”, 예문서원, 2003.
- 헤로도토스(박광순 역), “역사”, 범우사, 1987.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강승영 역), “시민의 불복종”, 은행나무, 2011.
- 현각,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1”, 열림원, 2000.
- 홍응명(한용운 강의), “채근담”, 학원사, 1990.
- 황경식, “정의론과 사회 윤리”, 철학과 현실사, 2012.
- 황광욱 외, “한 권으로 읽는 한국 철학”, 동녘, 2007.
-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사계절, 2002.

사진 인용

Ⅰ.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의의

유로크레온

10(기름 제거), 11(상), 11(하), 12(좌상), 12(좌하), 12(하), 16(하), 18(좌), 20(좌), 21(중), 21(하), 25(하), 26(좌), 27(하), 31(상좌)

연합뉴스

17(하)

토픽포토

9(배경), 10(합성 이미지 4개), 12(좌중), 15(우상), 27(상, 2개 합성)

구글 이미지

10(시위), 14(하), 17(상), 19(우상), 22(좌상), 22(하), 23(우상), 23(우중우), 23(우하), 24(상), 24(하), 28(상, 좌우), 30(상), 30(좌중), 31(상우)

Ⅱ.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유로크레온

34(중우), 34(하좌), 34(하우), 35(하), 37(중), 38(중), 38(하), 41(상), 41(하), 47(상), 48(중), 48(하), 49(중), 51(중상), 54(하), 55(하, 인물), 56(하), 59(하), 60(우중), 62(하, 다산초당), 65(하), 66(상), 66(중), 73(상), 74(중), 76(하좌), 80(상), 82(하좌), 84(상), 85(중), 86(상), 95(중), 98(하), 99(중), 100(상), 103(상), 107(중), 114(중), 116(하), 118(하), 119(하), 120(하), 121(중), 123(하좌), 131(하)

연합뉴스

44(상), 57(하), 60(좌중), 91(중, 법정), 123(하우),

토픽포토

34(중좌), 42(상), 42(좌), 79(하), 89(하)

뉴스뱅크/뉴시스

122(하)

구글 이미지

35(상), 36(좌), 40(하), 44(중), 45(상좌), 45(상우), 45(하), 47(중), 51(중, 분서갱유), 51(하), 52, 54(상), 55(상), 55(하, 인물), 56(상), 57(상), 62(좌중), 63(하), 64(상), 64(중), 64(하좌), 64(하우), 68(상좌), 68(상우), 68(중좌), 68(중우), 68(하), 69(상), 69(하좌), 69(하우), 71(상), 71(중), 75(하, 그림 6개), 76(하, YMBA), 77(상), 77(하), 78(상), 79(상), 82(하우, 사발), 83(하), 84(하), 87(상우), 87(하), 88(하우), 88(하좌), 89(중좌), 89(중우), 92(상좌), 92(좌), 92(우 4개), 94(상), 95(상), 97(중), 98(상), 100(하), 101(상), 102(상), 105, 106, 108(하), 111, 112(상), 112(중), 114(상좌), 114(상우), 118(상), 118(하, 혁거세), 120(상), 120(중), 121(상), 122(상), 122(중), 124(상좌), 124(상우 4개), 126(상좌), 126(중), 127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시공사)

102(하)

국립중앙박물관

104(하)

Ⅲ. 서양 윤리 사상

유로크레온

130(중우), 131(상좌), 131(상우), 133(하), 134(하, 좌우), 136, 139(상좌), 139(중), 146(하, 좌우), 147(중, 우우), 147(중하), 152(상), 154, 155(하), 156(상), 157(상), 159(중), 161(상), 161(하), 162(상), 164, 166(상좌), 167, 169(하), 172(중), 172(하), 174(하), 176(좌), 176(우), 180(상), 181(상, 배경), 181(하), 184(하), 185(하), 186(하), 194(상), 195(상), 195(하), 196, 201(상), 207(상우), 209(상좌), 209(상중), 209(중), 210(상), 211(상), 211(중), 215(중, 피라미드), 215(하), 218(상좌), 218(상중), 218(상우), 219(상), 220(중), 225(하), 227(상, 휠체어)

연합뉴스

147(하), 175

토픽포토

141(하), 226(하)

숭실대박물관

131(중)

공익광고협의회/한국방송광고공사

227

한국 여성의 전화

223(하)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철학의 역사"(시공사)

132(하), 186(상), 198(상), 204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시공사)

222(상)

구글 이미지

130(중좌), 130(하좌), 131(상중), 131(중), 132(상), 133(중), 134(상), 138(상), 139(상우), 142(상), 143(상), 144(상), 146(상) 148(중), 148(중좌), 151(중), 155(상), 157(하), 158(상), 160(하), 166(상우), 166(중), 169(상), 170(상), 170(하좌), 170(하우), 171(상), 171(하), 172(상), 173(중), 173(하 밑), 173(하, 면벌부), 174(상), 178(상좌), 178(상우), 178(하), 179, 183(상좌), 183(상우), 184(상), 184(중), 185(상), 185(중), 186(중), 187(하), 188(상), 188(하), 190(상), 191(상), 192(하), 197(하), 198(하), 200, 201(하), 203, 206(상우), 207(상좌), 209(하), 212(중우), 213(중), 213(하), 215(상), 215(중좌), 216(중), 216(하), 217(상), 219(하), 221, 223(중), 224(상), 224(중), 224(하), 225(상), 228(하), 230(상), 230(하), 231(상좌), 231(상우), 231(하)

Ⅳ. 사회사상

유로크레온

232, 234, 235(상우), 236(상), 237(상), 237(하), 238, 240, 245(상좌), 245(하, 인물), 246(하), 249(상), 250(상), 251(상, 4개), 254(상), 255, 257(상4), 262(중), 272(중), 274(좌상), 274(좌중), 275(우상), 275(우하), 278(하), 282(상우), 286(하), 287, 288(하, 4개), 290(중), 291, 293(하), 294(상), 295(하), 299(하)

연합뉴스

235(상좌), 245(상우), 254(하), 257(상1), 261(하), 276(상우), 280(중), 301(중좌), 301(중우)

토픽포토

235(상중), 236(하, 2개), 245(상중), 247, 248(하), 252(중), 252(하), 253(상), 276(상좌), 295(상)

구글 이미지

239(하), 242(상), 242(중), 243, 246(상), 248, 257(상2), 257(상3), 258, 259(상), 259(하), 260, 261(상), 263(상), 264(좌), 264(우, 3개), 266(상좌, 상우), 267(상, 중), 269(상), 269(중), 271(상), 273, 275(우중), 276(하), 277(중), 279(중), 281, 282(상좌), 283, 284(상), 284(중, 4개), 286(상좌), 286(상우), 288(중, 마르크스), 290(상), 290(하), 292(상), 292(하), 293(상), 294(하), 296(좌, 3개), 296(하), 297(상), 298(상), 300(상), 302(상), 302(하, 4개), 304(상), 304(중), 304(하), 305

※집필진의 직접 집필인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았음.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진 및 삽화 등은 저작자 및 발행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임.

집필진

박병기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박사
(현)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윤혜진 전북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철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
(현)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김국현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석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박사
(현)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정준교 동국대학교 국민윤리학과 졸업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석사
(현) 문일여자고등학교 교사

황성규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 졸업
중국인민대학 대학원 중국철학 석사
중국인민대학 대학원 중국철학 박사
(현) 보문중고등학교 교사

박창수 한국교원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졸업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철학교육과 석사
(현) 마포고등학교 교사

김동창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졸업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석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박사 과정 수료
(현) 부곡중앙고등학교 교사

이철훈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졸업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철학교육과 석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박사 과정 수료
(현) 상현고등학교 교사

만든 사람들

개발 책임 황해영
편집 오세중, 이현주
디자인 디바젤
삽화 김수정, 인성, 김수연
컷 김상준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 심사를 하였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2014. 3. 1. 초판 발행 2015. 3. 1. 2쇄 발행 발행정가 원
지은이: 박병기 외 7 인
발행인: (주)지학사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6길 5
인쇄인: (주)벽호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43

이 교과서의 본문 용지는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전화 1566-8572, 누리집 주소 http://www.textbook114.com** 또는 **http://www.교과서114.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전화 02-2608-2800, 누리집 주소 http://www.korra.kr)**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내용관련문의: (주)지학사 콘텐츠본부 사회팀 전화 02-330-5462 전송 02-325-7111
공급업무대행: (사)한국검인정교과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당재봉로 29-28
개별구입문의: 누리집 주소 www.ktbook.com 전화 031-8071-7981~4 (사)한국검인정교과서
누리집 주소 www.jihak.co.kr 전화 02-330-5302 (주)지학사

ISBN 978-89-05-04007-9 53190